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제3호  
간행일 1990년10월  
총 258쪽

同窓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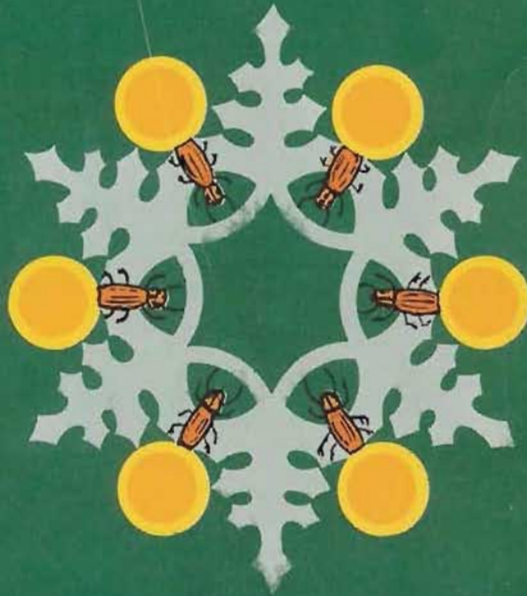
第 3 號

1990.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同窓會誌

第 3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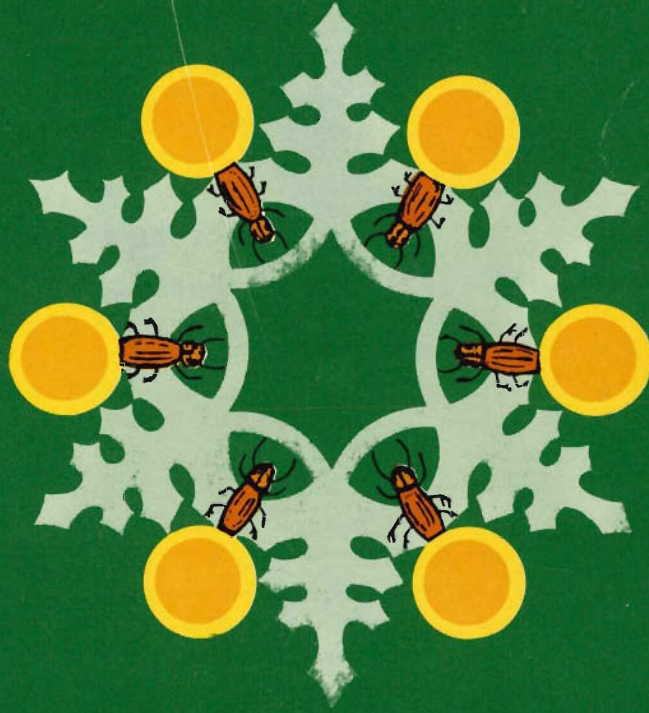


1990.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同窓會誌

第 3 號



1990.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祝

同窓會誌 3號 發刊

東西文化

# 架橋의 35年

祖國의 先進文化 輸入의 媒介誌로  
서 參與한지 35개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文化의 창달에 熱과  
誠을 다하겠습니다.



汎韓書籍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新門路 2街 1-222

電話: 733-2011(代)~2018, FAX: 736-8696

社長 金 允 善 南中 28回

# 同窓會誌

第 3 號

1990.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祝

# 同窓會誌發刊

## 第 3 號

###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任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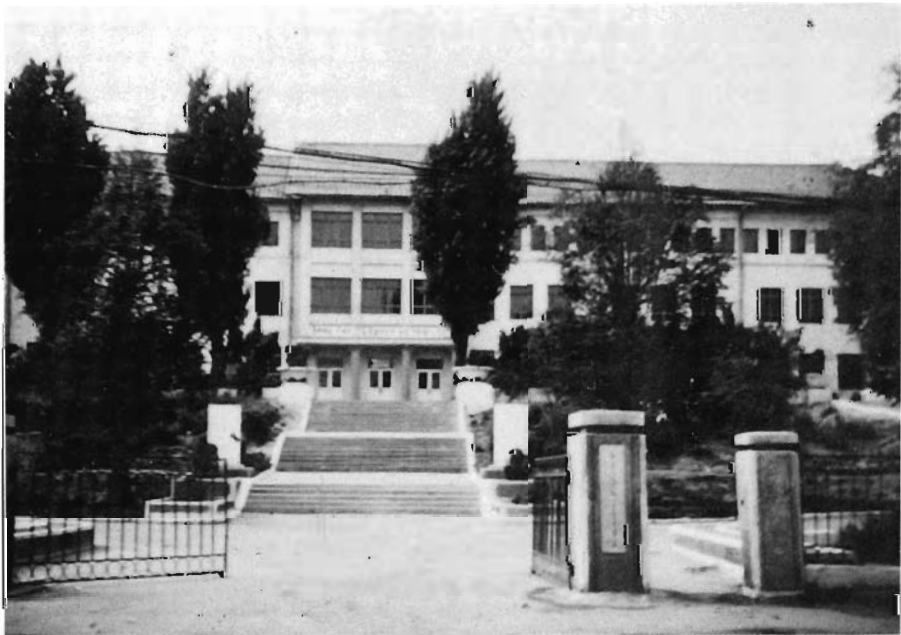
名譽會長	1回	李東準	松坡區 蠶室5洞 住公APT. 518-806	423-1630
會長	23回	朴東昂	江南區 開浦洞 449-3 現代APT. 202-808	576-3636
副會長	21回	朱仁鎬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副會長	26回	韓鼎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副會長	27回	元章煥	東大門區 清涼里洞 美洲APT. 7-403	964-0455
監事	29回	鄭哲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APT. 6-105	274-0928
總務	30回	朴容夏	城東區 玉水2洞 現代APT. 101棟 202號	297-9821
副總務	32回	金仁和	道峰區 번동 138-377	983-7105

### 在美洲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任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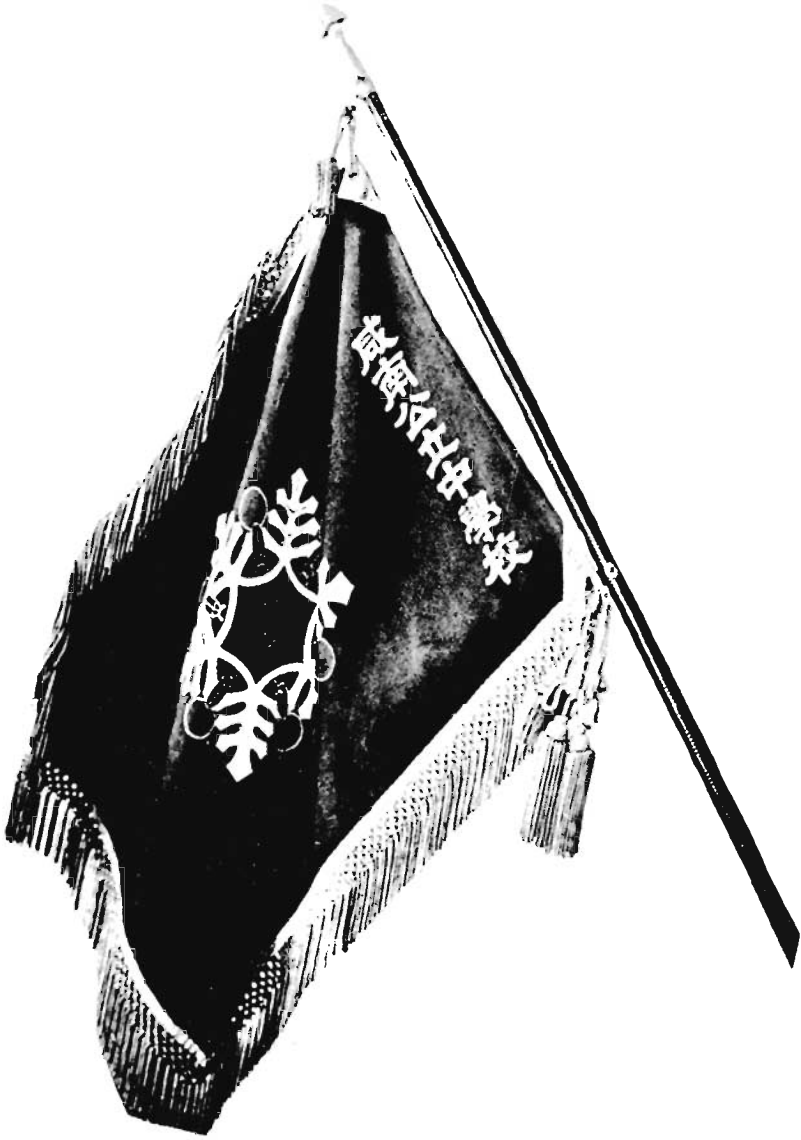
顧問	8回	馬鍾國	17060 KING JAMES WAY LONDONDERRY TOWER. #520 CAITHERSBURG, ME 20877	(301)869-4157
顧問	15回	金子勳	163-64 20 AVE. WHITESTONE, N.Y. 11357	(718)352-9436
顧問	15回	金基惠	144-14 38 AVE. #4C FLUSHING, N.Y. 11357	(718)939-1713
會長	15回	金瑩次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7024	(201)585-0813
副會長	20回	李壽永	621 EAST MAIN ST, EERGENFIELD, N.Y. 07621	(201)385-9123
	29回	金淳郁	1275 15TH ST. #5L FORT LEE, N.J. 07024	
	30回	韓萬燮	12904 S.E. 45TH LANE BELLEVLUE W.A. 98006	(206)641-5739
總務	30回	高勝榮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718)352-9087



옛 母校의 모습



母校자리의 지금 모습(89.4)  
※ 東興山男子高等中學校



교기



## 歷代會長



初代會長 金東準



二代會長 金連珪



三代會長 姜洙栢



四代會長 金載元



五代會長 朴東昴





朴東昂 會長 就任人事



新舊會長 離就任式



1989年度 同窓會 定期總會  
(1989. 10. 9. 於以北五道廳大講堂)



1989年 同窓會定期 總會 會食  
(1989. 10. 9. 於以北五道廳 小講堂)



在美洲支會同窓會



四代 故 金載元 會長 永訣式

# 目 次

## ■ 寫眞 / 母校, 校旗, 歷代會長, 同窓會 이모 저모

머리말 會長 朴東昂 .....	11
沿革 .....	13
同窓會 會則 .....	15
追憶 .....	17
“By your own effort”와 “ 강한 政治”	姜錫福(6회) .....
學友 故金載元君의 他界를 哀悼함	馬鐘國(8회) .....
負笈萬里 나의 유림留學의 길	金載元(9회) .....
動亂中 咸興에서 만난 兄의 家族	金滄次(15회) .....
“대모”와 술	金熙春(15회) .....
두고온 내고향 咸興	朱槿源(19회) .....
어머님 목소리	李基炯(20회) .....
歸州寺	李基炯(20회) .....
이루지 못했던 나의 꿈	咸 哲(20회) .....
動亂中의 開城紀行	元勳基(21회) .....
回想에서 所望으로	全明洙(21회) .....
한글 뿌리에 관한 考察	朱仁鎬(21회) .....
追憶	崔昌奎(21회) .....
失季節과 나	韓喬石(21회) .....
그리운 金剛山數學旅行	金禧庚(22회) .....
老스승 韓순현先生님에게	韓淳輔(22회) .....
토끼사냥과 追憶 몇가지	朴昌均(23회) .....
高普에서 南中으로의 轉換期	李漢淳(23회) .....
내가 꾸는 꿈	정양은(23회) .....
나의 중학시절의 교육에 대한 소감	趙誠福(23회) .....
중국의 한인들과 민족통일	玄鳳學(23회) .....
鷄助之辯	朴泳馥(24회) .....
말이 많은 世上이다	韓錫範(24회) .....
山	韓時坤(24회) .....
완집(옛 급우)에게 보내는 편지	한학륜(24회) .....
望鄕片想	韓承五(25回) .....
長壽의 日常生活	石東壽(26회) .....
咸南中學 乘馬部	李三悅(26회) .....
어느 정구 시합	韓全淑(26회) .....
三級滑空士의 꿈과 乘馬	韓鼎燮(26회) .....

解放德分으로 大學가게 된 事緣과 南中時節에

몸에 밴 矜持가 나의 資産

母校와 先親

體操劣等生

Vacacion의 有感

홍원의 송가

꿈 이야기

진퇴 양난의 북한의 처지

同窓會 有感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이야기

미움과 사랑의 歲月

해외에 사는 사람들

학창시절의 추억 몇토막

마라톤 경주(競走)

沙工

살아가는 나날

今世紀의 한 時期

獨逸 兵丁

우리 母校에서의 學生運動

요즘 患者들

8·15解放과 3·13學生義舉와 30期

귀주사와 나

나의 조류 연구 행적

狂

飛行機의 回想

經綸(경륜)

이북땅의 어머니

歸鄉記

감상적 통일론

時間

咸興詩集

국어사랑

智異山 縱走記

■ 同窓會 會員 및 期幹事, 會員 名簿	215
■ 美東部 地域 支會 任員 및 會員 名簿	248
■ 作故會員 名簿	254
■ 編輯後記	258

沈鳳燮(27회)	107
劉 鋼(27회)	109
李鴻範(27회)	112
韓弘模(27회)	115
김봉식(28회)	117
金鍾殷(28회)	118
李命英(28회)	121
趙東喆(28회)	124
朱赫淳(28회)	126
韓炯周(28회)	134
김순옥(29회)	139
金載範(29회)	141
金在楨(29회)	144
李正昊(29회)	146
임순균(29회)	148
鄭哲周(29회)	154
朱東雲(29회)	160
韓依天(29회)	163
韓鎭慶(29회)	175
金秉喆(30회)	179
신유항(30회)	182
원병오(30회)	183
李鎬植(30회)	186
韓萬燮(30회)	189
金濬浩(31회)	191
金致敬(31회)	193
朴炳元(31회)	195
朴祚烈(31회)	198
金載坤(32회)	201
鄭源石(32회)	203
徐潤煥(33회)	206
朱宣淳(33회)	209



## 同窓會誌를 내면서

새로운 同窓會誌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렵게 發刊되어 더욱 기쁩니다. 珠玉같은 同窓글이 많이 담겼으니 마냥 즐겁기도 합니다. 會誌를 손에 쥐면 꿈과 理想을 쫓던 青春時節로 되돌아 가는 듯 합니다. 아카시아 꽃냄새가 스며드는 것 같고 城川강물 소리도 들립니다. 막내同窓 나이가 60고개를 오르내리니 우리 同窓會야말로 성숙된 失鄉民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경도 제일가는 엘리트 集團임을 잊을 수 없길래 이 한권의 會誌가 더욱 所重하게 생각됩니다.

一生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것이 中高等學校 同窓이라고 합니다. 국민학교는 철없는 時節이고 大學은 社會進出을 爲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同窓會誌는 우리들의 가장 重要한 人生記錄을 수록한 책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同窓會誌에는 아직도 많은 餘白이 남아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三·八以北의 동창들의 이름과 動向을 수록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북의 우리 동창이름이 우리 會誌에 記入될 때가 바로 南北統一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統一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 집니다. 끝으로 本誌의 편집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構成하고 여러차례의 편집會議를 거쳐 원고청탁과 편집조정을 했음을 會員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본지에 기고하여 주신 會員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무리한 부탁을 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편집과 교정등에 전력을 다해 주신 한정섭 동문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적하고 고향 생각이 나실때 이 會誌를 읽으시면서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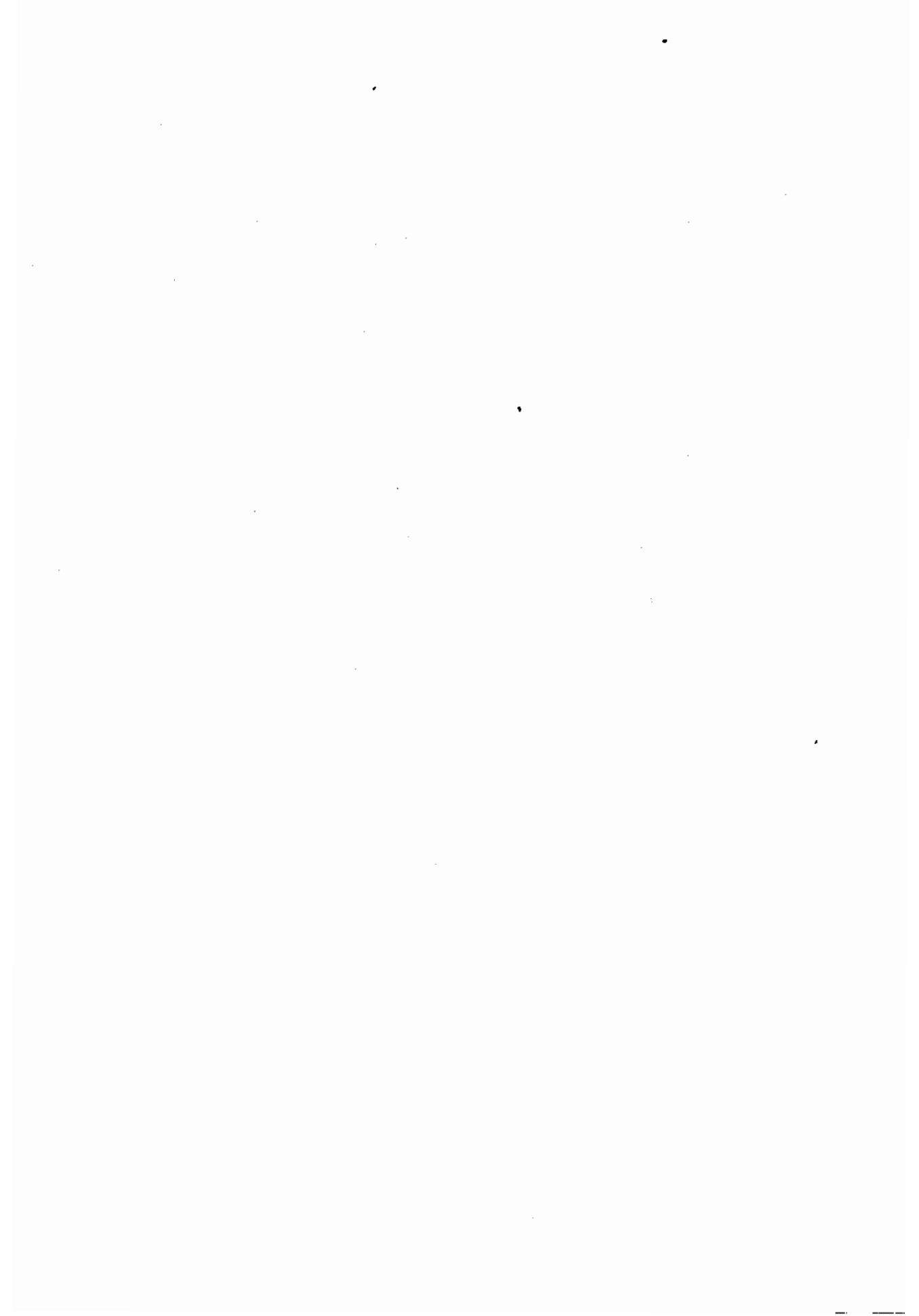
1990年 8月 22日

同窓會會長 朴東昂



## 咸南高普(咸南中學)沿革

- 1897 : 咸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 1905 : 私立豐興學校
- 1908 : 咸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 1911 : 咸興私立高等普通學校
- 1918 :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 1925 : 咸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 1938 : 咸南公立中學校
- 1935 : 咸南中學校
- 1947 : 學制改編으로 閉鎖



#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咸興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校)同窓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調 團結을 公고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會員 : 私立咸興高等學校, 私立咸興高等普通學校,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咸南公立中學校 및 咸興中學校 卒業者와 同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2) 特別會員 : 母校에 在職하였던 敎職員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 同時에 會務에 關한 發言權과 決議權을 갖는다. 但, 特別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 長 1名

副會長 3名

監 事 1名

總 務 1名

副總務 1名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4) 會長 有故時는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會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攻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第九條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合同 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期間동안 會務



에 參與하고 次期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第十條 各 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키로 한다.

### 第三章 會 議

第十一條 本 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 : 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 安件의 承認
- (2) 臨時總會 : 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員會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 (4) 幹事會 : 各期別 幹事의 會議로서 任員會의 要請으로 開催할 수 있다.

### 第四章 財 政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豫置한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九月三十日로 한다.

### 第五章 補 則

第十五條 本 會則 第二條의 支會를 設置하고자 할때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比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는다.

第十七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를 出席會員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十八條 本會則 未備點은 任員會의 決議에 依據 處理키로 한다.

第十九條 本會則은 通過된 날부터 施行한다.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 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 九日

追憶



萬歲橋



## “By your own effort”와 “ 강한 政治 ”

姜錫福(6回)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대처”수상이 좋아하는 말로, 英語로는 “by your own effort”이다. 바로 “鐵의 女人(iron lady)”이란 別名에 걸맞는 대응이다. 元來이 별명은 蘇聯의 “프라우다”紙가 붙여 주었다. 정작 “鐵의 女人”이란 이미지가 蘇聯쪽에 유감없이 비추어진 것은 웃지못 할 아이러니다.

1982년 蘇聯 수상 “브레즈네프”가 죽었을때 “대처”수상은 런던 주재 蘇聯大使館에 설치된 빈소를 찾지 않았다. 蘇聯에 대한 그 정도의 好意에도 그는 인식했다. 英國議 會史上 43명의 首相이 탄생했지만 女首相은 “대처”가 처음이다. 1979년 總選勝 이후 세계의 매스컴들이 그 사실을 떠들어대자 “대처”는 단호하게 말했다. “政治家에게 男性, 女性의 구별이 있을수 없다. 能力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만이 있을뿐이다.”

“대처”는 밖으로는 포클랜드 戰爭의 승리자로, 안으로는 英國病의 치유자로 鐵人의 모습을 빈틈없이 보여주었다. 英國病이라면 失業者와 年25%나 되는 인플레이와 파운드貨의 폭락이란 三重苦가 겹친 이른바 “트리-레머”經濟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처”는 그 原因을 “지나친 平等主義”에 의한 “게으른 사람들의 天國”에서 찾았다. 따라서 유일한 치료법은 철저한 競爭原理의 존중이었다.

“대처”는 1979년 首相職에 도전하는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았다. “나의 책임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책임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대처”는 首相 8년동안 “賃金を 올리라”는 鑛山 노동자, 工場 근로자, 공무원들의 요구와 폭동에 직면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바이 유어 오운 에퍼트”—이것만이 英國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때마다 매스컴들은 “대처政權”의 붕괴를 예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健在하다.

雜貨商겸 야채 가게의 2女로 태어나 장학금으로 옥스퍼드大學에 진학해 化學과 法律을 전공, 辯護士 자격을 따고 그 이듬해엔 쌍둥이 아기까지 분만, 하루 잠자는 시간은 3시간. 그래도 바쁜 生活에 만족하고 있다. 바로 그 “鐵의 女首相”이 1986년 3월에 韓國을 방문, 2泊 3日후 귀국한 일이 있었다. 韓國에 自由가 얼마나 있다. 데모중에 최류탄과 화염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간 “대처”首相의 心中은 어떠하였을까. 美國 “뉴욕”에 본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自由와 人權 상황을 지켜보는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自由評價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韓國은 겨우 최하의 非自由國家를 면할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

“ 강한 政治 ”라면 아마 軍事獨裁쯤을 생각할지 모른다. 집권자의 말한마디로 온 天下가 잠잠해지는 政治말이다. 사실 이것은 “ 강한 獨裁 ”지 “ 강한 政治 ”는 아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요즘 英國의 “대처”首相으로부터 강한 政治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대처”는 師團長을 지낸 將軍출신도, 國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直選大統領도 아니다. 內閣責任제의 議會에

서 간접선출된 首相일 뿐이다. 그는 印象 그대로 63세의 할머니. 거친(?) 政治風土에는 덜 어울리는 미모를 갖춘 女性 政治人이다. 바로 그가 執權 3천 1백 67일(8년 8개월)이라는 英國議會史上 가장 오랜 首相在任의 記錄을 세웠다. 世界 제1차大戰 때 自由黨의 “애스쿠스”(1908-1016)首相이 갖고 있던 기록을 능가했다. “대처”의 長期執權을 가능케한 비결은 바로 “強한 政治”였다. “대처”式 強한 政治는 많은 著述家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대처”는 문제의 核心을 파악하는 洞察力을 갖고 있다. 1975년 保守黨 당수선거에 나설 때 그는 英國病의 原因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었다. 醫師가 첫째 임무로 病의 근원을 캐듯이 大英帝國의 名宰相이 되기 위해 그는 英國病의 근원을 찾는 일부터 했다. 둘째, 그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果斷性을 보여 주었다. 그야말로 殺身成仁의 決斷으로 문제에 뛰어 들었다. 大企業의 民營化, 市場경제활동의 보장, 국가간섭의 최소화, 個人所有 확대에 의한 大衆資本主義의 실현, 勞組의 파업규제, 對蘇강경路線, 독자적인 安保능력 확보 등을 이룩하였고, 英國自動車業이 쓰러져 가고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일갈했다. “地球를 반바퀴나 돌아 들어온 日本車와 경쟁 할 수 없다면 문제는 英國車에 있다.”

原則과 政策방향이 분명히 옳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대처”式 강한 정치였다. 政治人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대처”는 보여주고 있다. 결국 國民도 그런 政治人에겐 끊임없는 박수를 보낸다. 오늘 “대처를 두고 長期執權獨裁者라고 하면 아마 英國 사람들이 먼저 웃을 것이다.

## 學友 故金載元君의 他界를 哀悼함

馬 鐘 國 (8回)

君은 日帝의 壓政을 무릅쓰고 일찌기 獨逸과 白義利에 留學을 敢行하여 考古學을 專攻, 研修, 榮譽의 博士學位까지 取得하고 錦衣歸國하여 後進養成과 一般國民의 教養提高를 爲하여 大學에서 講義하고 또 著述까지 하여 우리 祖上들이 이룩한 崇高燦爛한 業績을 昭詳하게 傳授하여 우리 國民에게 民族的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게 해 주었으며, 國立博物館長 在任時에는 그 當時 6.25動亂으로 逸散 支摩滅裂된 高貴한 各種 展示品들을 根氣있게 收拾整理하여 君 스스로 考古學의 見地에서 國內外 觀覽者들에게 알기 쉽고도 流暢하게(外國人에 對해서는 英, 獨語로) 說明하여 우리 民族의 文化藝術面에 있어서의 天賦的 才質을 널리 讚揚, 紹介하였고 學術院會員으로 選任되어서는 國政諮 問에 欽快히 應하여 正義에 入脚한 公明正大한 助言을 서슴치 않고 하는 등 君이 그 짧은 生涯에 國威宣揚을 爲하여 남긴 業績은 實로 至大하다고 하겠소.

특히 威高同窓會 會長職을 맡음에 있어서는 同窓會誌發行을 劃策, 諸般難關을 克服하고 이를 實現케하여 그 當時까지 뿔뿔이 흩어져 生死조차 알지못하고 있었던 同窓들의(특히 越



南한 同窓) 存·所在와 現況을 明確히 收集, 發表함과 同時에 會員들의 回顧談을 실어 懷舊之情을 새롭게 하여 주었음은 可贊할 만한 일로 그 고마움 그지없소.

그리고 治家에 있어서는 民主를 爲主로 함으로서 家內雰圍氣는 恒常 화기에애하였고 子女들의(1男3女) 教育은 各自의 素質에 따라 專攻分野를 設定, 國內外에서 最高學部에 까지 修學케 하였으며, 學業을 마친 後에는 海外留學者는 無條件 歸國시켜 모두 祖國을 爲하여 奉仕하도록 하였으니 이 또한 君 本然의 民主愛國的 措置였다고 높이 評價하고 싶소.

이와같이 하여 이제는 마지막이 된 筆跡이 되고 말았지만 君은 지난번 新年人事狀에서 以上과 같이 子女들에 對한 父母로서의 責任도 完遂하였으니 앞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老後를 悠悠自忍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무슨 異變일까. 그로부터 數個月도 못되어 뜻밖에 君의 訃報에 接하게 되다니 人生無常이라고 하나, 하느님도 너무 無心하군요, 그저 驚嘆不已, 哀痛益切할 뿐, 새삼 君의 그 어질고 너그러운 風貌와 國家, 民族을 위하여 남긴 그 빛나는 業績을 거듭거듭 想起, 感歎하면서 삼가 君의 冥福을 비는 바이오.

1990년 5월 5일

## 負笈萬里 나의 유럽留學의 길

金載元(9回)

내가 威興高普를 졸업한 해는 1927년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해에 學校에 入學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1926년, 8회로 졸업하였다. 5學年에 올라왔을 때 나는 雲興里에 살았다. 그런데 新學期가 시작되고 얼마후 나는 장티프스에 걸렸다. 5月初 겨우 新綠이 무성하기 시작할 때 나의 故鄉집이 있는 地境(後에는 威南 興上)이라고 불리운 威興과 定平사이의 시골집에 왔다. 지금과는 달리 장티프스는 40日病이라고 불리우는 難治의 병으로 高熱이 오래 계속되어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數 주일후 熱이 내렸을때는 아직도 遺사귀가 나지 않았을 大門 앞 포플라가 무성하게 되었었다. 나는 이렇게 병에서 살아 남았으나 나를 看護하던 叔父는 傳染되어 그것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叔父를 看護하시던 첫째 叔父가 다시 感染, 이렇게 한 집안에서 壯年 들이 死亡-이해는 내가 一生 경험한 最惡의 해가 되었다. 이런 家庭의 不幸으로 나는 威興高普 5學年初 病患으로 因한 休學(一時 退學 形式)을 하였다가 다음해 復學하였다.

다른 學友들은 卒業하고 난 다음 나 혼자서 예전 下級生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여간 싫지 않았다. 그래서 1주일이면 절반쯤 登校 하다가 피하고 졸업하여 집에 왔을때는 나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上級學敎 入學準備는 그러한 상태에서 거의 不可能 하였다. 이때에 생각한 것이 멀리멀리 일본 보다도 더 먼 나라로 留學가는 일이었다. 실로 唐突한 생각이었

다. 그것도 유럽중에서도 독일로 가는 일이었다. 왜 하필 독일? 나의 親戚중에 독일에 가서 音樂工夫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결국 音樂工夫(바이 올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만 사람이거나 나도 名目上 音樂을 공부하러 간다고 하여 旅券을 申請하였다. 지금 생각 하여도 어디서 그런 勇氣가 났는지 몰라도 그러한 海外留學目的을 내걸고 나는 旅券을 발급 받았다. 물론 威興警察署에 있는 刑事 5,6명을 料亭에 초청하여 그때로는 大金 30원을 들여서 크게 酒宴을 내었다. 생각하면 웃을 일이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리하여 日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政治에서 먼, 학문이 아닌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여 旅券을 손에 넣었다.

그때의 나이가 20歲. 서울 三越百貨店 안에 있는 일본 旅行社(Japan Tourist Bureau)에서 시베리아經由, 베를린까지의 소프트클래스(Soft Class) 표를 샀다. 途中 食堂車 비용까지 합쳐서 모두 3백원 가량이었다. 그런 旅費는 어디서 났느냐고? 나는 父母없이 半孤兒로 成長하였으나 早死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遺産이 5,6萬坪 되는 土地가 있었다. 그것을 東洋拓植會社에 抵當잡히고 3천5백원인가 하는 돈을 마련하였다. 우리 同窓會 젊은 분들은 東洋拓植會社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韓國에 있는 한국사람 땅을 뺏아 가기 위하여 農業增産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高利로 貸金하는 日人들의 植民地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搾取金融機關이었다. 그때 돈 3천5백원이면 지금 돈 數萬 \$에 맞먹는 돈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독일에서 博士까지 따가지고 온다는 나의 계획이었다. 물론 이 계획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크게 蹉跎이 생겼으나 그것까지 이곳에 털어놓을 생각은 없다.

하여튼 외톨이로 자라난 나에게 나의 果敢한 계획에 반대 충고를 한 사람도 없고 나의 독일 留學계획은 진행되었다. 그렇게 손에 넣은 旅券을 가지고 지금의 貞洞에 있는 蘇聯領事館에 가서 비자를 申請하였다. 蘇聯이라면 그때에도 벌써 日本 사람에게서는 위험한 나라였으나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데는 지상에 내리는 일없이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日本旅券을 가지고도 통과할 수가 있었다. 蘇聯領事館에서는 通過비자는 本國에 照會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3주일이 걸린다고 하였다. 사실 나는 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그들이 하라는 대로 3주일 후에 서울에 다시왔다. 그래서 약속한대로 비자를 받았다. 바로 그날 저녁 내가 묵은 여관에는 日本刑事 두놈이 찾아와서 나의 짐을 살살이 뒤졌다. 아직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던 나는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여행가는데 필요한 무슨 서류가 있느냐 물어보았다.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旅券을 내보였다. 그들은 일생에 그런것은 처음보는 모양으로 한참 뒤적거리다가 일본 外務大臣의 도장을 보고 이것은 外務大臣의 旅行“免狀”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였더니 그제야 안심하고 돌아갔다. 물론 그 旅券에는 외무대신의 큼직한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그것은 威興道廳에서 받은 것이었고 외무대신의 도장이 있어도 물론 日本 外務省에서는 직접 관계하는 일이 아니었다.

서울驛(그때는 南大門驛이라고 하였던 것 같다)을 출발하여 新義州에서 滿洲에 들어 간후 하얼빈(哈爾濱)을 지나서 蘇滿國境인 滿洲理驛을 지나면 오토포(Otopor)이라는 조그마한 蘇聯측의 小村에 이른다. 이곳에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蘇聯과 波蘭國境인 네그로로에

(Negroloye)를 지나서 베를린까지 서울에서 2주일의 긴 汽車旅行을 해야 되었다. 내 기억으로는 滿洲의 長春(後에는 新京이라고 불리웠고 지금은 瀋陽이라고 한다)에서는 上海쪽에서 오는 시베리아經由의 손님이 우리와 합쳐져서 그때부터 여러國籍의 사람들이 汽車가 停車할때마다 플랫폼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어 겨우 威興이나 구경하고 살아온 나는 그들과 마주치고 한두마디 말하는것 만 하여도 크게 신나게 생각되었다. 汽車가 시베리아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우리는 바이칼湖에 이르렀다. 큰 湖水를 본일없는 나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 때는 바로 봄도 약간 지났는데 湖水가에 있는 나무토막으로 만든 住民들의 집 窓가에는 예쁜 꽃이 꽃혀있어 비록 그 住民들과 접촉할 수도 말을 교환할 수도 없었으나 그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촌사람이 未知의 世界 속에 들어온 것이 나자신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시베리아는 漠漠한 大平野로 汽車가 가면 갈수록 넓은 草原을 달리는데 그곳에 높은 山은 없었다. 地圖上으로는 우랄山과 알타이山이 있다고 하나 그곳을 지날때는 어느곳에 그런 山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평평한 곳이었다. 途中 치타라는 큰 都會가 있었으나 軍事秘密을 露出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런 곳에는 대개 밤에 기차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汽車는 3,4시간에 한번씩 쉴는데 그럴때마다 隣近의 農民들이 달걀, 우유, 소세지 같은 것을 팔려고 가지고 왔고 또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列車乘務員에게서 사갔다. 1929년이면 革命이 지나서 오래지 않은때라 物資가 궁핍하여 그런 물건을 사가고 또 停車場食堂에 와서 간단한 食事を 하고도 갔다.

나는 文學青年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러시아 小說같은 것을 즐겨 읽었다. 그중에서 印象에 남는 것은 [체홉]의 [골짜기]라는 短篇중에 한 老人이 죽은 어린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少婦를 자기의 馬車에 앉히고 위로하는 말 가운데서 "너의 슬픔은 헛슬픔이다. 얼마 안되어 또 모든것을 잊고 살것을-. 우리 어머니되는 이 러시아는 대단히도 크니라-".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 마지막 句가 제일 인상에 남는다. 러시아는 정말 큰 나라이다. 가도가도 끝없는 나라. 그것이 러시아이다. 지금 이 巨大한 나라와 우리는 이번에는 적대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한다.

우리는 우리의 旅程에 따라서 모스크바에 到着하였다. 모스크바에는 東,西에 두停車 場이 있어 東洋에서 오는 차는 東쪽에 와닿고 베를린等 유럽으로 가는 車는 그사이를 버스로 가서 갈아타야 된다. 적어도 그것이 그때의 事情이었다. 나는 東쪽驛에 내려서 市 中央廣場으로 가고 그곳에서 사보이호텔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역시 서울에서 산 쿠폰으로 먹을 수 있었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나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日本旅行客 들과 같이 日本大使館에서 부탁을 받은 韓國人 朴이라는 案内者의 뒤를 따라 모스크바의 名所를 구경하였다. 나는 그 朴씨에게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고 특별히 잘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朴씨는 나를 그리 반가와하지 않는 눈치였다. 모스크바에는 한국(조선)사람이 많아서 나라없는 사람이라고 동정을 받기는 하나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귀찮은 존재들이라고 하던 생각이 난다. 이 朴씨는 日本 사람으로 모스크바를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사람인데 후에 러시아 사람의 미움을 받아 그들이 國境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을 넘어서 폴란드쪽으로 가라고 하여 그가 國境을 넘어 저쪽 領土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총을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겨우 5,6시간 밖에 모스크바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구경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혹 다음 車를 놓치면 베를린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항상 신경을 곤 두세우고 다녔다. 모스크바에는 혁명전에는 400여개의 敎會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敎會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개만 敎회의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내가 본 敎會에는 많은 信徒들이 있었다. 모스크바에는 나폴레옹이 와서 시내를 내려다 보았다는 有名한 높은 언덕이 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보았을 市街의 구경을 하였다. 러시아 사람들은 스스로 都市에 불을 질러 결국 나폴레옹이 敗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나는 모스크바 西部에 있는 驛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떠났다. 도중 러시아, 폴란드 國境驛인 네그로로예를 지나서 폴란드를 通過하여 베를린으로 갔다. 네그로로예 國境驛에는 다음과 같은 큰 宣傳 포스터가 露,英,佛,獨의 4個國語로 붙여져 있었다. “萬國의 프롤레타리아들! 團合하라! Proletarias of All Nations, Unite!”

베를린에서 처음에는 안할터停車場, 다음에는 샤롯데부르크I을 지나서 샤롯데부르크 II停車場에 도착하였다. 내가 오는것을 알고 驛까지 올줄 알았던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旅行案内書를 보고 그랜드호텔 암크니(Grand Hotel am Knie)라는 호텔에 갔다. 그 호텔 3層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工夫하여야 할지 나의 속은 캄캄하기만 하였다.

## 後記

나는 이곳에서 그때의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경험하고 본대로 적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선 러시아-폴란드 國境, 폴란드-독일(東)國境도 달라졌다. 나는 20살에 독일에 가서 1940년 귀국할때까지 만11년을 지냈다. 귀국할 때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쓸려 있었다.

## 動亂中 咸興에서 만난 兄의 家族

金 滄 次 (15回)

### 1. 우리 雙童兄弟는 咸興高普同窓生

나는 雙童으로 出生하였으며 아우였다. 우리는 咸興第1普通學校를 거쳐서 咸興高普를 卒業한 同窓生이다. 나는 1933年(第 15回)에 卒業하였으며, 나의 小學校와 中學校의 同期同窓은 金子勳氏와 金道俊氏였으며, 서울 同窓會會長을 지낸바 있는 金連珪氏는 中學1年 後輩였

으나 늘 運動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親近한 사이였다.

우리 雙童은 中學을 卒業하면서 곧 上級學校에 留學할 것을 希望하였으나 年老하신 父親은 우리에게 당신이 一生하시던 장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장사를 하여 社會經驗을 쌓은 후에 進學하여도 늦지않을 것이라는 忠言에 依하여 우리는 父親의 敎示대로 冬節에는 西湖, 退潮, 三湖, 新浦, 新昌, 遮湖等地를 다니면서 生明太를 사서 덕에서 乾燥시켜 積置해 두었다가 다음해 寒食과 秋夕에 南韓 商人들에게 파는 明太 장사로서 재미있고 또 利益이 좋은 장사를 하였다.

또 穀物장사는 가을에 萬歲橋 너머에 있는 西上里米穀市場內 經驗이 豊富한 仲介人을 시켜 咸興平野에서 들어오는 가마니에 넣은 良質의 벼를 嚴選 買入하여 咸興驛近方에 있던 道倉庫에 入庫시키고 倉荷證券을 받아 咸興殖産銀行에 擔保로 제공하면 大端히 싼 利子率로 買入價의 90%에 해당하는 厚한 融資를 주었으므로 그 돈으로 또 벼를 買入하여 倉庫에 入庫시키면 上記와 같이 또 融資하여 주므로 比較的 적은 資本으로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利點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米穀들을 다음해 5,6月頃 모심을 때 精米業者들에게 파는 장사인데 特히 그 時期에 旱災나 洪水의 氣味가 있으면 米穀값이 뛰므로 倍장사가 되는 것이 普通인 좋은 장사였다. 그러던 중 1936년에 始作된 日支事變이 擴戰一路를 거듭하여 米穀과 明太는 漸漸 統制品化하여 個人取扱이 困難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兄弟는 장사를 그만두고 進學하기로 決心하고 아버지와 相議하니 70高令의 아버지는 兄이 먼저 工夫하러 가고 아우인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兄이 卒業하고 돌아온 後에 交代하여 工夫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提示하셨다.

## 2. 大學進學과 學兵

그리하여 兄은 1938年 3월에 早稻田大學專門部商科에 入學하였으므로 自己家族들을 데리고 東京에 가서 工夫하고 卒業하면서 歸家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내 家族들을 데리고 東京에 가서 早稻田大學專門部法科에 入學하여 工夫하던 中 1943年 10월에 뜻밖에 韓國學生들에게 學徒志願兵令이 내려졌다.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었으나 나는 強制志願당해 1944年 1月 20日 廣島所在西部 第7部隊(工兵隊)에 入隊된 우리 朝鮮學徒兵 13名은 그날부터 初年兵生活를 始作하였다. 同年 8월에 나는 甲種幹部候補生으로서 千葉縣松戶所在 工兵學校에 入校하여 第12期 甲種幹部候補生으로 8個月間 美軍空襲下에서 將校教育을 받았다. 1945年 4월에 工兵學校卒業과 同時에 見習士官으로서 平壤師團 第48部隊(工兵隊)에 轉屬되었다.

1945年 8月 15日 平壤工兵隊에서 解放을 맞았으며 8月 24日에 少尉로 除隊하여 8月末에 歸家하였다. 咸興집에서 約1年 지난後 1946年 9月 下旬에 保安隊가 우리집에 와서 나를 保安隊로 데려갔다. 나의 兵歷을 調査한 保安隊에서는 나외에도 日本時代에 學兵갔던 사람, 徵兵 또는 志願兵으로 갔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軍歷調査後 나와 함께 保安隊의 護圍下에 日本

時代의 兵事部에 引率해 갔다. 그곳에서 農村靑年들이 建物內에서 옷을 벗고 身體檢査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直感的으로 北韓政府가 秘密理에 北韓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多幸스럽게도 나는 그곳을 脫出하여 知人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興南에 가서 그날밤에 密木船으로 越南하여 兄님이 牧師로 계신 江陵으로 갔다. 1947年 3월에 株式會社 天友社가 創立되면서 나는 創立社員으로 入社하였다.

### 3. 韓國動亂과 카츄샤兵

株式會社 天友社에 在職中 1950年 6月 25일에 韓國動亂이 發生하였다. 나는 6月 28日 漢江 人道橋가 爆破된 그날 아침에 麻浦 나루에서 나룻배로 渡江하여 6月 31일에 釜山에 到着하였다. 釜山에서 約 1個月間 避難生活後 나는 8月初에 韓國軍에 入隊하였다. 身體檢査를 받은 後 우리들은 釜山 第1埠頭에서 乘船하여 다음날 橫濱에 到着하였다가 美軍들의 引率下에 省線으로 群馬縣 西小泉이라는 곳에 輸送되었는데 그곳은 韓國戰線에 出戰하기 爲하여 出動準備中인 美 第7師團野砲 第 49大隊가 駐屯中이었는데 나는 그 野砲大隊에 派遣된 韓國카츄샤兵들의 責任者로 任命받았으며 准尉의 階級을 받았다.

그곳에서 美軍指揮下에 訓練받은 우리들은 同年 9月中旬에 第 49野砲大隊員으로 橫濱에서 乘船하여 釜山을 經由 仁川上陸作戰에 參加하였다. 우리가 永登浦에 到着하여 보니 서울 市內는 9.28收復을 爲한 戰鬪로 밤이면 火焰이 衝天하였다. 우리 大隊는 始興과 麗州에서 約 1週日間 駐屯後 우리가 소속된 美 第7師團은 北韓上陸作戰에 參加하기 爲하여 美軍輸送船으로 咸南利原海岸에 上陸하여 트럭으로 北靑을 지나 후치嶺을 넘어 豊山邑 國民學校校庭에 駐屯後 一線으로 나가게 되었다. 豊山은 蓋馬高原地帶였으므로 氣候는 벌써 꽤 寒氣를 느낄 정도였다.

豊山에서 約 15里 떨어진 곳에 있는 北쪽 고개부터 人民軍과 戰鬪하면서 北進하였으며 우리 앞에는 美 第7師團의 步兵部隊들이 配置되어 있었고 그 步兵部隊에도 相當數의 韓國카츄샤兵들이 있었으며 韓國軍人과 한사람 건너씩 참호속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熊耳面에서 부터 人民軍이 後退하기 始作하여 甲山을 지나 國境都市 惠山鎭을 占領한 것이 그해 11月 12日頃이었다. 그곳을 흐르는 鴨綠江의 넓이는 50m程度였으며 이미 두텁게 얼어붙어 있었다. 건너便 滿洲땅 長白府가 건너다 보였으며 鴨綠江上의 木橋는 人民軍들이 後退하면서 燒却해 버렸었다. 惠山鎭에서 約 3週間 駐屯後 우리 大隊는 中共軍에 包圍되어 그곳에서 撤收하여 北靑을 經由 咸興까지 後退하여 定和陸에 駐屯하였다.

### 4. 咸興에서 만난 兄의 家族

韓國動亂發生時까지 許容되었던 書信交換으로 나의 雙童兄 滢太는 내가 越南後 喪妻하여 再婚하셨고 咸南中學校舍를 使用하는 第 2中學校에서 數學敎師로 教鞭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때까지 알 수 있었던 전부였다. 定和陸에 到着한 나는 日本에서부터 그때까지, 起居를 같

이한 美軍 少尉 特務上士에게 諒解를 求하고 그날 저녁에 兄님을 訪問하기 爲하여 外出하였다. 兄님 집에 到着하니 이미 어두어졌으며 집안에 電燈이 켜있는 것으로 보아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分明하였다. 兄의 집 大門이 굳게 잠겨 있기에 大門을 數次 두드렸으나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담장을 뛰어 넘어가 마당에 들어가서 亦是 잠겨있는 玄關門을 數次 두드렸으나 아무 應答이 없었다. 이와같은 亂世에 밤에 누가 門을 두드린다고 쉽게 門을 열어주기 힘든 것은 理解되나 그렇다고 언제 어디로 移動할지 모르는 軍人の 立場인만큼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안에 누가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玄關門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그랬더니 사람이 나와서 門을 열어주었는데 玄關에 들어가보니 한 夫人과 13歲程度의 男兒가 玄關에 서있다가 美軍服에 武裝을 한 나를 보고 놀라고 不安한 氣色으로 한발짝씩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 夫人이 새 兄嫂일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나 確認없이 ‘兄嫂님!’ 하고 부를수 없어서 곁에선 男兒를 자세히 보니 4年 半前에 헤어진 兄님의 長男 雄植임이 分明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 男兒를 보고 ‘雄植아!’하고 불렀더니 雄植이는 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이게 三寸이 아십니까?’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보니 곁에 서있던 夫人은 새 兄嫂임이 確認되었으므로 나는 鐵帽를 벗고 그 夫人에게 정중히 인사하면서 ‘越南하였던 시동생 溘次올시다. 그간 얼마나 苦生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兄님은 어디가셨습니까?’라고 물으니 兄嫂님은 그저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을 뿐 너무 興奮하신 나머지 아무말도 못하고 계셨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房에 들어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니 房에 案内되었다. 房에 들어가 兄嫂님은 아래와 같이 말문을 열었다. ‘兄님은 敎員生活中 大學出身이고 基督教 信者이며 財産도 좀 있었기 때문에 性分上 自己들과 맞지 아니하며 또 學生들에게 平素 防共思想을 注入하는 A級 防共者라는 烙印이 찍혀서 北韓當局의 要視察人の 取扱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中 韓國動亂이 發生한 날 새벽 3時에 保安隊에 의하여 檢舉되어 간 後 兄의 消息은 全然 알 수가 없었는데 지난 10월에 威興이 UN軍에 의하여 收復된 後 威興刑務所內에서 많은 屍體들이 나타났다고 하여 兄嫂님이 그곳들을 다 訪問하여 兄님의 屍體를 찾아보았으나 結局 今日까지 못찾았고 韓國動亂 發生以後 恐怖霧圍氣와 美軍의 空襲으로 兄嫂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로 避難하였다가 얼마前에 歸家하셨다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兄님으로부터 數次 雙童이 媿同生이 越南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 媿同生이 이렇게 軍人으로서 밤에 威興에 왔다는 것이 너무나 意外였으며, 그것보다도 自己男便과 얼굴이 너무나 洽似하니놀라서 그 瞬間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今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兄님이 檢舉된지 約 2週日後인 7月 9일에 兄嫂님은 兄님 사이에 얻은 첫 딸인 伸惠를 避難地에서 解産하셨는데 그 女兒를 무릎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大概 上記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鴨綠江 戰地에서 後退하면서 트럭들이 威興方向으로 近接해 올 때 兄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으리라는 期待는 다 사라지고 兄님의 不幸한 消息을 得聞할 때 앞이 캄캄하였다.

밤은 깊었지만 責任上 나는 그날밤 部隊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裨將 特務上士에게 어젯  
 밤 兄嫂님과 對話를 報告하니, 그는 나에게 慰勞와 同情의 말을 해주었다. 그 얼마後 우  
 리 美 第 7師團은 興南經由 38線以南으로 撤收한다는 發表가 있었다. 興南으로 後退하는 過  
 程으로서 우리 野砲大隊는 定和陵에서 떠나서 새곳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나는 兄의 家族들  
 이 우리 部隊와 함께 越南할 수 있다는 아무 保障도 없이 우선 兄 家族을 定和陵近方의 어  
 느 民家에 두었다가 無作定 새곳 우리 部隊 가까이 있는 빈 民家로 옮겨놓았다. 다음 移  
 動地는 興南인데 어느 시간에 移動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情報였다. 전혀 無理한 付託인줄  
 알면서도 나는 裨將 特務上士에게 말하여 兄의 가족이 우리 대대와 함께 월남할 수 있게 大  
 隊長인 美軍大嶺에게 交涉하여 달라고 付託하였다. 그는 戰友愛로 大隊長幕숨로 갔다. 조금  
 後에 그는 풀이죽은 모습으로 돌아와 大隊長의 말이 規定上 軍輸送船에는 一切 民間人이 乘  
 船할 수 없으니 神通한 方法이 없겠다는 말이었다. 焦燥하게 나의 行動만을 注目하고 있는  
 兄嫂님을 찾아가서 美大隊長의 말을 傳하니 온 家族들은 絶望에 빠졌다. 우리 基督教人의 武器  
 는 오직 기도뿐이니 기도합시다라고 말한 後 온 家族들을 머리숙이게 하고 나는 기도를 시  
 작하였다. “하나님! 兄님은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들 손에 잡혀 이미 世上을 떠  
 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머리를 숙인 兄님의 家族들은 各各 使命을 주어서 出生케 한 것  
 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이 敵地에서 生命들을 버려야 윤택습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家族들에게 나아갈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나는 一生에 이런 간절하고  
 眞實한 기도를 드려본 記憶이 별로 없었으며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 기도中  
 兄님의 家族들도 나를 따라 모두 울었다. 우리들이 기도가 끝나고 오랜 침묵끝에 새벽 2時  
 頃 兄嫂님이 悲壯한 얼굴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三寸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하나님  
 께서 우리 家族에게 機會를 주시지 않은 限 別道理가 없는 것 같습니다. 三寸은 南韓에 家  
 族이 있는 몸이니 혼자라도 南下하셔서 그 家族들을 돌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들 때문에 일  
 을 그르치시면 안됩니다. 우리들이야 이왕 男便과 아버지를 잃은 主人없는 家族이니 相關없  
 습니다. 이 이상 三寸을 괴롭힐 수 없는 일입니다. 또 發惡한들 무슨 所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같이 意外로 만날수 있었고 또 彼此 消息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만도 얼마나 多  
 幸한 일입니까? 더 이상 우리 念慮마시고 몸조심 하시어 南韓으로 가십시오. 우리들은 또  
 우리대로 남아서 살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兄嫂님은 머리를 숙  
 인채 흐느껴 우셨다. 그러자 어린 조카들도 따라 울어서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나  
 亦是 솟아오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었다. 울고울어도 그 苦痛  
 은 씻길 길이 없는 것이었다.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나는 참다못해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  
 럼 兄嫂님은 이 家族들을 데리고 혼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兄嫂님은 默默地 계  
 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中共軍이 나오면 我 反動分子取級을 받을 것이 分明하며 따라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구차한 生命들을 부지하기 爲해 어떤 困境을 겪게될지도 모  
 를 일이니 차라리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길가로 뛰어나가 온 家族이 一時에 流彈에 쓰러



지도록함이 보다 깨끗한 죽음일듯합니다. 우리의 生命이야 그 많은 生命이 죽다남은 부스러기 같은 것인데 무엇을 爲해 더 살겠다고 바둥대겠습니까? 죽겠다고 斷念해버리는 것이 슷세 平安한 일일 것입니다....”그 말을 듣고나니 나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다. 兄嫂는 暫時 말을 끊었다가 다시 繼續했다. “그런데 三寸에게 마지막 付託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있는 雄植이는 내가 이家門에 들어와서 낳은 子息은 아니나 이家庭의 長男입니다. 그러므로 雄植이만은 金澄太의 집을 繼承하여야할 사람이니 三寸이 美軍들이 使用하는 큰 가방속에 넣어서 南韓으로 데려가 잘 養育하셔서 代를 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一生에 다시는 經驗 못할 瞬間이었고 두번 經驗해서도 안될 瞬間이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卞崑特務上士에게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未安하지만 한번만 더 大隊長에게 相議해달라고 付託했다. 그는 戰友의 事情을 딱하게 생각하여 곧바로 大隊長에게 갔다. 兄의 家族의 運命이 이一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나는 一刻이 如三秋같은 心情으로 그結果를 기다렸다.

## 5. 劇의南下

얼마後 그는 돌아와서 大隊長과의 相議結果를 말해주었다. 大隊長의 말이 우리側에서 알기에는 輕武裝의 韓國軍이 現在 興南에서 重武裝의 美軍보다 먼저 撤收中이니 大隊長이 韓國軍撤收司令官에게 우리 家族의 乘船을 付託하는 要請書를 지금 作成中이니 조금後에 그 書類가 우리한테 傳達되면 내가 兄의 家族들을 데리고 今日中으로 興南에 내려가서 韓國軍撤收司令官에게 提示하여 乘船되면 내가 兄의 家族들을 데리고 우리部隊보다 먼저 釜山으로 南下하여 釜山에서 兄의 家族들을 어디든 맡기고 나는 釜山에 있는 美軍憲兵隊에 가서 우리部隊의 所在을 問議하면 알려줄 것이니 部隊를 찾아와 復歸하라는 것이 大隊長의 指示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즈금後 大隊長의 乘船要請書가 우리에게 傳達되었으며 우리는 本隊보다 먼저 興南港으로 出發했다. 이때도 卞崑特務上士의 好意의 協助는 눈물겨울만큼 고마웠다. 그는 우리들을 위해 美軍兵長이 運轉하는 스리퀴타自動車 한대를 내주었고, 거기에다 乘船하게 되면 航海中 食事用으로 使用하라고 레이슨10箱子까지 실어주었다. 나는 部隊의 戰友들과 作別하고 急히 興南港으로 떠났다. 興南港에 到着하여보니 埠頭는 後退하는 韓國軍과 美軍, 그리고 民間人들로 人山人海였다. 우리를 태워온 美軍運轉兵은 물가에 있는 韓國軍撤收司令官을 겨우 찾아 바로 그분 앞에다 車를 세웠다. 그는 大領階級章을 달고있었다. 美軍運轉兵은 車에서 내리면서 그분 앞으로 가서 正중히 敬禮를 한다음 우리 大隊長의 乘船要請書를 그분에게 提示했다. 司令官은 그 書類를 주의깊게 읽어 본 다음 우리 車족을 힐끔 바라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單只 엄지손가락 하나로 乘船하라는 信號를 해주었다. 나는 그동안 千斤무게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짐이 홀랑 벗겨짐을 느끼면서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感謝합니다’라는 기도가 튀어나왔다. 兄의 家族들도 形言할 수없이 기뻐하였다. 그네들은 죽음의 자

리에서 奇蹟적으로 살아난 것과는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無事히 乘船하였으며 그 고마운 運轉兵에게 部隊로 잘 돌아가라고 船上에서 人事하였다. 그날이 1950年 12月 21日이었으며 우리가 탄 배는 L.S.T.型的 丹陽號라는 船舶이었다. 丹陽號는 南下하다가 機關故障으로 2日間 海上에 停船하였다가 墨湖와 巨濟島를 經由 그해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釜山에 無事히 到着할 수 있었다. 그後 兄의 家族들은 이미 越南한 우리 三兄弟의 家庭에 分散되어 養育을 받았다. 現在 兄의 長男은 釜山에서 安定된 生活을 하고 있으며 2男 禮楨이와 3男 明楨이는 캐나다의 TORONTO市에서 移民者로서 亦是 安定된 生活을 하고 있으며, 長女 槿惠와 次女 信惠는 뉴욕에서 結婚하여 좋은 家庭을 이루고 있다.

나는 1973年 株式會社天友社의 勑勅 支社長當時 玄鳳學博士(威南中學 第 23回卒業, 在美)의 協助로 美陸軍省에 書信하여, 30餘年間の 軍服務를 마치고 除隊한 卍클 特務上士의 住所를 알게 되었으며, 그가 1988年 8月에 別世할때까지 3次 그를 訪問하여 큰 선물과 큰 절로서 옛 戰友愛에 謝意를 表하였고 그 사실이 그 地方新聞에 記事化되었으며, 別世後 1次 그의 무덤에 가서 弔意를 謹表한 일이 있다.

## “데모”와 술

金熙春(15回)

“데모”라는 말만 들어도 不安하고 마음이 아프다. 또한 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 自身을 紹介하면서 “데모”와 술과 얽힌 過去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여섯살때 書堂에서 2年間 千字文 無題詩 등을 배우고 여덟살때 威興第一普通學校를 거쳐 열네살때 1928年 4月 威興高普에 入學하게 되었다. 入學하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데모”가 일어났다. 그 당시 나는 다른 級友들에 비해 比較的 어린 편으로 그 理由조차 잘 가름하지 못하였지만 다만 日人들이 우리 韓人들을 壓迫하고 멸시하는데에 反撥하는 運動이라고 하는 程度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한 動機는 다섯살때 3·1運動의 만세소동을 어렵듯이 지각하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그때부터 現在까지 直接 間接적으로 이 “데모”와 關聯되어 왔다. 1952년부터 1981년까지 約30年間은 서울大學校에서 直接 “데모”의 渦中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데모”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마음아픈 일이지만 부득이 繼續하겠다.

2學年때는 光州學生事件이 있었던 해이다. 1929年 11月 3日 光州에서 事件이 일어나 全國적으로 學生 “데모”가 擴散되어 威興까지 오는 期間이 늦어져 아마 12月 初旬頃에 “데모”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날 첫 눈이 내리는 登校길 校門까지의 至今도 잊혀지지 않는 印象깊은 긴 街路樹길(나미끼미찌)에서 私服警官들이 學生들을 검색하고 있었다. 朝會時間에 講堂에 全學生을 集合시키고 校長이 訓示를 시작하자 빠라가 살포되고 學生들과 私服警官들과

몸싸움을 벌리게 되었다. 校長室로 물려가는 途中에 나도 모르게 校服(當時黑色) 등뒤에 초크로 表示를 받게 된 모양이었다. 臨時休校가 선포되어 校門을 나서는데 表示당한 學生들을 一齊히 트럭에 몰아넣고 威興警察署로 갔다. 警察署안은 여러學校 學生들로 超滿員을 이루고 있어 나의 外四寸 朴君도 이틈에 끼어 있었다. 땅바닥에 앉아 訊問調査를 받고 있는데 外三寸(當時 약간 有力한 분)이 나타나서 朴君과 나를 풀려나게 해 주었다. 3學年에서도 봄 가을 두차례의 “데모”가 있어 몇명의 級友들이 또 退學處分을 당했을 것이다.

4學年때 1931年은 나의 生涯에 있어서 큰 變化를 가져온 해라고 생각된다. 그해 5月 中旬頃 우리 반에서 發端하여 全校가 또 “데모”에 突入하게 되었다. 그 動機는 당시 高橋(다카하시)라고 하는 教師가 셋이 있었는데 그들의 別名도 모두가 개와 聯關이 있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들 중 가장 日本國粹主義派인 漢文教師의 發言에 基因한 것이었다. 이 教師의 授業時間이 바로 점심時間 後이라 教室에 들어서자마자 센진 구사이(朝鮮人 냄새가 난다)라고 떠들어 댔다. 여기에 學生들은 모두가 憤怒하여 無言의 授業拒否를 하게 되었으며 이 高橋教師를 階段에서 밀어 제치고 校長室에 亂入하는 등 激烈한 싸움이 있었다. 이에 學校側은 休校指示를 하고 背後 主謀者들을 警察에 連行시켜 強硬對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들 중 나와 平素에 가장 친하게 지내오던 李君 韓君, 黃君 등이 主謀者로 指名된 모양이었다. 이들의 交友名單에 포함된 나도 6月 初旬頃 어느날 새벽 刑事들에 의해 警察署로 끌려갔다. 父母님의 놀라움과 걱정을 남겨두고 留置場 身勢가 된 것이다. 留置場 속에서 韓君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어 우선 마음 든든하였다. 高等係가 하도 바빠서 나는 司法係에서 調査를 받게 되었는데 이미 친구들의 證言으로 별것 없는 것으로 간주된 모양이었다. 簡單한 文書를 作成하고 10日間の 留置處分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輕한 處分도 그후 公的生活에 影響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나는 다시 學校에 가기가 싫어졌다. 自退하는 것은 父母님이 許諾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각 끝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 自身 無記名投書를 단임教師(野村氏)에게 하게 되었다. 그 後 얼마 안되어 出頭하신 아버지에게 단임教師가 家庭訪問 當時 책꽂이에 있었던 日本 改造社版의 小說冊內容이 불온하다고 하는 理由로 退學處分을 받게 되어 4學年 7月頃 威興高普와 訣別하게 되었다. 다음해 1932年 봄에 서울에 올라와 普成高普 4學年에 偏入하여 1934年봄 京城高等工業學校 建築工學科에 入學하게 되었다.

이제 “데모”이야기는 끝내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當時 韓人들의 官立專門學校 入學은 成績順에 依하지 않고 政策的으로 定하였던 關係로 建築工學科 13名中 韓人은 겨우 3名 밖에 없었다. 그런 點에서 韓人들은 어느모로 보나 日人들에 뒤떨어지지 않아 우리를 無視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仁川 月尾島에서 新人生 환영회가 있었는데 대접으로 술(정종)을 퍼마시고 빛꽃이 滿發한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무한정 떠들어대어 비로소 日式生活의 一面과 술과의 因緣을 굳게 맺게 된 것이다. 또한 當時에는 土木,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도가다”라고 해서 거칠고 이야기 전에 우선 술부

터 시작한다는 慣例에 따라 在學中 1주일에 한번 程度以上 술을 마실 機會가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各自 負擔(와리강)形式이었으므로 자주있게 되었으며 當時 官立專門大生들의 醉中 만행은 어느 程度 默認되고 있었던 關係로 더욱 그러하였다. 卒業後 朝鮮總督府에서 일하게 되어 繼續 日人들 속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日人과의 關係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또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結果 지금까지도 술만은 恒常 즐기고 있다.

요즘 弟子들이 健康의 비결을 묻는 경우 나는 이렇게 答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 1. 過激한 일을 얹한다. 2. 禁煙한다. 3. 禁酒한다. 4. 잘 잔다. 라는 네가지 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同時에 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健康은 즐겁게 사는 方法이지 그것이 全體의 目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健康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네가지를 하나 하나씩 끝내 가는 것이 몸의 抵抗性도 維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술마시는 핑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1번과 2번은 實行에 옮겼으나 3,4, 번은 서로 聯關性이 있고 해서 아직 유보하고 있다.

한가지라도 더 붙잡아 늘여지고 싶다.

또하나 술에 對한 위안적인 學說이 있다. 지금부터 約 2,500年前 中國 楚나라때 哲學者 老子의 空間에 關한 概念이다. 老子는 비어있는 空間이 가장 有用한 것이며 이 空間을 에워싸는 實은 이미 모든 生命이 끝난 것이라고 強調한다. 항아리의 有用성은 그 內部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物體로 채워질 수가 있으며 建築의 內部空間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生活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解析하게 된다. 人間의 머리도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하는 忘却性의 有用함을 看破하고 있다. 이 忘却性의 가장 좋은 素材는 역시 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좋은 例로서 唐나라때 詩仙 李太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많은 名作을 남기고 끝내는 술과 같이 自然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다. 이제 漢詩 몇 首를 소개한다.

山中與幽人大酌 李白(唐字一太白)

飲酒 陶潛(晉 號一淵明)

兩人對酌山花開 一杯一杯復一杯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我醉欲眠鄉且去 明朝有意抱琴來

門長何能兩 心遠地自偏

山中問答 李白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間余後意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山氣日夕 飛鳥相與還

枳花流水西然去 別有天地非人間

此中有真意 欲辯已忘言

이 詩는 飲酒란 제목의 聯作中の 하나인데 內容은 飲酒와는 關係가 없다. 作者는 최후의 벼슬자리인 縣令자리를 사임하고 故鄉으로 돌아가 田園에 묻힌 時의 心境을 노래한 것으로 俗世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俗世를 초월하여 自然과 一體가 된 것을 노래하고 있다. 제목과 같이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술을 벗삼아 詩를 지었다.

이제 “데모”나 술에 對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故鄉에 갈 準備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안타

까운 心情과 설레이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때에 접어들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다시  
가 봐야 반겨 줄 사람이 있겠는가 마는 山川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싶은 마음 간절하다.

絶句 杜甫(唐 字一子美)

江碧鳥愈白 山青花欲然

今春看又過 後日是歸年

달리 제목을 定하지 않은 詩

방랑길에 있는 作者가 望郷의 그리움을 노래한 詩. 他郷에서의 自然이 아름다우면 아름다  
울수록 故郷생각은 더해지게 마련이다. 어정쩡한 사이에 今年 봄도 또 다 가고 말았다는 作  
者의 氣分과 어느 날에나 故郷에 돌아갈 때가 오겠는가 하는 구절은 지금 나와 똑같은 心情  
이다.

## 두고온 내고향 咸興

朱 權 源 (19回)

새삼 그리워지는 두고온 산하! 가고 싶은 고향 함흥! 삼천리 강토 위에 함흥같이 살기  
좋은 고장이 어디 있을까?

1943년 9월 대학을 졸업하고 다녀온 후 못 갔었으니 40여년이 되는군...쌀맛 좋고 생선이  
많고 맛있으며 뽕나무가 많고 전력이 풍부하고 학구열이 가장 높아 문맹자가 없고 거지없는  
내 고향!

산 좋고, 광활한 함흥 대평야(4대 평야의 하나)를 관류하는 성천강과 그 위에 놓인 길고  
긴 목교 성천강, 함흥의 북쪽을 둘러싼 盤龍山, 옛 임금 李太祖가 말달리던 馳馬臺와 공부  
하던 歸州寺, 함흥차사로 유명한 본궁, 서호 앞 바다의 유명한 해수욕장, 흥남비료공장 및  
부두, 赴戰高原의 대자연 등 10대 젊은 시대에 뛰고 놀던 일들이 나의 마음을 젊게 해 주는  
듯 하나 나는 이제 고회를 바라보니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해 준다.

### 만세교와 답교·성천강

함흥시의 서남으로 함흥평야를 관류하는 성천강을 동서로 질러 가설된 한국에서 가장 긴  
목교, 이 다리는 역대의 군주들의 장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이태조가 만세교라고 명명  
하였다고 한다.

1905년 露日전쟁 당시 패전 퇴각하던 露軍이 만세교에 방화하여 소실되자. 1906년 일본의  
공병이 다시 목조로 가교에 착수하여 1908년에 준공하였다. 이 다리는 우리 국민학교 3학년  
때의 대홍수(1928년-戊辰年)로 다시 유실되고, 철근 콘크리트로 개조되어 너비 5.4m, 길

이 5백m인 우리나라 최장의 교량의 하나이다.

이 만세교는 옛 임금 말달리던 盤龍山이 거꾸로 투영되는 성천강 위에 펼쳐지던 황혼의 금빛물결은 지금 볼 수 없으니 더욱 그림고 아름답고 황홀하게 느껴만 진다. 교회 찬양대에서 흘러 나오던 가사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잔잔히 성천강 맑은 물결에 옛임금 달리던 터, 盤龍山 거꾸로 비추일때 강호의 청풍과 산새의 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앉아 있는 함흥성 노래하리로다. 함흥의 형제여 다 일어나 여호와 찬양합시다.

지금도 함흥에서 온 우리 주변의 노인층에서는 가끔 불리우는 노래다. 대보름날 다리를 밟으면 열두달 액을 면할 수 있다하여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성행하던 민속이었지만 금모래위를 잔잔히 흐르는 성천강상의 담교가 가장 유명했던 곳이다.

담교하는 남녀노소가 마음대로 밤, 대추, 호도, 잣, 호콩 또는 수수엿 등을 마음대로 사 먹고는 그 각지를 버리니 다리 좌우에는 그 각지가 산적하고 여인들은 새벽미명에……저고리 동정 그 오색형접 오라기를 다리 난간에 매어 놓아 액운을 면하고 장수한다고 믿어 꺼림낌 없이 매놓으니 보기에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누구도 그것을 탓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기이하기도 하였다. 이 풍습도 세대에 따라 점점 변해 해방이 가까워지고 일본이 전쟁으로 어렵게 되면서 쇠퇴해 졌다.

성천강은 금모래 위를 잔잔히 흐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봄, 여름, 가을 얘기이고, 엄동엔 그야말로 북풍한설 휘몰아치는 바람에 만세교를 걷고 있으면 바람에 날려 갈듯 하며 그 맵 짠 바람이 뺨을 때리는데도 성천강 얼음 위에 넘어지면서 두꺼운 은반 위에서 타던 스케이트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여름철 성천강 금모래 사장은 유명한 빨래터가 된다. 빨래돌이 없어 나무판을 가지고 와서 표모들은 강변에 모인다. 강변둘레에 모래 응둥이를 파서 강물을 끌어 들이고 모래성을 쌓고 함지박을 깔고 앉아 빨래를 한다. 여기 저기서 두드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는 어떤 합주곡을 연상케 한다. 술을 걸고 잣물에 삶은 빨래는 모래 위에 표백하고 그것이 마르는 사이에 계도 잡고 싸가지고 온 점심도 먹으면서 담소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며 소박한 주민들의 풍경이었으나 이젠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는 비정한 북한땅이니 그림고 어린 시절의 정취가 내 마음 속에 몽클거리기만 한다. **이태조의 유적지**

성천강 백사장에 앉아 동북을 바라 보면 盤龍山頂 馳馬臺 언저리가 눈에 들어온다. 그 옛날 이태조가 제성단에서 용마를 끌어다가 치구했다는 명소로 당시의 사적을 새긴 석비가 있었는데 지금 어찌 되었을까? 이태조는 이 馳馬臺에서 활을 쏘고 목적지까지 가니 활이 보이지 않아 단칼로 애마를 죽였으나 곧 활이 날아 왔다는 고사로 유명하다.

이태조가 공부하던 함흥 동쪽 약 20리쯤에 있는 아름다운 귀주사, 함흥주변에 있는 이태조 선조들의 陵들! 그리고 함흥차사로 유명한 본궁! 우리가 국민학교시절 李垠殿下가 李芳子여사와 함께 오서 본궁에서 제사 지내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복인가 궁복인가를 입은

전주 李氏들은 함흥역 앞에 좌우로 나열하여 두내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으로 도지사, 부윤(지금의 시장)등이 나열하고 있어 어린 마음에도 기이하게 여겼다. 그후 本宮에 까지 가서 2차례 예식을 본일이 생각나며 이태조가 유어하던 곳이기는 하나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으나 나이먹고 볼 수 없으니 더욱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씨 조선을 창건하고 태조로 등극한 후 7년(1938)년 세자 芳碩의 변이 생긴 후에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본궁에 돌아와 있다 잠시 한양으로 상경하였다. 태종 2년(1402년)다시 내려와 閑震野鶴으로 벼를 삼고 인간영화와 인연을 끊고 모시려 내려오는 차사는 모두 죽어버리면서 朴淳의 說諭에 변의할 때까지 기거하던 궁이다.

이태조가 6本の 松木을 심어 놓아 松軒이라고도 하며 어려서는 별로 그 역사적 의미도 모르고 보기만 하였다. 궁의 둘레는 약 4km나 되며 이태조의 4대선조, 즉 追尊한 穆, 翼, 度, 桓, 4대와 이태조 및 그 配位를 봉형하는 제단이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

함흥주변에는 定和陵을 비롯한 4대조들의 4릉과 3墓가 있다. 赴戰高原의 잉크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그 넓은 赴戰湖, 그곳에서 낙하하는 수력에 의한 발전. 이 수력발전은 8·15해방 후까지 서울에 송전되었고 흥남비료공장으로 직결되었다. 유명한 흥남항 철수 작전시의 흥남항, 그리운 바다가기도 하다.

그 곳에서 좀더 동쪽으로 가면 西湖津의 해수욕장! 원산 송도원 같이 송림은 없으나 넓고 넓은 백사장! 해수욕 끝나고 먹던 함흥냉면, 특히 가자미회 냉면맛! 그립기만 하다.

국민학교 고보시절 이 함흥주변의 명승지를 가을, 봄 수학여행 또는 소풍으로 다니던 때의 모든 풍경이 되살아 나니 나이먹은 탓일까? 그 산천! 그 바다! 그 고향에 가고 싶다. 함흥 명예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그 감투가 크던 적던 내가 늙었거나 쇠약했다해도 모든 집념을 버리고 함흥시장의 의자에 앉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고향 사랑하는 나의 충정일 것이다. 늙어서 그리운 곳이 바로 고향이다.

## 어머님 목소리

李基炯(20回)

“야, 너두 얼릉 시집 가”

“성이 난 시집 안 가”

“아아두 시집 안간단 사람은 내 점심밥을 싸들고 쫓아가 말기겠다. 너 공소리 말구 날레 시집 가”

이모가 들려주는 사십년 전

어머님 목소리.

“성인 그때 베를에 앉아 고운 베를  
짚데 참 곱습데에 날이 아물아물  
잘 뵈지도 않는 가는 베를.....”

-----시집 안 간단 사람은 밥을 싸들고  
쫓아가 말리시겠다고-----

다른 사람 아닌  
어머님 말씀이라.

내 가슴을  
몽클하고  
찢어지고

스물 둘 새파란 나이에  
홀로 나서  
핏덩이 하나만 바라고  
수절하신 어머님이  
아들 앞에선 꿈에도  
내색 않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구요.

베를 짜시다가도  
바디를 올리민 채  
복통을 잡은 채  
앞산만 멍  
내다보십테다.

눈물 방울이  
날줄 씨줄에 아롱져  
한 폭  
한 폭  
한을 짜내시던 그 모습



내 눈물 속에  
환히 어른거린다

그 한숨  
가슴에 와 닿고

가난,  
외로움,  
슬픔,  
어머님은  
몸을 가눌 길 없었지요.

봉건의 사슬은  
너무 무거웠구  
청상의 숨결은  
너무 가냘팠지.  
한번도 꽃피 못본  
애닦은 나날.

어느 하늘 아래선가  
휘저어대는 저 깁마른 손길  
불러쌍는 저 홀실날 목소리.

천하 그 하나뿐이라고  
다만 그 하나뿐이라고.

아들을 찾아  
아들을 불러

예, 예, 갑니다 가요  
어머님, 금방 떠날게요.

나는 대지를 걷어차고  
훨훨 허공에 날아올랐다.

## 歸 州 寺

이 기 형(20回)

함관령 밑  
깊은 골짜기서  
고고의 생을 받아  
남실남실 남으로 흐르는  
호련천 토교를 건너면

李成桂 친부모를 모신  
定和陵을 에워두른  
울울 창창  
육백년 老松이  
윙 윙  
바람도 소슬히  
옛날을 말하든가

하늘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아내리 듯  
흰 옷으로 늘씬히 단장한  
왜가리  
떼지어  
비잉 빙 돌고 돌아  
이 나무 저 나무 위로  
사뿐사뿐 날아 내린다  
하늘을 받들고 아슬히 들은  
제 등지를 찾아

왱 왱  
왜갈 왜갈  
두 길도 넘는  
가독나무 숲길을 뚫고 나서면  
태조 즉위 이듬 해  
창건의 詔命이 내렸다든가

雲峰山 품 안  
歸州寺 雄姿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귀주사 —  
저어 아래  
동해로 훤히 트인 들녘  
엮드린 산 밑에 자리잡은  
本宮의  
願堂이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단청빛 휘황한  
아름드리 기둥  
통나무 서까래, 들보, 도리  
다듬새 새김새 색칠 솜씨  
神妙도 하여라

한가운데  
돌층계 노을당게 터잡은  
大雄殿  
금박한 세 글자  
눈부시다

오른쪽 뒤편  
한間 庵子  
이름하여  
讀書堂.  
소년 이성계 潛龍時節  
글공부하던 방이라고.

보라 저기  
독서당 화강암 비석에  
뚜렷이 새겨진 태극기 도형을

어느 숨은 우국지사의 애뜻한 뜻이드뇨  
어느 감춘 애국석공의 떨리는 숨씨드뇨

아, 어인 일인저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도  
그예 지워지지 않고  
비켜, 명맥을 이어 온 겨레의 가느단 숨결  
그 태극기여라

청청 글소리 주인공도 가고  
오백년 왕조도 가고  
日人惡政도 가고

지금은  
남북 분단의  
비운 속  
너 육백년 사찰  
귀주사의 안부를 묻는다.

盤龍山 馳馬臺에서  
駿馬를 달려  
이곳 호련천에 다다르면  
정갈한 냇물에  
목욕 재계하고  
저기 독서당  
得道 三昧境에 묻혔을  
이성계.  
本宮 칩거 시기엔  
마음공허와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선친능에 頓首再拜하고  
이 독서당을 찾아  
옛 성현의 언행을 익히며  
울화를 달래던  
이태조.

그제

인결은 갔어도  
산천은 의유구했네

정화능 정정 소나무  
왜가리 울음소리  
귀주사 법종소리  
호련천 맑은 얼굴  
年年祿 봄이면 심고  
滿山紅 가을이면 거두고  
아침 저녁이라  
글썩 연기 오르던  
내 고향이,  
거기, 애꿎음이여  
우리 어린날의  
그리움이 있다  
추억이 있다

망향에서 전래 <1981. 7. 말밭에서>

## 이루지 못했던 나의 꿈

咸 哲 (20回)  
(舊 淳 福)

中學校 入學試驗 準備中에 있었던 일이다. 普通學校 擔任先生과 口頭試驗練習을 하는데 先生이 “네가 이 學校에 入學하려는 動機가 무어나?” 하기에 “音樂家가 되려고 志願 했읍니다.”하였다. 이 엉뚱하게 들리는 問答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

文鄉인 물장수의 本고장 北靑태생인 나는 1933년 3월 咸興의 永信普通學校 正門앞에 있었던 興旅館에 故鄉學友 여섯명과 함께 投宿하면서 咸興高普 入學試驗에 應試 하였는데 어찌 된 것인지 나 혼자만 合格했다. 난생 처음으로 아미아게 가죽구두와 制服, 制帽를 쓰고 中學校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바라던 音樂先生이 이 學校에는 없었고 體育을 맡고 있던 川田(가와다)이라고 하는 日人先生이 音樂을 兼해 맡고 있었다. 中學 2學年 때까지(音樂 修業은 2學年까지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素質이 있었던 모양으로 音樂成績

은 恒常 甲이었다. 그래서 그 學校를 卒業할 무렵 家親에게 上級學敎는 音樂專門學校를 志願 하겠다고 여쭙었더니 嚴親은 판따라쟁이를 希望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하시면서 極口 反對하시기에 反發로 上級學敎를 拋棄하고 돈벌이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中, 그때가 소위 支那事變(中日戰爭)中이라 咸興所 在인 咸鏡南道 鑛山技術員養成所에 高等科와 普通科를 急造設立하여 志願生을 募集하고 있어서 나는 高等科(志願資格이 中學校卒業)에 들어가서 1938년 6월 1일부터 그해 11월까지 6個月課程을 修了하였다. 그때 養成所 자리가 舊 咸南道廳 자리였다.

곧 就職이 되었는데 그 就任地가 韓半島의 最北端인 三菱鑛業 靑岩鑛業所였다(咸北 淸津에서 北方 50里 距摩). 赴任하고 보니 나같은 總角社員은 '更生療'라는 獨身療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正社員이라 6組 다다미(日本 돛자리)房을 配當 받았다. 獨身療에는 나와 忠淸道 사람과 日人 3人, 計 5名이었었다. 忠淸道 분은 나보다 5,6歲 위였고 選鑛係 勤務였는데 그의 姓氏를 잊었으니 이제 나도 불장 다 본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들은 戰時下의 그 鑛業所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食事は 正社員중 생호라비와 總角만 함께 했는데 所長도 서울에 家族을 둔 關係로 함께 食事했다. 그런데 그 食事費가 實費라 8円에서 9円 사이였는데 내 初俸이 45円이니 살 만 하였다. 그리고 旅費가 日當 12円, 車賃이 2等 車費였으니 나로서는 洽足했다. 三菱 大財閥會社라서 그랬는지 그 當時로는 破格的이었다. 그리고 이 會社의 日人所長이 그때 나이 50은 더 되었는데 日本 秋田鑛專 出身으로 參與職이었다. 所長 專用車는 勿論 子女들을 爲한 스쿨버스까 지 있었으니 갖출 것은 다 갖춘 會社였다. 나는 처음엔 採鑛係 勤務였는데 測量技師가 不足하여서 나는 測量班으로 轉補發令 되었다. 大學이나 專門學校 出身이든 나같은 急造養成所 修了者나 똑같이 6個月間 現場트레이닝을 하지 않고는 技師나 技手의 正式 發令이 나오지 않는 때였는데 나는 1939년 6월에 技手로 正式發令을 받았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初俸이 45円이라 旅費만 해도 日當 12円인데 韓國旅館宿泊費가 1円 50錢 乃至 2円 50錢이었으니 모든 것이 넉넉했다.

그런데 1940년 3월 26일의 일이다(그 때 내 職責이 採鑛係 測量班長). 勞務班이 내 事務室 바로 앞이었는데 그날 日本人 勞務班長이라는 者가(日本에서 小學敎 訓導로 있다가 在鮮 手當 60%가 탐이 나서 赴任한 者인데 內田 英語先生과 體格이나 外貌가 恰似하여 잊혀지지 않는다) 지난밤 폭음을 해 아침에 出勤하지 못한 朝鮮人(大部分 全羅 道사람) 勞務者를 자기 事務室로 잡아다가 角木으로 毆打하는데 반쯤 죽이는 것이었다. 그무렵 俸給날 다음날에는 勞務者들이 昨醉未醒으로 欠勤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때면 淸願警察과 함께 勞務者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滿醉한 勞務者들을 強制로 일터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같이 그렇게 심하게 구는 것을 처음 본 나는 적지 않은 衝擊을 받았다. 그날 業務日誌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內鮮一體를 부르짖고 있는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同族을 奴隸같이 毆打하는가"고. 그로부터 한달 후 上級學敎 志願을 口實로 滿 1년 3個月間의 日本最大財閥 會社勤務를 끝마쳐 버렸다.

내가 이미 지나간 이 구질구질한 얘기를 되새기는 것은 내가 바라던 音樂工夫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社會生活의 첫 出發이 나의 人生을 엉뚱하게 빼돌려져 나가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萬一 威興高普에 떨어지고 高에 붙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當時 高에는 “미끌철석”이라는 別名을 가진 멋장이 音樂先生이 계셨다. 그의 門下生으로 테너의 一人者 李仁範씨의 아우인 李仁根氏(流行歌手 金貞九氏와 同僚-在北)와 李仁亨氏(피아니스트, 日本 私立音大卒-在北), 그리고 作曲家 金大賢氏를 輩出한 有名한 스승이었다. 그 스승의 밑에서 音樂工夫를 계속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威高 4學年때의 일이다. 威興第1普通學校 講堂에서 當時 世界的 소프라노 歌姬 關屋敏子(이 女子의 外祖父가 英國人 나비 夫人으로 世界的 名聲을 떨쳤다)의 公演이 있었는데 1年 先輩인 同鄉 李在亨兄(李長鎬 映畫監督의 父親)과 同級生인 薛永基 君(在北-서울 藥專出身)과 몰래 觀覽하다가 擔任인 奧野先生에게 發覺되어 그 이튿날 敎務室에 불려가서 威高 5年 在學中 난생 처음으로 따귀를 얻어 맞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렇게 멋부리고 學校를 다녀도 한번 停學 당한 일도 없이 착실하게 學校를 卒業할 수가 있었다. 只今 七旬을 바로 앞에둔 나이인데도 萬一 그 때 高에 몸을 담았다더라면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나, 즉 이름있는 音樂人으로서의 自身을 想像해 보기도 한다.

## 動亂中の 開城紀行

### 元 勳 基 (21回)

戰爭이 한참이던 9월 13日 午後 나는 奉日川 國道를 멀리서 울려오는 砲聲을 들으면서 혼자 걷고 있었다. 이때 마침 허름한 背囊을 걸러메고 오는 善隣商高의 金東植氏를 길목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는 무척 반가웠다. 그는 재주 좋은 사람이라 共產黨의 軍事動員證을 얻어 出張을 핑계로 開城 方面에서 食糧을 求하기 爲하여 가고 있는 中이었다.

그는 UN軍의 仁川上陸作戰이 始作되어 서울에서는 共產黨이 後退令을 내렸으므로 서울 地區는 危險하니 自己와 開城 쪽으로 같이 가면 安全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에 應했다. 우리가 걸어서 汶山을 지날 무렵은 어느덧 해가 지고 周圍가 어두어 지더니 여태까지 낮에는 通行人이 없던 이 길이 急作히 近處의 部落에서 나온 北行 避難民으로 꽉 차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이 무리에 휩쓸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사람들은 動亂中 共產黨에 協力하다가 避難길에 오른 무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憂愁에 찬 말없는 이 行列은 悲慘하였다. 이렇게 길이 메일 程度로 사람은 많았지만 別로 騷亂이 없는 침묵의 行進이었다. 그런데 이 黑色의 寂寞속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아이 이름을 精神없이 부르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音色은 同窓으로 卒業後 10余年間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金灑旻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或時나 하는 好奇心으로 그 목소리의 主人公이 있는 쪽으

로 걸어가 가까이 다가가 仔細히 보니 그는 틀림없는 金瀨旼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金瀨旼”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그도 놀랐던지 무어라고 말을 할려고 입을 크게 벌렸으나 말이 안나왔다. 다만 混雜속에서 家族을 찾아야겠다는 緊迫感과 반가움이 어울려서 漸時 굳어져 버렸던 것 같다. 그러나 北으로 가면서도 偶然히 어둠 속에 만난 내 生覺을 했을 것이다. 이 瞬間이 永遠한 瞬間이 되었다.

나는 얼마 안가 이 行列에서 떠나 金東植氏의 뒤를 따라 臨津江鐵橋쪽 小路를 가는 빈 牛車를 타고 鐵橋 밑에 이르렀다. 이 牛車는 共產黨이 臨津江邊에 감추어 놓은 砲彈 箱子를 싣고 그날 밤 中으로 麻浦까지 가겠금 動員된 近處 部落의 牛車였다. 江邊에 到着하니 周圍에는 砲彈 箱子가 모레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여기 저기에 어렴풋이 보였다. 操心하며 上流 쪽으로 얼마 올라가니 마침 나룻배가 있기에 이것을 타고 건너편 언덕에 있는 작은 草家에 들렀다. 이 때에도 연달라 北의 武裝 軍人들이 이 오솔길을 따라 南進하고 있었다.

이 隊列속에서 “新羅의 달밤”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을 보아 南에서 끌려 갔던 學生들을 武裝시켰음이 틀림없었다. 現 臨津閣에서 北西 쪽 江건너에 보이는 白色單層 小建物이 우리가 목었던 옛 草家집 자리임을 몇年前 그곳을 찾았을 때 알게 되었다. 이튿날 새벽 이 초가집 뒤쪽의 낮은 언덕을 넘어 開城行 國道를 멀리 보면서 農村의 오솔길을 따라 開城 方向으로 걸었다. 어제 저녁 그렇게 많았던 避難 行列은 어디에 갔는지 國道는 고요하기만 하고 무서울 程度로 사람의 通行은 보이지 않았다.

먹은 것이 없어 배가 고파야 하는데 緊張된 탓으로 氣運이 없을 뿐 아무 生覺이 없었다. 나는 金東植氏께 開城에 가면 꼭 善竹橋와 滿月臺를 보여 달라고 付托했다. 開城이 가까와 질수록 옛 王都의 外貌가 다른 都市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現象으로 宛然히 드러났다. 눈 두렁 발두렁에 비스듬이 쓸어져 있는 數 많은 碑石들이 無言中에 이것을 證明하고 있었다. 勿論 일일이 가서 보지는 못하였으나 頌德碑라는 것이었다. 至今은 논밭으로 變해 있었으나 그 時節은 景致 좋은 술밭이었을 것으로 보였다. 開城의 南쪽 入口 쪽에는 輕飛行場이 있었다.

動亂前에는 事務連絡에 쓰인 흔히 보는 작은 飛行場이었다. 여기에서 얇은 山의 모서리를 지나 잠깐 가니 南大門이 우뚝 보였으며 그 왼쪽으로 傳統的인 開城의 아담한 기와집이 整然하게 있었으며 그 사이로 개울이 南大門 옆으로 돌아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오른 쪽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얇은 山이 보였다. 나는 金東植氏의 案内로 그곳에서 오른 쪽으로 돌아 잠깐 가니 圃隱 鄭夢周先生의 祠堂과 善竹橋가 있는 곳이 나타났다. 길 왼쪽 松林속에 祠堂이 있고 오른 쪽에 善竹橋가 있었다. 祠堂이 있는 松林속은 여러 마리의 軍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共產軍이 駐屯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人氣척이 없었다. 이 곳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므로 善竹橋 쪽으로 가면서 옛날의 生覺을 해 보았다. 善竹橋는 폭이 約 2.5m 길이 約 7~8m의 작은 石橋였으며 나즈막한 들 欄干이 兩側에 있었다. 다리 밑은 兩側의 흙이 내려앉아 水路를 매워 개울 바닥이 높아지고 또 雜草가 茂盛하여 물이 흐르기



에도 不便할 程度였다. 이 다리를 지나면 東으로 牛車가 지나갈 程度의 農路가 낮은 산을 기고 東北으로 이어졌으며 南쪽은 논이요 北쪽은 넓은 草地로 되어 있었다. 나는 圃隱 先生이 이 길로 오시다가 이곳에서 逢變되신 當時를 生覺하면서 漸時 默念하였다. 다음에 피자국이 있다는 자리를 살폈다. 오른쪽 欄干 入口에서 1m 程度의 位置에 얇은 녹물색이 비쳐 보였다.

이것이 先生任의 血痕이라고 後世에까지 傳하여 지고 있음은 內容이야 如何間 感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花岡石 다리는 이미 600年の 歲月이 지났는데도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는것이 神奇하다고 느껴졌다. 이 다리 北側에는 큰 여러 개의 碑石이 서 있었다.

다음 市廳 뒤 滿月臺를 찾았다. 돌 階段을 밟고 올라가니 宮殿의 옛 터가 넓게 펼쳐 있었다. 아마 東大門 運動場의 倍는 될까?

반듯한 옛 宮殿의 지층돌만 그 자리에 整然하게 그대로 保存되어 있었으나 付屬 建物이 있었을 자리는 平平하게 整地되어 있고 풀만 곳곳에 무성할 뿐 아무도 없었다. 바로 가까이 보이는 것이 松岳山이요 그 밑에 瞻星臺만 외로이 그 옛날을 代表하는 듯 서 있었으며 宮闕의 城壁도 있었으련만 아무 痕跡도 없었다.

高麗 末과 李朝 初의 슬한 悲劇의 擾亂은 한낱 이제와서 追憶의 材料에 不過함을 느끼면서도 過去는 흘러만 가는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의 마음 속에 永遠히 繼續될 것이라는 것을 生覺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다.

## 回想에서 所望으로

### 全明洙(21回)

젊은 時節 放送에 몸 담았던 일들 중에서 日皇이 8·15의 特別放送할 때 正刻 12時 모든 國民들은 緊張된 瞬間이었다. 日軍이 敗亡되고 解放의 기쁨으로 들떠 있을때 8月 16日午後 3時 特別 뉴스 放送을 하고자하는 電話要請이 있었다. “오늘 저녁 6時에 붉은 軍隊가 咸興에 入城하니 市民여러분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咸興驛에 나와 歡迎하기 바란다”하고 서울 中央放送을 中繼하던 當時의 第一放送(日語)과 第二放送(우리말)을 30분 마다 中繼하고 數次 特別 放送을 했다 盤龍山 중터에 자리잡은 放送局에서는 咸興驛 廣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特別 뉴스 放送을 들은 많은 市民들은 트럭까지 動員하여 驛前 廣場에 雲集 하였다.

歡迎 準備委員이라고 쓴 腕章을 달고 案内를 맡은 委員들은 큰 소리로 메가폰을 들고 외쳤다. 그러나 入城 할 時間이 지나고 부터는 붉은 軍隊의 軍用列車가 洪原에 到着 했더니 治安關係로 걸어서 들어 온다느니 여러가지로 낭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밤늦게 까지 많은 市民들이 雲集한 驛前 廣場은 大混雜을 이루고 여러가지 流言蜚語가 나돌기도 했다. 放送局

에는 各處에서 問議電話와 항의 電話가 繼續 되었다.

調整盤에 나혼자 남아서 放送하고 있던 中 完全武裝한 日軍騎馬 憲兵이 銃칼을 들이 대면서 調整室에 들어왔다. 放送局 안을 살살이 수색하면서 뉴스 放送한 것을 確認하고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이러한 大混雜은 所聞을 퍼뜨리고 이 혼란은 3일간 계속되었다.

日本軍 憲兵들은 日本人들의 財産 保護와 治安을 爲해 한동안 駐屯하고 있었으나 얼마 후 蘇聯軍의 入城으로 그 堂堂했던 日軍도 그림자도 볼 수 없이 사라졌다.

1945年 9月 24日과 25日에는 蘇聯軍 司令部에서 政治 社會團體 活動에 關한 特別 放送 要請을 해 왔다. 政治 社會團體는 結社 自由의 原則에 따라 差別없이 붉은 軍隊의 保護와 援助를 받을 것이라는 特別 放送을 하고 政治 社會團體의 綱領 規約과 部署別로 責任者 및 所屬人員 名單을 軍司令部에 提出하라는 것이었다.

當時 建國 青年會 日本 留學生會 民主 青年會등 여러가지 團體가 있어서 모두 正直하게 登錄을 했다. 그 중에서도 나의 學校 同窓이 組織한 民主 青年會는 建國에 奉仕할 많은 會員을 가진 團體였다.

會長으로 朱東雲(前 서울大 教授)을 비롯하여 韓喬石(前 漢陽大 教授) 全鎬璟(事業家) 朴淵禧(作家) 安省信(前 梨大 教授) 李鍾鎭氏 等の 幹部會員들은 밤을 새우면서 團體의 綱領 規約을-露語로 번역하여 名單과 함께 蘇聯軍 司令部에 提出하고 司令部에서 相面하자는 連絡을 받고 幹部全員이 參席했더니 即席에서 무조건 체포 되었다. 이 억울함을 呼訴할 길이 없고 분통이 터질일이 아닌가?

解放의 기쁨과 祖國建設을 爲해서 獻身 奉仕하고자 하는 우리 純眞한 國民을 宣傳과 煽動으로 우리의 自由를 빼앗아 간 것이었다.

蘇聯에 까지 끌려 갔다가 말할 수 없이 많은 苦生을 한끝에 九死一生으로 돌아왔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허무한 일인가?

德壽宮 石造殿에서 美蘇共同 委員會가 열리고 信託通治를 反對하는 쪽과 支持하는 쪽과의 데모가 每日 같이 繼續되고 國內 秩序가 不安定한 軍政時期에 放送 協會에서도 조용하지는 않았다.

美軍政에서 放送系 機構를 專担 運營하고 技術系와 業務系는 放送 協會에 所屬되어 報酬와 其他 待遇差別로 반발이 시작 되었을때 美軍政下에서도 암암리에 共產分子들에 의한 策動이 繼續되고 있었다.

1947年 10月 초순 어느날 저녁 6時項 正規 放送이 아무런 事前 連絡없이 中斷되고 調整室에는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었다. 緊急한 非常事態로 調整盤부터 点檢을 한바 타크트 속에 있는 延禧 送信所에 連結된 放送 케블線이 切斷되어 있음을 發見했다.

放送局 調整室에는 外人出入이 禁止되어 있어서 想像도 할 수 없는 事件이 發生된 것이다. 이 事件이 發生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白晝에 阿峴洞과 西大門까지의 큰 道路의 地下 放送 케블線이 쇠톱으로 切斷되어 正規放送이 中斷되는 事件등은 共產分子들의 所行으

로 群衆 示威 亂動 속에 끼어들어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社會 秩序를 紊亂케하며 公共施設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恒常 警戒해야 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事件들은 보이지 않는 악영들의 策動으로 귀신들의 所行이다.

루비엘첩 사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많은 천사들과 마귀 왕국을 이루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이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 시키려고 지극히 악랄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암병같은 것도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간절히 매달려서 병을 가진 귀신을 쫓아내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體驗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하나님은 天地萬物을 創造하시고 흙으로 만든 人間에게 生氣를 넣어서 靈的 存在로 사람을 만드시고 繁盛되어 살수있게 福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人間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흘려 죽게 하시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죄없이 죽은 예수는 죽은지 사흘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하늘로 昇天 하셨다. 이 땅에서 많은 偉人이나 聖인들이 살다가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없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죄 지은 사람은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노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음부인 이 땅을 벗어나서 예수가 가신 眞理의 길인 永遠한 生命의 길로 가야 한다.

이 世上에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混亂 속에서 迷惑된 일로 眞理가 없다.

38休戰線의 지뢰밭을 걸어 넘어온 심중철 歸順勇士가 하나님의 쓰임받아 무사히 넘어 올 수 있었다고 問證에서 말하고 있다.

淸津에서 배타고 김만철 일家族이 空中의 飛行監視網을 뚫고 海岸警備網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넘어 남쪽 나라에 오게된 것도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어 無事히 올 수가 있었다고 問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重病에서 마지막 所願으로 예수께 나와 간절이 매달릴 때에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많이 體驗하고 있다. 내 목숨이 끝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迷惑의 靈에 속는 잘못된 生覺이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依支할 때에 우리는 永遠한 祝福으로 平安과 幸福된 榮光을 所有할 수가 있다.

구원받지 못하고 內體를 떠난 영혼은 지옥에서 永遠토록 형벌을 받게된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음부에서 떠나 永遠한 저주에서 형벌받는 地獄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妻家食口를 모조리 殺人할 準備를 하고 實行할 瞬間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決死 反對하던 不信者 박영문 성도는 지금 지옥을 體驗함으로 변화되어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聖령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全國各地를 돌면서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自己自身の 意志에 따라 내가 갈 길을 選擇해야 한다. 肉身을 쫓는자는 肉身の 生覺대로 死亡이요 靈의 生覺은 平安과 幸福된 榮光으로 永遠한 生命이다.

아마존 江邊에서 原住民을 전도 集會하든 중 필시콜레박사(Dr.perecy collett)는 5일간이나 그의 靈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榮光을 體驗하고 학국에 까지 와서 내가 본 천국을 간증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體驗으로 가르켜 주시고 있다.

우리는 이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永遠한 榮光된 生命을 所有하는 것이 우리의 所望이다.

## 한글 뿌리에 관한 考察

朱仁鎬(21回)

요즈음 같으면 곧 南北交流도 실현될 것 같고, 母校 先後輩가 단절 되었던 지난 半世紀의 世代分斷을 허물고, 民族文化 同質性 회복운동에 동참할 기회도 엿보인다. 이런 뜻에서 450년전 世宗大王때 한글 文字를 만들어 民族文化를 빛냈던 옛날 語學者들의 눈부신 活躍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가지 한글 뿌리의 學說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國際多樣化時代에 있어서 言語學은 人類學과 같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취급된다. 여기에 소개되는 內容은 국내의 言語學文獻을 답사한 것이고 특히 미국 와싱턴州立大學, 아시아 슬라브 言語學研究所에서 입수한 것이 많음을 밝혀둔다. 여기에는 우리 震壇學會, 한글學會의 文獻이 거의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國語, 國史 기록을 통해 한글은 世宗때 宮中 正音廳에서 여러 學者들이 연구한 끝에 드디어 28字의 訓民正音が 1446년에 반포 되었다고 알고 있다. 1957년 李相佰이 펴낸 한글起源논문을 보면, 그는 結論에서 구구했던 여러 學說을 부정하고 한글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것이라 매듭지었다(發音器官 起源說). 言語史에 나타난 한글 學者들의 여러 주장을 살펴보면 訓民正音を 공포하기 까지 여러 學說이 甲論乙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吏讀라는 것이 이미 新羅時代부터 있었으나 일반 민중에는 보급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漢文사이에 삽입하여 助詞 구실을 하는 것으로(吐라고 함) 言語發展의 초보단계라 믿어진다. 필경 脫漢文化 움직임이 오랜 옛날부터 내려왔고, 成三問, 申叔舟, 鄭麟趾, 朴彭年, 崔신등이 한글 國語化 운동에 활동했다. 이들의 학설을 요약하고 또 이들을 追跡한 사람들을 보면,

1. 古篆說을 주장했던 학자는 鄭麟趾, 崔萬里, 李德懋 그리고 J.S.Gale(1912년)이었다. 중국의 古代文字를 모방했다고 하지만 필경 明나라때 제정된 洪武正韻의 音韻을 연구해서 漢

文聲音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 생각된다.

2. 梵字모방說을 지지했던 분은 成宗때 成俱, 李粹光, 黃胤, 李能和, H. A. Giles(처음의 中英사전 저자)로서 불교 傳來시 인도 梵字를 모방하였다고 함.

3. 몽고 巴思八文字 모방설은 肅宗때 李翼, 柳僖가 주장했다. 高麗, 李朝때에 蒙學, 漢學, 倭學, 女眞學(淸學)의 司譯院이 생겼고 게다가 科試用 譯官교재에 蒙學書 20여종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오늘에 전해진 것은 棲解蒙語, 蒙語類解, 蒙語老大 세가지 책 뿐이다. 몽고 巴思八 글자는 한글과 같이 聲音文字이다.

4. 티벳文字學說은 Leon de Rosny(1864년 佛國)는 한글은 산스크리트 또는 다른 象形文字를 모방해서 만들어졌으며 中聲文字는 梵字에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한국에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日本의 金澤庄三郎도 이說을 지지했다.

1883년 영국의 Isaac Taylor는 한글은 佛徒들에 의하여 南部 “드라비다” 힌두教原典에 사용했던 팔리(Pali)字, 또는 티벳 象形글자와 비슷하다고 했다. 1892년 독일의 Gab elenty는 인도 系統 象形文字를 바탕으로 이것을 幾何學的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高宗때 왕실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는 H. B. Hulbert(1882)는 한글字形은 전적으로 티벳문자에서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言語學文獻을 보면 이외에도 契丹文字, 女眞文字, 樂理說, 28宿起源說, 薛聰창작說, 了義 창작說등이 있다. 심지어는 문작說(글자 모습이 창문작 같다고 함)도 있다. 了義(Liao)는 중국 高僧이 4세기때 佛敎原典 象形文字를 中語 발음기호(注意符號) 子音 20, 母音 16字로 옮겨 썼고 그 후 500년이 지난 후 1376년 明나라 沈約(Shenyo)은 함께 31音表(洪武正韻)를 제정한 바 있다. 世宗王때 申淑舟등 이 遼東에 파견되어 語學者 黃瓚에게 漢文 音韻을 공부했다고 하니 李朝 學者들은 中國의 古代漢文, 洪武正韻의 表音文字, 그리고 地政學의 면에서 이웃 滿洲文字에도 깊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滿洲 글자는 퉁구스족(Tungus) 글자로 蒙古글자를 따서 母音 6, 子音 18자로 된 表音글자로 우리 한글과 비슷하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글제정의 최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석학자들의 아시아大陸 여러 나라 文字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 19~20세기초 西洋文物이 들어오면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西洋 比較言語學者들 눈에 비쳤던 한글 起源說은 어떠하였을까?

위에 언급한 美英獨佛 학자들이 자기네 母國 잡지에 한글 유래를 소개하였고 東洋學者들의 논문을 기초로 그들은 汎世界的인 시각에서 한글을 비교관찰해 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된 것이 1923년 캘리포니아 大學 크레바(Kroeber)교수의 학설이다. 그는 두가지 說을 주장했는데, 그 하나는 6~7세기 地中海 셈族(Semites)의 象形文字가 아랍 商人에 의해 중앙 아시아, 우랄 알타이山脈 주민에 전파되어 몽고, 中國 신강지방 까지 퍼졌다. 그 후 몽고 帝國 세력권 확장으로 만주, 韓半島까지 퍼졌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假說은 한글 모습이 인도 드라비다 地方 힌두教 原典의 파리文字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佛敎 전파시에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학설중 먼저 靺鞨 文字의 渡來說에 關해 人類文化史면에서 考證을 찾고자 한다. 6~7世紀는 新石器, 靑銅時代에 해당된다. 알타이山脈속의 인종은 터키系 靺鞨, 몽고系 여러 部族들이 살고 있었다. 1240~1480년 韓半島는 몽고 支配下에 있었다. 한글이 言語學上 몽고, 日本語와 같이 우랄알타이系에 속한다고 일컫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몽고淸語, 漢淸文檻등에 기록되어 있는 만주語 表音文字와 한글을 비교 대조해 보면 몽고, 만주語, 한글의 文字가 그렇게 흡사할 수 없다. 日本의 오구라(大倉 新平)의 朝鮮語學史에도 이러한 것이 실려 있는 줄로 기억된다.

둘째로 인도 파리語 渡來說에 關해 1920년 Hulbert는 三韓(馬韓, 辰韓, 弁韓) 주민은 인도 드라비다 地方에서 온 민족이라고 한 바 있다. 드라비다族은 원래 우랄알타이系 몽고屬으로 아리안族이 인도를 휩쓸었을때 일부는 대칸高原 쪽으로, 일부는 버마, 말레이아를 거쳐 필리핀, 대만으로 쫓기었는데 심한 海流에 난파를 당하여 오끼나와, 일본, 한국 남해안에 표착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상에서 國內外 학자들의 관찰을 통해보면 한글은 象形文字(인도, 아랍, 몽고, 티벳, 만주)에 뿌리를 박고 한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中國 洪武正韻, 聲音字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풀이된다. 대저 言語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人類文化史와 같이 끊임없는 변화를 받는다. 오늘의 몽고 글자는 러시아 알파벳으로, 만주語 문자는 漢文 表音 기호로 변했다. 아랍어의 音韻도 게르만系 영향을 받아 音이 변질되었다고 한다.

15세기 한글은 28字로 英語 알파벳보다 2字가 많았다. 한글 制定 당시에는 어려운 音節도 쉽게 발음하였으리라 생각된다. 5백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24字로 줄어 들었다. 西洋文化로부터 두절되었던 李朝사람들은 科學기술의 어려운 말을 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래서인지 R,L을 비롯해서 U,W,B,V,F,P같은 혀끝 입술음이 疑態化되고 말았다. 한글 辭典에서 발음기호 R,L 즉 “ㄹ”페이지에 실린 어휘를 보면 모든 단어는 外來語이고 우리말은 몇개 語尾部節에 지나지 않는다. 漢字 L音은 한글에서 I,Y,N로 변질되었다(예 : 里, 龍, 老의 音質변화). 日本에서는 R,L音이 그 中間音으로 되어버렸고 K,T 表音은 전혀없다. 한국, 일본 사람들이 外來語表記에 곤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日本文字는 10개 子音, 5개 母音의 組合으로 50개 기본글자, 중국表音은 23개, 單, 雙子音과 36개 單, 雙母音 800여개 組合表音, 四聲音으로 많은 漢字音을 발음해야 하므로 音聲學的 혼잡성이 있다. 우랄알타이系 言語(몽고, 한국, 일본, 터키, 헝가리, 핀란드)의 특징은 音節이 대개 子母音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母音 調和法則). 예를 들어 나란(Naran) 어휘는 몽고에서 태양, 한국에서 나라(Nara), 일본에서 奈良(Nara, 首都의 뜻)로 그 뜻이 변천되었으나, 子音, 母音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韓族의 元祖가 太陽崇尚 신앙을 가졌다는 古事는 아마 몽고屬에서 오지 않았을까. 터키, 헝가리, 북부 러시아 地方(옛날 몽고의 지배하에 있었음)에 가면 音節에 PF, SK, SH, CH, ZH등 二重子音의 연발로 調和法則이 깨어진다. 이것은 게르만系 言語에 의한 干涉作用이다.

금세기에 들어 새로 등장한 東部아프리카 스와히리語처럼 調和法則이 잘 발달된 언어도 없다. 이 言語는 아라브語와 아프리카 반투語(Bantu)의 혼합으로 된 東部 아프리카의 公用語이다. 都市이름을 보더라도 Kisumu, Nakuru, Masaka 등 일본 이름과 비슷하다. 中國語가 우랄알타이 系列과 文法, 音聲學的으로 달리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中國 대륙에 몽고 세력이 뻗치기 전 이미 漢文表記 기호가 완속되어 있었고 또한 中華思想은 배타적이어서 좀처럼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까닭이라 한다.

다음에 세계 言語學分類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930년대 세계 言語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 言語群으로 정리되었다. 즉 인도 게르만系, 우랄알타이系, 중국-말레이지아-폴리네시아系였다. 지난 半世紀 동안 比較言語學이 크게 발전되고 細分化되어 지금은 10개 言語群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에서 우리 한글을 言語學的인 면에서 대략 살펴보았다. 自由開放화된 국제시대에 豊盛한 삶의 質을 충족시키기 위해 言語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하겠다. 言語는 思考를 결정한다. 우리는 祖上들이 心血을 기울여 창안한 훌륭한 한글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더욱 닦아 발전시켜야 하겠다.

## 追憶

崔昌奎(21回)

春分이 지나고 꽃샘바람이 제법 맵다. 그래도 뜰에 나가보면 완연히 봄을 느끼게하는 요즘 都城을 멀리 떨어져서 落鄉답지 않은 落鄉을 해서 조용히 自然과 더불어 人生을 생각하고 冊이나 읽고 山野를 拔涉한다면 老境에 제법 餘裕있고 幸福한 生活을 보낸다고들 하겠지만 其實은 都城의 濁한 空氣나 奔忙한 움직임이 體質에 맞지 않아서이고 이웃에 몇몇 벗이 있고 가까이에 바다가 있어 好奇心에 와보니 어렸을때 생각하던 옛 선비들의 그런 浪漫的인 또는 脫俗한 그런 落鄉은 못된다. 바다라고해야 개펄이 넓고 濁한 西海의 밀물과 썰물의 差가 너무도 커서 바다라기 보다 不潔한 개펄이라고 하는 것이 알맞고 가난하고 적은 漁港이지만 제법 바다 냄새는 나고 가끔 갈매기도 두세마리 나르고 있기는 하다. 뒷 山엔 벌써 진달래 꽃봉오리가 터지려고 하고 모든 雜木들의 가지에도 물이 오르고 있다. 밤이면 별이 쏟아지고 고요하니 늦게까지 冊읽기에 좋고 空氣가 맑으니 落鄉의 맛이 제법나기는 난다. 藝術人이 무얼 하고 무얼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이름이 安山藝術人 아파트라고 하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한다. 어떤 藝術人들이 얼마나 모여서 사는 아파트村인지 하고 가끔 낯설은 사람들이나 客人들이 기웃거리기도 한다.

四月이 오면 中國大陸에서 黃沙가 뽕양게 날아오는 때이다. 아마도 그 黃沙塵은 맨 먼저이 적은 아파트村을 掩襲하리라. 蒙古와 中國의 봄냄새를 가득 싣고 흐린날 같이 太陽을 가

리면서 每年 定期的으로 날아오곤 한다. 요즈음 같아서는 別생각들이 다 떠오른다. 특히 어렸을 때의 追憶들이 왜 이렇게 떠오를까. 나이가 古稀를 넘으니 그런가보다라고 생각도 해 보지만 그런것 만은 아닌것 같다. 서울보다 조용하고 空氣가 맑아서일까. 나의 生活이 活氣가 없어서일까. 濠洲엔 꿈을 먹고사는 動物이 있다고 들었다. 아마도 人間이란 追憶을 먹고사는 動物인지도 모른다. 잊혀지지 않고 記憶이 나는 것은 “人間은 누구나 다 幸福해지려고 하고 幸福을 渴求한다. 때문에 젊었을 때 아름다운 追憶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幸福한 사람이다”라고 어떤 名士가 한 말이다. 追憶이란 지나간 時間帶 속에 屬하는 過去의 일들이다. 그 當時야 괴롭던 슬프던 追憶이라는 領域속에 들어가면 모두 다 아름다와진다는 것이 追憶의 特性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러하다면 나의 追憶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人生의 뒤안길에서 일어났던 크고 적은 事件들일 것이다. 그 자질구레한 過去之事가 괴로왔든 즐거웠든 이제 와서는 나의 아름다운 追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回想하면 꿀보다도 더 달콤한 感興에 사로잡혀서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多陽한 窓가에 앉아서 想想하듯 끊임없이 이어져 떠오르는 追憶들을 되씹으면서 조용히 自慰한다. 이런 時間이 요즈음의 나의 生活中에서 어쩌면 가장 幸福한 時間일런지도 모르겠다.

威鏡道 두메산골 10戶 남짓 밖에 없는 작은 山村에 태어나서 書堂과 祖父님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으면서 나는 맨발로 30里길 公立普通學校를 다닌것이 나의 少年時節이었다. 이 時節의 追憶은 참말로 아름다웠다. 30里的 山野를 洞里 아이들과 더불어 비가오나 눈이오나 六年을 다닌것이 지금와서 생각해도 대견하고 學校를 오가는 途中에서 어린 시골아이들이 산에서 개울에서 뛰놀던 일들은 異常하게도 하나도 忘却하지 않고 記憶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치 野生兒들을 放飼한 그런 狀況을 想像하면 바로 그대로였다. 개울에선 으레 송사리도 잡고 가재도 잡아 구워먹고 山에선 진달래꽃을 따먹고 못 山열매를 따먹으면서 野生兒들 같이 成長을 했다. 이런 追憶들이 먼 어렸을 때의 追憶이긴 하지만 古稀가 된 요즈음에 와서 생각만해도 그 때가 그림고 그때로 되돌아 갈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犧牲하고라도 온갖 것 다 버리고라도 되돌아가고 싶은 心情이다. 눈물나게 그리운 나의 어린 少年時節이 몹시도 그리워지는 요즈음이다. 난생 都市라곤 面事務所가 있는 장터에 어머니를 따라 장날에 몇번 가보았던 정도이고 무슨 일로 祖父님을 따라 永興邑(郡所在地)에 갔다가 山골 村놈이 日本人 巡查를 보고 무서워서 祖父님의 옷자락을 죽어라 꼭잡고, 惶惚하게만 보이던 그 많은 商店들의 고무신이며 옷감, 祖父님이 사준 오리 모양의 砂糖의 맛이며 別것을 처음 본 山골 少年은 普通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四寸兄이 다니던 威興으로 中學入學試驗을 치러 가게 되었으니 官은 나고 가슴은 뛰고 이 적은 山村에는 옛날 科擧보러 떠나는 道令님을 傳送하듯 온 洞里사람들이 洞口까지 나와서 試驗 잘 치르라고들 했다. 그 洞里사람들 뒷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처음 보는 大都市 威興! (當時 威興의 人口는 3萬이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가주셨다. 처음타는 汽車며 威興驛에 내렸을 때는 完全히 질려서 아버지 뒤만 따라갔다. 四寸兄의 下宿



집에 가서 三日間을 자면서 12對 1의 競爭率이었고, 全道에서 내노라하는 秀才들만 모인다는 威興公立高等普通學校의 入學試驗에 應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뉘이 데리고 威興高普엘 가 보았다. 學校正門으로 들어가서 부터는 모든 것이 아찔했고 官만 나서 내가 果然 試驗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何如間 다음날 가서 手續한 것을 確認하니 196番이 나의 受驗票였고 第4受驗室이 나의 試驗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터 試驗이 다 끝날 때 까지 四寸兄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試驗은 豫想보다 쉬웠다. 첫 時間 數學試驗을 치르고 나와서 뉘이 벌써 적어가지고 있던 答과 맞추어 보았다. 다 맞은 것이다. 나는 거짓말 같기만 했다. 그런데 옆에서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受驗生이 내게 다가와서 答을 맞추어 보자고 했다. 서로의 答이 다 같았다. 그도 몹시 좋아했다. 이 受驗生이 바로 後日 同期生이 된 新興郡 山골에서 온 韓喬石 學友였던 것이다. 只今도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댄다. 다음 날 合格者發表名單이 나붙었다. 나는 나의 番號를 찾지 못했다. 뉘이 어깨를 치며 “合格이야” 하면서 소리를 치고서야 發表番號表를 보았다. 確實히 내눈에도 196番이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집에서 떠나올 때의 洞里사람들 뒷쪽에서 울고 계시던 어머님 얼굴이 보였다. 말도없이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가 와 계셨고 아버지는 벌써 내가 合格한 것을 알고 있었고 同年輩의 어른에게로 데리고 가서 人事를 시키면서 “이놈이 내 아들일세”하시며 웃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이사람아, 자네보다 더 잘생겼네 그려”하며 웃었다. 바로 이 분 옆에 키가 큰 受驗生이 서 있었는데 서로 親히 지내라고 두분이 타일렀고 우린 서로 目禮를 했다. 바로 이분이 아버지와 이 學校의 同期同窓이신 高先生이고 그 키 큰 受驗生이 그분의 아들이었고 後日 나와 2代째 同期同窓이고 같은 野球部에 있던 高變動 學友였을 줄이야. 歸鄉한 날 洞口에 온 洞里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다. 어머님은 나를 부둥켜 안고 또 우셨다.

이리하여 나의 威興高普 5年の 學窓時節은 始作되었다. 野生兒로 자란 덕에 모든 運動엔 自信이 있었다. 陸上, 野球, 蹴球, 스케이트等 거의 다 學校의 代表選手가 되었고 日本 厚生省에서 처음으로 制定한 體力檢定에서는 全校에서 겨우 3人の 上級이 나왔지만 그 중에 나도 들어 있었다. 다른 威商, 威農, 永生高普等에는 上級이 없는 곳도 있었고 1名이나 2名程度였는데 우리 學校에서 上級3, 中級27, 初級 270名이란 壓倒的인 숫자로 他校들을 눌러 버렸다. 美術部에 들어 西洋畫를 그린다고 하다가 祖父님이 下宿에 와서 畫具를 다 부셔버리고 崔氏門中에 환쟁이가 다 무어나고 大怒하셨다(祖父님은 儒學者로 舊韓末 侍從官을 지내신 분이시다). 그래도 나는 日置(혜기)라는 美術先生을 좋아했고 石膏 데생도 放課後에 하고 油畫를 그렸고 鮮滿中等學校美術展에도 出品해서 入選하여 卒業때 校友會賞을 타기도 했다. 以上과 같은 逸話나 追憶은 許多하지만 特記할 만한 事件이나 追憶은 몇가지가 있다.

4學年때 “交通의 날”에 鹽崎(시오짜기)校監의 引率로 威興警察署後庭에 갔다. 2名の 巡査와 軍營通 거리에 나가서 行人들의 交通整理를(左側通行) 한 時間程度하고 다시 警察署後庭에 集合하고 있노라니 日人警部(制服에 붉은줄이 있는 바지와 長靴를 신고 帽子에 金테를

두른)가 나와서 交通의 重要性에 對해서 簡單한 訓示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 學生들 隊列의 右側에 遇番인 尹君昌君이 서 있고 鹽崎先生도 서 계셨다. 그 때 警部에게 尹君이 “차렷”, “敬禮”를 하고 “쉬어”하고 訓示를 들었다. 警部の 訓示途中에 “오늘날 植民地에 있어서의 交通秩序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句節이 있었다. 그 때 突然히 尹遇番이 왼손 주먹을 높이 들고 “質問이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警部도 놀란 表情으로 “級長, 무슨 質問인가?”했다. 尹君昌君은 차렷 姿勢로 當當히 “지금 訓示中에 植民地에 있어서란 말이 계셨는데 그 植民地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쏘아댔으니 그 警部는 “그거야 勿論 여기 朝鮮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對答했다. 그러자 尹君은 鹽崎先生에게 “先生님이 歷史時間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先生님은 [朝鮮은 絶對로 植民地가 아니다. 慌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서는 一視同仁으로 朝鮮人도 日本人과 同一한 赤子로 사랑하시고 계시므로 朝鮮은 植民地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至今 저 警部께서는 朝鮮을 植民地라고 確言했습니다. 어느쪽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라고 興奮한 語調로 다구쳐 물었다. 그랬더니 鹽崎先生은 警部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取消하라고 抗議하셨다. 警部和 鹽崎先生間에 若干의 言爭이 오가고 우린 그들 두사람을 남겨두고 隊列을 지어 學校로 돌아왔다. 그 後 校長인 橫田峯三郎 先生님이 道文敎局엘 가고 警察署長을 만나고 와서 4學年敎室에 오셔서 그 警部가 잘못 알고 錯覺한 것이다. 警察署長의 謝過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鹽崎先生의 말씀이 옳은 것이며 朝鮮은 植民地가 아니라고 하셨다. 우린 그 内幕이나 그들끼리의 그 問題의 處理 過程을 알길은 없었지만 大略 肉感으로 짐작은 할 수 있었고 橫田校長이나 道學務局이나 警察署는 우리 學生들의 感情을 撫摩한 것이 틀림없다고들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咸興高 普라면 日本人들은 思想不穩한 학교로 알고 있었고 實際로 同盟休學이든지 또는 思想的인 問題로 因해 몇번인가 事件이 났던 것도 事實이다.

어느해 5월인가 따뜻한 봄날이었다. 當時朝鮮總督이었던 宇垣一成가 學校에 왔다. 그는 運動場에 全校生을 모아 세우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確實히 記憶하고 있다. “諸君들, 朝鮮엔 이런 學校가 많다. 그런데 왜 이 늙은이가 이 學校에 세번씩이나 왔어야만 하는가? 諸君들은 思想이 不純하고 學生답지 못한일을 했다. 다시 한번만 더 어떤 不祥事가 난다면 그때는 廢校시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리곤 先生들을 돌아다 보면서 “貴官들도 精神차려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先生님들은 모두 머리 숙이고 謹慎하는 態度였다. 그래도 나는 그때 속으로 痛快했다. 왜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咸興高 普在學中 그 많은 大小의 事件이나 逸話中에서 植民地 云云의 事件과 宇垣總督의 늙은 얼굴의 表情이 나의 追憶中에서 가장 鮮明하게 남아있고 痛快했으며 어린 마음에서도 어깨가 으쓱했다. 그 後 바람에 들려오는 消息엔 勇敢하게 質問했던 尹君昌學友는 北韓要職에 있다가 肅淸당하고 銃殺까지 당했다고 들었다. 勇敢했던 學友의 冥福을 眞心으로 빈다.

咸興高 普! 確實히 優秀한 名門校임엔 틀림없다. 卒業 앨범에 이런 句節이 적혀 있다. “너는야 大臣 나는야 大將”. 그 말대로 우리 同窓中엔 國務總理도, 長官도, 將軍도 있었다.

北鮮의 名門校인 威興高普를 父親이 卒業한지 18年만에 내가 또 入學했다는 우리집과 威興高普와의 關係는 무슨 因緣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의 大部分이 그 木造2層教室과 運動場에서 받은 教育과 訓練의 德分이라고 믿고 있다. 수많은 아름다운 追憶이 이學校 教室과 運動場과 學校를 둘러싼 아카시아 숲속에서 사라난 것이고 그 많은 追憶들이 古稀의 나를 幸福하게 해주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다시 學校에 가볼수 있겠는지 期約은 없으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威興高普요, 나를 이처럼 크게 해준 곳 威興高普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數많은 逸話와 아름다운 追憶을 되씹으면서 落鄉의 地에서 봄기운이 맴도는 故鄉땅 北쪽 하늘을 쳐다보며 校友들의 얼굴을 그려본다. 올봄에도 校庭의 아카시아 巨木들은 健在하고 달콤한 냄새를 내뿜고 있겠지. 몇번이고 꿈에도 나타나는 나의 母校 威興高普여, 永遠하라.

## 失季節과 나

韓 喬 石 (21回)

小生の 當年曆에는 佳期가 들어 있지 않았다. 春來 不似春이 아니라 아예 春三月이 오지 않았다. 近 半世紀 철을 잃을 때마다 목숨도 잃을 뻔한 나에게 이 異變은 例常事일 수 없다.

난생 처음의 일, 一九四三年의 가을이 걸음마에서 失蹤하였다. 이해 九月 二十日이었다. 京城日報는 「全國의 專門大學 法文系學徒 徵集」이라고 큼직히 보도하였다. 그런데 數段의 記事의 끝머리에 고작 두줄 “나아가 半島人學生에게는 志願兵의 길이 열린다”는 고이소(小磯) 總督의 駭怪한 妄發이 붙어 있었다. 超緊張의 나날이 흘렀다. 푸른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고 依例의 楓嶽山行도 命脈이 끊겼다.

여하튼, 이 열린 길에 스스로 들어 선 朝鮮人 學生이 과연 一名이라도 있었는지 조사한 적은 없으나, 결과로는 협박과 공갈에 못 이긴 자, 앉아서 체포되어 강제노동에 복역한 자, 지원하지 않았거나 하여 놓고 도피한 자로 大別된다. 극소수이지만, 日人 경찰 서장을 매수 하여,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억지수로 肺를 해쳐 災殃을 면한 자도 있었다.

당연히 나도 누차 強迫을 당했다. 파출소에 불러 갔고, 형사가 찾아 왔다. 게다가, 막내인 나한테 “오빠 빨리 지원하세요 여동생”이라는 電報가 날아 들기도 하였다.

어차피 죽을 신세라고 각오는 하였지만 살아 남을 방도를 모색도 하여 보았다. 「산골이나 滿洲로 피신한다」, 「지원하고 합격하면 자취를 감춘다」, 「지원하고 불합격을 피한다」.

신체검사는 十二月 十日에 시작되어 同月 二十日에 끝났는데, 運이 트여 城大의 日辰은 꼬라비. 첫날 이른 아침, 朝鮮軍司令部 소재인 龍山으로 정신 없이 달려가, 종일 허둥지둥 주워 모은 각종 정보를 면밀히 解析하여 보니, 就中 體重減量이 效驗이 뚜렷할 듯 싶었다.

즉각, S君, K君과 斷食에 들어갔으나 兩君은 翌日 斷念하였다. 나도 배가 고파 絶食에서 減食으로 바꿨다.

이로 丙種을 얻어 내고 학교에 남아 小磯總督의 訓辭를 들은 뒤 式場에서 卒業證書를 받은 法文學部 最後唯一의 朝鮮人學生이 된 것은 一九四四年 九月 二十二日이었다.

돌이켜본대 前年の 晩秋 月刊「朝光」의 청탁으로 『後輩에게 당부하다』를 「통털어 歷史는 矛盾을 푼다」로 맺었으나 용케도 筆禍에는 걸리지 않았다.

所謂 大東亞戰爭으로 잃은 지난날의 級友가 넷 一日本人 二十名 全員 應召 二人 行方不明, 朝鮮人 九名中 四名志願 一名 不合格 二名 戰死. 行方不明을 戰死로 보아 日本人의 戰死率은 10%, 朝鮮人의 그것은 66%强이다.

一九四五年부터 向後 六年 나는 季節感覺을 喪失하였다. 언제고 어디서고 죽음이 따라 다녔다. 이따금 徘徊하다가 가는 바깥 다가섰다.

그해 十月 二日, 수명의 회원과 나는 十余名의 괴한들에게 체포당했다. 로마넵크 少將이 長인 붉은 군대 政治司令部 一舊 日本軍 咸興地區 憲兵司令部 一門前에서였다. 舊 警察署인 保安隊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생벼락이었기에 무엇으로 얼마나 어떻게 맞았는지 모른다. 아직도 가지지 않은 상처를 살피며 이 글을 쓰고 있노라니까 한 사나이의 험상궂은 얼굴이 떠오른다. 「아리랑」에 惡役으로 출연한 朱寅奎다.

형무소로 끌려가 붉은 군대 專管의 獨房에 收監된지 수일 후부터 본격적인 취조를 月 一回로 六次 午前 一時에 개시하여 二,三시간 쥐도 새도 모르게 地下室에서 받았다. 第一次 訊問者는 나자로프大尉 통역은 李福淳 戰中 咸興에 潛入한 蘇聯國籍의 스파이였다.

“한교석이야?”

“내 이름입니다”

“응, 이제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할 테지?”

“그렇습니다”

“여기 이름 써”

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거짓말 하면 총살이야. 알았어?”

“거짓말에 속은 일은 있지만, 거짓말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삼시에, 나자로프는 권총을 꺼내어 나의 머리를 겨누더니 탁 치면서 책상 위에 놓았다. 짹 다문 알팍한 두 입술, 셋노란 날카로운 두 눈, 그는 시종 차디찼다.

“會를 조직했다지?”

“조직한 수천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놈의 새끼 바른대로 말해”

“방금 서약하였습니다”

통역은 주먹을, 대위는 권총을 휘둘렀다.

“咸南民主青年會 목적은 무시기야?”

“司令部에 문서로 제출하였듯이 건국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主義는?”

“붉은 군대 政治部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主義가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

“나는 主義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조국의 재건에 봉사하려는 정열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反蘇, 反共이 아닌가?”

“그렇다면 司令部를 찾았겠습니까?”

우리 會가 自由와 民主, 反蘇와 反共의 宣傳文을 등사하여 달포나 살포한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 어쨌든, 六回의 調書를 꾸미고는, 이듬해 四月 二名의 회원과 함께 나를 시베리아로 押送하였다. 有蓋貨車로 豆滿江을 건넜고 美國이 원조한 트럭에 실려 蘇滿國境을 넘었다. 師團 소재 그라스키나를 거쳐 軍團 소재 바로셀로프(現 우스리스크)에 도착한 것은 떠난지 四,五日 후였다. 이곳에는 滿洲國 皇帝 溥儀, 汪兆銘 政府軍 中將 朴炳周(平壤出身) 日本軍 少將, 關東州 長官, 近衛文磨 總理大臣의 아들, 아버지가 昇曙夢인 昇隆—등도 갇혀 있었다

이 軍團司令部 臨時收容所에는 朝鮮人, 中國人, 日本人, 白系露人, 蘇聯人이 섞여 있었다. 네번 방을 옮기는 중 나는 그들을 골고루 만났는데, 특히 昇隆—一九七五年 八月 東京에서 再會—로부터 러시아語, 蘇聯 사정을 기꺼 배웠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었다. 十五年쯤의 刑을 받고 겨울에는 영하 五,六十도로 내려가는 炭鑛이나 森林에서 重勞動을 당하다 命이 질기면 석방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무고한 두 姊妹를 죽이고도 六年의 징역형을 받은 라스코리니코프의 帝政러시아가 생각 났다.

단조로우나 때로는 의외의 사건도 벌어진 獄살이 百日, 우리 셋만을 웬일인지 취조 없이 不起訴로 平壤, 咸興에 移送하더니, 十月 七日에는 그냥 풀어 주었다. 그러고는 서울로 가지 말라며 十月 二十日 나를 咸興醫大教授로 發令하였다. 以後 四年余, 술한 스파이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보고한 나의 기록이 政治保衛部에 한 卷의 책으로 남아 있다.

나는 每事에 극히 조심 하였다. 결혼식도 강의를 끝내고 늦은 오후에 올랐다. 식장은 처의 모교인 舊 永生女高—당시 咸興醫專—강당, 식후에 단 한장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四面의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세계 인류의 태양 스탈린대원수…」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등을 피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허사였다. 피난 보따리에 묻어 온 앨범 하나에 붙어 있는 이 사진 구석에는 「조선인민의…」가 희미하게 찍혀 있다.

마침내, 一九五十年 六月 二十五日 未明 金日成은 기습 남침을 강행하였다. 스탈린의 재가를 못 얻어 九個月쯤 늦춰야 하였다. 이날 이후 四個月, 나는 必死의 도피행각에 나서 집요한 정치보위부원들의 추격을 뿌리쳤다. 체험과 대비가 無上의 藥이었다. 나의 친구들은

대다수가 慘殺당했다. 설마가 그들을 죽였다. 冥福을 기원한다.

현재 나는 무서운 병을 치료 받고 있다. ADENOCARCINOMA, 이것이 나의 병명이다. 三週의 생리검사, 八시간 전신마취, 六시간 수술에는 나이답지 않게 거뜰히 견디었으나, LINEAR ACCELERATOR THERAPY에는 녹초가 되었다. 飲食慾이 송두리째 결단났다. 그래도 극히 遲遲하나 회복의 기미가 보여 一縷의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나니라」 「年年歲歲花相同 歲歲年年人不同」  
무수한 危機와 死境을 넘어 이미 古稀을 누린터라, 生에 戀戀하지는 않으려다.

조만간 나도 「南夕」으로 찾아 가야지.

1990. 7.

## 그리운 金剛山修學旅行

金禧庚(22回)

요즘 北方外交의 積極 推進탓인지 金剛山 觀光問題들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中學時節에 金剛山修學旅行을 다녀온 일이다. 時空을 超越하여 회미해진 옛 追憶에 잠시나마 잠겨보는 것도 정신 위생산 좋은 일일지 모르겠다.

우리 母校 威興高普(威南中學)는 힘든 入學試驗이라는 關門을 뚫고 들어오면 一學年부터 授業料에 수학여행비를 포함시켜 積金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四學年이 되면 萬洲旅行(우리 때 까지는)을 하고, 五學年 最終學年에서는 금강산 수학여행을 하겠금 되어 있었다. 靑少年 學徒들로 하여금 넓은 世上과 未知의 世界에서 見聞을 넓히려는 이와같은 教育方針은 매우 有益하였다고 믿는다.

五學年 이른 초가을 나무잎이 단풍들기 시작할때, 우리들은 겨울 채비를 하고 擔任教師의 인솔하에 金剛山으로 떠났다. 鐵原에서 電氣鐵道를 갈아타고 內金剛으로 들어갔다. 두세칸만 연결한 電動車는 소리가 거의 나지않아 乘車感이 매우 좋았다. 內金剛驛에서 下車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寺刹建物 같은 韓國式이었고 그 뒤로 둘러싼 連峰은 山水畫를 그린 屏風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景致에 매료되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旅館에서 旅裝을 푼 우리들은 저녁 自由 時間때에 거리로 散策 나갔다가 好奇心으로 土產物 가게에 들렀다. 이때 마치 우리와 같은 날에 이곳에 온 袈裟 차림의 서울 S女商 學生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꽃 있는데 나비가 그냥 지날 수 있겠는가... 장난기 심한 몇 친구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으며 한마디 두마디 하다보니 떠들석하게 되었다. 이때 旅舍에서 쉬고 있는 줄만 알았던 擔任 奧野先生이 和服을 걸치고 우리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한 친구의 “先生이 온다”하는 다급한 소리에 놀란 이 장난 꾸러기들은 돌맹이가 날아와 四方으로 흩어지는 개미떼처럼 놀라 달아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몇 친구가 담을 넘어 뛰다

가 그만 帽子를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서 부터 苦悶이 發生하였다. 그것은 服裝檢査나 点呼라도 한다면 금방 탄로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날 저녁은 요행히 그런일 없이 넘어가게는 되었지만 아직 고민이 끝난것은 아니었다. 우선 앞으로 歸路에 車中에서의 問題가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이 소동의 餘波로 分隊長들이(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고, 한 분대는 10명으로 편성된 듯하다. 母校에서는 級長制度가 없고, 週番이 輪番으로 班일을 責任지고 말게 함으로써 누구나 指導者가 되어보게 하는 것이 特徵이었다) 모두 召集되어 久米山莊(毘盧峰가까이에 있던 日人 經營의 花崗岩材로 된 산장)에서 밤늦게까지 세이자(靜座)하고 꾸지람을 들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豫定되었던 金剛山 最高峰인 毘盧峰에서의 日出을 보지 못한 것이 恨스럽기만 하다. 이 山莊은 高度의 관계로 밥을 지어도 잘 되지를 앓았고 飲料水의 供給도 극히 制限되어 세수는 엄두도 못내었다. 때 늦은 출발을 하였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最頂上까지 올라갔다. 頂上 까지에는 바람이 센 탓인지 나무들이 果樹園의 나무처럼 키가 낮고 옆으로 퍼져 있었다. 나무 껍질도 흰빛의 나무가 많았다. 頂上 가까이는 소(牛)등처럼 굴곡된 곳이 계속되기도 하였고, “毘盧峰”이란 나무 팻말이 꽂혀 있는 곳은 큰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큰 소리를 질러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金剛門(바위가 兩쪽에 바짝 서 있어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수 있는 틈)을 지나자마자 눈 아래는 바로 낭떨어지가 아닌가. 간담이 서늘하였다. 허공에는 가냘픈 쇠줄다리가 매달려 있는데, 이 줄다리를 타고 내려가야만 九龍淵으로 갈 수 있다. 그야말로 進退維谷이다. 우리는 인솔교사의 指示에 따라 무서우니 등을 아래쪽으로 대고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한걸음 한걸음 뒷걸음질하며 내려갔다. 아래에 닿으니 식은 땀이 등줄기를 쭉 흘렸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九龍瀑布의 壯觀을 구경하고 團體寫眞을 촬영하였다. 이 근처에는 작은 가마귀떼가 하늘을 덮고 있었다. 이곳에서 쉬는 사이에 이 山에서도 가장 가파로운 곳으로 알려진 上八潭에의 등반대원을 뽑았다. 勿論 나도 志願하여 혼신의 힘을 내어 올라갔는데, 사과값이 아래에서 보다 3배나 더 비싸 놀랐지만 그 까닭은 알만하였다. 다시 아래쪽으로 걸어 가을이면 빨간 단풍이 우거져 “楓峽”(단풍터널)이라 불려지는 곳을 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普德窟앞을 지날대는 나혼자 길도 제대로 나있지 않은 곳을 기어서 벼랑에 체비집 같이 지은 그 암자로 올라갔다. 이때 별안간 “이곳은 남자들이 올라오는 곳이 아니야!”하는 한 女僧의 고함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마음 弱한 나는 그냥 내려오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알았지만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한 文化財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確認할 機會를 놓치고 만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金剛山旅行中 또 하나 記憶에 남는 것은 “고오상”(黃樣, 黃氏)이라는 案内者였다. 우리는 걸어가다 다리가 아프면 가끔 쉬었고 “고오상 감시다!”를 連發하며 그 山사나리와 多情한 時間을 보냈던 것이다. 이 사나이는 卒業後 金剛山을 다시 찾았을 때 再會를 하게되어 무척 반가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追憶을 많이 안고 學校로 돌아왔다. “모자사건”은 車中에서도 이렇저럭 넘길 수 있었고, 歸校하여 週마다 있는 服裝檢査에도 그들 粉失者(?)들이 非常한 知能을

發揮하였던 까닭인지 別탈없이 넘기게 된 것은 千萬多幸이었다.

몇해 전 金剛山, 故鄉이 그리워 東草北쪽의 統一展望臺에 가본 일이 있다. 구름에 가려서 山봉우리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머리속에 父母님 보고, 元山에 잠시 다녀옵시다 하고 속이고(農事일이 바쁘다고 頑強히 拒絕) 감자의 수곡을 모두 마치지 못한채, 두분과 같이 金剛山에 갔던 생각이 떠올랐다. 鬼面岩앞에서 3명이 나란히 서서 寫眞찍은 것이 이 世上에서 父母님을 제대로 한번 모시는 흥내라도 내본 처음이자 마감이 되어버렸다. 金剛山中腹을 흘러가는 구름속에서 그때의 두분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다.

歲月이 덧없이 흘러 우리가 母校를 卒業한지도 올해로(1990.3.7) 꼭 50년이 되었다. 그날 同期生들 끼리 조출한 모임을 가졌었다. 그때 金剛山 이야기가 話題에 올랐었는데. 한 친구가 世上事情이 좋아져 金剛山 觀光이 可能해 지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修學旅行(?)가 보자”하는 소리가 나왔다. 우리들의 이 素朴한 所望이 꿈이 아닌 現實로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期待해 본다.

## 老스승 한순현先生님에게

韓淳輔(22回)

板門店까지 왔다가 自己네들 統一戰線目的이 達成되지 못할 것 같고 또 터무니 없는 歪曲된 宣傳資料를 만들기 위해 되돌아 갔다는 아침 뉴우스를 듣고 새삼 失鄉의 아픔을 되씹어 봅니다. 몇年만 고생하면 父母兄弟가 있는 州北面 故鄉에 되돌아 갈 것으로 생각했던 38度線! 어언 40余年의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1947年 가을인가 봅니다. 龍山에 사시는 宋基威아저씨宅에 몇달 묵게 되었을때입니다.

그렇게 尊敬하고 그리워하든 한순현校長(當時龍山中校長在職)先生님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모진 歲波 겪으시며 오로지 敎職에만 몸담아 오신 韓校長先生님! 몇해 卒業임을 말씀드리고 父親 말씀드렸더니 記憶을 되살리셨는지……눈물이 老스승의 눈가에 어리셨습니다.

외툭 越南한 小生도 말문이 콧 막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해 안가서 老스승은 別世하셨다는 消息을 들었습니다. 小生不孝者이면서 스승님에게도 罪지은 몸처럼 느껴집니다.

敎材에 나오는 새 數學問題를 칠판에 써 놓으시고 아무나 呼出하여 칠판에서 풀게하시고 풀지 못하면 칠판에 머리를 짚게 하신 實로 嚴하신 敎育者이신 老스승님! 다른 宿題는 못해가도 數學問題만은 豫習을 안할수 없게 하신 先生님! “師嚴生敬”이란 말이 새삼 머리에 떠오릅니다. 스승이 嚴하게 가르치시면 弟子들이 그 스승을 尊敬한다는 이 말을 그대로 一生동안 實踐하신 스승님. 어찌 이 미련한 弟子들이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나중에 龍山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越南하신 한순현校長님의 서울에서의 苦生은 말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많은 弟子들이 越南하였지만 모두가 젊은 나이이고 衣食住 生活 解決이 어렵던때라, 그 恩惠 조금도 報答못했음이 두고 두고 누우쳐 집니다.

이제 이 弟子도 2年뒤면 44年間の 敎職生活을 마치고 停年退職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京畿道에서만 敎師生活, 獎學士, 獎學官, 校監, 校長등 生活을 하면서 늘 “師嚴生敬”을 實踐하려고 努力했습니다.

이길이 가장 尊敬했던 한순현校長先生님의 恩惠의 萬分の 一이라도 갚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老스승의 冥福을 빌면서 또한 先生님의 그 功을 두고두고 기리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 토끼사냥과 追憶 몇가지

朴昌均(23回)

나는 1936年 3월에 7對 1의 競爭으로 入學試驗을 치르고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에 合格되어 入學하였다. 내가 入學할 當時에는 校服이 4,5學年生은 夏服이 고구라色이고 冬服은 黑色이며 1,2,3學年生은 夏,冬服 區別없이 카키色(國防色)이어서 쉽게 上級生을 識別하게 되어 十里 밖에서도 차렷姿勢로 上級生에게 舉手敬禮를 하였다. 나는 집이 咸南 咸州郡 州興面 長興里 164番地에서 新興鐵道 長興驛에서 汽車通學을 하였다. 1학년 겨울放學이 지난 2月 中旬頃 어느날 登校하고자 校服을 차려입고 책가방을 들고 長興역으로 나가니 밤사이 눈이 와서 降雪量이 거의 10센티나 되었다. 汽車를 타고 약 1시간 걸려 西咸興驛에 到着, 下車하여 大和町을 통과하고 우체국 앞을 지나 軍營 通을 거쳐 學校에 到着하였다. 校室에 冊가방을 두고 運動場에 나가 朝會를 하였다. 各 擔任先生님의 出席點呼가 끝나고 校長先生님의 訓示가 있는 다음 橫田校長先生님을 先頭로 하여 運動場을 驅步로 세마퀴 돌고 各學年別로 教室에 들어가 受業을 하게 되었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날도 時間變更이 있어 午前時間만 授業하고 午後에는 雪中行軍 및 토끼사냥을 한다는 것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午前授業이 끝나고 도시락을 먹고 1,2,3學年生만 敎鍊때 차림으로 運動場에 集合하였다 敎鍊때 차림은 게-돌(각바)을 치고 戰鬪帽를 쓰고 木銃을 들면 되는 것이다. 내가 1學年 때에는 4,5學年生이 38式 또는 99式 實銃을 들고 1,2,3學年生은 木銃을 들었다.

白井敎官의 口令으로 나팔수를 先頭로 盤龍山을 향하여 雪中行軍이 開始되었다. 少年의 血氣로 氣勢登登하게 白雪을 헤치며 行軍하였다. 盤龍山에 到着하여 토끼가 있을 만한 어느 溪谷을 中心으로 1,2,3學年生 약3百名의 校友들이 包圍를 하였다. 白井敎官의 口令으로 包

圍網을 壓縮하였다. 校友들의 “야-야”-하는 喊聲과 함께 包圍網이 좁혀지자 토끼 한마리가 出現하였다. 이놈의 토끼가 左衝右突하며 뛰다가 마침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敵에 대한 瞬間的인 防衛手段으로 木銃 개머리판으로 내려쳤다. 마침 토끼는 1撃을 당하여 그자리에 고꾸라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우가 잽싸게 그 토끼의 귀를 잡아 손에 들었다. 그때 包圍網은 완전히 壓縮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盤龍山 溪谷에서 이마에 땀방울을 씻으며 한바탕 웃으면서 休息을 취하였다. 그때 英語를 가르치는 內田先生님이 토끼를 내가 잡았다 하여 우스개말로 내이름이 日語 發音으로 朴權均(ボツカンキン)이었으므로 토끼를 잡을때 “ボカント ウツテ キント タオレタ”라고 말하여 한바탕 웃었다. 休息을 취하고 나서 白井敎官의 口습으로 整列하여 學校를 向하여 行軍하였다. 토끼는 다른 學友가 가지고 가는 것을 잡은 학생이 木銃끝에 매달고 가라 하여 내 木銃끝에 매달고 나팔수를 先頭로 하여 다음에 내가 서서 意氣揚揚하게 行軍하였다. 學校 運動場에 集合하여 토끼를 先生님께 바치고 解散하였다. 教室에 들어와서 책가방을 가지고 敎門을 나와서 同行하는 學友들과 함께 軍營通을 지나 西咸興驛 가는 途中에 있는 '다이야기'집에 들러 '다이야기'를 먹고 驛에 到着하여 저녁 汽車를 타고 歸家하였다.

그 外 追憶을 더듬어 보면 4學年 때에 日本 修學旅行을 간 일이다. 日本에 가보니 都市에는 골목마다 사이dana 소다水를 파는 집이 많고 各 名勝地 길가에는 男女老少 할 것 없이 記念 스탬프를 찍어 파는 사람이 많아 서로 찍어 달라고 哀乞하던 光景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修學旅行을 갔다와서 歷史時間에 鹽崎先生님이 修學旅行 所感을 물으니 어느 學友가 修學旅行이 아니라 神社參拜하고 왔다고 하니 발을 구르면서 화를 내던 것이 只今껏 기억이 새롭다.

그 다음에는 4學年때 늦은 가을에 咸南中學하고 元山中學間에 敎練聯合演習이 있어 우리는 奧野 地理 先生님의 길案内로 咸興을 出發하여 元山을 向하여 行軍하였다. 萬 歲橋를 건너 川西面을 지날때 支石墓(고인돌)가 있어 奧野 地理 先生님의 說明을 들으면서 잠시 休息을 取한 후 다시 行軍하여 定平에 到着하여 저녁을 숯불을 피워 반함에 다 해먹고 하루밤을 쉬다 말고 夜間行軍을 하였다. 永興을 지나 元山 松濤園에 이르러 野營할때 추워서 竈단속에서 날새기를 기다려 새벽에 兩學校 學生이 突擊戰을 하고 演習은 끝났다. 아침을 먹고 元山驛에서 汽車를 타고 咸興에 왔다. 咸興에서 元山까지 三百里 길을 行軍하여 갔던 것이다. 나는 그때 배탈이 나서 苦生하던 생각이 只今도 잊혀지지 않는다.

5學年 때에는 초가을에 西湖津까지 行軍하여 暫間 休息하고 올 때에는 湖連川에서 戰鬥演習을 하고 盤龍山까지 各個躍進하여 突擊하면서 盤龍山 頂上에 이르러 突擊戰을 끝마치고 歸校하였다. 歸校하고 보니 戰鬥帽에서부터 발끝까지 한군데도 마른 곳이 없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 때에 水道물 맛이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그 外에도 咸興驛 移轉時的 鐵路葺 工事, 咸興神社 新築垆地 整地工事등 勤勞奉仕한 追憶을 남기고 1941年 3월에 咸南公立中學校를 卒業 하였다. 學校를 卒業하고 다시 鑛山學校를

나와 現在까지 鑛山地下資源開發에 從事하고 있다. 이글도 鑛山宿所에서 咸興高時節의 追憶이 생각나서 적어본 것이다.

## 高普에서 南中으로의 轉換期

李漢淳(23回)

우리들은 갖은 전쟁과동과 우여곡절 속에 지내왔고 아직도 불안한 세월이니 단 한번의 人生過程으로는 참으로 不運한 世代다. 한편 생각컨대 2次世界大戰에다 6.25사변 등 生死間을 오가며 살아 남았으니 실로 平和時의 수백년에 해당되는 人生經驗을 하였음으로 실제 긴 人生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다.

日語가 판치는 歲月에서 英語 중심시대를 거쳐 지금은 共產圈 나라말 배우기에 殺到하는 世態, 또 自動車 洪水時代에서 世界各國에 오가고 TV를 통해 世界相이 안방에 소개되니 변해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父母家族이나 故鄉소식조차 모르면서 外國僑胞生活相을 보고 있으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옛말에 人生은 좋은 때(天時)를 맞아야 하며, 그 이상 좋은 곳(地利)이어야 하며 더더욱 좋은 친구를 만나(人和)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나라에 日本이 主人일 때 청춘을 보내야 했고 더욱이 列強國의 角逐場이 되어 고난을 겪게 되었으나 한가지, 좋은 同窓들과 여기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高普에 入學(1936)하고 이듬해 中日戰爭이 시작되면서 日本軍國主義의 銃갈 아래 암흑의 南中生活이 되어 太平洋戰爭으로 擴大되면서 졸업(1941)하게 되었다. 高普에서 南中의 過度期 학생이며 國防色校服의 準戰時에서 2次大戰에의 소용돌이로 휘말려들어가는 時期였다. 中學卒業이라 하지만 그 盲從을 強要당한 傭兵營같은 生活을 하여 왔으니 오늘 의 學生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感受性이 예민했던 이때의 실상에 대한 告發이 아직 우리 同窓會誌에 안모였기에 여기에 諸兄과 함께 되새겨보는 同時에 오늘의 멋없는 主人公들에게도 參考되었으면 한다.

### 當時의 政治的 背景

모든 친지, 이웃의 축복과 기대속에 꽃피는 봄, 새 校服을 입고 들뜬 마음으로 멍멍한 學校生活이 시작되었다. 입학 당시는 6代 총독 宇垣 陸軍大將의 임기(31~36, 8)였으나 내 남 중 재학중 대부분은 7代(36~42) 南總독의 임기였다. 당시 日本은 滿洲를 侵略해 植民地로 만든(1932) 以後 中國本土마저 삼킬 발판을 이 나라에 마련한 6代 宇垣총독은 그 施政을 계속 강화하였다. 날강도 日本 軍國主義는 당시 국제적 규탄 가운데 33년 國際聯盟을 탈퇴하고 國力伸長政策에 따라 北鮮開拓에 拍車를 가해 鑛山, 林, 水産 및 水力 자원개발을 활발

히 하면서 鮮滿拓殖會社를 만들어 滿洲移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때였다. 南총독은 부임 하자 실질적인 滿洲통치자 關東軍 植田司令官과 만나 鮮滿國境의 反日運動을 탄압하고, 압록, 두만, 兩江, 鐵橋를 가설하여 鮮滿을 하나로 묶는 整地作業으로 中國本土 침략의 脚本 實演을 다짐했다. 그러기에 南총독의 施政方針은 1次的으로 한민족의 일을 뽑아 國體明徴 즉 皇國臣民化 하려는데 있었고 農工併進, 南農北工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물적, 이전자원을 戰時總動하는 中日戰爭遂行에 있었다.

### 咸興高普時節

公立學校로서 日人教師 全部에 양념삼아 2名の 韓人教師로 짜여진 學校生活은 日本 軍國主義 施政方針의 充實한 實踐 그것이었다. 그것은 關北大學生으로의 우리들 自尊心을 餘地 없이 짓눌러 우리를 屈從시켜 그들의 戰場에서 마치 軍用犬처럼 썩먹으려는 속셈이었다. 入學式이나 朝禮가 舉行되던 諸堂內 큰 揭示板에는 위쪽에 國體明徴, 그 左右에 內鮮一體 忍苦鍛練이란 文句가 쓰여져 있어 그들이 目標하는 바가 명시되어 있었다. 校服은 國防色으로 바뀌었고 週 3時間의 劍道가 正規教科目이었고, 教練은 現役 將校의 督勵下에 엄격히 遂行되었으며, 軍本部의 定期的인 査閱을 받아야 했으니 가히 兵營生活의 一部였던 셈이다. 2학년 때인 37년 7월 7일 日本은 當時의 中國內 當時 國共對立이란 混亂 時機를 틈타 中日戰爭을 일으켜 戰時體制로 돌입하였으며, 防空訓練에 燈火管制를 實施하면서 神社參拜를 強要하게 되었고, 皇國臣民의 誓詞를 全國民에 齊唱시켰다. 또한 國防上으로도 日, 獨, 伊間에는 防共協定이 체결되어 全世界에 戰雲이 감도는 긴장된 時機였다.

神經質的 發惡의 1938년, 뒤집어 쓴 南中

中日戰爭의 破竹의 진격가운데 日本軍國主義는 神社參拜를 거부하는 여러 宣敎재단 학교의 폐교를 단행하는등 神經質的 발악이 시작되었다. 社會人, 官公吏도 일제히 國民服을 입어야 했고, 女子는 치마대신 바지(몸빼)로 바뀌 입게 하는 동시에 皇國臣民의 誓詞의 齊唱을 강요하는 등 온 世上이 달라져갔다. 더욱이 日本人과 同一視한다는 명목으로 전통의 咸興高普는 戰爭下에 그 이름이 咸南中學으로 바뀌었다. 이름뿐만 아니라 教科目에 있어서도 朝鮮語가 없어지고 實業으로 대체되었다. 그외에도 國語常用 이란 이름으로 日語常用을 강요하여 위반하면 교무실 앞 복도에 벌을 서게 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를 우리는 마른 목강이라 불렀다. 또한 조례 때에는 전체가 90도로 머리를 숙이는 東方(宮城)遙拜를 강요당했다. 그런 遙拜때 방귀소리에 폭소가 터진 일도 있었다. 月 1회를 4列 縱隊의 驅步로 언덕받이를 숨차게 돌아오는 神社參拜 살풀이는 英雄主義者 石川務敎에 의해 주도 되었다. 皇國臣民體操라는 목검체조가 零下 30度の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 강행되었는데 나는 丙點까지 받았으니 어느쪽이 미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國家總動員法이 6월에 實施되면서 學校勤勞報國隊가 편성되고, 陸軍志願兵制, 油類 등 戰時物資 통제등이 실시되어, 社會, 經濟的으로 完全한 戰時動員下에 들어갔다. 38년 부터의

이러한 全般的인 戰時 돌입으로 종래의 각종 法令들이 개정되고 신설되어 눈에 띄게 시달렸다. 고된 軍事訓練 教練은 合同野外演習으로 擴大되었으며, 배고프고 物資難이 심해지는 가운데 登, 下校時에도 脚반을 휘감아야 했었다. 총칼의 위협에 휩싸여 낭만의 빛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中國政府가 重慶으로 물러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만행이 급기야 蘇, 佛의 參戰으로까지 확대시켜 가는 가운데 日本은 食糧과 軍需物資의 配給統制, 國民徵用, 滿洲移民強行등에다 外國人 追放까지 強行하는 등 事態는 惡化一路로 치달았다.

### 學校生活의 가지가지

자라나는 젊은 시절에 식량난은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點心時間에 가져온 변도 밥만으로는 모자라니, 한정된 시간내에 學校 뒷門 밖의 中國 호떡집 앞에, 줄지어서서 호떡 나오기가 바쁘게 사먹고 뛰어오곤 하였다. 쫓기는 시간에 팔리는 빵과 지지미는 뜨거워서 입을 데일 듯, 먹는다기보다 삼킨다고나 할까? 그리고 어쩌다 마련된 용돈으로 6錢짜리 봄 冷麵의 꿀맛은 잊을수 없다. 오늘의 肥滿症과 白人 못지않게 큰 身長의 中高生에 비하면 그때 우리들은 分明히 영양실조의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전쟁의 가열속에서 식량과 모든 物資가 귀하고 부족한데서 우리네 구두와 洋服은 단벌에 꿰메고 덧붙치고 하였다. 朝禮에 이은 全校生의 服裝檢査(月)는 계속 체크되었다. 入學時 마련한 가죽신이 꿰메 신다 못쓰게 되면 代用으로 사용하던 運動靴마저 또 꿰메곤 하였다. 얼룩진 운동화에 대해 결국 石川教務는 登壇하여 指示하기를 "구두약으로 닦아 신으라"고 斷案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자라던 5年間에 入學때 마련한 校服 단벌로 끝마친 H군은 肥大해진 몸에 上衣가 허리를 가리지 못했다. 教練時 허리를 묶은 벨트는 上衣조차 가릴까 말까 하였다. 이러한 版局에도 上衣의 高字 단추가 비뚤어졌으니 다시 달으라는 주의를 받았다. 또한 上衣 하이카라가 말썽이 되어 아예 카라 附着자체를 일체 금지시킨 일도 있는데 여름 땀에 뻘 것이 鹽分때문에 白色으로 얼룩 저버렸다.

매년 가을에 시행되는 軍本부의 各校 教練査閱 때문에 많은 豫備訓練을 하였는데 査閱當日에 "成績 大體로 良好함"이라는 判定을 받기 위해 訓練은 매우 고되었다. 師弟 同行 率先 垂範하던 白井准尉의 獻身的 努力에는 우리도 人間的 意味에서 탐복하여 차마 不平, 不滿을 할 수가 없었다. 3學年때 元山중등교와 威興中等學校生과의 合同野外 演習은 살얼음이 얼때 徹夜로 元山과 德原間 赤田川邊에서 強行되었다. 上級生 分隊長의 따스한 友情이 감도는 한편 深夜에 스며드는 寒氣에 조깅단을 쥐같이 뒤집어쓰고 토끼 잠으로 지새던 일이 생생하게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夏季放學初 炎天下에 새 驛舍 부지 조성을 위한 勤勞報國隊作業은 4人組로 土砂를 운반하는 중노동이었다. 이웃집 체격 좋은 모범생 K군은 일사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新學期 다시 學校에서 만나지 못한채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것처럼 植民教育에 판박혀진 친구들을 가다(型)빵이라 하여 조소하였다. 反面 우리는 口字型構

造의 校舍에서 네모통이에 망보는 보초를 세워놓고 교무실 건너편 2層교실에 下級生을 모아 놓고 天道敎 東學革命思想을 고취시키는 여유와 精神,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總督府 경무국장이던 丹下道知事 부임시에 있었던 일이었으나 그런대로 통과되었다. 나는 우리들의 이런 참모습을 지금도 되새기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미가 풍부한 私學園出身을 부러워 하기도 한다.

### 聯想

어느 누가 어느 民族, 國家가 잘되고 幸福하기를 願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歷史는 人間이 主體이면서도 그 自體의 原理에 의해 엄숙한 걸음을 걸어가는가 싶다. 일제의 갖은 收奪에서 많은 流民이 산골 火田民이나 鑛夫로 또는 노동자로, 工場과 都市로, 심지어는 日本, 滿洲등 國外로만도 370만이나 苦生길에 나섰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選擇받아 배우고 살아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多幸했던가 싶다. 日本이 滿洲를 植民地化한 이후 中國本土侵略과정에서 日本本土에서 滿洲에 이르는데 西海 또는 釜山經由의 通道보다 東海航路로 우리 咸鏡道를 거쳐가는 것이 훨씬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咸鏡道에는 地下, 水力等 潛在資源이 豊富하다는 地利때문에 全國에서 工業化, 都市化의 近代化가 가장 급속히 이루어졌다. 赴戰江을 막아 東海로 돌린 물로 水力發展所를 建設, 1927년 興南에 窒素肥料工場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戰爭末期에는 全國工業生産의 43%를 咸南이 차지하는 最大工業地帶가 되었다. 咸鏡道 山間地方은 開拓鐵道가 부설되고 연이어 長津, 虛川江發電이 이루어졌으며 海岸가에는 重化學工場이 즐비하였다. 그리하여 밭은 논으로 변하고, 都市, 工場, 鑛山등에는 三南地方(특히 慶尙道)에서 많은 노동자가 몰려들어 興南市 인구만도 昇格時(44. 12. 3)에 咸興市の 倍(14만)를 넘었다. 이것이 우리의 학창시절이고 보면 咸鏡道는 日帝末 높은 就學率에 近代化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地方이기도하다.

오늘날 패전국 日本은 그 높은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侵略에 대한 反省氣味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 民族的精力을 浪費하면서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아직 統一도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하루 빨리 통일하여 오랜 민족의 恨을 풀 수 없을까? 두고 온 山紫水明한 故鄉 山海와 祖上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史蹟들을—日本이 자랑하던 赴戰嶺의 土木工事와 高原 湖水의 風景, 自然湖水로서 全口 최대의 廣浦, 여기서 義州까지의 千里長城, 풍폐의 곳 李成桂의 유적지, 특히 그의 武勳을 세운 咸嶺 전적지, 그리고 멀리 惠山嶺을 경유한 白頭山령 봉들을 가 보고싶고 그간의 사정을 들여보고 싶다.

## 내가 꾸는 꿈

정 양 은(23回)

나는 꿈을 그다지 꾸지 않는다. 물론 어쩌다 꿈을 꾸지만 스스로 꿈이 없는 사람이라 느껴지고 있다. 아마 내가 꾸는 꿈이 몇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같은 종류의 꿈을 되풀이 꿈으로 꿈의 수효가 적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

내가 꾸는 꿈은 그다지 즐겁지 못한 꿈이다. 어쩌다 낚시하러 떠나는 전날밤에는 소풍을 떠나려는 국민학교 아동과 마찬가지로 동심으로 돌아가 들뜨기도 하지만 월척을 낚는 행복스러운 꿈은 꾸지 못한다. 월남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님이 작고해 한번 꿈에서라도 뵈었으면 하지만 그분들과의 감격스러운 해우를 즐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분들의 모습조차도 꿈에는 나타나지 않는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 마저도 하다. 아마도 나는 즐겁고 행복스러운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의 꿈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는 우리동리에 있는 4년제 사립학교를 나오고 읍에 있는 보통학교는 5~6학년만 다녔음으로 일본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내가 용케도 함흥고보에 합격하니 그때 일본말을 가르치는 일인선생이 일본말의 성적을 병으로 평가했던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일인 선생의 밋쌀스러운 모습과 억울했던 심성이 꿈에 가끔 나타나곤 했다. 또 일본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타고난 언변도 그리 좋지 않아 통상 일본말을 쓰지 않고 우리말로 지껄이다가 체육선생에게 드켜 뺏다방맹이로 맞았던 꿈도 가끔 나타난다. 이것이 나의 중학생살에 관한 꿈의 내용전부이다. 그 다음 시기로 보면 내가 함흥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은 여러 장면들이 주마등같이 꿈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가끔 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대라고 형사들이 으름장을 놓을 때에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으며 꿈에서도 소스라쳐 놀라고 잠을 깨곤하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사상범으로 수감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형사들의 밋상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가끔 꿈에 나타난다. 해방된 다음에는 고향에서 월남해 서울에 오든 일들이 가끔 꿈속에서 되새겨진다. 기차칸 꼭대기에 올라타고 피난오는 월남가족들의 틈새에 끼어 겨울 추위를 견디어가며 경원선을 지나오던 광경이 생시와 같이 꿈에서도 선하게 보여진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서글픔이 그때 느꼈던 그대로 나의 감정생활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다. 그리고 사변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가 영도의 수용소에 잠깐 머물렀던 광경도 이따금 꿈의 소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꿈꾸는 것은 소련군이 쳐내려오는 꿈이다. 나는 사변때 재빨리 가족들과 부산으로 피난갔고 또 1.4후퇴 때에도 몸을 의탁할 곳이 생겨 쉽게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갔으므로 인민군이나 중공군은 구경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방당시 고향인 해산진에 있어 소련군이 진주하는 광경을 보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인상이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던것 같다. 그때의 소련군인들의 모습은 꼭 원숭이와 같다는 인상이었다. 노오란 털이 머리에만 난것이 아니고 얼굴과 전신에 나 있었으며 잘

막한 병사들이 마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들리는 말로는 그들이 죄수라고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장교들은 생기기도 잘생겼고 볼품도 있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나는 소련군인들은 건장한 장교들이 아니라 털원숭이 같은 쫄병들이다. 이들이 앞산에서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그 앞산이 내가 태어난 개마고원의 두메산골의 우리집 앞산과 같이 가파른 경사모양으로 생겼다. 그 앞산을 그들이 쏜살같이 떴어 내려오면 꿈에서도 무섭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어 깨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여러번이다. 아직 국토가 양단되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이런 꿈을 꾸게 한것 같다. 그런데 꿈에서 이같이 무섭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한번도 도망치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보면 신기한것 같기도 하다. 아롱든 내가꾸는 꿈은 어둡고 괴로웠던 나의 경험의 내용이 되풀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불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 잡히며 억울한 것들뿐이다.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매일밤 꿈을 꾸다고 한다. 꿈은 잠을 자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아마 꿈이 없으면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나 욕구 또는 감정의 앙금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속 깊은곳에 있는 꿈의 소재인 인간의 욕망은 깨어있을 때에는 이성이나 지성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잠을 잘 때에는 이같은 이성이나 지성의 억압하는 힘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고 그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혀있던 욕망이나 감정이 격해지면 그 힘을 억제할 수 없어 잠을 깨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잠을 깨지 않으면서도 솟아오르는 욕망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잠을 지켜주는 파수병이라고도 표현한다. 꿈의 내용이 욕망인 경우에는 대개 깨어나면 지성이나 이성이 금기하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 예는 소위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랑의 욕망은 깨어 있을 때에는 강한 이성의 힘으로 억압되어 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도 없고 또 전연 생각에 떠오르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일단 잠이 들면 못이룰 이 사랑에 대한 욕망은 억압하는 힘이 없어짐으로 용솟음쳐 나타난다. 이같은 욕망이 강해지면 누구나 잠을 이룰 수 없고 깨어나게 된다. 이때 잠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욕망을 처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꿈이다. 현실적으로 사랑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속에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누구러트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라 할지라도 이성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 이루지 못할 사랑을 꿈에서 이루게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은 변장되고 위장된다고 한다. 사랑의 욕망이 상징적으로 바뀌어져 꿈속에서나마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욕망으로 위장되고 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원래의 사랑의 욕망이 갖는 힘을 완화하여 잠을 깨지 않도록 한다.

꿈의 내용이 감정인 경우에는 이성의 금기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꿈의 내용도 그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감정을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아주 무서웠던 일 원통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불안하게 했던일 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복했고 즐거웠



던 일들 보다는 마음속에 사무치는 바가 훨씬 더 강한것 같다. 따라서 이같은 경험을 했던 장면이나 상황등이 되풀이 꿈속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깨어있을 때에는 이같은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들이 현실적인 생활속에 파묻혀 무의식속에 억압되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을 자게되면 무의식속에 억압되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을 자게되면 무의식속에 있었던 감정이 노출되어 다시 실제로 무섭고 억울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지나치게되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잠을 깨지 않고 감정의 힘을 누그러 뜨리는 것이 꿈이다. 이같은 꿈에서는 그 감정을 야기시켰던 상황들이 재연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 내가 꾸는 꿈은 이 두번째 경우인것 같다. 이 나이가 되어 사랑해선 안될 사랑을 하는것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의 욕망도 새삼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강한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파란이 많았던 나의 인생의 찌꺼기가 말끔히 가지지 않는것 같다. 그만치 인생의 수양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 자회하기도 한다. 한때 나이 젊어서는 전쟁이 나고 소련군대가 밀려들어오는 꿈을 꿀때에는 꿈속에서 이땅을 버리고 이민이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도 날 정도로 절박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이 내리치는 잘되었든 못되었든 나의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강한 체찍이 마음에 와 닿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생각도 부질없는 일이다. 다만 언젠가 어린시절에 즐거웠고 행복했던 내고향에 돌아가 옛날을 꿈꾸고 전쟁놀이와 같은 험악한 감정을 말끔이 씻어버릴날을 바랄뿐이다. 나는 그런날이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나는 우리의 세대가 겪었던 모든 고뇌와 불안과 원한과 허망함이 완전히 이땅에서 없어지고 꿈에서나마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님을 만날날까지 굳세게 살아 가려고 다짐한다.

## 나의 중학시절의 교육에 대한 소감

趙誠福(23回)

해방되던 다음 해부터 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은 이래 작년 2월에 정년으로 퇴임할 때까지 이 길을 걸었다.

해방이후 學制가 달라지고 教育理念도 새롭게 정립되었으나 學校風土나 教育方法은 日帝시대의 것들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걸으려는 民主教育, 人間教育을 표방하면서도 劃一的 他律的 權威主義的인 教育風土나 教育觀은 우리 교육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970년 말로 생각된다. 당시 교육의 혁신을 주장하던 교육학 전공의 모대학 교수는 중등 교사들에게 강연하는 중에 자기가 일본인 교수로부터 “일제시대의 교육에 관하여 알고자 하면 한국 학교에 가서 보라”고 한 말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일찌기 그 자취를 볼 수 없는 일제식 교육이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 존속하고 있음

을 통탄해마지 않는다고 꼬집은 일이 있었다.

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되면서 일제시의 교육의 典型이라고 볼 수 있었던 모교 威南中學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教育의 실태를 教師의 안목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그 功過를 고찰해 보았다.

나는 처음 교단에 설 때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때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의 학습지도 방법을 상기하면서 내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방법을 모방하기도 했다.

그 당시 선생님들 대다수가 열성껏 가르쳤고 또 능숙한 지도방법으로 잘 가르쳤다고 생각된다. 그 가운데서도 학습지도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선생은 日語(당시의 國語)과 담당 이 가라시(五十嵐)선생과 영어과 담당 우찌다(內田)선생이었다.

중학교 시절 학교 당국이 시행한 제도나 새책등에 관하여도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 그중에서 나의 교직활동에 참고가 되고 도움을 준 사항도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일제시대 한국인에게 강요된 교육의 목표는 皇國臣民化였다. 학교의 재반 교율시책은 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수단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재학중 우리학교의 역사를 모르고 학교생활을 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으려니와 알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생간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서 우리학교가 전에 反日 學生運動을 많이 일으켜서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았으나 反日運動의 구체적인 경위는 전혀 몰랐다.

근래에 몇분 동창생의 정성어린 노고로 만들어진 威興高普同窓會誌를 보고 선배들이 일으킨 反日運動의 일단을 알게 되어 모교를 더욱 자랑스럽게 느꼈다.

우리가 입학하기 3,4년 전에 조선총독이 함흥고보에 직접 와서 학생들을 교정에 모아놓고 폐교운운하면서 공갈을 친 일이 있었으니, 그 이후 학교 당국이 학생지도를 위하여 비상한 대책을 강구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당시 모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볼때 우리 期가 입학한 후 교련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고 교칙은 더욱 엄해졌으며 새로운 시책들이 실시되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입학하기 2년전부터 교모 교복이 카키색으로 바뀌었다.

2학년 때부터 조선어 시간이 없어졌다. 교내에서 日語常用이 강요되었다.

우리期부터 유도 과목이 검도로 바뀌었다. 우리는 1학년 때부터 매주 1시간씩 검도를 배웠다. 검도로 일본정신을 터득시키려고 했다.

그때 학급에는 반장제도가 없었다. 학급원 모두가 1주간씩 교대로 2명씩 주번을 맡는데 그중 한명이 구령을 부르고 학급통솔을 하였다. 학급원이 반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짐작된다.

수학 여행지가 일본으로 바뀌었다. 우리 전학년까지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일본 견학이 皇民化施策에 더 효과적이라는 계산에서 바뀌어졌다고 짐작한다.

일본 여행은 당시의 우리들에게는 외국에 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카키색 교복이 촌스럽게 보였다. 일본 여행중 일본 중학교 수학여행단을 만났는데 우리와 같이 카키색 교복을 입은 학교는 없었다. 그해 함흥 소재 모학교는 각반을 치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눈에도 우습게 보였는데 일본 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중학생 시절에는 철저하게 길드려지는 교육을 받았다. 권위체, 명령에 잘 복종하고 순응하는 훈련을 쌓았다. 중학교 시절에 자주나 자율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한 연고로 나는 교직생활 중 무엇보다 자주적이며 자율 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일을 중히 여겼으며 이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우리의 중학시절에는 학급당 정원이 50명이었다. 5학년제로 한 학년이 2개 학급씩이니 전 교생이 500명이었다.

해방후에 학급당 60명 내지 70명의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실을 볼 때 나의 중학교 시절의 교실을 언제나 상기하곤 했다. 해방된지 45년이 되는 오늘에야 중학교(도시소재)의 학급당 인원이 52명으로 줄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의 낙후성을 알 수가 있다.

나는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이 수업료를 독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잡부금을 걷는 것을 본 기억도 없다. 수업료를 기일내에 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얼마후에 서무주임이 담임선생의 양해를 얻어 그 학생을 교실에서 불러갔던 기억밖에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임선생이 교납금을 독려하는 일, 잡부금을 걷는 일이 교사들의 업무로 당연히 되고 있으니, 이일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음이 사실이다.

나는 교사들이 함흥고보에서와 같이 돈에 관여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참으로 좋겠다고 늘 생각했다. 나는 모교 함남중학에 대한 긍지를 늘 지니면서 교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또한 나에게 인상되었던 모교의 學校像이 나의 理想을 떠나가는데 있어서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 중국의 한인들과 민족통일

### 玄 鳳 學 (23 回)

중국에는 우리 한민족이 약 180만 살고 있다. 그들과의 교류와 친목은 민족의 동일성을 되찾고 해외동포를 화합시키는데 막중한 기여를 할 것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해외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총수는 500만으로 추산되니 하나로 뭉치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한민족 통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재단과 뉴욕에 본부를 둔 미중 한인 우호협회의 여러가지 활동과 사업은 참으로 뜻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다.

나는 1981년 4월에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은 미국 병리학자 10명중의 한사람으로 중국의 중요한 의료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었다. 그때 천진 인민병원장 김현택 교수(당시 78세)의 권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연변의 학원과 연변대학을 돕기로 결심했다. 김교수는 14세때인 1916년에 세브란스의전(현 연세의대)을 졸업한 형 김현국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 북경의 유명한 협화대의(ROCKFFELER 재단)를 나온후 N. Y.의 M-EMORIAL 암 연구소, 시카고 대학, 파리등에서 유암 연구를 마친후 중국에 돌아가서 의학계의 거성이 된 분이다. 작년 여름 70년만에 서울에 돌아와(중국인 부인 동반) 친척과 친지들을 다시 만나본 그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1982년 9월 3일 나는 그 당시 비공개지였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특별허가를 얻어 자치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의학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했다. 그때 나는 나의 둘째딸 경선이와 같이 연변으로 가는 도중 장춘에 있는 남호 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한 일이 있었다. 마침 그때 뱃놀이를 마치고 우리쪽으로 걸어오는 연변의 젊은 남녀 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온 동포임을 알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즉흥적으로 아리랑, 도라지 타령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다. 그들의 그 소박하고도 천연스러운 태도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틀림없음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이 크게 움직여서 1985년에는 미중 한인 우호협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십여차례의 중국방문, 특히 단체여행을 통하여 학술, 문화, 교육, 경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그들과의 우호관계를 더 두텁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나는 1987년에 연변학원의 명예교수직도 받게 된 것이다.

서재필 기념재단과 미중 한인 우호협회의 중국 관계사업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연례 단체 중국방문(금년이 제6회)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의 우호, 친목, 계몽에 노력했음. 금년 8월에는 미중 한인 우호협회, 가중 한인 문화 경제 교류협회, 또 연변 대외 우호협회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해외동포 친목회를 연길에서 갖는다. 세계 각국에서 약 20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백의동포의 화합, 친목, 경제발전, 문화, 교육, 예술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불어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2. 의학도 여러명에게 미국교육의 기회를 주었음.
3. 뉴욕에 있는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협회를 통해서 매년 연변대학 교수 2명의 미국유학을 가능케 했음.
4. 연변 의학원에 의학서적, 잡지 200상자(10만불 가치)를 기증했음.
5. 용정중학교내 운동주 애국시인 기념사업을 도움. 서울 정음사에서 출판된 운동주, 윤일주 시집 각 200권씩 중국 조선족 각 기관, 학교등에 기증했고 운동주 묘소를 새로이 단장했음.
6. 용정에 미국교포 기업투자의 가교 역할을 했음.
7. 수십명의 이산가족을 찾아 주었음.

8. 중국 각지의 교포교회를 도움.
9. 연변지구 맹아사업을 원조했음.
10. 안중근의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민족 통일의 가장 가까운 길은 동족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부르짖고 떠들어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겨레가 만날 수 없고 대화의 기회가 없으면 백년, 천년 가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6.25때의 뼈저린 경험과 이북 공산치하에서의 말할 수 없는 핍박은 직접 경험한 나로서나 우리 국민전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민족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과거의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 핏줄로 맺어진 형제자매를 되찾는 정신으로 이북동포들을 대한다면 남북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곧 기독교 정신의 실천이요, 불교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러한 자세가 또한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유언무언으로 나에게 가르쳐준 동족애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이었다고 믿는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주정권 정립을 기원하면서.

## 鷄助之辯

朴泳馥(24回)

나는 늘 내가 威興高普(威南中學)出身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矜持를 갖습니다. 關北第一일의 名門校이자 秀才들의 學究集團이었기 때문이겠지요. 日帝時代에는 政府에 反旗를 든 愛國鬪士의 搖籃이기도 하였고 光復後에는 나라를 움직이는 棟樑도 많이 排出 하였으니 그 어느 學校가 이를 追從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가운 일은 훌륭한 여러 先輩님들은 하나 둘씩 他界하여 가고 에리트 後輩들도 또한 老年期에 놓였으니 말입니다. 왜 우리들도 繼續 이어지는 後輩들을 갖지 못할까? 하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저 앉아서 잿불이 사그라지듯 只今の 同窓生만으로 終焉을 告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군가가 아니 우리 周邊에 있는 모-든 뜻있는 故鄉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母校의 再建을 爲하여 努力해야할 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또 여기서 角度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서글픔을 느끼며 孤獨感에 젖습니다. 孤獨하다고 해서 그 무슨 흔히 있는 一身上의 외로움 같은 人間關係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趣味 即 나와 呼吸을 같이하는 藝術世界(書藝)에 同參하는 同僚가 없어 孤獨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同門에는 書藝하는 분이 너무나도 없다는 애깁니다. 내가 아는 範圍로는 第十回의 全淳業先輩님과 第十五回의 李東秀先輩님(作故)을 除外하고는 알려진 書藝家가 없는 걸로 압니다. 참으로 우리 威興高普의 英才群으로 볼 때 너무나도 疎外 當한 藝術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옛부터 書藝는 藝中의 하나요 선비로서는 꼭 갖춰야 하는 道가 아니었습니까. 人物을 拔擢하는데도 身·言·書·判을 꼭 따지지 않았었던가요. 또 詩書畫는 儒生들의 基本的인 修業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點으로 볼때 우리 同門들은 書에 對한 比重을 너무나도 疏忽이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나는 그 原因을 곰곰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왜 이토록 書藝家가 排出되지 않았을까? 라고. 첫째는 그전부터 書藝家라는 職業 自體가 있지 않았던 탓입니다. 書藝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職業을 삼을 수가 없었고 또 生活手段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精進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읍니다.

둘째 그 어느 藝術보다도 書藝術은 어려움이 더 크다는데 있겠읍니다. 대개의 藝術의 境遇 十年修業만으로도 어느 境地에 到達하는 것이 通例인데 書藝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二十대·三十대의 文章家나 音樂家等은 흔히 볼 수 있어도 젊은 名筆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二·三十年 以上の 刻苦의 努力 없이는 빛을 볼 수가 없다는 點이 다릅니다. 거기에 피나는 努力과 타고난 才能과 끝없는 忍苦가 隨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遠因을 살펴 보건데 筆者의 先輩들의 時代에도 그랬겠지만 우리는 指導先生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데 있겠읍니다. 고작해야 美術教師였던 日置先生의 指導를 받은 것이 그 全部였고 그 先生은 또 專門書藝家가 아니었음은 勿論 글시 自體가 좋지 않았읍니다. 그랬으니 어찌 書藝에 趣味를 갖게끔 指導했겠으며 그것으로 一家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일 수 있었겠읍니까. 그냥 一週에 한 時間 그것도 하는 시늉만 내다가 끝냈던 것입니다. 그 先生의 美術指導만은 아마도 훌륭했던 모양으로 많은 先後輩들의 世界的 美術家를 排出케 하지 않았읍니까. 이와같이 훌륭하 書藝先生의 指導를 받을 수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結果는 가져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도 添言하여 近年에 있어 書藝科目이 疎外視되는 가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解放後 우리 社會는 너무나도 엄청난 變化를 가져왔고 東洋的인 우리 固有的인 아름다운 文化는 西歐的인 實利的 文化에 밀려 그 빛을 바래기 始作 했는데 그 中에서도 倫理 道德觀의 變遷은 그 代表的인 例라고 하겠읍니다. 三綱五倫을 崇尚하든 思潮는 物質萬能 黃金萬能潮流로 바뀌고 더구나 漢文教育의 疏忽로 忠孝精神은 찾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버렸지 않습니다. 또 한당主義라 及其也는 公職者로 하여금 不正腐敗로 치닫게 하고 靑少年은 強盜를 例事로 해내고 企業人은 致富方法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으며 投機와 破廉恥한 方法을 다 動員하고 알팍한 商魂은 詐欺를 일삼고 있는 이 때이고 보면(勿論 全部를 指稱하는 것은 아님을 附言합니다) 붓을 쥐고 글씨 쓰고 修道하는 마음으로 素養을 기르는 따위는 陳腐하기 짝이 없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공부라고 指彈받을 程度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같은 老年期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儀表가 되고 垂範할 대가 아닌가 하고요. 漢文文化의 緊要함을 強調하고 올바른 倫理觀을 定立하고 餘暇善용으로 書藝를 익히고 敬祖思想과 敬老思想을 鼓吹시키고 올바른 國家觀을 세워 온갖 美風良俗을 그 안에서 찾도록 해야 겠읍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읍니다. 餘生이 얼

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七十・八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옛부터 書藝하는 사람은 長壽했습니다. 아무리 社會的인 變遷과 時代的인 思考方式이 變化할지라도 우리는 늘 心性을 淨化하고 높은 次元의 素養과 學德으로써 後學들을 잘 引導해야할 責任을 져야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 日語 그대로 옮겨봅니다.

五十・六十は 花なら 蕾

七十・八十は 働き 盛り

九十になつて つれに 來たら

百まで 待てと 追い 返せ.

또 여기 平素 즐기는 五言句 몇句를 적어 봅니다. 多小라도 멋있는 삶의 伴侶가 되었으면 하면서.

杜口風塵外 安心筆墨間(尤洞句)

世上事는 이러쿵 저러쿵 論하지 말고 마음을 書道하는데 두고 人生을 즐기자.

또 詩情先日月 筆力動乾坤(張祐句)

詩情은 日月같이 빛나고 筆力은 天地를 움직일 듯 힘차다.

또 淸帶山林氣 香來筆硯邊(薛 句)

맑은 바람은 山林의 氣運을 띠고 불어오는 香氣는 筆硯있는 곳으로 부터 풍긴다.

또 百年書法裏 萬事酒盃中(麻革句)

年歲를 書道로 보내며 萬事는 술가운데 것을 느낀다. 이 氣分으로 못다한 書道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浮雲富貴何慕 陋巷簞瓢分所甘(房皐句)

(구름 같이 더도는 富貴는 내 어찌 求願하라. 밥 한 그릇과 한바가지로 비록 달동네에 살만 정 이것이 내 분수러니 아무 불평 안하리.)

## 말이 많은 世上이다

—모두를 위해서는 어떤말을 믿어야 할까?—

### 韓錫範(24回)

우리 俗談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어떤 家族이나 社會集團이나 國家나 할것없이 節制되지 않은 말이 많으면 그 꼴이 제대로 되는 法은 없다. 더구나 그 말이 眞實性이나 現實性 그리고 責任性이 缺한 것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가만히 생각해보면, 사공이 아무리 많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賢明하여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도될 말”을 잘 分辨할 수 있다면 別다른

問題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國民意識水準에서 아니 人間世上에서 그렇게 되기를 企待하는 것은 그야말로 空想에 가까운 無意味한 일이니, 于先 現實的으로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사람”의 말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의 內容事項에 관하여 “責任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냐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分別하기만 한다면 큰 問題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問題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事理分辨力에 달려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大體로 이러한 事理分辨에 留意하기보다 말 自體의 魅力에만 眩惑되는 경우가 많으니 問題이다.

요즘의 우리 社會는 듣기 좋고 허울 좋은 理念的 當爲論과 道德論, 黨利黨略 등에 의한 虛構的 宣傳論辨과 그에 늘어나는 空理空論, 그리고 體制에 挑戰하는 말까지 亂舞하여 그야말로 말의 洪水로 汎濫되고 있다. 國家의 基本體制가 民主共和國이오 지금의 時代的 課題가 民主化이니, 어찌 말이 많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마는, 그 말들이 우리들의 삶의 質과 幅을 向上增大시키고 和合시키려는 健全하고 現實的인 것보다, 너무도 듣기 좋고 알맹이 없는 理念的 原理原則 理想的 當爲論이나 政略的 甘言利說 또는 時代錯誤的 左翼이데올로기에만 置重하고 實定法的 憲政秩序를 度外視하는 似而非의 愛國的 空理空論이 野圈·在野·運動圈은 勿論이고 社會의 木鐸을 自處하는 言論機關이나 各界指導級의 많은 知識人들에 의하여서까지 그 是非를 가리지 않고 知覺없이 無責任스럽게 放言高論되는 바람에, 온 世上은 特別한 具體的 正當한 理由도없이 서로 남(특히 政府)을 헐뜯고 誹訪攻擊하는 憎惡에 찬 政治性論爭만이 너무도 목청높고 거세어서 社會階層間 특히 政府와 國民間의 葛藤이 서로 深化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不信風潮와 社會分裂現象이 점점 크게 社會에 蔓延되어 가는데에 問題가 있다.

오늘날의 野黨政治人이나 在野人士들의 主張은 勿論이고 우리 言論機關이나 一部 指導級 知識人들의 論調나 辯舌을 들어보면, 그들은 저마다 입만열면 言必稱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이 나라의 主人(主權者)이고, 國民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政府는 그대로 施行하러 하지않으니 이 政府는 反民主 獨裁政權이다”라는 式의 그럴듯한 論理로 恒常 政府를 罵倒攻擊하거나 誹謗하니, 政府에 대한 一般國民의 不信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말인즉 언뜻보기에 至當하고 달콤한데다가 食傷할 정도로 너무도 오랜歲月동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純眞한 一般國民들은 그런 主張이 옳은 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民主政治의 理念的原論같은 非實定法的인 허울좋은 말들이 어디 實際的 眞實이나 現代民主政治의 實象(즉, 憲法上的 實際的 國政運用原則 등 法秩序)과 附合될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政略的 戰術的 目的이나 主觀的 偏見에 따라 事實을 歪曲하거나 假裝하고, 現代民主政治의 實象을 모르거나 감추고 虛像(즉, 非實定法的 理想論에 의한 假像)만을 내걸고 우기는 虛言이나 非現實的인 甘言에 不過한 것이다. 于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主張을 全體國民의 뜻이라고 할수있으며, 또 어디에 政府가 “國民의 뜻대로(즉, 國民이 하라는 대로만하는 直接民主制方式으로) 國政을 運用하게한 根據가 있으며, 그렇게하는 나라 또한 이世上 어디



에 있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現代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의 뜻대로”하는 直接民主制에 의하여 國政을 運用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에 責任을 지는” 代表民主制에 의하여 國政을 運用하는 方式을 憲法으로 採擇하고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事實이 아닌가. 實際의 事實이 이러한데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野黨이나 在野 또는 一部識者層에서는 위와 같은 實際現實과는 距離가 먼 理念的 虛像으로 扮裝한 民主政治論을 建國以來 지금까지 너무도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國民中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달콤한 말의 魅力에 眩惑되어 그것이 正當한 治國方法인줄 알고 “事實을 말하는 사람”(즉, 非實定法的·非現實的인 理想論이나 當爲論등 듣기좋은 말만 골라 할수없는 責任있는者. 例 政府·與黨·公職者등)은 無條件 反民主主義者로 不信하고, “虛言이나 非現實的인 甘言을 하는 사람”(즉, 非實定法的·非現實的인 理想論이나 當爲論등 듣기좋은 말만 골라 할수 있는 責任없는者. 例, 野黨·在野人士등)은 民主主義者로 信奉하는 참으로 아이로니한 價値顛倒的 反論理的 反民主政治的 矛盾된 奇現象이 우리社會에 蔓延되고 있다. 現代民主政治는 國民의 積極的 參與와 信任·理解協助의 土臺위에서 運用되는 政治制度라는 것을 고려할때, 이것이 어찌 概嘆스럽고 寒心스러운 일이 아닌가. 勿論 國民의 對政府不信이 위와같은 野圈의 政略的 宣傳攻勢에만 그 原因이 있는것은 아니고, 歷代의 政府施策의 試行錯誤와 權力濫用 그리고 公職者의 不正·腐敗등도 그 큰 原因의 하나이지만, 이 後者로 因한 不信은 主로 個人 또는 一部事業者의 一時的 財產被害등을 內容으로하는 被動的이고도 個別的·部分的 性格의 것인데 反하여, 前者로 因한 不信은 全國民을 對象으로 人間의 本能(正義感·自由의 極大化·被害意識등)을 刺戟하는 煽動的이고도 全國的인 性格의 것이기때문에 그 傳播力은 後者의 경우와 比較할수 없을 程度로 偉力이 있는것이다. 現代民主政治의 基本原則의 하나는 法治主義로서, 모든 國政은 法律의 根據와 節次에 따라서만 運營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法的 制約下에서 國政의 運營을 憲法에 의하여 責任맡은 政府(즉, 大統領을 비롯한 모든 公職者)나 與黨國會議員(註, 野黨議員이 設使 多數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國政執行의 責任이 있는것은 아니다)이 듣기 좋고 시원한 非現實的인 理想論이나 當爲論만을 말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現代國家의 民主政治라는 것은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信任·支持·理解協調의 大前提下에 代表民主制(즉, 間接民主制)와 法治主義 및 多數決原則등을 基盤으로하여 運營되는 政治制度인데, 國民에 의하여 그들의 代表로 選出되고 또한 國政運用의 責任을 가진 大統領(즉 政府)이나 與黨國會議員을 自己가 支持하는 者가 아니라하여 이를 不信하고 協助하지 않는다면, 그 任期(五年·四年)동안은 國家의 行政과 立法機能이 麻痺 내지 停滯될수밖에 없고, 따라서 社會의 混亂과 退步 그리고 經濟의 침체등이 長期化되어 우리 國民들의 生活도 어렵게 되지 않을수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前近代的인 政治意識(註, 政治는 執權者와 政治人의 것이고, 나와는 關係없다는 낡은 생각으로 政府와 與黨을 無條件 不信하는 意識·政府등 專制政治下에서는 王의 命令)이 곧 國法이었으니 國民의 信任與否가 問題되지 않았다)을 버리고 責任없는 사람들의 말만 듣지말고 政治는 나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生活과 國家의 繁榮은 國政을 擔當한 정부와

與黨에 대한 우리의 協助如何에 달려있다는 옳바른 認識 밑에서, 첫술에 배부르려는 조금증을 조금씩 抑制하면서 自己의 支持黨與否에 關係없이 그任期동안만은 일할수있게 協助하며 監視하였다가 그結果가 시원치 않으면 다음번 選舉에서 그 사람이나 黨에게 投票하지 않는 (즉, 責任을 지우는) 式의 良識있고 主體性있는 民主國民意識과 生活習性を 키워나가지 않고서는 民主政治의 發展(즉, 國家와 國民生活의 繁榮)을 期待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여기에서 잠깐 앞에서 言及한바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現代民主國家에서의 國政運用方式에 관한 나의 見解에 대하여 誤解하는 분이 있을까하여, 民主政治의 基本理念인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이 나라의 主人이고, 모든 國政은 國民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좀 더 附言해 볼까한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民主政治의 基本理念임에는 틀림없으나, 技術上·性質上 難點때문에 文字 그대로 “國民의 뜻대로”하는 直接民主制를 國政의 運用方式으로 採擇하고있는 나라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世上의 어디에도 없다. 人口와 國土가 極히 적었고 또 行政事項이 極히 적었고 單調로웠던 古代 그리스스의 都市國家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또 近代에 와서는 小國 스위스에서만 그러한 直接民主制方式을 部分的으로 採擇한 例를 볼수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라. 人口는 많고 社會는 複雜多岐하여 國民間의 利害가 서로 尖銳하게 對立되는 現代國家狀況에서 “國民의 뜻”을 누가 무슨方法으로 그時그時 把握할수 있겠는가? 목청높은 野圈·在野·運動圈의 政治人·宗敎人·敎育者·大學生·勤勞者들을 全體國民의 代表라 하겠는가, 아니면 國民輿論을 代辯한다는 言論機關의 論調를 全體國民의 뜻이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政略的·戰術的·偏見的 部分的 社會現象을 가지고 어찌 全體國民의 뜻이라고 斷定할수 있겠는가. 國民의 뜻을 確實하게 把握할수있는 方法은 國民의 直接投票에 의한 選舉와 國民投票 以外的 方法은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複雜多岐한 現代國家의 行政運用에 있어서 事案마다 일일이 選舉나 國民投票를 할수도 없는 일이고, 또 高度의 專門的 知識·技術·經驗등을 必要로하는 現代의 行政事項등은 國民投票로 解決할 性質의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理由때문에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어느나라나 할것없이 모두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이 나라의 主人이고, 모든 國政은 國民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民主政治의 原理는 實定法(憲法)上으로는 어디까지나 “民主國家에서는 國家의 모든 權力은 主權者인 國民에 의하여 創出되고, 그 國民에 의하여 創出된 모든 國家權力(즉, 執權者를 포함한 모든 公職者)은 國民을 위하여 責任을 지면서 精誠껏 奉仕하라”는 뜻의 民主政治의 理念的 基本原理로 삼고있는 것에 不過한 것이고,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의 憲法上權限에 屬하는 行政運用에까지 適用되는 實定法上의 原則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하여 國家의 行政運用에 있어서 國民의 뜻이 無視된다는 뜻은 決코 아니다. 다만 大統領은 不確定的인 國民의 뜻에 따라”國政을 運用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經綸·所信과 責任下에 眞正한 國民의 뜻을 恒常 살피면서 國政을 執行할 權限과 義務와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政黨들이 위와같은 民主政治의 基本理念(즉, “國民은 나라의 主人이고, 모든 國政은 國民의 뜻에 따르라”)을 말하는것 自體를 批判하는 것은 絶對로 아니다. 다만 그런말

은 어디까지나 政府에 대한 忠告와 國民에 대한 啓蒙 次元에서 하여야지. 具體的 行政事案마다 마치 政府가 違法的으로 處理하는 것처럼 恒常 政略的 目的으로 말하여서는 困難하다는 것이다.

事實(憲法上的 國政運用原則)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野黨·在野·運動圈은 勿論이요 言論機關과 一部 學者·宗教人들까지 지난 四十余年間 계속하여 위와같은 듣기 좋고 달콤한 民主政治의 理念的 原理나 理想的 當爲論등 現實問題解決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空理空論만을 소리높이 主張하며 政府를 非難하여 왔으니, 이로 因한 一般 國民들의 理由없는 對政府不信風潮가 얼마나 暴風의 氣勢로 擴散되고 뿌리깊게 되었던가. 그런데도 이러한 浪費的 口號政治에 의한 不信風潮까지 그 原因을 造成한 그 當者들이 國民의 政治意識의 後進性을 利用하여 도리혀 이를 모두 政府의 獨裁와 失政탓이라고 그 責任을 轉嫁하고, 國民 또한 그렇게 믿고있으니, 이 어찌 概嘆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政治風土야말로 바로 自國의 現實的 與件은 아랑곳 하지않고 民主政治의 理念的 虛像에만 매달리는 後進國型的 逆機能的 政治風土로서, 이것은 國民의 前近代의 政治意識과 어울려 우리社會에 지나친 幻傷의 自由를 追求하는 社會氣風을 造成하게되어 政局의 不安 및 社會의 混亂(즉, 自由民主 美名下의 放縱心助長, 法과 秩序의 權威損傷)과 國力의 浪費(즉, 虛像에 사로잡힌 非現實的 浪費的 政治鬭爭繼續)를 招來케하고, 國民의 健全한 政治意識의 發展을 沮害하며, 또한 國民의 對政府不信風潮를 造成케하는 根本的인 原因이 되고, 또한 短期間內에 政善되기 어려운 우리의 退嬰的인 政治文化環境을 造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後進的이고 退嬰的인 政治文化風土는 國民各者의 政治意識이 改造되지 않은限 絶對로 改善되지 않는다. 그것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는 執權을 目的으로하는 集團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甘言利說을 써서라도 國民의 多數票를 確保하려 하는데다가, 政治文化風土와 國民의 政治意識水準은 서로 函數關係에 왔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國民의 政治意識水準이 낮으면 政黨등은 가진 甘言利說로 國民을 愚弄하게 되지만, 國民의 政治意識水準이 높아지면 그런 甘言利說만으로는 먹적들지 않게될 것이니 그때에는 우리의 政治風土도 改善되어 다른 先進國과 같이 달콤한 口號政治(즉, 現實問題解決보다 말장난만 하는 政治)에서 벗어나 現實問題에 관한 具體的인 政策으로 國民을 對하지 않을수 없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내가 너무 自體의 魅力에만 眩惑되지 말고 그 말하는 사람의 責任性에 留意하라고 한것도 바로 이런 理由때문이다.

民主政治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國民에 의한 政治요 國民을 위한 政治요 國民의 政治라 하지않는가. 다시 말하면, 民主政治라는 것은 國民들이 直接나서서 國政을 運用해야하는 것인데, 그것이 事實上 困難하니 國民들이 自己들의 代表(例, 大統領·國會議員등)를 選出하여 그들로 하여금 一定期間동안씩 責任을 지고 國政을 運用케하고, 國民들은 그 代表들이 國民을 위하여 國政을 執行·議決하는지 與否를 監視하며 責任을 묻고 또 國政이 남의 일이 아니라 國民自身の 일이니 傍觀만 하지말고 그 國民代表들이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그들을 信任하고 積極協助할것을 大前提로한 政治制度가 아닌가. 그러므로 國民들은 各者의

支持黨與否를 不問하고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이나 國會議員등을 그任期동안만은 信任하고 協助하는 것이 民主政治制度下에서의 必須의인 基本的 道理이고, 이러한 國民의 倫理意識없이 民主政治의 成功을 바랄수는 없는것이다. 한 나라의 政府(즉, 政治水準)는 그 나라의 國民水準을 反映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民主政治는 國民一般의 民主意識水準 民主的生活習性水準 權利義務에 대한 認識度(즉, 遵法精神水準)倫理意識強度등 그 國家構成員의 資質水準에 따라 그 政治의 質의水準과 成敗가 左右된다는 뜻이다. 그럴진대 어찌 國民各者의 民主意識과 倫理意識에 대한 覺醒과 政府에 대한 協助없이 民主政治의 成功을 바랄수 있겠는가. 더구나 黨利黨略의 政治口號에 眩惑되어 理由없이 政府를 不信하고 協助하지않는 사람들이 어찌 政治를 論할 資格이 있다할수 있겠는가. 國民의 民主意識 내지 政治意識과 關聯하여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現實과 理想(즉, 理念的當爲論·倫理論 등)과는 어쩔수 없는 많은 差異가 있고, 그差異는 前者는 不可抗力의 人的·物的·文化的 環境與件의 支配를 받는 具象의 人間生活의 世界인데 反하여, 後者는 그야말로 自由無碍한 抽象的 觀念의 世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自由와 權利의 主張이나 政治問題(註, 政治라는 것은 現實問題를 解決하는 國家作用이고, 그 窮極的 責任은 政府에 있다)에 이르기만 하면, 그差異를 전혀 考慮하려하지 않고 理想(즉, 理念的當爲等)만 追求하며 正當한 理由없이 즉, 自己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하여 政府에 대하여 不滿과 不信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風潮는 勿論 解放後 아무런 文化的背景이나 與件 또는 準備도없이 他意的으로 급작스럽게 導入한 西歐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제대로 消化하지못한 副作用 즉, 自由의 美名下에서 恣行되는 放縱과 物質萬能思想에서 온 利己主義가 社會에 膨湃하게된 것이 그 主된 原因이긴 하지만,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은 우리나라 野黨들의 後進的 政治樣態 즉, 우리나라의 實情은 돌보지않고 그저 自由民主의 理念的 虛像(즉, 幻想的自由)만을 좇아 非現實的인 當爲論만 主張하여온 口號政治의 弊習에도 그 큰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放縱과 利己主義는 그야말로 國民間의 和合을 害치고 社會倫理와 法秩序(즉, 모든 社會秩序)를 紊亂하게하며 民主主義(民主政治)를 呑먹는 主犯이다. 그것들은 元來가 남의 事情이나 社會倫理 및 法秩序등은 아랑곳 하지않고 自己의 慾心만 채우려는 心理現象이기 때문에, 그런 習性을 가진 사람들은 必然的으로 無理와 脫法과 不法을 恣行하게되어 社會秩序의 紊亂은 勿論이고, 온갖 非理·不正·腐敗·犯罪와 社會不條理를 造成하면서도, 그런 사람일수록 社會와 政府에 대한 不滿不信이 더욱 큰 法이다. 참으로 아이로니한 人間社會의 어쩔수 없는 矛盾的現象이라 하겠다. 民主社會는 自由社會일뿐만 아니라 平等社會요 法治社會이기 때문에 우리는 自己의 慾心만 부리지 말고 남의 處地도 고려하고 秩序도 지키며 살아가는 生活倫理와 習性을 익혀야 하지않겠는가. 이런點에서 나는 民主主義와 民主政治에 대한 國民意識은 易地思之의 姿勢와 秩序를 지키는 習性을 가지는데에서부터 出發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産業化課程을 거치면서 驚異的인 經濟成長을 이루었으나, 그 反面에

서는 다른 先進工業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社會不條理도 派生되어 政府에 대한 不信은 더욱 커졌다. 例컨대, 産業化에 따른 人口都市集中으로 인한 都市貧民層增加·住宅難·交通難·農村空洞化·核家族化, 開發地域偏在으로 인한 地域間所得隔差, 基幹産業·輸出産業의 重點育성과 高度經濟成長政策으로 인한 富의 偏在·階層間所得隔差·勞使間葛藤, 經濟第一主義下에서의 黃金萬能思想風靡와 價値觀混沌, 所得不均衡에서 오는 相對的貧困感·疎外感, 經濟規模膨脹에 따른 過剩期待感등의 諸般 社會不條理現象과 欲求不滿이 派生되어, 地域間 階層間的 葛藤이 甚하여지고 結局에는 政府에 대한 不滿不信도 더욱 深化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는 또 六·二九宣言(1987年)을 契機로 하여 劃期的인 民主化過程을 期하였다. 이렇게되자 우리社會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自由와 權利만을 主張하여 그 이 로 “하지 못할 말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을”程度的 無政府狀態와 같은 無秩序하고 混亂한 社會가 되어 國基가 흔들릴 地境까지 이르렀다. 社會各界의 欲求不滿이 一時에 爆發的으로 噴出되어 自由·民主의 美名下에 手段·方法을 가리지않고 사람마다 제몫찾기에 血眼이 되어 既得權에 挑戰하고, 가진者和 못가진者間的 反目葛藤은 날로 甚하여지고, 大學은 運動圈의 學生과 一部教授등에 의한 反體制活動의 治外法權的 基地로 되어가고, 工場 기타 産業施設은 極烈한 運動圈勞組員에 의하여 政府和 企業主를 糾彈하는 暴力데모와 破壞行爲에 시달려 生産이 中斷되고, 거리와 公共施設은 在野左派·運動圈大學生·靑年들의 反體制的인 플래카아도와 口號의 소란속에 暴力데모行爲(화염병투척등)로 破壞되고 火焰에 휩싸이는 修羅場이 되는가하면, 다른한편에서는 社會各部門에서 反體制的인 所謂 民衆理念組織과 그 系列의 言論·出版機關이 雨後竹筍처럼 續出하여 政府和 企業(가진者)그리고 所謂 美帝와 反共思想을 聲討하며 自由民主體制와 資本主義를 批判하는 出版物 또는 獨裁政權秘史 暴露등의 冊子를 量産傳播시키고, 在野左派는 勿論이고 體制內的 野圈政派까지 言論·出版·結社·集會의 自由 이름밑에서 이를 政略的으로 부채질하는 狀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一九八九年)에는 國會마저 與小野大 政局狀況에서 五共清算 또는 光州事態調查등의 面目으로 完全公開된 聽聞會를 열어 그야말로 野黨側의 偏頗的·政略的 司會方法으로 全國民注視裡에 政府를 嘲弄하며 매질하는 世界第一의 萬能的 國會像을 遺憾없이 發揮하여 政府(즉, 大統領을 首班으로한 國民의 受任機關)의 權威를 餘地없이 損喪시켰다. (註, 全國에 TV로 實況中繼된 聽聞會에서 政府代表와 政府側證人들의 重要發言 大目에서는 언제나 司會者가 그 發言을 中止시켰고, 또 어떤 野黨議員은 虛偽證據物인 寫眞을 提出하고 이것이 光州事態當時 國軍이 光州市民을 虐殺한 場面の 生생한 證據라며 政府를 攻擊하여, 온 國民으로 하여금 政府를 憎惡하며 不信케한 일도있었다). 그런데 위와같이 사람마다 또 集團마다 모두 말로는 民主化한다하면서도, 그 行爲에 있어서는 “理致보다 억지를”“法보다 暴力을”“節次보다 即決을”“實情보다 제 慾心을”“現實보다 이데올로기를”“肯定보다 否定을”“妥協보다 打倒를”“和合보다 分裂을”앞세우거나 助長시켜 우리社會를 混亂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는 社會崩壞의 狀況인데도, 이를 警告하고 覺醒시켜야 할 體制內的 言論機關들도 勞組員들의 壓力이나 牽制때문인지 제구실을 못하고, 社會公

共秩序와 紀綱이 무너져가고 自由民主體制가 危機에 處해가는데도 決然한 一貫된 信條나 指向意志도 없이 그저 時流에 따라 時마다 兩是兩非論으로 傍觀만하고 體制守護努力에는 關心이 없는 것 같았다. 黨利黨略의 口號政治風土속에서 政府의 말(國家實情)을 믿지 않게 된 悲劇的인 오늘의 우리 狀況에서 言論機關마저 이러하니 어찌 寒心스러운 일이 아닌가. 民主化課業推進(六·二九宣言)以後의 近年의 우리 社會의 이러한 混亂相에 대하여 政府以外的 어느 사람 어느 機關도 이를 警告하거나 批判하는 일이 없이 그저 傍觀만하고 또 오히려 政府가 公安維持를 위하여 公權力을 行使하면 民主學生·人士를 彈壓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우리 社會는 지금 左翼分子들이 발호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아이로니하게도 “自由民主의 이름(名分 또는 口號) 밑에서 바로 그 自由民主體制的 基本價値와 秩序를 破壞하는 愚行”이 公然히 姿行되는 狀況이 展開되고 있어, 理念(이데올로기)과 求心點의 混沌狀態속에서 國民과 國論의 分裂은 말할 것도 없고 社會의 紀綱과 公共秩序는 날로 紊亂해져가고 國家의 產業經濟는 침체되고 物價는 上乘하고 社會不安은 高潮되고 各種惡性犯罪까지 盛行되어, 우리의 自由民主體制自體가 威脅받고 있는 狀況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社會를 民主화한다면 自由民主의 名分下에 法과 秩序를 無視해가며 過激한 變革運動을 하고 있는 一部사람들의 行動이 그 眞意與否에 關係없이 어찌 北韓의 對南赤化統一戰略의 民族解放戰術(즉, “自由民主의 名分으로 그 自由民主政權(第一段階目標)과 그 體制(第二 또는 第三段階目標)를 顛覆하게 하는” 心理的宣傳戰術)에 놀아나는 反國家의 愚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統一된 國家라면 요즘의 우리 社會相과 같은 暴力的 無法的 左翼 이데올로기의 社會變革運動이 있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現今의 國際情勢로 볼 때 그것은 國家(民主體制)의 存立이나 國民의 生存과 關係없는 單純한 政權이나 國力 및 社會浪費의 次元에서 理解될 수 있는 問題이다. 그러나 同族分斷狀態에 있는 오늘의 우리 狀況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직도 同族이 南北으로 分斷되어 對峙하고 있는 狀態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民主化過程을 거치면서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體制危機的 混亂狀態에 處하여 있는데다가 國民의 對政府不信風潮가 極甚하고 國民의 體制守護意志 또한 民主化의 混亂속에서 적지 않게 解弛되어 있는데 反하여, 北韓의 金日成은 對南赤化統一政策(民族解放心理戰術에 의한 南韓併合)을 조금도 修正하지 않은 채 對南心理戰(謀略宣傳·指令·煽動·鼓舞 등) 계속하면서 우리의 民主化過程에서 派生되는 諸般 社會混亂要素들을 對南放送 및 群衆大會 등을 통하여 세차게 煽動·聲援·鼓舞하고 있는 點으로 볼 때, 지금의 우리 國內狀況이 어찌 國家(즉, 自由民主體制)의 存立과 우리들의 生存問題와 無關한 事態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越南이 共產化된 것도 意識的이던 無意識的이던 이러한 民族解放心理戰術에 말려든 知覺없는 宗教人·教授·大學生들의 節制없는 民主化運動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多幸스럽게도 우리 國民의 自省의 努力보다 88서울올림픽과 朝鮮의 高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 그리고 우리 政府의 北方政策이 위와 같은 우리 社會의 危機狀況을 今年(1990年)부터 크게 求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88서울올림픽을 契機로 우리와 準敵對의 關係에 있던 82

련과 東歐共產圈 國家들이 우리나라의 實像을 알게되고, 또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開放政策에 따라 소련과 東歐共產圈의 모든 國家들이 經濟難과 生活苦에 못이겨 開放되거나 社會主義體制에서 脫皮하여 지난해말부터 우리나라와 通商·修交를 하게됨에 따라, 우리國民들의 社會主義理念에 대한 漠然한 幻想에 커다란 影響을 주어 今年後半期부터는 그前같은 過激한 暴力데모나 破壞的 言動이 半減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註, 이러한 暴力的) 民主化運動이나 이른바 民衆運動의 潛在化現象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社會를 소란케하였던 過激한 民主化運動이나 이른바 民衆運動이 事實은 國內政治의 特別한 問題點 때문이 아니라, 在野左派들이 戰術的目的으로 民主國家에서는 어느나라에나 있을수있는 社會的矛盾을 口實로한 左傾의理念運動이었고, 國民들은 그저 그 허울좋은 口號에 附和雷同한 터무니없는 社會的 浪費運動이었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소련이나 東歐共產圈이 開放되고 民主化되었다고하여 北韓도 體制나 政策에 變動이 생겨 우리의 體制威脅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純眞한 사람의 危險한 速斷이라 하겠다. 적어도 金日成의 生存동안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理由는 위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첫째로는 우리는 아직도 同族分斷의 對峙狀態에 있는데, 北韓은 東歐圈의 社會主義體制脫皮旋風 以後에도 對南赤化統一政策(民族解放心理戰術策略)을 조금도 修正하지 않고 韓國顛覆政策을 계속 強化하고있는데 反하여, 우리 韓國은 六·二九宣言以後 民主化過程을 거치면서 우리國民 스스로가 自由民主의 口號 밑에서 北韓의 民族解放心理戰術에 말려든 結果와 같은 無秩序한 社會混亂相을 惹起시켜 國民의 對政府不信感을 더욱 高潮시키고 國民의 求心點을 교란시켜 놓았으니 北韓이 誤判할 可能性이 있고, 둘째로는 北韓은 大國 中共과 接해 있어 中共의 全面的 開放平和政策이 斷行되기 前까지는 相當한 期間동안 계속하여 지금과 같은 閉鎖的共產體制와 民族解放政策을 固守해 나갈수 있을것이고, 세째로는 南北分斷狀態가 계속하는限 우리國內의 反體制性向의 宗教人·教授·大學生·勤勞者 등의 所謂民衆運動等 反體制運動은 民主化 또는 統一運動은 계속될 것이니 北韓은 미련을 버리지 않을것이며, 네째로는 우리의 民族問題(즉, 統一課業)는 어디까지나 國內問題이기 때문에 國際情勢보다 우리 國民의 政治意識(例, 政府와 國民의 信任·協助關係 등)내지 自由資本體制守護意志와 和合團結精神이 가장 重要한 要素로 되는데, 지금의 우리狀況은 安心할 狀態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國民의 對政府不信風潮를 걱정하는것도 바로 이런 理由때문이다. 또 내가 이런 老婆心을 갖는것은 무슨 政治的性向이나 偏見때문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生活向上과 國家의 發展내지 保全은 政府에 대한 國民의 協助없이 絶對로 不可能하다는 確信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하였으니, 지난해부터 東歐共產圈 諸國이 서로 다투어가며 共產主義體制(즉, 社會主義體制)에서 自由民主體制로 脫皮해가는 旋風的 變化情勢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해에 數없이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自由民主美名下的 反政府 反體制的 社會變革運動에 대하여 深刻한 反省과 覺醒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우리는 그동안 在野人士 및 運動圈大學生들의 虛荒된 教條的 妄想(社會主義理念·解放神學理論 등)에

사로잡힌 過激한 反政府데모등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려왔고, 또 얼마나 많은 精力·時間·物資를 浪費하고 人命·財産·學業·生業등을 犧牲시키고 社會安定과 國民和合을 害친 理由없는 浪費的 國力消耗騷動에 國民들은 얼마나 많이 籠絡되어 왔던가. 또 그것으로 因한 理由없는 政府誹訪과 不信은 얼마나 甚大하였던가. 民主化는 秩序를 지키면서 平和的으로 推進하지 않으면 社會的浪費와 國民分裂 以外에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反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數年間的 民主化過程에서 在野 및 運動圈의 너무도 性急하고 過激한 變革運動에 휘말려 國民階層間的 反目對立과 不信이 더욱 深化되고 社會秩序가 교란되어, 社會不安과 經濟沈滯가 더욱 甚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 狀況에서 무엇보다도 時急히 必要的 것은 國民和合(求心點回複)과 社會安定이다. 最近의 脫社會主義旋風과 脫이데올로기 傾向의 國際情勢에 쫓기는 北韓은 우리社會의 混亂狀況을 利用하여 近者에 와서는 갑자기 그동안 그들이 中斷시켰던 南北對話에 다시 나와 統一 및 軍縮問題등에 관한 平和攻勢를 強化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國內事情은 어떠한가. 一部野黨 기타 在野政派들은 우리政府의 統一方案이 公表되어 있는 狀況인데도 무엇을(政黨制와 言論自由權?)根據로 하였는지 몰라도 衆口難防式으로 統一方案을 제 各其 公的으로 發表함으로써 우리의 國內分裂相을 發露시켰다. 우리國民(즉, 制憲權力)이 언제 그들에게 우리 民族의 統一課業을 授權하였는지 寡聞한 나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分斷國의 統一問題는 單純한 國內問題가 아니라 國際間的 條約에 準하는 準國際的 協約事項에 該當하여 國家元首(大統領)의 專屬 管轄事項에 屬하는 問題인데, 國民의 生存條件과 直結되는 最大重要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이러한 統一問題解法方案을 野黨등에서 輕率하게 言論에 公開하면, 우리의 協商交涉立地만 弱化시킬 뿐 우리 國民에게 무슨 利得를 가져다 줄 것인가.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後進的 政治風土에 安住하는 野圈·在野·運動圈의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은 問題는 그들의 政略的 戰術的 宣傳에 浮和雷同하는 國民이 各階各層마다 적지않게 있다는 事實이다. 北韓의 對南 民族解放戰術의 主力武器는 南韓의 大衆에게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에 대한 主張을 極大化하도록 扇動하는 것이고, 그 第一段階의 目標는 그 自由權의 美名下에 南韓의 大衆들이 美軍撤收와 反共法廢止를 主張實現케하여 그들의 活動上 障礙物을 除去하고 完全히 自由로운 活動狀態에서 公公然히 社會公公秩序를 攪亂하여 社會混亂을 이르고 政府와 國民間的 離間을 策動함으로써, 우리 國民 스스로 우리 政府를 打倒하여 過渡的인 思想的 灰色政府를 樹立케 하는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곁에서 衝動하여 장님이 제 닭 잡아먹게 하는 戰術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 國內의 野圈·在野·運動圈의 民主化運動口號나 主張은 어떠한가. 그 眞意야 어떻든간에 위의 民族解放戰術의 煽動內容과 別로 다를것이 없다. 社會가 混亂하게될 때 政府에서 國民들에게 北韓의 陰謀에 말려들지 않도록 過激한 言動과 데모등의 自制를 당부하며 團束을 하게되면, 우리 野圈과 在野등에서는 언제나 “言論·出版·集會등을 統制하고 民主愛國靑年들을 彈壓하며, 反共으로 政權安保를 획책한다”고 터무니없이 政府를 攻駁



한다. 이렇게되면 政府를 不信하거나 政治意識이 不足하거나 弱者同情이 德으로만 아는 國民들은 아무런 事理判斷도 함이 없이 “統制또는 彈壓”이란 말 한마디에 그냥 野圈등의 主張에 따라 理由없이 政府를 誹謗하고 不信하게 된다. 이러한 惡循環이 建國後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참으로 슬픈일이다. 우리의 生活向上과 國家發展의 與否는 野圈에 있는것이 아니라 政府에 대한 우리의 協助與否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한다. 이렇게 自由民主共和國인 우리나라는 自由民主社會의 特徵的 價値인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라는 長點이 北韓이나 反對派로부터 弱點으로 利用되어 우리는 안팎으로부터 攻擊을 받고있다. 그리하니 自由民主社會에서 國民들의 覺醒과 理解協助없이 이러한 달콤한 共產黨의 民族解放戰術에 의한 政府 및 體制顛覆策略을 막아낼 道理가 있겠는가. 참으로 悲劇的이고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越南敗亡直前に 自由民主와 反獨裁를 웨치며 焚身自殺까지하며 過激데 모를 主導했던 宗教人·教授·大學生들이나 그에 同調했던 國民들이 모두 共產黨員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理由야 말 하나하나 우리의 在野나 運動圈 그리고 그에 同調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大同小異했을 것이다. 아주 陰凶했거나 英雄心 또는 誇示欲이 많았거나, 아니면 너무도 純眞한 철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그들은 모두 그런짓을 해도 나라는 亡하지않을 것으로 믿었을까? 共產黨員 또는 그들과 內通한 極小數를 除外한 大部分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民族解放戰術에 의한 陰凶한 꾀임에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어설픈 古典的 理論에만 매달려 單純한 政權次元의 民權運動으로만 믿어 온것이 아니겠는가. 아직 同族이 南北으로 分斷되어있는 狀況下의 우리로서는 이를 他山之石으로 모두 敎訓삼아 深刻하게 覺醒하고 反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社會는 階層間的 反目葛藤과 不信이 매우 甚하여, 特히 政府와 企業(有產者)에 대한 不信은 참으로 深刻하다. 이러한 風潮는 그 前부터 있어온 일이지는 하지만, 지난 數年間的 民主化推進過程을 거치면서 더욱 爆發的으로 擴散되고 深化되었다. 그 理由는 自由民主의 美名下에 在野와 거의 모든 職場에 所謂 民衆理念으로 武裝된 集團과 組織이 雨後竹筍처럼 생겨나서 이른바 民衆主體社會 建設을 위한 社會改革運動을 執拗하게 展開하니, 既存의 野圈·運動圈·勞動組合등도 이에 同調合勢하여 온 社會를 民衆理念으로 風靡시켜 勤勞者등 低所得層의 慾求不滿과 被害意識을 刺戟함으로써 階層間·國民과 政府間的 反目不信을 深化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民衆理念이란 것은 勞動者·農民·都市貧民·知識人·小市民등이 主體가 되는 社會理念이라고 하니 그것은 事實上 社會主義社會 建設을 目標로 하는 理念같은, 단지 用語에 있어서 社會主義理念上的 “人民”이란 用語를 “民衆”으로 代替한 것일 뿐, 그 鬭爭口號와 鬭爭方式등은 모두 우리가 解放直後 北韓에서 經驗하였던 그네들의 社會主義建設過程에서 展開하던 階級鬭爭方式과 거의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民衆理念運動者中 相當數의 사람들은 우리社會의 實象이나 時代的 狀況의 與件差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十八·九世紀當時의 自由放任時代의 資本主義矛盾點(搾取에

의한 利潤追究등)을 背景으로 百餘年前에 著述된 마르크스·엔겔스의 資本論과 같은 낡은 理論이나 南美의 特異環境을 背景으로 한 解放神學등의 理論에만 매달려, 自主獨立의 民主 福祉國家인 우리社會를 그들 理論(즉, 敎條)의 基本前提인 搾取社會體制로 억지로 두들겨 맞추기 위하여, “지금의 우리 社會를 美帝國主義의 앞자비인 팻쇼 獨裁政權과 買辦資本·獨占資本이 서로 癒着되어 民衆을 搾取支配하는 社會體制로 虛像化시켜 놓고, 그 虛像이 바로 오늘의 우리 社會의 實象인 것처럼 宣傳’하면서 우리의 社會體制를 打破하여 民衆이 主體가 되는 民衆社會體制로 改革하자고 主張하며 暴力的 過激데모를 敢行하거나 社會名分野에서 言論·出版등을 通하여 階層間 또는 對政府 不信運動을 은근히 또는 公公연히 縱용하거나 助長하는 活動을 하고있다. 近年의 우리 社會狀況이 이렇게 既存秩序에 대한 不信思潮가 蔓延되어 있으니 運動圈의 大學生이나 勤勞者등 青年層은 그들의 暴力行爲로 因한 社會秩序 攪亂이나 公共施設破壞行爲등에 대하여 아무런 可責感이나 罪意識을 느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政府는 勿論이고 심지어 父母나 스승의 말씀까지 전혀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는 唯我獨善的 妄想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風潮는 다른 많은 靑少年이나 成人들에게까지 그 影響이 미쳐, 오늘에 와서는 그들마저도 믿어야 할 사람(즉, 父母兄弟·스승·上司·政府등 責任이 있는 者)의 말은 믿지 않고, 믿지 않아도 될 사람(즉, 在野·運動圈·雜誌·風聞등 責任이 없는 者)의 말만 믿으려하는 참으로 아이로니하고도 안타까운 弊風이 널리 퍼져있다. 近者에 와서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가 最大最急의 當面課題로 擧論되고 있는 마당에 國民들의 不信風潮가 이 地境에 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 어찌 恨歎스럽고 애달픈 일이 아닌가. 國民의 政府不信風潮와 관련하여, 우리모두 여기에서 다시한번 조용히 自己自信을 反省해 보자.

○ 그동안 너무도 많은것을 政府에 要求하거나 바라지는 않았는가?

○ 政府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錯覺하고 있지는 않았는가?(註, 政府가 國政을 제대로 運營했다면 그런 問題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無條件的否定的 前提意識)

○ 모든 國政問題에 대하여 나 自身이 그자리(責任맡은 政府機關)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立場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는가?

○ 내 主見(判斷)에 대하여 정말 내가 主體性을 堅持하고 있는가?

○ 남의 말이나 風聞(新聞·雜誌등 포함)만 믿고 政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 國家와 政府는 別個의 것이니 政府를 不信하고 協調하지 않아도 戰·平時를 不問하고 國家(自由民主體制)의 存立이나 發展에 影響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註, 同族分斷狀況下의 非常時에는 가장 危險한 單純理論)

옛날 어른들이 말씀한대로 이 世上의 모든 일은 事實보다 말로써 말(즉, 不滿不信등 物議)이 많은 法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自省하고 自制하고 覺醒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山

### 韓時坤(24回)

젊어서 多年間 心血을 기울였든 育英事業도 自信의 不德과 無能으로 財政的 狼狽를 보고 두개의 짐(二個學校)를 몽땅 後繼人에게 넘겨주고 知天命의 나이를 앞두고 다시 몸만 달랑 남아 虛妄한 페시미스트가 되어 無心山中에 들어가 헤매면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기 위하여 나의 自刻獨得의 길은 시작 되었다. 人間은 두번 같은 물에 뛰어 들수가 없다는 먼옛날의 어느 先覺者의 말을 생각하며 단 한번 만의 生에 자못 뚜렷한 價値와 意義를 찾아 보려 무던히도 애쓰고 힘도 써보았는데 世上事 理致대로 如意치 못하고 엉뚱하게만 돌아간다. 도무지 正과 否·直과 曲, 明과 暗조차 區別을 못하는 멍청한 爲人이 되면서 내가 왜 이지경이 되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살아 남아야 하는가. 知天命의 나이 가까운데 天命은 커녕 도무지 무어가 무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나는 人生의 例外者요 單獨者가 되어 있다는 事實, 그리고 이것이 바로 人生의 苦惱요 生의 本質이 아니겠나 하는 生覺, 이苦惱는 人間이 生을 마칠때 까지 사라 지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바로 그런 宿命의 主人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生을 좀 넓고 깊고 높운데 그 뜻을 찾으려고 山을 向하여 발길을 옮겼다. 山은 처음으로 나의 험크러진 마음을 잡아 주는 多情하고 寬大한 벗이 되어 주었고 나아가서 罔부와 慈母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精神世界를 밝혀주고 引導하는 敬畏로운 스승이 되었다. 나는 事業을 놓은 後에 生計를 爲하여 일자리를 轉轉 얼마간의 給料와 手當으로 糊口하면서 休日마다 余暇마다 山을 찾았다. 草木과 새들을 벗삼아 山길을 읽으면서 山에 올랐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山友들과 그때 그때 정해지는 地點을 目標로 오르고 또 오른다. 山은 峻嚴한 父性과 慈愛로운 母情을 지닌 두얼굴의 主人公이다. 맑은 精神으로 忍耐와 順從으로 잘 따라주면 어머니의 젖가슴 처럼 포근히 감싸 주지만 그 큰 뜻을 拒逆하면 가차없이 秋霜같은 責罰을 내린다. 山은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至大한 敎訓을 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나는 이 엄청나게 크고 높은 스승 앞에 二十年 歲月 實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智慧의 神의 미네르바의 부엉새는 黃昏이 되면 비로서 그 밝아진 눈으로 날개를 펴고 현실의 活動의 자취를 이리저리 더듬어 살핀다지만 나는 智慧도 없는 부엉새 눈으로 한낮에 山속을 暗中摸索하며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枯木과 바위들과 無言의 對話를 나누며 하나하나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모습을 漸漸 분명히 發見하게 되었다. 實로 極히 작고 極히 剌邦的인 存在라는 것을. 山을 오를 때면 마음의 먼지를 털고 흥가분한 기분으로 가볍게 숨을쉬고 땀을 흘리며 山中에 솟은 시원한 石澗水로 渴症을 매우고 五장과 六부를 고루 씻어 가며 몸에 生氣를 찾는다. 가슴에 新鮮한 空氣와 함께 浩然之氣를 불어넣고 世間的 逆理와 非道도 좀 떨어진 距離에서 超然하게 觀想하게 되었다. 主客相沒의 天地間 唯一統一의 原理도 正 反이 서로 합쳐 다음의 하나가 되는 理致도 또 矛盾과 相反도 極致에 이르면 스스로 自己同一이 되는 까닭도 어렵듯이 心眼으로 보게 된다. 山이 좋아 거기 찾아

들어 나를 읽고 배우면서 내 온갖 시름을 거기에 풀어 놓는다. 山은 우리의 嚴父慈母요 敎室이요 스승이다. 우리에게 이三役을 다해주는 以外에도 山이 우리에게 베푸는 惠澤은 實로 헤아릴수 없이 많다. 높이 솟아 高峯을 이루고 양팔퍼서 稜線을 이루어 한 겨울이면 살에는 朔風과 雪寒을 그 등으로 막아주고 同時에 陽地쪽 앞 가슴엔 다가오는 새봄에 돌아날 새 生命들을 孕胎한다. 머지않아 새싹이 돌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면 그 화사한 꽃밭에 蝴蝶들이 날아와 새소리와 어우러져 한바탕 大自然의 큰잔치가 벌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그속에서 彼我沒入의 莊子幻夢에 地上天下 忘我之境이 되리. 또 山에는 四時四節 맑은 물이 솟아 深谷따라 것줄 처럼 흘러내려 山기슭에 ㅼㅼㅼ하게 마련된 門前沃畝를 적셔주어 거기서 우리가 삶을 營爲하고 子孫을 이어가게 해준다.

어찌 그뿐이라. 山은 우리가 生을 마치면 거기에 우리의 肉身을 묻어주고 그 넋을 거두어 주는 實로 偉大하고 慈悲로운 源泉的인 母體이다. 人間은 原來 어머니의 등글고 어두운 胎內로 還歸하여 往生한다는 再生神話를 갖고 있드시 우리는 이 偉大한 母體인 山에서 죽엄과 永生도 함께한다. 梵我一如의 大理 眞空妙有의 相合의 本體 無爲自然 守僕의 玄道도 無欲靜虛한 山心을 본받아 謙下行持의 德을 닦고 그 無言의 大智앞에 內者外察 格物致知의 길을 닦는다. 山은 우리의 修養道場이요 守護神이다. 故鄉인 同時에 民族의 發祥地이다. 우리의 聖祖가 降臨한 곳이 太伯의 山頂이었고 거기 神檀樹下 基壇에 神市를 세워 倍達의 民族精氣를 뿜어 낸 곳이 바로 山이었고 難攻不落의 要塞를 쌓고 外侵을 막은것도 山과 山城이었고 烽火와 煙氣로 敵의 舉動을 알린 곳도 山봉우리이서 었다.

開京의 松嶽(鎭山) 漢陽의 北漢山城, 南漢山城, 西京의 在城과 羅城 八達山으로 이어지는 水州城 等等 많은 山과 山城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나라가 患難을 겪는 亂世에는 수 많은 志士 文客들이 山을 向하여 修道와 隱杼의 길을 떠나 后日 捲土重來를 다짐한 곳도 山中이 었다. 그들은 山心을 익히면서 心身을 修練하고 詩作과 著述과 祈願으로 겨례의 울분과 念願과 그리고 再起의 意志를 述懷하고 다짐 하였다. 千年의 社稷을 一朝에 내 놓을수가 없다고 父王에 抗拒하다 及其也는 世上을 등지고 皆骨山에 들어가 한平生 삼베옷과 草食으로 一貫하여 그이름조차 世上에 알려지지 않았든 新羅의 마지막 王子 麻衣太子 生六臣의 한사람으로 稀世의 俊才였든 梅月堂도 王位 찬탈 悲劇을 보고는 平素에 배우고 익혀온 四書와 三經을 모조리 불사르고 虛弱한 몸을 이끌고 八道江山을 周遊하면서 때로는 物外閑僧으로 때로는 風流詩人으로 때로는 奇人狂客으로 불리우며 金鰲神話를 비롯하여 關西, 湖南 關東의 여러 宕游錄을 整理하고 그后志까지 써서 남기면서 近10年 徘徊 北으로는 妙香 湖南의 智異, 月出, 嶺東의 名嶽 雪岳을 두루 찾았다. 五歲神童의 別名으로 五歲庵의 傳說을 거기에 남겼다. 夷齊와 같이 身中淸의 隱居地를 거기 두고 道를 닦았고, 平素 그리던 金鰲山室에 그 이야기 보따리를 끌었다. 한편 三三人의 한사람으로 民族詩人이요 革命的禪僧이 었든 萬海도 內雪岳의 百潭寺와 五歲庵을 오가며 그 剛直한 氣魄과 孤高한 節操로 佛教維新論과 菜根譚抄解等を 著述하고 「님의 침묵」에 蘊蓄된 民族의 恨과 울분을 담아 歎息하며 得道의 길을

걸었던 것도 그 산속에서였다. 詩調人이요 國史學者요 祖國江山을 禮讚하는 文筆家 鷺山은 “靑山도 절로 절로 綠水도 절로 절로 山절로 水절로 하니 山水間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난 몸이니 늑기 조차 절로 하리”라는 河西 金인후의 詩 한首로 그의 自然論을 펴기 시작하면서 “나의 江山巡禮는 나에게 있어서 單純한 慰安이나 敎訓만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生理化된 宗教요 나의 知識과 思想과 人間性이 온통 거기에 이루어 졌다”라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詩句로 우리들을 감격케 한다. “靑峯에 올라서서 南北江山 느껴워라. 뒤로는 白頭金剛, 앞으로는 太白, 智異 이거 다- 내거타 시네 한 가슴 안았소 그려” 또 “雪岳洞 雪岳골이 그래 정말 어땡더냐. 예 말씀 마세요. 그게 저-그렇더군요. 뭐-랄까. 그게 모-두 참 말 저-그게 저-그게 그게!”라고 얼버무려 놓고 아마 그 옛날 鄭松江도 尹孤山도 그 絶景을 筆舌로 表現하는데 別수 없었을 것이라고 戲弄과 感歎을 함께 뱉어 놓았다. 英國의 文藝, 美術 批判家요 經濟學者이기도한 존, 라스킨은 산을 이렇게 讚美한다. “森林에는 複雜한 寂寞과 集음이 있다. 산에는 立像의 曲線美가 있다. 우리는 이 立像의 美에서 깊은 寂寞과 아름다운 音樂과 맑은 色彩의 變化를 배워야 한다.” “山獄은 人類를 爲해서 세워진 學校요, 伽藍이다 學生에게는 아름다운 書庫요 勞動者에게는 素朴한 休息處요, 思索人에게는 高요한 庵子요 信仰人에게는 神聖한 光榮을 주는 道場이다”라고 說破하고 人間이 近者에 와서 自然을 蔑視하고 山嶽을 商品化하는 俗된 愛山家가 있다고 批難하였다.

산은 神聖한 것, 造化之神이 質朴한 가운데 千態萬相으로 調和롭게 비쳐서 그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내려준 膳物이다. 우리가 살아서 거기서 安息과 慰安과 活力을 얻는곳, 祖上들의 明堂을 마련한 先山(先塋)이 있는곳 限없이 敬畏롭고 고마운 산 나는 이 산을 한時라도 잊을수 없다. 산을 찾아 山길을 걸으면서 山心을 읽어온지 20星霜 헤아릴수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下山길 노을 지는 夕陽에 山마을 酒幕에 들러 山友들과 함께 탁배기 한사발에 氣高萬丈 人生을 論하고 世上을 論하면서 俗物哲學을 풀어 가며 時間을 잊는다. 그 豪宕한 웃음과 放談속에 지난週의 疲勞를 몽땅 날려보내고 來日을 爲하여 再充電을 한다. 우리는 이 意氣와 氣勢를 몰아 不遠한 將來에 夢昧에도 잊지못한 저 北域땅을 찾아 거기 높이 솟은 妙香 金剛을 거쳐 民族의 發源地 白頭靈山 岳使峯에 올라 그옛날 저 滿州별판 넘어 멀리 遼水에서 부터 淸川江에 이르는 古朝鮮의 疆域과 지금의 獨島, 마라島를 잇는 東南 境界를 生覺하면, 바로 그 中心이 되는 位置에 있는 그 瑞氣어린 靈峯에 올라 東方의 해돋는 조용한 참으로 偉大한 나라 우리祖國 大韓民國 萬萬歲를 목터지게 불러 보자. 저 印度의 詩聖 타골이 우리를 爲하여 지어준 讚코리아의 詩한首 詠歎하면서.

「亞細亞 빛나는 黃金時代에 코리아는 그빛을 밝힌 한주인공이였다. 그燈불 다시금 켜지는날 東邦은 찬란히 온 누리를 밝히리라」

산에 對한 所懷의 一端을 以上고 같이 털어 놓으면서 却說하고 나는 우리 同門들에게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 擱筆하기로 한다.

「우리는 위로는 米壽넘어 白壽을 바라보는 大先輩들 부터 밑으로는 回甲이 되는 막내 同

窓生들이 있다. 한데 그아래로 后輩가 이어지지 않는다. 서글픈 現實이다. 母校에 對하여 歷史앞에 할말이 없다. 우리는 이 生을 마칠때 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問題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가 問題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願하면서 왜 나이먹은것을 한탄 합니까 나이 먹었으면 그만큼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自負心 가져야 합니다. 사는 날 까지 健康하게 살다가 기쁘게 가야지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의 먼지를 털고 온갖 시름 다 버리고 홀가분한 氣分으로 山으로 갑시다. 山에 가서 큰 呼吸과 시원한 生水로 心身의 活氣를 다시 찾읍시다. 山에가서 他郷속의 故郷을 찾읍시다. 거기서 어릴때 놀던 동산을 찾고 童心을 되찾읍시다. 그리하여 때가 오면 우리 함께 母校찾아 아카시아 그늘아래 南北同窓 어울려져 代가 끊긴 同窓會에 새 숨결 불어넣고 停止된 血脈을 다시 搏動시켜 그가 蘇生의 기지개를 켜는 그날 까지 同門들이여 부디 健康합시다.」

## 완집(옛 급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학 료(24回)

완집(도완집. 24회 동창, 해방직후 사망)아, 너하고 헤어진 지도 46년이 되는 것 같구나. 하여간 함흥 북판 우편국 뒷골목 좁은 길로 들어가서 무슨 사립국민학교 앞 여관집(이 집 아들이 함흥고보 25회가 졸업인데 너와 나는 휴학을 한해 했으니까 동기생이 되는데, 이 친구네 집에서 몇번 놀았는데도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구나)에서 만났던 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한 때였지. 그뒤 너는 곧 만포진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해 나는 월남하였고, 이 서울에서 석무(한석무)군 한테서 네가 죽은 경위를 듣고 재삼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들은 바로는 네가 기차를 타고 만포진으로 가는데(아마도 겨울에) 차중에서 심한 설사가 났다고 한다. 기차 속이고 설사는 나고 목은 마르지만 설사하는데 물을 마시면 설사가 더 날테니까 억지로 참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원인가 어디에서 죽었다고 들었단다. 너무나 뜻밖의 일로 정말이 아닐 것 같았다. 혹시 와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후에 지금까지 나는 여러번 너를 생각해 보곤 한단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리 오랫동안 친하게 사귄 것은 아니었다. 3학년 땀가 내가 본정 2정목인가에서 우리 북부정집 가까이로 이사 오고난 후부터, 우리는 정말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 버렸지. 가서 만나고 와서 만나고, 못하는 말이 없었고 그리는 꿈도 가지가지였었다. 너는 나보다 몸도 좋았고 머리도 우수하였고 학교성적은 훨씬 우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는 기대를 걸만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건강도 시원치 않았고 공부도 많이 뒤져 있었다. 다만 때때로 못한 영똥한 생각이나 말을 해서 겨우 친구들 사이에 끼어 다닐 정도

밖에는 안되었다.

그런데 완집아, 너는 정말 죽었을까. 죽었으면 네 영혼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구나. 정말 영혼이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닌다면 너는 이승의 내 형편도 보고 있을 것 아니냐. 너의 어머니는 그전에 돌아가셨으니깐 그렇고, 참 네가 너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의 아버지가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연거푸 말하더라는 말을 그때 들은 생각이 난다. 너의 형님이 계셨고 너의 여동생이 있었지. 너의 여동생은 영생고녀를 다녔지. 참 착실하고 순진한 여학생이었어, 지금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나이로 보아 너의 여동생은 살아 있을 테지. 금년이면 63,4세가 되겠구나. 손자 손녀 거느리고 있겠지.

완집아, 너는 죽었고 나는 아직 골골하면서 살아 있단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죽지못해서 산다고나 할까. 아롱든 건강법이라는 것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한단다. 그렇지, 죽어서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깐, 그 때를 기다려 볼만도 하지. 아까 말한 석무도 죽었단다. 석무는 논산에 가서 터전도 닦아 놓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혈압인가로 죽었다드라. 혹시 너희들 연혼끼리는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두연(현두연)이도 죽었단다. 전에 가슴을 앓았는데 다시 나빠져서 연세대병원에서 죽었단다. 앓을 때 한번 가 보았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은 것 같이 나에게서 생각된단다. 그래도 너보다는 오래 살고 죽은 셈이지.

완집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반룡산과 치마대를 다니던 생각이 나지 않느냐? 반룡산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자꾸 올라가면 치마대가 되지. 봄날 따뜻한 햇볕을 담뿍 받으며 소나무 사이에 피는 진달래를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죽을 날을 생각이나 해 보았더냐. 내일도 모래도 언제나 늙지 않고 희망이 솟는 날만이 있는 줄로 알았지. 야아, 그런데 너는 이미 죽은지 45년, 나는 살아 있으나 나도 불원 네가 간 길을 가게 된단다. 도대체 저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완집아, 귀주사 생각이 나느냐. 동북쪽이 되는지, 함흥역전을 지나 호련천을 건너서 갔지. 가는 도중에 오른쪽으로 들어간 곳에 무슨 누각도 있었어. 사과밭이 연이어져 있었고, 가지에서 바로 따서 먹었지. 그 싱싱한 사과밭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구나. 귀주사에 올라가면 그리 큰 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흥근교의 명소였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서, 내가 너를 부를 줄 알았더냐. 또 덕산 가는 쪽으로 일흥농원인가 하는 과수원이 있었지. 만세교 건너서 한참 가야 하는 곳에 금성농원인가 하는 과수원도 있었다. 황금빛 물결치는 함흥평야의 별을 수많은 메뚜기떼를 날리면서 걸어서 가 보았지. 너와 같이 갔던지는 생각이 희미하구나.

완집아, 너는 단정한 학생이었다. 시라이(白井)교관의 신임도 두터웠지. 무기고 청소도 너는 많이 맡아 했어. 교련이라고 또 야외 훈련이라고 함흥 인접지역으로 많이 돌아다녔지. 함흥 주둔 군대의 군기제가 있던 4월 며칠인가에는 연병장에 가서 분렬식에도 참가했고 봄 가을의 야외 훈련도 여러번 있었지. 도련포에 간 기억도 나고, 본궁, 오로리, 서호진, 덕산

면등 누런 교복에 총을 메고 돌아다니던 기억이 희미한 꿈처럼 남아 있구나. 참 본궁의 옛 궁에서 이성계가 심었다는 600년 묵은 노송, 그리고 궁궐 문에 그려진 태극 마야크를 보고 수근대던 일이 아직도 머리속에 남아 있구나.

완집아, 너는 5학년 봄 나의 뒤를 이어 휴학을 했지. 어떻게 보면 억지 휴학이었어. 좀 부끄럽기도 하다. 나는 영흥의 고향에 가서 여름을 보내고 너는 그때 삼방 약수터에도 가 있었지. 너는 몸도 크고 잘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온 숙전(숙명여대) 학생이 너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응대를 못했다고 그랬지. 그 당시의 여전 학생이면 천사같았지. 너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들은 기억이 난단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꿈을 키우자는 생각이 있었지. 그러나 그것은 한낮의 꿈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구나.

완집아,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 그런데 어찌서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느냐. 나는 지금 건강법을 공부하고 있단다. 네가 설사를 심하게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너무 참았기 때문에 요독증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셨드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물론 너도 죽고 싶어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아까운 인재가 그렇게 떠난단 말인가. 어찌면 조물주가 재목이 필요하니까 먼저 대려간 것은 아닐까. 너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친구는 정말 많단다.

완집아, 너의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셨겠지만, 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느냐. 완집이 늙이 살아 있으면 나를 많이 도와 줄텐데 하시더라는 말을 누구에게선가 전해 들은 생각이 난다. 죽은 후의 세상이 이 세상 비슷하다면 너는 거기서도 무엇인가 잘하고 있겠지. 모르긴 하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 다음 세상, 또 다음 세상이 있을 것 같구나.

얼마 전에는 김재원 전동창회장께서 작고 하셨단다. 그곳에서 너는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작년 9월의 동창회에서 우리를 보고 좀 더 살다가 통일이 되면 반룡산도 거닐고 만세교도 건너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가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다.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단다. 세상 일이 이렇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세상 가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6,7년 후배들이 이제는 환갑이 되어 흰머리로 되어가는 세상이란단다.

우리가 정 들었던 모교의 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넓은 운동장을 멋지게 둘러싼 싱싱한 아카시아는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완집아, 우리가 아침 저녁 다니던 등하교길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이 변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몰라보게 되었겠지. 그러나 저러나 통일될 날은 가까와 오지만 우리 동창들은 하나 둘 자꾸 이승을 떠나는구나. 얼마 안가서 함흥고보 졸업생은 뒤가 끊기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로 선배님들께서 후계자 양성을 현 박동묘회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이쪽에 살아 있는 동창들이 마음을 모아 함흥고보 후계의 학교를 만들어야 통일되고 나서도 면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란다.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서 가보겠고 먼저 간 분들은 영혼으로 가서 볼텐데 뒤따르는 후배들이 없으



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완집아, 나는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보고 있겠지.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일이 저승에서도 가능하겠지. 너는 45년전에 죽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바로 어젯일 같구나. 얼마 안 있다가 만나 보잖구나. 먼저 간 다른 친구들도 잘 있겠지. 이 세상에서 어울렸듯이 만나볼 수 있겠지.

## 望鄉片想

韓承五(25回)

首邱初心半平生  
流萍客愁百年恨  
胡馬越鳥似吾情  
기전不盡望鄉天  
故鄉 떠나 半平生에  
그리움은 사무치고  
他鄉살이 客窓에는  
恨만이 서렸구나.  
胡馬越鳥 애타는 情  
나와도 같음인가.  
오늘도 故鄉 그리며  
울어 아니 그치네.

盤龍山 城川江水  
꿈에 익은 내 山川아,  
푸른 숲 맑은 물결  
예와 이제 다르랴만  
돌아가 반길 길 없어  
해를 이어 우느냐.

正月이라 보름날엔  
님 다려 떨쳐나서  
萬歲橋 다리 밝아  
千萬年 기약터니

어지다 歲月은 흘러  
白髮만이 늘었네.

아카시아 꽃 내음에 푸름 꿈 키우오며  
구름따라 띄워 보낸  
白顏書生 威高님아,  
세울에 마음 엮어서  
어느님께 바쳤나.

註 세울(白三線)…中學校로 改編되면서 없어짐

馳馬臺 발굽소리  
매아리는 어이 숨고,  
城川江上 나는 화살  
그 모습 간데 없네.  
아마도 종간나 사내  
가슴 속에 사는가.

註 李成桂가 登極前에 武術연마할때, 盤龍山 馳馬臺에서 말을 달리며 활을 쏘고 城川江에 다가가 보  
니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지라 愛馬의 목을 치니 그제서 자기가 쏜 화살이 날았다 함.

개천거리 저른 날에  
서성이는 저 나그네  
구름따라 흐르는가.  
麴子香이 그윽코나  
아마이 술상 내옵세  
노을 뜬 잔 들리라.

落花도 꽃이런가  
차마 발길 못 옮기고,  
「奉安殿」에 절을 잇고  
몸 사려 서성일제  
「白井」이 등 뒤에 서서  
웃고 지나 가더라.

註 1. 白井(시라이)…教練教官日人

俗稱「白丁」으로 通했음

2. 화사한 봄날 玄關과 正門사이의 그 벚꽃 언덕길이 눈에 선합니다.

定和陵 白鷺떼는

까마귀 쫓다 잠이 들고,

歸州寺 쇠북 소리  
구름 따라 흘러질제,  
고운님 곤한 숨소리  
어제인 듯 들려라.

註 고운님…李成桂少年 歸州寺에서 修學

눈 뜨면 千里길이  
감으면 咫尺인데,  
행어나 꿈 깨일까  
못 부르는 이름이여,  
이러히 지난 세월이  
오늘밤도 새는가.

## 長壽의 日常生活

石東壽(26回)

長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中年期 以後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이런 나이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 봐도 거의 소용이 없다. 이는 마치 自家用車를 5年동안 소홀히 管理 하면서 막 써먹다 보면 폐차 直前의 상태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는 이미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며칠 前에 한 醫學集談會에서 美國人 內科醫가 最近의 여러 報告를 종합해서 發表하는데 血中 콜레스테롤(Cholesterol)의 量, 心臟冠狀動脈閉鎖症, 死亡율등이 食餌療法(low-cholesterol diet)을 실천하는 中年期 男女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10年동안 관찰해 보니 놀랍게도 統計學的으로 意義있는 관련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年齡에서는 血管이 굳어질 대로 굳어 있을터이니 무슨 方法이 그리 效果가 있겠는가? 長壽에 크게 영향을 줄 젊은 時節에는 아무 생각없이 그저 願하는대로 재미나는 대로 폭음 폭식을 하며 막 살아가는 것이 거의 모든 우리 人間들이 밝기 쉬운 人生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젊어서는 하루 이틀 무리하고 무질서한 生活을 했더라도 하루이틀 쉬고나면 지친 肉體가 곧 회복되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어느새 10年, 20年이 지나 50고개에 도달해 病에 걸려보면 자기 몸이 옛날과는 斷斷으로 弱해져 있고 老衰되어 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때서야 長壽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의 習慣을 버리고 새 出發을 하기로 決心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10名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건강에 좋은지 다들 잘 알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원하고 신선한 空氣를 마시며 운동하고(산책, 등산等) 잘 조절된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의 끼니마다 먹고, 담배, 술을 삼가하며 밤이면 일찍 취침하고 週末이나 休日에는 家族과 함께 野外로 나다니고 봄, 가을은 등산, 여름은 水泳, 겨울은 스키를 하는等 계속 우리 肉體를 단련해 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簡單한 이치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일마前 일본 NHK에서는 九州에서 77歲가 된 한 시골사람이 郡廳에 찾아가 郡內에 살고 있는 77歲 이상 되는 사람들의 住所를 알아가지고(40여명이 있었다) 自轉車를 타고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가 人事를 울리며 그사람들의 長壽한 비결을 調査하였다. 이 사람은 그後 5年 以上 每年 年中行事로 이일을 계속하였는데 그들 長壽한 사람들에게서 한 결같이 共通된 六個事實을 發見해냈다. 이런 사실은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 움직일수 없어 드러누워 있는 高齡者에게서도 마찬가지 였다고 한다. 그 六個事實이란 (1)이세상 일에 그렇게 근심을 하지 않는다. (2)잠을 充分히 잔다. (3)식사는 아무것이나 다 잘먹으며 小食을 한다. (4)언제나 목적이 있는 생활을 하고있다. (5)나름대로의 고집을 모두 가지고 있다. (6)약간의 바람기가 있다.

以上은 別로 신기할 것이 없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듣거나 각자의 생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며, 모두다 잘 알고 있는 長壽法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6)번을 快히 理解 못하는 분들이 있을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젊고 어여쁜 사람들을 보면 가볍게 한 두마디 농담을 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을 말할 것이다. “자니운”이 텔레비전 쇼에서 가끔 지나친 농담을 한다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 정도의 농담은 괜찮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深夜放送에서나 普通 장소에서 그 정도의 농담은 普通이다. 내가 일본을 旅行하고 있을 때 일본의 產婆생활을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타리로 보여주는 것을 마침 보았는데, 첫아기를 가진 젊은 여자가 거의 만삭이 된 몸으로 친구와 같이 진찰 받으러 산파집으로 걸어가는데 80세 가량 되어 보이는 동네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고 웃으며 아기를 가진 것을 축복해 주겠다면서 큰 배를 슬쩍 어루만져 준 다음 자기는 그배 밀도 만져줄 수 있다고 농담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었다. 주책바가지이기는 하지만 惡意는 없는 그 노인의 농담을 그 두 女人들은 無表情하게 받아주면서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日本 NHK放送이 全國에 방영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틀림없이 長壽하는 6가지 條件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도 이런 정도의 농담을 받아주고 理解해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피카소는 一生동안 여러번 결혼하였고 마지막 夫人은 20代의 젊고 젊은 女人이었는데 90을 넘도록 長壽하였다. 그런 피카소가 자기 性生活을 덧상한 그림을 보니 그저 夫人을 꼭 껴안고만 있었다(모두 누드). 그런 高齡이니 그런 정도만으로도 마음이 젊어지고 삶의 勇氣가 솟아오르는 모양이다. 소련의 고가사스지방에는 百歲를 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

는데 百歲된 한 남자가 60대 女人의 뒤펡무늬를 아직도 쫓아다니는 다고 한다. 나는 百歲된 老人이 그 女人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을수는 없지만 女人의 뒤펡을 따라다니는 그 精神力, 意志力이 그 老人의 生에 큰 活力素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19世紀 불란서의 有名한 화가인 르노와르는 食母같이 육중한 누드를 잘 그렸는데 그는 은퇴할 나이가 된 後에도 계속해 누드 그림을 그렸다. 붓을 오래 들고 있을 힘도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고도 누드를 그릴 힘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長壽를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長壽를 누리려면 우리들은 그만큼 代價를 치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도 長壽할 수 있다면 長壽못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代價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당장 오늘 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代價를 50歲때부터 지불하는가, 40歲, 혹은 30歲 때 부터 支拂 하는가에 따라 그 結果가 달라진다. 工夫도 마찬가지다. 젊어서 부터 꾸준히 工夫한 사람이 人生에서 勝利者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마침 MBC에서 서울大學校教授들과 같이 韓國의 長壽村을 찾아다니며 長壽비결을 알아보는 과정이 放送된 바 있다. 韓國人의 長壽비결도 日本人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 咸南中學 乘馬部

李三悅(26回)

머릿말

함남중학 시절의 이야기거리라면 내게는 승마부 이야기가 제격일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승마부와 깊은 인연을 맺은 동창도 없을성싶기 때문이다. 그때는 騎道部라고 불렀다. 우리가 2학년때 생겼다가 우리 졸업 후는 호지부지 해방과 더불어 없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중 승마부는 우리 학년 위주로 생겼다가 우리 학년과 함께 사라진 반짝별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한때는 모교의 이름을 천하에 날리기도 하였고 나 개인으로는 평생을 잊지못할 追憶거리이기도 하니 몇자 적기로 한다.

글쎄다. 승마가 내게는 단순한 추억거리만이 아닌지도 모른다. 한때 프로가 될 뻔도 하였으니 말이다. 아마도 내가 London Olympic 選手候補였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남중동기에서 올림픽 선수가 둘씩 났다면 더욱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蹴球의 洪德泳과 乘馬의 李三悅 둘다 南中 26回다. 결국 축구는 갔고 승마는 못가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때 부터의 인연으로 88올림픽 때는 選手強化委員長으로 일할 수 있었으니 뒤늦게 恨풀이를 한 셈이다.

時代的 背景

우리가 남중에 입학한 것은 1939년 봄, 그러니까 일본이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기 2년 전쯤 된다. 眞珠灣 공격이 1941년 12월 8일이니까 우리가 3학년 때였던 것 같다.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동그란 모자에 만도를 걸치고 으시대던 시대다. 원래 南中帽子는 까만색의 석줄백이 三線帽였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國防色으로 바뀌면서 흰줄도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아예 戰鬥帽을 쓰게 된 우리 다음반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모른다.

입학 당시만해도 운동부가 골고루 있었다. 野球部, 蹴球部, 籠球部, 庭球部 등 球技들도 있었고 陸上部나 機械體操部 같은 멋장이 운동부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다음해 1940년쯤서부터 소위 戰力增強이라고 하여 유도부나 射擊部나 하는 전쟁놀이 따위만 남기고 구기부는 모두 없애버리고 말았다. 공을 만들 물자가 없어서였던지 좌우간 구기부는 모두 없어졌다. 나는 원래 축구부였다. 축구부장 奧野선생의 코치도 받곤 하였다. 그러나 실력이 시원치 않았던지 동급생 洪德泳군만 선수로 뽑히고 나는 주로 공을 주으러 다니는 축이었다.

### 南中 乘馬部の 誕生

그러던 축구부가 없어졌으니 나도 무엇인가 다시 골라야 할 판이었다. 이때 몇몇 새로운 운동부가 생겼다. 총검술부나 手榴彈 던지기나 하는 따위들이었다. 별로 흥미가 없어 망서리던 참에 뒤늦게 騎道部라는 것이 생겼다. 모두들 엄두를 못내던 참에 나는 용감히 지원하였다. 아마 일찍 승마를 시작한 형님(李宅珪)의 영향이었던 것 같다. 형님은 그때 이미 남중을 나오고(20회) 동경 농대 다닐 때였다. 日本 留學 가면서 부터 말을 탔고 그 대학 선수였다. 방학때면 집에 와서도 말을 탔다. 威興乘馬俱樂部는 雲興里에 있었다. 우리집이 바로 道廳 앞이어서 자주 말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린 내눈에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었다. 그러던 참에 내게도 기회가 왔으니 서슴지 않고 지원하였던 것이다.

승마부는 인원이 많지 않았다. 모두 10여명 정도였다. 그것도 우리보다 윗반은 없었고 우리와 우리 아랫반 뿐이었다. 명목상의 지도교사는 化學의 永田선생이었고 실질적인 敎官은 모교 동창회장 金明學박사였다. 김박사와의 인연은 그 후 그가 이미 작고한 지금까지도 그의 외아들 光一씨를 통하여 끊이지 않는다. 내가 歐洲旅行이라도 가면 그의 韓食店에 들리고 그가 한국에 오면 해장국이라도 함께 나눈다.

### 서울올림픽 誘致와 乘馬

餘談이지만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誘致하는 과정에서 이 김광일씨가 맡은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별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다행히 직접 그 일에 앞장섰던 鄭周永씨나 盧泰愚씨는 잘 아는 듯하다. 즉 서독 Badenba den에서의 유치작전이 성공된 후 당시 이미 國務委員으로 자리를 옮긴 노태우씨가 報恩의 뜻으로 西獨의 IOC위원을 초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김광일씨를 함께 초청한 것을 보면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서독 IOC위원은 다름 아닌 西獨乘馬協會會長이고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名士이다. 이런 분이 김광일씨의 말이라면 팔으로 매주를 쏘다해도 끈이 들을 정도의 사이였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모두 승마라는 스포츠가 가지는 魔力인지도 모른다.

김광일씨는 일제시대 威興尋常國民學校때 부터 말을 댔다. 6.25때 越南하여 서울서 고등학교 다닐때는 乘馬狂이었다. 아버지 덕분에 대학은 서독에서 다녔다. 釀造學 專攻이었으나 공부보다는 승마에 더 흥미가 있었다. 그의 이런 乘馬外道가 후일 조국을 빛내게 되리라고는 그도 미처 몰랐을 것이다. 국내 政治도 마찬가지로 겠지만 특히 國際社會에서는 돈도 쓸 줄 알아야 쓴다. 鄭씨가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 였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名古屋市가 서울만큼 돈이 없어서 패하였겠는가. 쓸래야 쓸만한 줄기를 잡지 못한 것일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威興 출신, 그것도 南中 二世가 한 몫을 단단히 하였다는 데 나는 남모르는 자랑을 느껴보곤 한다.

### 三宅校長과 南中乘馬部

橫田校長이 木浦로 쫓겨가고 三宅校長이 海州에서 榮轉되어 온 것이 아마도 1940년 우리가 2학년때였을 것 같다. 廣島高師출신의 橫田은 실무형 교육자였다. 학교성적을 올리는 데는 기여한 바 컸으나 인물의 폭은 좁았다. 대신 學習院大學출신 三宅은 어떤 정치적 배경을 지닌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정체가 무엇이었던 그가 부임한 이후 남중 승마부는 기세가 올랐다. 그가 말을 좋아하는 승마인이었던 것이다. 스스로 즐길 뿐 아니라 남에게도 勸獎하는 열성과였다. 학교안에 馬廄를 짓고 軍馬를 4필씩이나 얻어 올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신통한 것은 그 당시 가장 끝발 좋던 配屬將校들까지도 그에 게는 절절매던 사실이었다. 덕을 본것은 우리 승마부 학생들이었다. 근로봉사 때면 으레히 배속 장교가 "騎道部원 나왔!" 하고는 騎道訓練에 보내주곤 하였었다. 근로봉사보 다는 100배 나왔음은 물론이다.

이 三宅교장과 김명학박사와는 여러가지 관계로 가까워졌다. 승마도 그 중의 하나였다. 아마도 두분 사이에 남중승마부 振興策이 논의된 듯하였다. 3학년때 그러니까 1941년 여름 방학때 였다. 乘馬部 選手 強訓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도는 김박사가 직접 맡고 남중외에도 永中과 威中에서도 똑같이 5명씩 뽑아서 경쟁시킨다는 것이었다. 永中은 선교사 학교였고 威中은 일본 아이들 학교였다 영중은 몰라도 일본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기회와 조건은 똑같이 주어졌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댔다. 김 박사의 訓練方式은 스파르타식이 었다. 원래가 일본식이 스파르타식이지만 김박사의 스파르타식은 유별났다. 가르쳐준 대로 안하면 긴 말채로 후려 갈겼다. 말과 사람을 함께 갈겼다. 둘다 나쁘다는 것이다.

### 乘馬教官 金明學

騎手が 말을 책망할 때는 拍車를 쓴다. 발 뒤꿈치로 말의 배를 차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차를 쓸 때는 힘껏 차라는 것이다. 김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뱃가죽에 구멍이

뺨하고 뚱리도록 차라”고. 그런데 선불리 이런 박차를 썼다가는 말이 가만 있지 않는다. 곧 두박질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서워서 힘껏 차지 못하면 김박사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으레히 말채가 날아온다. 어차피 말은 곧두박질하고 십중팔구는 落馬하고 만다. 떨어지는 것은 용서하여도 말고삐를 놓치면 용서하지 않는다. 후에 안 일이지만 落馬만으로 죽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고삐까지 놓치면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합때도 落馬는 減點만 당하고 계속 뛰지만 고삐를 놓치면 아예 실격되고 마는 것이다.

좌우간 이런 強訓 덕분에 우리는 그해 가을 지금의 全國體典에 해당하는 朝鮮神宮 奉贊大會에 出戰하게 되었다. 먼저 威興서 세 학교끼리 威南豫選을 치르게 되었다. 우승하는 팀 하나만이 서울로 가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학생이 서울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예삿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학교 이름을 걸고 威南代表로 가는 것이니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큰 명예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절대로 질 수 없는 一戰이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함남 중학은 공부는 잘해도 운동에는 약했다. 번번이 영생중학에게 지곤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질수가 없었다. 김박사에 대한 義理로 보나 학교 당국에 대한 體面으로 보나 절대로 질 수가 없었다.

함흥중학 일본 아이들에게 질수는 더욱 없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猛訓練을 쌓았다. 하늘이 도와서였던지 우리 남중팀은 상당한 성적차로 두팀 모두 물리칠 수 있었다. 겉으로 內色은 하지 않았지만 흐뭇해하는 김박사의 心中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南中이 이겼다는 단순한 母校愛만은 아니었다. 與件만 똑같이 주면 朝鮮 아이들이 결코 日本 아이들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立證한 懷心の 微笑같은 것이었다. 흔히들 김박사는 親日派로 여겼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때가 여러번 있었다.

#### 朝鮮神宮 奉贊大會

바로 그해 가을 서울에 갔을 때 김박사의 그런 면이 여실히 나타났다. 우리 南中팀 선수 4명은 김박사를 따라나섰다. 1941년 가을 내가 3학년때 일이다. 밤차에 올랐을 때 우리는 침대차에 안내되었다. 이것도 중학생에게는 과분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 김박사는 우리를 엄청난 고급호텔에 투숙시키는 것이었다. 지금의 소공동 KAL 주차 건물 자리에 있는 肥前屋이란 집이다. 조신히텔이 洋式 최고급이라면 이 곳은 일본식 최고급 여관이었다. 감히 일본 학생들도 엄두를 못낼 곳이었다. 그런 곳에 시골뜨기 조선 학생들이 다쳤으니 시중드는 일본인 女給들도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러나 김박사의 偉勢와 金力 앞에 결국은 고분고분 하여졌다. 痛快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痛快하였던 것은 다음날 試合에서 우리 南中팀이 團體戰과 個人戰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것이었다. 이것은 완전히 승마계의 異變이었다. 이름도 없던 시골학교팀이 處女出戰에서 完勝을 거두었으니 말이다. 김박사의 만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개인 적으로 돈도 많이 썼지만 보람도 찾은 快舉였다. 나는 主將으로서 個人優勝까지 하였으니 내 몫을 다 한



셈이었다. 이게 벌써 50년 전의 일이니 새삼 내 나이를 의식하게도 된다. 다행히 아직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매일 아침 栗川馬場에서 乘馬를 즐길 수 있으니 고마운 일이다. 그때 함께 뛰었던 선수중 셋은 越南하여 같이 지내다 얼마 전 金熙燦군은 먼저 갔다. 韓鼎燮군은 檀大 建築科 교수로 건재하고 이북에 남은 朱鎬 漸군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 南中の 模範賞 制度

凱旋將軍처럼 威興으로 돌아갔을 때의 환영은 대단하였다. 南中만의 榮光일뿐아니라 學道的 慶事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南中の 가야마(香山)는 여학생들에게까지 알려져 적지않은 有名稅까지 치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선수 일동은 학교에서 막대한 賞點을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南中에는 학과성적만으로 주는 優等賞대신 智德體 종합점수로 주는 模範賞제도가 생겼다. 이때 쓰이는 것이 상점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많아도 체육상점까지 높은 아이는 많지 않았다. 나는 덕분에 二年 연거푸 이 模範賞을 탔었다. 二年이란 것은 다음 해 내가 四學年때 또 한번 출전하여 그때는 단체우승은 못하였지만 나 개인만은 二年 連覇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니 함흥의 香山選手는 승마패나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후일 서울에 와서 대학생활하는 데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되곤 하였다.

### 맺음말

이렇듯 한때 날렸던 南中乘馬部도 우리 학년이 졸업하고 일본의 敗戰霧圍氣가 짙어 가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더이상 대회도 없었던 듯하다. 이때쯤 東京留學에서 돌아온 宅珪형이 모교에서 教鞭을 잡게 되었다. 徵用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방전후를 그가 잘 알텐데 6.25때 함흥서 獄死당하고 말았으니 물어볼 수도 없다. 해방후 그 馬匹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하나 아는 사실은 三宅校長만은 8.15降伏을 미리 알고 일찌감치 일본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역시 凡常치 않은 巨物校長이었던 것 같다.

## 어느 정구 시합

韓全淑(26回)

1. “아직도 강북에 삼니까”하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테니스를 합니까”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테니스를 일생 놓지 않으려다. 아니,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대개 화요일과 금요일에 테니스를 한다. 아무리 못해도 한번은 꼭 한다. 장마라든가 또는 일이 너무 바빠서 라든가 어떻든 일주일에 한 번도 테니스를 하지 못하면 몸의 이 구서 저 구서

이 뼈걱뼈걱 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 정 안되면 주말의 등산으로 때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미진하다. 등산의 맛이 따로 있고 테니스 맛이 따로 있는 것이요 나에게는 테니스 맛보다 더한 맛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테니스의 역사가 50년도 더 되기 때문일 것이다. 테니스의 맛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끓여주신 그 독특한 북장찌개 맛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 배여 있는 것이다.

## 2.

내가 테니스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국민학교 3학년 때이다. 그때 선천에서 북청 여자 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셨다. 교장 관사가 학교 구내, 그것도 교원실 바로 옆에 있어서 나는 그 학교의 테니스 용구들을 아마도 수시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테니스라는 말은 그때는 영어 책에나 있고 우리는 정구라고 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드 아닌 소프트였다. 왜 축구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고 바로 정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친구들과 같이 몸동아리 절반 만큼이나 큰 정구 채를 휘두르며 정구 코트 아닌 넓은 운동장에서 네트도 없이 공을 치고 받고 하면서 뛰놀던 광경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하다.

선천의 전근으로 5학년 때 북청을 떠나 또 두 국민학교를 전전하고 나서 함남 중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는 과외활동으로 운동부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했다. 나는 아무 주저없이 정구부를 택했다. 어느날 신입 정구부원이 모두 모여 테스트가 있었고 나는 무난히 선수로 뽑혔다. 운동선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장차 나의 일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중대한 문제는 요만치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그냥 테스트가 있다니까 거기에 응했고 그래서 선수가 된 것이다.

비단 정구부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의 모든 운동선수들은 정구 수업을 완전히 마치고 방과 후에만 연습을 했다. 정구부는 해가 넘어가서 공이 보이지 않게 되어야 네트를 걷우고 몸을 씻는다. 20분 걸어서 집에 오면 한 여름에는 10시가 다 된다. 점심때 도시락을 먹고 나서 간식 하나도 없이 운동하다가 이 야밤에 비로소 저녁밥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끼는 벌써 가셨지만 그저 닥치는 대로 퍼넣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나를 보고 “소나기 밥”을 먹는다고 늘 걱정 하셨다. 이런 생활을 4년 계속(마지막 5학년 때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라서 일본은 모든 球技를 금지 시켰다)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위확장, 위산과다증, 위하수,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전형적인 위병 병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더불어 술, 담배는 벌써부터 끈어야 했고 육순을 넘은 지금까지 십이지장 궤양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정구 선수로 뽑힌 나는 짝꿍과 같이 매일 계획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다. 나는 후위가 되었다. 따로 코치가 없는 우리 학교에서는 최고 학년(5학년) 선배선수가 코치였다. 그 선배 코치는 라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하여 세세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고 또 연습시켜 주었다. 나는 본래부터 키가 커서 큰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붙여지는 출석번호는 졸업 때 까지 5번을 넘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학교 때 약 3년 동안 멋대로 공치기 하던 밀천이 있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매일같이 특별 지도를 받으니 내 실력은 나날이 상승했다. 나는 때때로 2학년 선배 팀을 이기기도 하는 강자가 되었다. 선배 코치도 나에게 대해서는 대 만족이었다.

그때 중학교 대항 정구 시합은 5학년까지 학교마다 한 팀씩 다섯 팀이 한 조가 되어 학년 별로 시합을 해서 세팀 이상이 이기는 것으로 판가름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1학년인 그 해에는 시내 중학교들 중에서 우리 학교가 제일 강하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특히 1학년은 우리 학교가 절대 우세하다고들 하였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꺼려하는 팀은 농업학교 팀이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시합에서 우리와 제일 먼저 맞붙은 학교가 농업학교였다. 물론 나는 더욱 힘을 내어 마지막 맹훈련을 하였다.

#### 4.

드디어 시합날이 되었고 그 첫 시합으로 1학년 시합이 시작되었다. 양쪽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었다. 농업학교 1학년 후위는 듣던대로 나보다 키가 더 크고 체구가 전체적으로 더 건장하고 또 온몸이 감동이 같이 새까만 것이 아주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가위 바위 보로 서브와 코트를 정하고 갈라져서 몇번 공을 쳐 보았다. 예상한 대로 그 감동이의 품은 세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나를 우선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어색한 자세를 가지고도 아주 강한 공을 치고 있었다. 이것이 나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내 실력을 나는 믿고 있었다. 더구나 홈 코트가 아닌가.

첫 게임은 거뜬이 이겼다. 나의 예상 대로였다. 그러나 웬 일인지 둘째 게임부터 나는 헤매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감동이는 점점 신나고 사실은 게임 시작때 부터 내 옆에 붙어 있던 나의 선배코치가 처음에 1 : 0으로 앞서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트를 잠시 떠나 있었던다. 그 사이에 스코아는 어느새 1 : 1, 1 : 2로 역전되더니 드디어 1 : 4가 되었다. 이제 나는 막바지에 몰렸다. 한 게임만 지면 끝장이다. 이때 누군가가 선배 코치를 불러왔다. 그는 다시 코트 바로 옆에 다가와서 자를 하나 하나 코치하기 시작 하였다(고 한다). 나는 온통 정신이 없었다.

우리 학교 정구 코트의 응원석은 코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사진 잔디밭이다. 그 뒤엔 울창한 숲이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좁은 골목길 너머에 집들이 쭉 서 있다. 그래서 코트는 꼭 분지 같아서 공을 치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울린다. 이 잔디밭을 입추의 여지없이 팡팡 매운 양쪽 학교 응원단은 스코아가 올라가고 내려 갈 때 마다 합성을 지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요란한 응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찌다가 들려도 마치 먼 산에서 돌아오는 산울림 정도로 들릴 뿐이었다. 나의 선배코치의 지시는 더구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스코아는 다시 회복되어 4 : 4게임 듀스가 되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판 승부만 남았다.

나는 상승세를 타고 그대로 밀어 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감동이는 정말 끈질겼다. 드디어 듀스가 되었다. 내가 먼저 한점을 잃었다. 이제 한 점만 실수하면 끝이다. 이 끝판에 와서 까지도 저쪽의 공은 이쪽 모서리 깊숙히 세계 박힌다. 나는 이것을 힘겹게 겨우 되넘겼다. 그리고 다시 공이 어떻게 돌아 오는가를 살피고 있는데 저 감동이 선수가 양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들어 올리고 흰 이빨을 내 보이면서 함성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 내 공이 아웃인 것이다. 내가 지고 만 것이다.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얼른 우리 쪽 벤치로 빠져 나와서 주전자의 물을 꿀걱꿀걱 마셨다. 정말 꿀 맛이였다. 게임 듀스에서 또 다시 듀스까지 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는가. 그러나 물 맛이 좋을 수 밖에 그러나 그것 보다도 사실은 그 물은 설탕물이었다. 아마 시합 전에 코트에 와서 옷을 갈아 입을 때 웬 낫선 설탕 봉지가 보였다. 웬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합 날에는 설탕 물을 준다는 것이였다.

그때 당시 설탕이 그렇게 귀한 때는 아니였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설탕은 아주 귀한 것이였는가 보다 나는 그 설탕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더구나 시합 전에는 안준다는 것이다. 시합하기 전에 몰래 그 주전자가 놓인 자리를 확인해 두었고 시합하다가도 코트 체인지를 하면서 그 옆을 지날 때 마다 빨리 시합을 마치고 저 물을 마셔야지 하였었다. 드디어 시합이 끝났다. 그리고 내가 할 제일 첫번째 일은 그 설탕물을 마시는 것이였다. 정말로 꿀맛이였다.

5.

나는 그후 곰곰히 생각하면 할수록 이때 나의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라이벌, 농업학교와 비교해서 우리는 단연 우세하다고들 했었다. 여기에는 물론 1학년은 틀림없이 이길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첫 시합에서 나는 결국 이기지 못했다. 나는 특별히 키워 주신 선배 코치를 비롯한 모든 선배선수들, 그리고 우리 학교 응원단 전원의 기대를 나는 저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떠했는가 시합에 지고도 조금도 분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시합 후에 나에게 남은 강한 인상은 저 설탕물의 꿀맛 뿐이니 말이다. 난 지금도 알 수 없다. 내가 그때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농업학교를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지 아니면 설탕물을 마시기 위해서 싸웠는지 나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공적으로는 나의 첫 시합이었는데.

### 三級滑空士의 꿈과 乘馬

韓鼎燮(26回)

내가 함남중학에 입학한 해에는 이미 중일전쟁이 진행중이었으며 3학년 때인 1941년 12월에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급습하면서 그들이 소위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던 태

평양전쟁을 이르고, 졸업 1년후에 패망하였으나 단말마적인 일제식민지 말기에 해당하는 나의 중학시절의 생활을 회상해보는다면 즐거웠던 일들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일들, 우울했던 일들도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절의 괴로웠던 일들은 회상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잿빛시절 중에서도 즐거웠던 일,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 없지 않았으니 이런일들중 두가지를 회상해 몇마디 적어보려고 한다.

일제가 전시교육을 내세워 야구, 축구, 농구등 구기종목들을 모두 없애고 소위 체력단련을 위한 달리기, 흙심날르기, 수류탄던지기, 턱걸이등을 시키면서 체력장제도를 실시하더니 3학년때인가 글라이더 타기훈련을 위한 滑空部와 자동차운전훈련을 위한 機甲部를 만들면서 부원을 모집하였다. 나는 활공부를 지원하였다. 그때의 부원수는 27명정도였다고 생각되는데 젊은 日人 지도교사는 훈련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신병치료차 일본에 간후 끝내 돌아오지 않아 우리의 글라이더 훈련도 그만 중단되고 말았다. 그때의 글라이더 훈련순서는 먼저 플라이머리(primary)라는 극히 간단히 만든 글라이더부터 타게 되는데, 이 글라이더는 베니아판으로 평평하게 만든 몸체 앞부분에 의자와 조정간이 있었고 비상을 위해서는 한부원이 한쪽 날개끝을 잡고 또한 부원이 글라이더의 꼬리 끝부분에 매단 짧은 줄을 지상에 박아놓은 말뚝에 한두번 감아 쥘 다음 조종자가 조정간을 잡고 의자에 앉으면, 나머지 부원들이 두패로 나누어 글라이더의 좌석아래 앞부분에 있는 고리에 함께 묶어 걸어놓은 탄력성 있는 두 줄을 구호와 함께 당기면서 글라이더가 날아갈 방향 양쪽으로 동일한 일정각을 유지하면서 걸어나가다 줄이 적당히 당겨졌을때 교관의 구령으로 글라이더 꼬리부분에 줄을 잡고있던 부원이 그 줄을 놓으면 글라이더가 비상하게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한번 타 볼려면 24회정도 줄을 당겨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다.

이 비상훈련 전에 줄을 당기지 않고 지상에 글라이더를 그대로 정지시킨채 바란스를 유지하는 조정간 조작훈련을 마친다음 地上滑空이라고 해서 조정간을 약간 앞으로 내민 상태를 유지하면서 뜨지 않고 지상으로 미끄러나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있었다. 이 훈련에서 처음 탔을 때 맞부딪히는 공기저항이 대단히 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진짜 비상훈련에서 나는 실수를 저질러 순식간에 교정주변의 그 높은 아카시아 나무들이 내려다 보이는 높이까지 떠버려 급히 조종간을 앞으로 미니 이번에는 급강하하여 땅에 부딪히는 바람에 글라이더 몸체 앞부분 윗쪽에 금이 가는 손상을 입히게 하였다. 이런 실수를 왜 했는지 그때 곰곰히 생각해 보고 알아낸 이유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글라이더를 탈 순서가 되기 바로 전에 어느 부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교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부원들이 모두 긴장해 있었던 탓인지 내가 조종석에 앉고 줄이 충분히 당겨진 후 뒷꿈무늬줄을 놓으라는 교관의 구령이 있었는데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놓아야 할 시각에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뒷쪽을 돌아다보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조종관을 뒤로 당기에 됴으므로 그런 실수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무렵 춘천중학교에선가 글라이더가 높이 올라갔을 때 맞바람이 세계 불어

글라이더가 뒤집혀 떨어지는 바람에 타고 있던 학생이 추락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다.

프라이마리 훈련을 마친 후에는(비행횟수로 정한다고 하였다), 세컨다리(secondary)라는 글라이더를 타게 되는데 이 글라이더를 비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을 이용해서 끌어당긴다고 했다. 그때 들은 바로는 이 세컨다리로 일정한 횟수 비상훈련을 한 다음 일정한 직사각형 구역(크기는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안에서 S자로 비행후 안전하게 착륙하면은 3급활공사 자격을 준다고 하였다. 지도교사의 신병으로 말미암아 이 3급활공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그때 몹시 서운해 했던 기억이 난다.

글라이더 훈련이 중단된 후 승마 훈련을 시키는 騎道部가 생겨 부원모집이 있었다. 그때 우리집 바로 뒤에 함흥 승마구락부가 있어 평소 말을 타보고 싶었던 지라 당장 지원했다. 처음 우리학교 부원 수는 2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런 규모의 기도부가 생겨 교대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기초적인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 함흥승마구락부에서는 좋은 말을 두필인가 세필 가지고 있던 김명학 박사가 주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당시의 독일 히틀러유겐트와 같은 우수 승마선수를 양성하겠다는 승마훈련을 받던 중학선수중 南中과 威中(日人학교)에서 각각 5명씩 뽑았는데 나도 그중에 뽑혀 강훈을 받았다. 김박사 자신이 직접 우리들을 훈련시켰는데 워낙 성질이 급한 분인지라 훈련생들이 약간만 잘못해도 손에 들고 있던 심에 강철이 든 긴 말회초리로 학생들을 때렸는데 이 회초리에 한 번 맞으면 등에 금방 회초리 자리가 빨갱게 나곤 했다. 또 말을 타자면 말이 움직이는 반동에 따라 요령있게 다리로 말안장을 꼭 눌러주어야 하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무릎 안쪽과 허벅지 까지도 잘 벗겨져 몹시 괴로움을 당하였다. 나는 그때 몸무게가 45kg밖에 안되어서 그랬는지 허벅지가 벗겨진 기억은 없고 무릎 안쪽도 남보다 덜 벗겨졌고 매도 별로 맞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김박사는 이렇게 강훈시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우리들을 세번이나 서울로 데리고 와 경기에 참가시켰다. 당시는 전쟁 말기여서 기차표 사기도 힘들때였는데 선수로 서울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였으며, 그때 모든 학생이 겪었던 근로봉사에서 특혜를 받아 동원면제를 받은 기억이 난다. 서울에 온 선수는 처음 선발되었던 10명중에서 2명이 빠지고 南中과 威中에서 각각 4명씩 8명이었다.

처음 상경하였을 때는 龍山鍊兵場에서 있었던 승마경기를 참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우리들은 그때 훈련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물 경기는 안하고 卷乘경주만 한것으로 기억난다. 때마침 滿州國 建國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일본의 유명한 승마선수들이 만주新京에 가서 경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범경기를 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

두번째 상경은 3학년때 가을 소위 朝鮮神宮奉贊大會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도 남중선수와 함중선수들이 각각 4명씩 참가하였다. 이때 경기장은 지금의 신설동에 있었던 경마장이었는데 이 대회에서 우리 남중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성질

이 사나운 말을 배당받아 개인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세번째 상경은 5학년때 가을 역시 조선신궁봉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는 지금의 동대문 종합운동장(당시의 서울운동장)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도 우리 남중 선수단이 우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도 개인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경기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날 어른들의 대 장애물경기, 중 장애물경기 그리고 우리들 중등학생 장애물 경기를 통털어서 300점 만점을 받은 선수는 나 혼자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또 그 경기에서 전국에서 많은 중학선수단이 참가하였는데 용산중학이 우리학교와 우승을 다투게 되었다. 내가 만점을 얻어야 역전시킬 수 있을 가망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만점을 받은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출전하여, 먼저 중앙에 나가 지금의 스코아보드 뒤 언덕에 마련되어있던 심사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 후 야구장 홈베이스쪽으로 되돌아 나와 거기서 부터 1루 쪽을 향하여 배치된 제1장애물부터 뛰어넘어 3분 이내에 모든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말이 제 코스로 들어서지 않고 옆걸음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순간적으로 내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은 나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학교가 우승을 못하게 된다는 책임감이었다. 그래서 말이 옆걸음 하는쪽 배를 온힘을 다해 박차로 찼더니 말이 제코스로 쏠살같이 달리면서 순식간에 전 장애물을 한점 落木없이 완전히 넘어 버렸다. 내 뒤에 출전한 용산중학의 최종주자는 역시 감점을 당해 우리 학교가 단체우승을 하고 나도 개인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귀아프게 들어왔던 “말고삐를 통해 피가 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운동선수생활 특히 단체운동선수 생활이 책임감을 깊이 심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경험을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끔 말해주곤 한다. 홍안의 소년들로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4명중 김희찬군은 이미 연전에 타계하였고, 월남하지 못한 주호점군은 생사조차 알길이 없으며, 이삼렬군과 나는 아직 교직에 몸담고 있으나 정년을 눈앞에 맞이한 노령에 이르렀다. 일제말의 징병, 해방 직후의 혼란, 월남, 6.25등 숱한 격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미 타계해 말없는 친구들에게 미안하게 느끼기도 한다. 올림픽까지 치루게 된 우리조국의 발전을 보면서 창조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재능을 살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시운을 타고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 解放德分으로 大學가게 된 事緣과 南中時節에 몸에 밴 矜持가 나의 資產.

沈 鳳 燮(27回)

率直히 말해서 나의 中學時節은 즐거웠던 追憶보다도 여러가지 어려웠던 일이 더 많이 생.

각나는 時節이다. 大東亞戰爭 때 였으므로 工夫도 工夫지만 軍事教育과 勤勞奉仕로 시달려 苦生한 생각을 하면 즐겁지가 않다. 특히 日人 先生들이(다는 아니지만) 團體氣合을 넣을 때 우리에게 하던 욕설들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지경이다. 어쨌든 나는 解放德澤으로 大學에 進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光復이 나에게서 人生의 큰 轉機를 마련해 준 것이다 (勿論 모든 韓國人이 그렇지만).

中學때 나는 키도 작은 편이었고 또 그리 떠들어대지도 않는 얌전한 이른바 “가다빵”에 屬하는 學生이었고 主로 工夫를 熱心히 하여 上級學校에 進學하는 것이 그 當時의 나의 꿈이었다. 그래서 4學年때 成績이 좋아야 받을 수 있는 소위 朝鮮獎學會의 추천을 받아 철없이도 美軍潛水艦의 攻擊을 피하여 夜間航海를 하는 關釜連絡船을 타고 高等學校 試驗을 치러 日本에 갔었는데 食量이 不足할 때라 배만 직사하게 굶고 갖은 苦生만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일이 어찌된 일인지 5學年 때에 나의 將來에 큰 障礙物이 될 줄이야? 當時 威興의 不穩思想者(그들이 말하는) 檢學선풍이 불 때 우리 5學年 學生들의 약 30% 가까이 연루되게 되었는데 나도 걸려든 것이다. 나는 日本에 갔다와서 “日本 사람들이 인제는 戰爭에 지쳐서 싸우기를 싫어하며 東條英機가 日比野 公會堂에서 演說할 때 청중들이 모두 욕설을 퍼붓는다”는 流言蜚語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高等係에 붙들려가서 한방 얻어 맞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리벉벉해지는데 그 순간 “이제 나의 人生은 끝장이구나, 이때까지 熱心히 工夫한 功이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며 앞이 캄캄해졌다. 그해 나를 包含해서 우리 學年에서는 3명이 日本에 갔다 왔는데 그중 2명이 걸렸다. 내가 했다고 손도장 까지 찍은 두사람의 證人의 調書를 들이대며 다구치는 것이다. 그래도 안했다고 버티니 證人 두명을 對質시키는데 그중 한명이 나의 얼굴을 보더니 良心이 되살아 났는지 責任을 느꼈는지 그때서야 否認해 주는 바람에 無事히 풀려나긴 했지만 한番 高等係에 갔다온 학생의 修練(지금의 品行)은 無條件 可(지금의 丙)를 주었다. 1945년에는 入學試驗에서 筆記試驗制度가 없어지고 內申으로만 선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上級學敎에 應試해보았자 不合格이 되게 마련인 것이다. 즉 解放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大學門에 가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當時의 즐거운 追憶거리가 그리 많이 있을 수 없다(그해 우리 學年에서는 丁基範, 金明壽, 趙誠國, 千常玉 4명이 實刑言度를 받고 服役中 解放으로 出獄하여 모두 越南 하였으며 그중 千 常玉은 故人이 되었고 나머지 3명은 光復會員으로 獨立有功者로 인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獨立이 고맙고 귀중하다는 것을 은퇴할 날이 며칠 앞남은 오늘날까지 一生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南中生活은 나의 人生에 있어서 重要的 밑거름이 된 것도 事實이다. 그것은 南中 時節에 몸에 배게 된 矜持와 自負心이라 할 수 있다. 南中教育과 傳統이 우리들에게 다른 學校 學生보다도 優秀하고 낫다는 自信感과 矜持를 심어주었다. 이것이 나의 큰 資產이 된 것이다. 즉 무슨 일에도 自信을 가지고 달라붙게 해 준 것이다. 우리들이 2學年때인가 朱東雲 先輩님께서 熊本醫大에 다니실 때 學校에 오셔서 苦學하신 經驗談을 講演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生生히 남아 있으며 그때 마지막으로 朱先生님께서 “우리 南中學生은 白頭山 호랑이다”라는 意味深長한 結論을 내리신 것을 지금도 記憶하고 있다.

越南하여 서울醫科大學에 다닐때도 醫大 教授陣에 南中出身이 京畿 다음으로 많아 우리의 矜持를 살려 주었다(崔在緯, 李東沂, 金子勳, 朱星淳, 朱東雲, 朱權源, 朴昌鎬, 洪相隱 등 여러분이 계셨다). 또 在學生으로는 李基喆, 全斗南, 金應浩, 李萬鎬, 韓錫武, 金聲進, 盧永達, 吳正喜, 柳榮海, 石東壽, 朴在彬, 孫陽鳳 등 先輩님들과 同期生 및 後輩로는 朴照會, 金鍾殷, 李澈男, 韓泓模, 邊永根, 盧永吉, 宋榮冕, 韓炯周, 金淳, 金雄植, 李培石, 李河, 李鎬汪 등 京畿, 平高 다음으로 南中出身이 많았다.

1958년부터 가톨릭醫大에 勤務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南中出身들이 京畿出身보다도 많았다(金永濟, 金河駿, 劉喆, 李舜益, 金應浩, 石東壽, 金鍾殷先生 등). 우리 南中出身으로 특히 자랑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高麗醫大의 李鎬汪 教授를 들고 싶다. 나는 政治나 經濟에는 關心이 없다. 오로지 科學만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科學에는 거짓이 없고 正直하기 때문이다. 李先生은 流行性 出血熱의 病原體를 發見하고 나아가서 그 豫防백신도 開發한 世界的으로 認定을 받은 우리나라 唯一의 學者이기 때문이다(이 機會에 우리 同窓會에서도 政治, 經濟를 떠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同門이 있으면 致賀 해주고 激勵해 주는 行事が 있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우리 後輩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自信心을 불어 넣어주신 朱東雲先生님도 자랑스러운 분이며至今도 健在하신 것이 크게 多幸이며 앞으로도 더욱 健勝 있는 시기를 祈願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 母校와 先親

劉 鋼(27回)

一年에 몇차례씩 걱정되는 날이 있었다. 바로 入學式, 開校紀念日, 卒業式날들이었다. 學校에서는 慶祝日로 儀式이 행해졌다. 그 式順中에 祝辭라는 順序가 끼게 되고 그 첫번째를 學父兄後授會長이 맡는 것이었다.

先親(劉七石)은 네아들을 두었으며 네아들 모두가 咸南中學을 나오게 된 關係로 二十一回인 長男 劉哲의 二學年때부터 二十二回의 次男 劉鎰, 二十六回의 三南 劉兢, 그리고 막내인 내가 卒業할 때까지 繼續 十年間을 學父兄後授會長職을 맡으셨던 것이다.

세브란스醫專 第四回 出身의 醫師인 先親은 우리말 演說도 能한 便이었고, 英語實力 또한 세브란스醫專 卒業式 때 英語로 答辭하신 것으로 有名했지만 그놈의 日語實力은 生活必要上 不得已 익힌 바였으므로 子息인 내가 보기에 訥辯이었다. 그러나 會長이니 이 順序에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一年에 몇차례씩 있는 이 順序가 나를 괴롭혀 왔다.

왜 그런가 하면 先親께서 며칠씩 練習하고 나가 읽으시는 이 祝辭가 流暢한 것은 아예 期待하지 않았지만 차렷 姿勢로 傾聽하는 學生들을 웃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祝辭가 中半에 접어들어 가면서부터 “킁킁” “훗훗”하는 웃음소리가 五學年부터 차례로 나오며 三學年 程度에 까지 傳播되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에 若干 醉하신 中에도 豫行演習은 막히지 않고 그런대로 잘 하셨는데…

아버지가 學父兄後授會長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이 式이 끝나면 꾀직한 上級生 몇몇은 校務室에 끌려가 매를 맞고, 우리들은 白井少尉에게서 連帶氣息을 받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더구나 그 뒤엔 너의 아버지 때문에라는 慙勤한 非難의 눈 초리를 甘受해야겠기에……

가낭고리쯔쥬각꼬 각후계이고엔카이조(威南公立中學校 學父兄後授會長이란 先親의 日語發音表示)라는 후미가 나오기까지의 긴 時間을 忍耐하면서 지낸 追憶의 瞬間들이다.

威興에서 結婚式 主體를 가장 많이 서신 先親이었다. 멋드러진 主體辭와 演說調의 精誠어린 當付가 他의 追從을 不許했었다고들 한다. 入學式後에 別途로 新入生과 新入生學父兄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우리말로 諸般說明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훌륭했다.

이제 와서 回想하니 日語를 流暢히 못하셔서 學生들이 웃고 뒤에 야단맞는 原因까지 되었던 學父兄後授會長이셨기 때문에 받은 참으로 큰 恩澤의 一片을 적어 보기로 하자.

원래 나는 남들을 사귀기를 좋아 했고 三三五五 모인 中에서 話題를 이끌어 나가기를 좋아했고 조그만 일에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다.

滿洲 찌찌하루란 곳에서 어떤 人士가 病이 危重하시던 中 마지막으로 先親의 診療를 懇請해 온 일이 있었다. 先親은 嚴冬雪寒과 病院休務를 마다 아나하시고 約 二週間 하루빙을 거쳐 다녀 오셨다. 先親의 旅裝속에서 참 妙하고 耽나는 동그란 구슬같은 것이 있어 짐을 整理하던 나는 이 것을 슬쩍 失禮한 다음, 이튿날 學校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리던 참에 朝禮時間의 所持品檢査에서 擔任 先生에게 押收 當하고 말았다. 그 妙한 것에 예쁘게 그려진 빨강 파랑의 동그라미가 太極인 줄을 어린 나로서는 전혀 알길이 없었다. 勿論 日人인 擔任 先生도 몰랐고 단지 巧妙한 異常한 것이라는 것으로 몇몇 同僚 敎諭들에게 보였었는데 歷史 擔當 先生이 事件을 만들기 시작했다. 쉬쉬하는 가운데 收拾策을 講求하던 中 所謂 會長任의 令息이 犯人이란 데서 校長 先生에게 報告가 되고 급기야는 學父兄 召喚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일을 아신 先親은 조금도 動搖되는 일이 없이 이튿날 母校에 出頭하셔서 아무일도 없는 것으로 解決짓고 오셨다. 勿論 나에게는 아무 問責도 處罰도 없었으며 단지 日人인 擔任 敎諭가 “너희 아버지가 後授會長인 줄을 몰랐었구나”하는 것으로 終結되었다.

解放後 어느 機會엔가 그때 이 일을 暫間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연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校長, “會長任으로서 어떻게 이런 不穩 器具를 當局에 알리지 않고 保管하고 계셨습니까?”

先親 “滿洲 하루빙 遊興街의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주는 宣傳物도 不穩 器具라고 申告한답니까?”

校長 “宣傳物이라뇨? 이것은 당신네 나라 예전의 國旗의 太極이 아니오”

先親 “우리 나라 國旗 속에 있는 건 分明히 太極이오. 그러나 이것은 당신네 日人들도 出入하는 카페에서 特別顧客들에게만 주는 紀念品이오. 당신네들이 가지면 괜찮고 내가 가지면 罪가 된다는 말이오?”

校長 “그런 줄은 몰랐소이다. 그러나 物件이 物件인 만큼 押收하겠소. 會長님의 歔息만 아니었던들 큰일 났을 것이오”

그 뒤의 仔細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오랜 歲月이 지난 뒤 分明히 祖國을 알게 된 다음 생각해 보니 이것은 分明 膳物用 宣傳物은 아니었던 것으로 確信하게 되었다. 日人들이 우굴대는 하루빙의 카페에서 주는 膳物에 太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愚昧한 日人 校長이 속은 것인지 後授會長의 子息이라고 봐 준 것인지 永遠한 수수께끼이다. 또 미련한 軍國主義者들의 屬性을 너무나 잘 아시는 先親의 機智에서의 對答이었을 것이라고도 믿으며, 그때 찌찌하루에서의 特診을 要請하였던 분이 어떤 분이셨던지 혼자 짐작해 볼 따름이다.

解放된 咸興의 黃金町通을 興南에 收容되었던 英國軍 捕虜들이 勝戰國의 기쁨을 滿喫하면서 누비고 다니던 대의 이야기이다. 先親이 經營하시던 三省醫院近處의 몇몇 住民들이 英語를 잘 하신다는 所問을 듣고 이 英國軍 捕虜들을 데리고 와서 先親과 二十分 程度 對話케 했다. 對話 內容은 平凡한 것이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後日 共產黨들에게 빌미가 되어 美英帝國主義의 連絡責任者라는 罪名下에 咸興刑務所에 收監되어 꽤 긴 獄苦를 치루게 되었다.

獄中の 先親을 뒤에 두고 人事 하마디 못 드린채 一九四六年 三月十三日 逮捕令이 내린 나는 先親의 가장 좋은 “세비로”를 입고 “나까오리”를 깊숙이 쓴 채 九死一生의 南下를 決行했던 것이다.

六·二五가 일어나던 해인 一九五〇年 一月四日 先親께서 別世하셨다는 訃告을 畏友 韓弘模君의 嚴親이 三八線 보따리 장사 便에 보내 주셔서 二月 十一日에야 接하게 되었다. 바로 이 날이 내가 結婚한지 滿 一個月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永遠히 記憶에 남는다.

先親이 사신 年數보다 몇 해 더 산 나이가 되도록 막내라고 그렇게 귀여워 해주시고 매한번 맞아 본 記憶이 없는 先親이 限없이 그립다. 아버님 膝下에서 十九年間 아버님 애만 태우시게 했던 不孝가 그지없이 뉘우쳐진다.

咸興 盤龍山 기슭 陽地 바른 곳에서 永眠하고 계실 先親에게 이 罪人 不孝子는 삼가 엎드려 謝罪를 올립니다.

嗚呼 언제 이 不孝를 先親 墓所에서 墓碑를 부여 잡고 목놓아 울며 容恕를 빌 수 있을런지…… 진정 하나님은 이 恨 많은 우리 咸南中學同窓들에게 이런 貴하고도 福된 날을 하루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런 아버지였소이다. 우리 母校의 歷史가 있는 限 아버지의 學父兄後授會長으로서의 十年勤續業績이 길이 남을 것이외다”라고, 크게 외치며 끝일 줄 모르고 흘러 내리는 눈물의 얼룩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 體操劣等生

李鴻範(27回)

내가 咸南中學校를 卒業한 것은 解放되던 해인 1945年 3月이었으니 今年이 滿 45년이 된다.

半世紀가 가까운 時間이 흘러갔고 學窓時節의 여러 가지 追憶들이 차츰 회미해져 가고 있는 지금이지만 아직도 어제일 같이 생생하게 記憶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追憶들이 떠오르며 지난날을 회상할 때 아릿한 感懷에 젖는다.

즐거웠던 일보라는 괴로웠고 낮 뜨거웠던 일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追憶으로 떠올라 음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追憶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리라.

요즈음 한창 開放의 물결을 타고 觀光이다 學術交流다 經濟協力이다 하여 往來가 活潑해지고 있는 中國의 間島 龍井에서 내가 태어났고 小學校 4學年 까지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4학년을 마친 무렵 當時 咸南 興南에서 醫師로 開業하시든 叔父任의 勸誘로 國民學校 5學年 부터 興南에서 留學(?) 生活을 하였고 卒業과 더불어 當時 咸南에서 名門인 咸南 公立 中學校에 入學하게 되었다. 그 때 함께 入學한 金東伯 同窓은 지금 大邱에서 中學校 校長職을 맡고 있는데 咫尺이 千里라고 약 5年 前 잠시 만나본 후로는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학교에 入學하고 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초가 되어 나의 첫 시련은 닥아왔다. 修身 時間이 됐는데 「빠쭈꾸」라는 別名을 가진 韓先生任이 나를 비롯한 2~3명의 級友들을 불러 세우시고는 『너희들 이놈들의 얼굴을 좀봐라 修身에 丙을 받은 놈들이다』하시며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닌가 한바탕 설교를 하고 나시더니 이번에는 또 몇몇 級友들을 불러 세우시고는 『이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훌륭한 답안을 썼다』 『생김새도 얼마나 늙은한가』라고 하시며 칭찬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韓先生任은 소위 말하는 “마루양기”式 답안을 요구 하신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2학기에 배운 수신 교과서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암기하는 일에 시험 준비의 대부분을 허비했다. 그 빠쭈꾸 한선생이 수신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은 수신 교과서를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암기하는 것이 적어도 시험 때 내가 해야할 第一 中點 사업이었다.

옳은 人格 形成도 야가 所謂 수신 과목의 目的일진대 과연 이런 式의 교육이 바람직한 것

인지 지금와서 생각해도 苦笑을 禁할 수 없다 다음 시험 결과는 丙이든 수신이 甲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나의 中學 生活을 괴롭힌 것은 體操와 教練 時間이었다. 성적표에 교련과 체조가 나란히 丙이었으니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學級 담임이었던 日人 교사 石川(別名 옷또세 이)先生이 曰『이렇게 體操와 教練이 丙인걸 보니 네가 얼마나 수업 태도가 나쁜는지 짐작이 간다. 앞으로 精神 차려라』하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國民學校 때 부터 달리기는 항상 꼴지였고 運動會 날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했던 내가 中學生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突然變異가 생기지 않는 한 내 實力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다른 친구들은 100m 달리기에서 13~14초에 뛰는데 나는 19초로 달렸으니 當時 심판을 본 日人 先生이 『고라! 기미 후자에게 데오르까』라고 꾸짖은 것도 無理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鐵棒대에 매달린 나를 보고 體操 담당이던 日人 齊藤教師가 『모두들 이놈 꼬락서니를 좀 봐라 푸주간에 매달린 고기덩이 같지 않나』할 때 나의 참담했던 氣分은 당해보지 않고는 좀처럼 理解하기 힘들 것이다. 그 때 나는 하루 빨리 이 中學校 生活을 마치고 體操 時間이 없는 世上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所望이었다.

이렇게 體操 劣等生이든 내가 아직까지 큰 병치레 없이 지내오게 된 것은 내 體力이 虛弱함을 깨닫고 比較的 規則的인 生活을 해왔으며 軍醫官 生活을 마치고 지금의 場所에서 開業을 시작한 以來 꾸준히 새벽 등산을 계속한 德分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부산에서도 변두리로 山이 가깝고 집에서 約 1.5km 거리에 仙巖寺라는 절이 있는데 매일 아침 4時에서 5時 사이에 일어나 그곳까지 다녀오는 것이 나의 日課의 시작이다 약 10년 전만 해도 한 時間 程度면 다녀왔는데 이제는 점점 힘이 부쳐서 한 시간 반가량이 걸린다. 특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거의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수도물이 오염되어 끓이지 않고는 그대로 마실 수 없으므로 절터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길어 배낭에 메고 오는데 시원한 生水를 安心하고 마실 수 있으니 錦上添花가 아니겠는가 運動神經이 무디니 남들이 다하는 테니스 한번 못해 보았고 요지음 大流行인 골프 또한 나와는 거리가 먼일이니 체조 열등생인 나같은 사람에게는 팔다리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아침 등산(사실은 산책)이 最適의 運動이요 건강법이라고 생각하며 自慰해 본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좀 더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으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배낭메고 山에 오르면 그 상쾌한 새벽 공기와 草木에서 내뿜는 신선한 내음은 조물주가 주신 선물이란 여기며 마음껏 들이 마실때 가슴 뿌듯한 신선함과 성취감 마저 맛보게 된다.

末년에 와서 내가 내 自身에게 감사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禁酒를 하게 된 事實이다. 量은 많지 않으나 愛酒하던 내가 87년 6월 노태우 6·29 선언하던 날 기분이 좋다고 과음을 하고나서 깊이 생각한 바 있어서 금주를 결심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를 지켜오고 있다. 금주의 처음 몇 달은 좋은 안주감이 식탁에 오르면 한잔 생각이 절실하였으나 용케 그 유혹을 물리쳤고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금주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겼다 愛酒에 대한 辯도 있겠으나 禁酒에 對한 辯도 있는 것이니 금주함으로 얻는 많은 좋은 점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는 患者들에게 나의 경험을 통해 실감있고 自信있게 술을 끊으라고 권할 수 있게 됐다.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피우고 무슨 재미로 人生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듣는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어찌 술 담배를 통한 樂 以外에 다른 樂이 없겠으며 어찌 人生의 樂을 그것에 서만 찾을 수 있겠는가.

造物主로 부터 받은 이 生命과 父母로 부터 받은 이 육체를 잘 관리하여 땅위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보람있게 살며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人生들에게 要求하시는 참 뜻을 헤아리며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汚染된 世態속에서 自由함을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옛 친구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 앞서간 丁基範同期를 생각하면 實로 애석한 마음 禁할 수 없다.

天賦의 강인하고 敏捷한 體力을 타고난 그는 中學時節 힘의 世界에 君臨 하였으나 自身の 體力을 너무 믿었고 너무 恣意하여 무절제한 生活로 건강을 해쳤고 다시는 이 생에서는 만나볼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협심증으로 관상 동맥치환 수술을 받고 회복 되었으나 그후 다시 폭음을 시작했고 밤을 새워 마작을 즐겼을 때 主治醫가 忠告를 했으나 술을 마시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니 될말이냐고 하면서 무리를 하여 드디어 하루 아침 뇌동맥 血栓症으로 意識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1년여에 걸친 가족들의 극진한 看護와 積極的인 治療에도 불구하고 지난 3月 7日 他界하였다. 生前의 그의 호탕하던 모습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죽기 얼마 前 그가 基督教에 歸依하였다고 하니 後日 天國에서나 만나리라는 希望을 가져본다.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人間 肉體의 限界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의 삶의 姿勢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된다. 草露같은 人生이니 뜬 구름같은 人生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人生의 終着驛에 가까와 옴에 따라 나의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철없었던 세월들이 아쉽기만 하다. 大器晚成이라고들 하지만 小器晚成도 못되는 내 주제를 생각하며 平凡하고 普遍的 것이 眞實일 수도 있다고 자위하면서 남은 余生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경건하게 생각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生命주신 造物主에 報答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해 본다.

좀 더 基督敎的인 次元에서 말한다면 우리 人生의 삶은 創造主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營爲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1990년 4월

## Vacacion의 有感

韓 弘 模 (27 回)

내가 美國에서 西巴牙에 轉動한 것이 一九七九年 四月初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新春의 氣運이 나돌때 西班牙의 Canalia 群島의 Las Palmas란 州都에 赴任했었다. 이 群島는 歐洲大陸 끝인 이베리아半島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와의 사이에 位置한 大西洋上의 섬들이다. Las Palmas는 常住人口 約 三十萬名이나, 觀光客이 常住人口보다 많아 六十萬以上의 人口가 움직이기는 無關稅 自由港口로 이곳 百貨店엔 世界有名 商品이 모두 陳列되어 있다. 地理的으로 地中海 氣候와 아프리카 사하라 沙漠에서 온 熱風과 뒤섞여서 年中 平均 攝氏 二十三度 以上의 若干 더운 溫和한 氣候이고 年中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 열손가락에 헤아릴 程度로 매우 乾燥한 休養都市이다. Las Palmas市 海岸엔 約四킬로의 白砂場이 있다. 海邊道路는 타일로 鋪裝되었고 해가 지면 海岸가의 街路燈이 켜지고 해가 뜨면 꺼진다. 이 섬의 東쪽과 北쪽의 白砂場은 서로 이어져 海水浴場을 이루고 있어 어디에 내놓아도 遜色없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海岸路 옆엔 큰 호텔, 모텔 및 食堂이 이어져 있다. 年中 水泳할 수가 있고 이곳 點心 時間은 무려 四時間으로 하루 두번씩 出退勤한다. 아침 九時 出勤에 十二時 退勤 午後 四時 出勤하여 六時에 退勤하게 된다. 點心 時間엔 먹고 낮잠 자거나 家族 모두 白砂場에 나가 日光浴, 水泳 等を 하면서 時間을 보낸다. 百貨店을 除外하곤 全市內의 店房도 門닫고 있다.

이 섬의 中心部엔 우리의 漢拏山보다 百六十미터나 더 높은 Tejeda란 山이 있는데, 겨울 며칠동안 山頂에 흰눈이 덮일 땐 사람들은 큰 事件이나 난 것처럼 쳐다보면서 손짓한다. 이 높은 山도 鋪裝된 道路가 거미줄 같이 이어져 東西南北에서 車타고 二時間余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고 깊은 雲海를 헤치면서 山頂에 到達한다. 山頂엔 호텔, 食堂, 店舖 등이 즐비하다. 山의 소나무는 人工的으로 造林되어 縱橫으로 뻗뻗하게 서있고 間間히 피크닉 族을 위한 炊事場과 化粧室 등이 完璧하게 設置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곳은 비다운 비가 오질 않아 火災, 特히 山불에 操心하여야 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엔 山林 看視員들이 있어서 炊事場外에서 밥을 지으면 看視員이 달려와서 야단한다. 山에 雜草하나 없으며 山全體에 形形色色의 仙人掌들이 저마다 原色의 꽃을 자랑하면서 자라고 있다. Las Palmas에서 남쪽으로 約 六十餘キロ 가면 이곳과 비슷한 都市 Mas Paloma가 있다. 이곳엔 常住人口가 거의 없고 호텔·모텔·콘도 및 카지노와 遊興場으로 構成되어 市全體가 꽃과 樹木으로 파묻혀 있다. 이곳은 觀光 休養都市로 海水浴과 골프 및 카지노의 中心地이다. 中東의 富豪들이 호텔 하나를 통채로 세내서 一族을 데리고 와서 休養한다. 이곳 海邊의 半은 누드비취로 男女老少 不拘하고 全裸로 水泳, 日光浴 및 散策과 運動을 즐긴다. 이 섬의 白砂場 없는 海岸가에는 낚시꾼들이 많다. 나도 退勤길엔 곧잘 낚시를 하곤했다. 그래서 車트렁크에 恒常 낚시 道具를 갖고 다녔다.

카나리아 群島의 特産物로선 바나나와 도마도 等の 農産物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全量 歐洲에 輸出하며 品質도 最高로 친다고 한다. 乾燥한 곳이기 때문에 바나나나 도마도엔 水分含量이 적어 貯藏이 쉽고, 도마도는 우리의 자두만하여 도마도 케찰엔 最適이라 한다. 바나나는 年中 水道물을 주면서 키우나 其他農事는 여름엔 하질않고 겨울에만 한다. 理由는 歐洲의 겨울은 農閑期, 따라서 이곳의 겨울 農作物이 採算이 맞기 때문이라 한다. 스페인은 公休日이 日曜日과 겹치면 月曜日は 休務로 하며, 宗教적으로 카톨릭敎人이 九割 以上占하고 있어서 佛蘭西, 伊太利와 같이 宗教의 休日은 三國이 共通이다. 聖誕節은 조용하나 復活節(Santa Semana)은 一週間을 먹고 마시고 假裝行列 등으로 都市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 버린다.

Vacacion은 英語의 Vacation과 같은 말이며, 出退勤時 담배, 과일을 사기위해 자주 들리던 가게가 하루 아침에 閉門休業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正門에 Vacaciones라고 손바닥만한 종이가 붙어 있다. 일하다가 門만 잠그고 가버린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日常 팔던 商品을 그대로 두고, 하다못해 陣列한 과일들이 그냥 箱子속에 넣어 둔채이다. 이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저 과일들이 썩어있을 텐데 말이다. 變質될 物件을 處理 안하고 떠나는 사람들, 또 미리 休暇 갈 것을 알면서도 팔다 남은 것을 그냥두고 가는 사람들. 잘 살기위해 休暇가 는 것인지 休暇가기 위해 장사하는 것인지? 歐洲旅行은 여름철엔 할 것이 못된다. 여름의 歐洲 都市엔 그나라 사람들은 休暇를 떠나서 없고 外國觀光客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우굴거리고 있으니, 그 나라 風俗, 文化 等を 詳細히 알기 어렵다.

Las Palmas를 紹介하면서 이 程度의 곳이면 한번 가서 休暇를 보낼만 하다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이곳 住民들은 돈드려 가면서 外國이나 本土를 찾아 헤매는데, 그럴만한 理由는 있겠으나 제것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觀念에서 나온 듯 하다. 나도 이곳에 三年間 있으면서 아프리카 等を 苦生하면서 旅行한 理由는 好奇心 때문인데 돌아와선 後悔하곤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Vacation 熱病에 시달려 해야할 일을 제쳐 놓고 어딘가 떠나려고 들석거린다. 제 할일하고 피로도 풀고 새로 身心에 活力을 넣어 建康하게 職場에 돌아온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G.N.P 三千弗도 못미치는 國民이 一万弗 以上の 市民들이 놀랄 程度로 Vacation에 熱을 쏟으면 이것 亦是 一種의 病人 것이다.

萬事는 中庸이며 自己分數를 헤아리고 適當히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勿論 나를 包含해서 말이다.

一九九〇年 七月二十四日



## 홍원의 송가

김 봉 식 (28 回)

아, 그림도다 내고향!  
아름다운 고향 홍원,  
분단된 국토 때문에  
헤어진지 사십오년,  
검은 머리 홍안의 청년이  
이제는 백발의 초로.  
그래도 잊지 못할 내고향,  
헤어진 형제 친척들은  
지금은 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옛 산천만은,  
아름다운 홍원의 옛 산천만은,  
우리를 양팔 벌려 반겨주겠지.  
옥송동의 백사, 송도의 파란바다,  
서대천의 황금모래, 정겨운 학두봉,  
조양바의 기침소리 나던 고바구영,  
운도리와 앵 매매가 거닐던 거리,  
이 추억의 산천이야 남아 있겠지.

작년부터 노도와 같이 구라파를 휩쓰는  
자유 민주화의 물결이 우리 북녘에도 와서  
하루 빨리 우리가 그림던 고향에 가서  
큰 잔치를 열어 재회의 기쁨을 나눕시다.  
남하할적에 영어사전 하나만 넣어 가지고 왔던  
륙삭에 이번에는 황금을 가득히 넣어 메고가  
사랑하는 우리고향 홍원의 재건에 쓰자.  
찬란하게 빛나는 레저 시설을 삼호에  
문바에, 새무채에, 천도에, 송도에, 옥송동에,  
새끼미에, 작은 방진 큰 방진에 경포에 준비하게 세웁시다.

공해산업이 들어 오기전에 먼저 세웁시다.  
우리 조상들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펴냅시다.

바다 색깔이 까맣게 변하도록  
 많은 명태, 고등어, 은어, 정어리, 털게들을 퍼냅니다.  
 통조림 공장도 만듭니다. 부유한 흥원을 만듭니다.  
 멋있는 학교들을 세워서 후배들을 양성합니다.  
 동해안의 기름진 모범 도시를 만듭니다.  
 말잘하고, 노래잘하고, 정이 두터운 흥원의 선후배들이여,  
 되찾은 우리 고향에서 마음껏 웃으며, 서로 도우며 삶을 구가합니다.  
 1990. 6. 18.

## 꿈 이야기

### 金鍾殷(28回)

사람은 나이를 먹게되면 머리끝부터 발톱까지의 모든 기능이 약화된다. 금방 한 일들이 머리속에서 아물거리면서 영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때도 많아진다. 그러나 그런대로 아득한 옛날 일들은 비교적 잘 기억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게 옛 일을 회고하며 일깨워 줄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어쨌거나 이 모든 현상은 이른바 노화(老化)현상인 것이다.

사실 금방 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 쇠퇴된 기억력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잘 이루어질턱이 없으니 미래의 희망과 꿈에 부푼 젊은이들의 미래지향적 사고 방식과는 달리, 인간의 노화는 종종 미래대신 과거(過去)에 얽매이게 되면서 스스로의 약화된 기억력에만 매달려 한 말을 되풀이하기 쉬우니 젊은이들은 이를 가리켜 늙은이의 잔소리, 아니면 황혼기의 냇두리썰음으로 생각하고서는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바로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와같은 노화현상의 생리나 병리를 강의할 때 그것은 나 자신과는 결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심심치 않게 회상의 늪에 빠져들곤 한다. 가끔 한가한 시간이라도 생겨 상(想)에 잠기게 되면 요즈음에 와서는 고향 함흥의 성천강(城川江) 독에서 소꿉장난을 함께 놀던 어렸을 때의 친구 모습이라든가, 영하 20도 넘는 추운 겨울날, 성천강의 스케이트 링크를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몇십 바퀴고 돌고 돌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혼자 빙그레 웃는 일도 있다. 또 그뿐이겠는가, 꿈 속에서도 막연하나마 반룡산(盤龍山)기슭이나, 귀주사(歸州寺)골짜기에서 진달래, 아지랑이, 우리를 따라 헤매이며 뛰놀던 광경이 나타나기 까지 한다.

한 달포전 쫓이였을까? 하루는 골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차를 얻어 타고 온 일이 있었다. 기사에게 집에 가는 길을 알려주니 알았다는 말과 함께 대뜸 “선생님도 고향이 함경도 시군요”하면서 반갑게 대하는 데, 그의 말투도 어김없는 함경도 말씨였다.

“그렇소이만, 기사 양반도 함경도 같은데”하며 나도 반기며 되물었다.

“맞습니다. 저는 함흥의 운흥리(雲興里)란 곳에서 나서 자라다가 1·4후퇴때 맨 꼬래비로 겨우 흥남(興南)으로 빠져나와 철수했지요.”한다.

“운흥리라! 아! 그거 저 산수정(山手町)이라 부르던 곳 아니오. 내가 다니던 중학교 바로 거기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바로 함남중학(咸南中學)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시지요?” 기사는 확인이라도 하듯 되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 듯 “참 좋은 학교였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커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기사는 사뭇 부러운 듯이 백미러로 뒤에 있는 내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그와 눈이 마주치면서 순간이나마 나는 잊었던 모교, 함남중학 동창만이 지니는 짜릿한 프라이드가 머리를 스쳐감을 느꼈다.

잠시후, 나는 나도 모르게 거의 다구치듯

“아, 정말 기사 양반, 당신이 제일 마지막으로 함흥을 빠져나왔다 하니 물어보는데, 함남중학 건물은 해방후에도, 그리고 6·25동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순간 기사는 거의 허탈한 어조로 맥없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뭐 다 불에 탔겠지요.”

“뭐요? 다 불에 탔다구요.”

“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본궁(本宮)과 용흥(龍興), 그리고 천기리(天畿里)쪽으로 빠져나오는 데 미군이 그쪽에다 대고 함포사격을 요란하게 쏘아대더군요. 그래 우리 집도 그 근처에 있어 북쪽 하늘을 쳐다보니까 바로 그 일대에서 불꽃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산 아래 위 할것 없이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혀 완전히 불바다가 되버렸던데요.”

그의 말투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았다. 나는 순간 가슴이 짝 메어오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꼈고 이을 말을 잃었다.

조금 후 나는 다시 궁금하다는 듯이 “참 난 성천정에서 나서황금정에서 자랐는데, 내가 다니던 황금정 소학교하며 그 동네 일대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하고 나의 고향중의 고향마을 소식을 물었다.

“아 그쪽도요 뭐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그 쪽은요. 아예 허허 벌판이 되어버린 걸요. 좌우간 성천강 아래쪽의 철교 부근에서 부터 만세교 까지의 일대는요 완전히 초토화 되었던 걸요.” 기사의 대답은 더욱 확정적인 것이었다. 나는 의아해졌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아니지요. 미군이 철교를 폭파하려고 매일같이 폭격을 해대니까 인민군들이 성천강 일대의 주택가에다 고사포진지를 구축하고 냇다 쏘아 올렸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 일대를 아주 용단폭격해 버린 것이지요.”

이해는 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듯했다.

그날밤 나는 꿈을 꾸었다.

겨울날 어느 아침이었다. 허름한 전투모에, 예의 불품없는 가운데 중(中)자가 달린 교모  
를 쓰고는 배낭같은 란도셀이란 책가방을 등에 업은데다 그 위에 망또를 뒤집어 썼으니까  
나의 몰골은 영낙없는 곱추의 그것이었다. 꿈속에서도 몰골이 하도 우스워서인지 빙그레 웃  
기까지 했다.

군영통(軍營通)을 걸어 거수 경례를 붙이고, 또 선생님을 만나면 일단 정지하여 거수 경  
례를 붙였다. 학교문을 통과하여 고갯길을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봉안전(奉安殿)에 이르자  
나는 일단 서서 좌향좌로 방향을 완전히 정하고는 봉안정을 향하여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경례를 붙였다. 꿈속에서도 일본 천황의 어진영(御眞影)이란 사진조각 한장이 들어있을, 마  
치 도깨비집 같은 것에, 경례를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아니꼬움에 찬 비웃음이 감돌  
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은 무슨 예식이 있는 날 같았다. 강당에서 조치가 열렸다. 조회 때에는 의례히 동방  
요배(東方遼拜)라 하여 공경의 천황폐하에게 90도° 최경례를 한 다음 “천우(天佑)를 보유  
(保有)하며……어찌고 저찌고”하는 일본천황의 연합국에 대한 선전포고문을 읽는 순서가 이  
어졌다. 그날은 웬일인지 일인 교장선생과 교무주임선생은 안보였고, 다음 선임인 우리의  
한(韓)장이 선생님이 대신 읽어 내리게 되었다. 각 학급 단위로 이열종대로 줄을 선 강당은  
딱 메워졌으며 모두들 죄인같이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 미리 차려놓은 칸막이대에서 한선생  
님이 선전포고문을 끄집어 내어 머리위로 들고 돌아서서 읽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  
석장교의 호령에 따라 더욱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을 지긋이 감고 있던 꿈속의 우리들은 일  
본선생대신 우리의 한장이 선생님이 등단하시는데 기분이 우쭐해지면서도 한두가지 걱정이  
있었다. 우선 알코올기가 떨어지면 손을 벌벌 떨 수 밖에 없었던 한장이선생님이 칙어(勅  
語)봉독이라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칙어가 든 나무상자를 머리위로 들고 돌아서다가 혹시나  
떨리는 손 때문에 상자를 떨어뜨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아니더라도 떨리는  
손 때문에 상자를 들고 돌아서다가 기둥에 부딪치시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설사 무사히  
옮겨 놓고 읽어내려간다. 하드라도 떨리는 손 때문에 장을 넘기다가 그만 실수로 같은 글을  
되풀이 읽거나, 아니면 두장을 한꺼번에 넘기고서는 다음 장을 읽기라도 하여 중간 장을 몽  
땅 빼먹는 중대(?)한 실수라고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더구나 한장이 선  
생님의 일본어는 서투른데 묘한 발음 때문에 짓궂은 장난꾸러기 녀석들이 킁킁 웃어댔으며  
서 공연히 소란이라도 나면 어찌나 하는 염려(?)도 꿈속의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걱정하는 우리들은 당연하게도 지긋이 감으라는 눈을 비스듬히 뜨고는 힐끔힐끔 한선생님  
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고, 동시에 혹시 그런 우리들의 불경(?)스러운 동작을 일인 선  
생들에게 들키지나 않을까 하여 일본선생의 얼굴을 살짝 엿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행히

일인 선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들키지는 않아, 순간 안심하곤 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칩어가 든 상자를 머리위로 받든채 돌아서다가 그만 기둥에 부딪혀버려 꿈속에서도 똑하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우리는 더러는 고개를 숙인 채, 또 더러는 힐끔힐끔 단상을 쳐다 본 채 속으로 가슴이 뜨끔하면서보 바짝 긴장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위의 어느 짙곳은 녀석이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우스워서인지 그만 방귀를 뽕하고 꺾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만 순간을 참을 수 없어 킁킁 웃고 만 것이다. 숙연하여야 할 장면은 일순 여기저기서 킁킁 웃어대는 소리로 뒤범벅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 어디선가 “웃지마! 조용히 해”하는 일인 선생의 노성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똥무지>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 부임해 온 영터리 일본인 지리 선생의 목소리임이 분명해졌다.

## 진퇴 양난의 북한의 처지

李命英(28回)

가위 혁명적이라고 해야 할 작년도에 있어서의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 앞에서 북한이 보여 준 반응은 한 마디로 말해 우물 안 개구리 넓은 세상 모른다는 격이었다.

그 변화의 요점은 개혁과 개방이다. 개혁은 정치 경제 양면에 걸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共產黨一黨獨裁의 포기이며 경제적으로는 私有權의 인정과 計劃經濟의 市場經濟로의 이행이다.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여행 등의 통제를 없애고 모든 나라와 국교를 트고 경제 거래를 한다는 노선이다. 이렇게 되면 自由世界와 共產世界를 갈라 놓았던 장벽은 철거되고 세계는 地球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참으로 바람직한 이러한 사태의 진행 앞에서 세계인들이 부푼 희망을 나누기 시작했던 작년에 있어서 북한은 이 모든 소식을 인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정보의 차단이란 것은 獨裁政治의 상투 수단인데 북한은 과거 45년 동안 줄곧 이 수법에 의해 지탱되어 왔던 것이다. 그랬던 북한에서 동구의 변화에 관한 반응이 정식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12월 22일자의 노동신문의 장문의 대논설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이 논설은 동구의 변화에 대한 朝鮮勞動黨의 공식 태도 표면이란 데서 주목을 끄는 글이었는데 제목 그대로 동구의 변화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 일어났다는 식의 사실과 정반대되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판을 치는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풍토는 불쌍하게도 1910年代에 레닌이 써낸 諸國主義論과 2次大戰 직후에 스탈린이 정립시킨 冷戰理論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敎條主義로 나간다. 따라서 資本主義는 侵略勢力이요 惡이며 社會主義에

는 모순도 반항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帝國主義 侵略勢力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치기어린 흑백논리와 이 단세포적인 사고가 실은 오늘의 북한의 저 숨막힐 듯한 경제 폐쇄 체제를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는 몸집은 클대로 다 컷는데도 정신의 발육은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치매증 병자를 보는 듯하며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그 논문에는 저들이 自由의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 있어서 주목을 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사상적 통일에 대한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제기될 수도 없으나 社會主義社會에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대립이 없기 때문에 사상적 통일의 문제가 제기되며 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社會主義社會에서 만약에 思想의 自由化를 허용한다면 이는 인민대중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社會主義社會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思想의 自由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는 2가지의 결정적인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에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으면 사람들의 사상은 자연히 통일되어 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共產主義者의 관점이다. 왜냐하면 存在가 意識을 규제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상적 통일의 문제가 그렇게도 목적 의식적인 주요 과제로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모순이다.

그런데 실은 이 첫째 모순은 사실은 둘째 모순 즉 뒷부분의 社會主義社會에서는 사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자유가 허용되면 사회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社會主義는 自由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共產主義者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될 발언이다. 그들의 이론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社會의 자유라는 것은 가짜이고 社會主義 共產主義에 이르러서 진짜 自由가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自由가 만인의 自由와 일치되는 세상이 온다고 까지 했던 것이다. 그랬는데 社會主義에서 自由를 허용하면 社會主義가 망한다고 한다면 이는 反共主義者의 주장과 같지 않은가. 조선노동당의 최고의 사상 이론 담당 일꾼들이 전력을 다해 그리고 主體思想 즉 金日成의 교시를 높히 받들어 생산해 낸 이론이 反共主義者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모순을 범했다면 이 무슨 해괴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는 저들의 본심일 것이다. 社會主義社會에서 自由가 허용되면 그 사회가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실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그렇고 동구권이 그렇고 中國 역시 그랬다. 작년의 天安門사건은 총검의 유혈극으로 간신히 진압되긴 했어도 九死一生으로 虎口를 벗어난 民主主義가 읊었드시 그 사태는 바로 “野化不燒盡이면 春風吹又生”이어서 총검의 탄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自由의 바람이 中國으로 스며든 때문에 민중이 봉기한 것이다. 결코 社會主義社會라 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것도 아니요 독재가 있는 한 自由의 요

구는 불가피하다. 결국 이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은 自由를 社會主義의 적으로 몰아 부치면서 절대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굴하지 말고 社會主義의 길로 나가자고 논설은 선동하고 있다. 경제 기술 발전이 좀 더디게 된다고 하더라도 自由를 배격하고 社會主義로 나가야 하며 黨의 영도를 강화해야 하며 金日成의 교시에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金日成과 조선 노동당의 권력을 옹호하는 데서만이 社會主義의 길은 지켜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체의 自由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결국은 金日成과 黨의 독재 권력이 모든 것의 첫 자리에 가는 것이지 社會主義의 본래의 목적도 인간의 본성인 自由도 다 일 없다는 것이다. 하기가 북한에서의 모든 가치는 金日成과 그의 통치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왔으니 그속에서 45년간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것 밖에 모른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여 통일의 문제를 논해야 할 한국의 대북 정책은 그만큼 더 어렵고 더디게 진전될 수 밖에 없다.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방법으로 경제적 거래, 인적 왕래 등을 해 보려고 몇해째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만 장애를 놓고 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정치적 통일부터 먼저 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통일이란 두말 할 것도 없이 共產統一 즉 朝鮮勞動黨 主權下의 통일이다.

이 주장에서는 조선노동당은 共產主義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공산주의의 基本哲學인 辯證法的 唯物論에서는 量的運動이 質的變化를 가져 온다는 명제를 세워 놓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이 명제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다. 그렇다면 조선노동당은 남북간에 경제적 인적 거래의 量的運動을 점차 재고함으로써 드디어 統一이라는 質的變化를 오게 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量的運動도 없이 대뜸 質的變化를 찾겠다 하니 공산주의의 원리를 벗어난지 오래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의 歷史觀인 唯物史觀에서는 政治나 이데올로기는 上部構造이고 經濟가 下部構造 즉 土臺이다라는 명제를 세워 놓고 있다. 土臺인 經濟를 기초로 해서만이 政治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노동당은 남북간의 경제의 통합에 힘쓰고 그 위에서 政治的 統一이 오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대인 經濟를 떠나서 政治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공산주의의 원리를 벗어난지도 오래인 것이다.

저들이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공산주의의 원리대로 한다해도 共產統一 金日成 權力下의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自由民主統一 韓國主權下의 통일이 오기 때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歷史는 自由가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 번영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지 獨裁의 방향으로 빈곤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노동신문의 대논설에는 “社會主義 나라들의 위기는 물건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공산주의의 원리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이 또 무슨 소리인가.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빈곤”

이란 뜻은 원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 더욱 발전시켰다는 主體思想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 견지하면 경제적 빈곤쯤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요지부동이란 것이다. 가위 종교의 경지라 하겠다. 이런것을 두고 集團的社會主義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도 막다른 골목은 오고 있다. 韓蘇頂上會談이 이루어지고 양국의 수교가 선언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진전의 이면에는 소련의 脫共產主義라고 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소련은 북한의 統一政策을 지지할 까닭이 없다. 북한의 統一政策은 共產統一이 원칙이다. 과거의 소련은 共產主義를 지향했으므로 북한의 그 정책을 지지한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이다. 이에 있어서 북한이 나갈 길은 무엇인가. 소련에 저항하던지 아니면 소련을 따르던지 할 것인가.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의 소련 의존도는 결정적이다. 감히 소련에 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련을 다라 공산주의를 止揚하면서 개방과 개혁으로 나갈 것인가.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드시 전혀 불가능한 길이다. 저들은 自由를 허락하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북한의 진로는 무엇이겠는가. 金日成 父子가 살아 있는 한 저들이 택할 길은 누에 고치가 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 同窓會 有感

趙東喆 (28回)

나는 咸南의 名門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 副會長으로 在任하고 있음을 보람되고 名譽스럽게 여기며 더우기 通算 十七年동안의 總務生活 끝에 얻어 쓴 감투이고 보니 더 더욱 所重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本人 以前에 總務를 맡아 多年間 同窓會 基盤構築 發展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寄與한 功이 큰 27回 河洪權 先輩께서 名簿를 作成하려고 온갖 努力을 다하였으나 資料收集 등 與件이 如意치 못하여 名簿가 作成되지 않는 狀態에서 本人이 總務를 引受하고 보니 무엇보다도 同窓會 基本인 名簿를 作成하는 것이 急先務인 同時에 新任 總務가 해야 할 最優先 課題라 判斷하고 前任 總務께서 收集해 놓은 資料를 參考로 하여 當時 副會長이시던 五回 崔영기 先輩任과 同窓會 일을 위하여 勞苦를 아끼시지 않고 協助하여 주시던 七回 朱洛璋 先輩任을 모시고 各期에서 內容을 가장 잘 아실만한 분들을 찾아나서서 한분 한분 訪問하기로 하고 두분 先輩任과 같이 여기 저기 수소문 하면서 訪問하여 빠짐없는 正確한 名簿를 作成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付託하면서 서울 市內를 배회하기를 여러 차례 또 書信連絡도 數 없이 되풀이 하였고 또한 電話連絡은 헤아릴 수 없이 거듭하면서 資料收集에 努力한 結果 訪問, 書信, 電話連絡을 거듭하기 近 二年만에 名簿作成에 必要한 基礎資料가 그런대로 收集이 되었는데 더 以上の 資料는 收集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되어 當時



一回 李東準 會長任을 비롯한 任員들과 協議하여 既히 收集된 資料를 가지고 名簿를 作成하기로 決定하고 名簿 草案을 作成하기에 이르렀는데 當時 同窓會에 基金이라고는 한푼도 없는 形便이어서 名簿作成에 必要한 資金이 問題였는데 어찌 되었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方法을 選擇하여 求乞이라도 해서 名簿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選擇한 것이 表紙는 푸른 色의 마분지로 하고 內紙는 거무스름한 更紙로 하여 活字印刷는 비싸니 가장 싸게 해 주는 프린트집에서 프린트 하기로 定하고 草案을 건네주고 名簿를 만들었으나 찾을 돈이 없어서 結局同門들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呼訴하여 가가스로 처음 만든 名簿를 찾아 그 해 總會時 同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崔榮杞 朱洛璋 先輩任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同窓會 基本인 처음 名簿를 만들어 냈다는 安도感과 滿足感에 젖어 반대떡 집으로 가서 서로 주머니를 털어 名簿作成 完了의 自祝宴을 열고 소주를 기울이면서 서로의 勞苦를 위로 하였는데 그 때의 氣分이란 筆舌로 表現할 수 없는 最上의 것이었다. 이 名簿는 그 後 副會長이시던 二〇回 全世經 先輩께서 더욱 正確한 名簿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혼자서 도맡아 變動事項을 亦是 訪門, 書信, 電話 連絡 등으로 일일이 確認하여 一年동안 修正하여 두번째 名簿를 만들었는데 이 때에도 同窓會 基金이 넉넉하지 못하여 表紙는 흰 色 마분紙 內紙는 조금나은 更紙로 하였으나 印刷는 亦是 프린트로 하였는데 그 後 다시 期幹事로 同窓會 일에 積極 協調 參與하시던 二二回 申泰燦 先輩께서 名簿가 너무 貧弱하시다며 直接 變動事項을 確認 修正하고 校正까지 하시면서 새 名簿 作成에 注力하여 세번째 名簿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表紙는 밤색 비니루로 하고 內紙는 모조紙에다 活字 印刷를 하였으니 비로서 名簿다운 名簿가 만들어졌으니 申先輩任의 手苦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음을 添言한다.

처음 名簿를 만들고 나서 두 先輩任과 저는 名簿를 만들면서 겪은 어려움을 되새기며 이제는 基金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合議하여 基金 造成에 나서기로 하고 名簿를 더듬어 贊助해 주실만한 同門들을 個別 訪門하여 基金 募金의 訪門 活動을 始作하였는데 그 해 따라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어서 불볕같은 太陽熱이 내려찍는 서울 거리를 점심을 거르면서 차비도 아끼려고 徒步로 이구석 저구석을 누비며 飲料水 한잔 마시지 못하면서 同門들을 찾아 다녔는데 이게 웬일인가 期待와는 달리 선뜻 贊助해 주시는 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訪門한 저희들을 一시간 以上씩 기다리게 하고 어떻게 왔는가 同窓會가 있는가 하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만나 주지도 않는 분도 있었고 어디엔가 電話를 걸여 確認하는 분도 있었는데 甚之於는 同窓會를 빙자하여 용돈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적은 이상 야릇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도 있었는데 이럴 때면 저희들은 失望과 때로는 분노마저 느끼면서 무엇 때문에 퇴약별에 반가와도 하지 않는 訪門을 해야하는가 회의心과 中途 포기 할까 生覺한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五回와 七回의 大先輩任을 모시고 다니면서 무언가 成果를 올려야 한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五拾萬원을 마련할 때 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참아야 한다는 굳은 意志로 執念을 가지고 꾸준히 募金 活動을 繼續하였는데 몇 千원,

만원, 貳만원씩 贊助해 주시는 분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두분 先輩任과 같이 東西南北으로 한해 여름을 돌아다니고 나니 參拾萬원 程度의 基金이 마련되어 多幸스럽게 여기고 지친 訪門 募金을 中止하고 後日 다시 追加募金할 計劃으로 多小나마 基金이 造成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였고 이때에도 주머니를 털어 소주를 기울였다.

이때의 募金 內譯을 朱洛璋 先輩께서 後日 同窓會誌라 하여 詳細히 記錄하여 保管하셨는데 이 記錄은 至今도 總務가 保管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진 우리 同窓會가 하루 빨리 南과 北에 흩어져 있는 모든 同門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追憶談을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苦待하며 그날까지 우리 同窓會를 더욱 發展시켜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 동안 同窓會가 걸어온 발자취를 本人의 記憶을 더듬어 그 所感의 일단을 적는 것으로 끝나치면서 十七回 李在亨 十九回 韓昌淑 二十回 金明植 先輩等 同窓會를 위하여 手苦하신 여러 先輩任들이 있었다는 것을 添言하는 바이다.

母校를 生覺한다.

朔風이 휘몰아치는 盤龍의 기슭에 자리하여 젊은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希望을 키워주던 母校가 그리움구나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던 木造의 校舍가 보고 싶구나 母校의 돌레를 에워싸고 해마다 香氣로운 내음새 풍겨주던 아카시아 나무들이 至今도 健在한지 궁금하구나 어서 어서 統一을 이룩하여 故鄕으로 돌아가 母校를 再建하여 우리의 後孫들에게 母校의 새얼을 심어주고 싶구나. 우리가 없는 동안 母校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數 많은 이야기들을 情답게 나누고 싶구나.

1989. 9.

##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이야기

朱赫淳(28回)

일년에 한번 있는 수유리 초가집 모임에 나가면 萬年後輩지만 회갑, 진갑 지난 나이가 된 즉, 주위에 自營의 生業에 종사하는 몇명을 빼면 모두 현역에서 물러난 퇴물이다. 그러니 생각인들 미래의 설계에 미칠소냐! 더구나 북쪽에 남기고 온 恨을 씹고 살아야 하는 處地, 그래서 생각은 저절로 지난 일로 돌아간다.

### 1. 楊선생과 SUMITOMO(住友)선생

楊선생보다 高山(TAKAYAMA)선생, 그보다도 45度선생으로 기억에 남는 楊仁性선생님, 선생은 필자와 같은 저 유명(讀者속)에 몇명이나 이 有名이란 뜻을 알고 있을까? 正答은 前 1987年 會誌의 付錄 1940년 交友會誌에 있다)한 164번지의 住人이었다. 선생은 “새(鳥)로

이어진 恨 많은 南北의 하늘”로 한때 마스크를 탄바있는 새박사인 元炳旣후배(30회)의 부친의 先任으로 永生高女에 계시다가 母校(선생을 포함한 우리·모두의 모교)로 轉任하셔서 博物을 가르치셨다. 실은 元박사의 兄이 우리와 동기인 TANIMOTO KENSABURO다. (前揭會誌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 28기는 불행하게도 가짜 이름으로 입학하여 가짜 이름으로 卒業한 唯一한 학년이어서 8·15후에 交友한 일이 없으면 眞名을 모른다)

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다고 해서 지워진 애칭 45度 선생, 그렇게도 유명한 기울인 머리였지만 세월이 半百年이나 지나고 보니 45度는 45度인데 7分인지 53分인지는 이제 기억이 없다. 오른쪽였더냐, 왼쪽이었더냐 말이다.

선생은 太平洋전쟁이 한창일 무렵 한때 학교를 떠나신 적이 있었다. 철없는 중학교 초급학년의 우리에게 무슨 重罪(?)를 저서 교단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풍문 아닌 풍문만 있었고 학교에서나 마을(같은 164번지)에서도 바른 설명이 없었다. 그새 선생의 日本 유학중이었던 長男은 日本學兵에 나갔다. 그무렵 그와 함께 우리 마을에서 나간 學兵엔 高明相선배(22회)檀大의 高明元(24회), 서울대의 高明三(30회) 兩교수의 형님이다—도 있었다. 高선배는 咸興一普(錦町小學校), 咸興高普를 거쳐 東京大學法學部 獨法科 在學中이었다. 말하자면 우리고장의 수재중의 수재였다. 그래서 學兵에 나가는 그의 無事귀환을 마을에서는 더욱 간절히 빌었다.

선생은 우리 중학교(고보)를 졸업(6회)한 후, 東京高師에서 修學하셨는데, 이때 東京高師의 學友인 金教臣(咸農卒業), 咸錫憲(씨알의 소리)등과 함께 당시 日本기독교의 개혁자로서 무교회주의자인 內村鑑三의 問下生이 된다. 1927년에 이들 2名외 또 다른 3名과 함께 6名이 聖書朝鮮이란 同人誌를 創刊했다. 그후 이 책은 同人誌의 성격을 벗어나서 金教臣 혼자 힘으로 계속 刊行되었는데, 1942년 3월 158호의 卷頭文「조와(弔蛙)」로 그들 日本人이 말하는 筆禍사건을 일으켰다. 그들이 말하는「聖書朝鮮」事件이다. 當然히 우리 楊선생도 連累者라는 이름으로 검거 되었다. 이것이 그때 선생님이 아무 說明없이 우리 학교를 한때 떠나신 경위다.

8·15가 된 후, 日本學兵으로 動員되었던 선생의 長男은 無事귀국하였고, 解放을 기다리지 못하고 日軍兵營에서 病死한 高明相선배와 대조되어 마을에 또 한차례 話題를 남겼고 高先輩에 對한 哀惜, 哀悼의 마음은 더욱 高揚되었었다. 이때 楊선생의 歿息은 日軍 陣營에서 中口延安으로, 거기서 朝鮮義勇軍으로 活躍하다가 귀국하였다는 風聞이었다. 46년에 修學次 越南한 필자는 그후의 선생의 動靜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北쪽 하늘이 그리울 뿐이다.

SUMITOMO(住友)선생을 기억하고 있는 校友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在任기간이 짧았고 主要課目の 擔當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점 日本語(그 당시는 어엿한 國語로 통했었다)의 五十嵐선생, 英語의 佐護선생, 教練의 白井선생과는 對照的인 存在다. 선생의 수업시간이 되면 선생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부터 교실 사방에서 “탕!”, “탕!”의 惡童들의 교성이 요란하다. 교성만이 아니라 책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소리마저 加勢하여 교실은 한때

난장판이다. 이때의 악당 面面에는 宋榮晁醫博도 朴勝捧 專務도 빠지지 않는다. 선생의 담당과목은 地理學인데 강의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짠지, 허구인지, fiction인지 non-fiction인지 分間키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大砲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의 애칭은 당시의 世情을 反映하여 從來의 大砲보다 훨씬 性能이 좋은 長距離砲로 落着되었다. 그러나 이 勇敢한 악동들의 “탕 탕”하는 소란은 이번시간에 長距離 그만 싸대라는 귀여운 抗議인 셈이다. 이때의 世界的 關心은 獨逸軍이 봄, 여름, 가을에 蘇聯 깊숙히 進軍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戰線이 교착되거나 冬將軍에 밀려 后退하는 一進一退의 東部戰線이었다. 北의 레닌구라드에서 모스코바를 지나 남쪽의 스탈린그라드를 있는 선에서 독·소는 死鬪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들 3대 도시에 突入못하는 독일군은 射程거리가 어마어마한 長距離砲로 砲彈만 퍼붓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보도 되었었다. 이때의 보도는 주로 日本 朝日新聞의 名特派員(失名)의 現地發 통신에 근거하였는데 그 眞偽의 정도는 모르겠다. 이 特派員의 그 뒤의 스탈린그라드 獨軍의 大敗走기사는 紙價를 높일만한 現場感 躍動하는 것이었다. 이 決戰의 結果는 東部戰線의 戰勢를 逆轉시킨 大分水嶺이 되었고 2차대전 終幕의 豫告였다.

예나 지금이나 靑少年은 時流에 예민한 법, 그래서 우리들이 長距離砲라는 nick name을 증정한 선생의 강의 내용이 筆者에게는 “誇大風”이라는 미움보다도 애교있고 수업효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었고, 악당들의 “탕, 탕”의 소란을 마땅치 않게 느꼈다. 人文地理의 수업을 교과서를 읽어가는 식으로 하고 暗記 위주로 하면 얼마나 無味하겠는가? 여기에 선생의 강의 요령을 몇가지 기억해 내기로 한다.

美口의 五大湖地方의 工業에 관한 수업이다. 五大湖地方이 工業地域으로 發展된 사유에 대한 定石的인 說明을 마친다음, 地誌에 들어간다. Chicago에 대한 교과서의 說明의 하나에 食品(肉加工)工業에 관한 항목이 있다. 선생의 강의는 이렇다. 그때 내(선생)가 代表的인 工場에 들렀었는데 쇠매의 우름소리가 어찌나 큰지 놀랐었다. 바로 지옥의 소리가 그런가 했었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소를 도살장으로 몰아넣는 곳이었다. 이곳이 工場의 첫 入口인데 들어가 보니 大型길로틴이 무수한데 덜컹 덜컹하는 소리에 소머리가 떨어져 나가더니 갈구리가 천정에서 내려와 머리 떨어진 소 몸뚱아리를 잡아 올려서 썩 운반하더니 썩 썩하면서 개봉이되고, 콘베이어를 타고 내장이 分離收去되고, . . . . .

한 시간 후에 공장 출구에 와보니 쇠고기 깡통이 기다리고 있더라. 깡통 하나를 기념으로 갖고 나왔는데 入口에서의 울음 소리가 그 깡통속에 갇혀 있어 깡통을 따면 그 소리가 새 나올 것 같아 딸 수 없더라.

또 Detroit의 自動車工業에 대해선 교과서의 年產 몇 만대라는 字句를 이렇게 說明하는 것이다. 나는 제철소에 왔나 했었다. 발전소에 왔나 하는 착각에 빠질번도 했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서 찾아 갔는데 공장 입구엔 무수한 가닥의 철도가 깔려 있었는데 화차마다 철광석, 석탄, 석회석이 가득 차 있었고 日本 야와다(八幡) 제철소에서 본 것과 같은 용광로

가 우뚝 우뚝 솟아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화력 발전소가 있었다. 용광로에서 철이 생산되었는데 다음 段階에 갔더니 철판이 되어 나왔고,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더니 철판이 종이가 찢어나오듯 찢려 나왔고(shearing), 다음 기계에 옮겨서 다시 덜커덩하더니 문짝이 되어 나오고, . . . . . 공장 뒷문쪽으로 갔더니 뻥적 뻥적한 세단차가 쉴새없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차에는 어깨띠를 한 금발머리의 美女마저 타고 있어서 철판에서부터 자동차까지라는 巨大한 조직의 一貫作業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금발의 美女는 어느 공정에서의 生産品이며 그 자동차와 함께 파는 상품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판촉녀이며 비매품이라 하더라.

또 그가 미국에 갈때는 太平洋橫斷의 호화선 鎌倉丸(?)을 타고 갔었는데 하면서 호화선의 내용을 說明한다. 室內 冷温水 pool장이 어떻고, 함흥극장보다는 훨씬 크고 명보극장 정도는 되어 보이는 영화관이 어떻고, 선실은 제일 못한 곳도 함흥의 最高級 旅館인 松月旅館보다 월등 고급이며, 식당에서 洋食시켜 먹는데 애까나 썼다고 그럴듯하게 說明한다. 給事長이 소위 메뉴라는 料理品目表를 갖고 와서 注文을 받는데 料理이름을 알 수 없어 예라 모르겠다 하고 둘째 페이지의 첫번째부터 내려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다섯개를 손으로 가리켰더니 洋人 給事長이 이상하다는 얼굴로 떠나지 않고 재차 확인하는 시늉을 하기에 호기있게 그렇다고 했단다. 그랬더니 갖고 온 것이 모두 국물이었다고. 卽 메뉴엔 애플타이저-(前茶), 스프, 본식, 후식, 음료의 순으로 적혀 있는데 용기를 낸다는게 그만 스프만 다섯가지 시켰으니 망신천만이 없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는 그러나 제군은 이런 경우에 만다르면 아는 척하고 떠엄 떠엄 가리켜서 注文하라고 眞半弄半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 2. 27회의 丁基範 선배와 邊焯선배

“정기범”보다도 “데이기한”이라고 기억에 남아있는 선배, 그렇다고 해서 정선배와는 벗으로도 선후배로서도 한때나마 함께 지낸 일이 없으며 남중을 졸업한 1945年 3月 이후 먼데서나마 얼굴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 필자 머리에 남아있는 선배의 모습은 아직도 10대 후배의 紅顔少年이다. 물론 선배는 필자의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모를 게다.

1939年 어느 여름의 일요일 낮, 장소는 우리의 함흥 공회당 앞 광장, High Noon의 OK목장의 결투가 벌어졌다.

운흥리에 살고 있었던 당시 금정소학교(一普)5년생인 필자는 SAKURAGA OKA(櫻丘) 밑의 산수정의 동급생인 박승봉군 집에 갔다가 6년생인 金선배(失名)와 함께 공회당 쪽으로 왔었다. 아마 그때 공회당에서 무슨 전시회인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공회당 광장에서 우리 셋은 황금정 소학교(二普)의 한패와 맞부닥치게 된다. 우리 金상급생을 보자 “저놈이 전일에 우리에게 헹거지 한 놈이다”라고 떠드는게 아닌가. 우리 金상급생은 금정소학교에서는 제1인자까지는 못되도 알아주는 어린 주먹의 실력자였으니 있을뿐한 이야기다. 이래서 황금정의 이·삼십명이나되는 악동들은 우리 3명을 포위하는 陣을 친다. 본시 금정

과 황금정의 두 학교는 함흥의 명문소학교며, 맞수이고, 양속이었다. 그래서 황금정 학생들은 우리들의 산쪽 동네에 오기를 꺼리는 형편이었다. 굳이 텃세로 본다면 공회당 앞은 우리들의 터였는데 10대1의 열세였으니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적군에서 대표 한사람이 나오더니 우리들 보고 김상급생하고 단독대결하자고 하며 박군과 필자는 물러서게 한다. 악동들은 우리 둘을 円陣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두 대표를 외위싸고 円陣을 친다. 이 순간 부터 自意半, 他意半으로 비겁한 방관자로 전략한 박군과 필자는 숨을 죽이고 決鬪를 지켜본다. 円陣에선 “데이기 한! 데이기 한!”하는 連呼로서 성원이 대단한데, 우리 둘은 응원은 고사하고 숨만 죽이고 있었다. 이때의 적장이 丁基範선배였다. 丁선배의 용맹은 이미 그때 定評이 있었다. 싸움의 勝敗는 氣勢로서 이미 決判이 난 셈이였고, 우리 김상급생이 이겼으면 하는게 아니라 얼마 맞지 않았으면 하고,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빌 뿐이었다. 실제로 그때의 우리들의 싸움이란 주먹질 하다가 일격하여 코피를 터지게 하거나 메어치고 올라타서 두들겨 패서 얼굴에 상처를 내면 끝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兩雄의 싸움의 형태는 보통 악동들의 이와같은 닭싸움과는 달라서 서로 팔로 상대방의 목을 밀어 전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때리지도 않고 붙들고 메어치지도 않고 그냥 밀어 붙이기만 한다. 이렇게 힘 겨르기만 하다가 兩雄은 악수를 하고, 円陣은 풀리고, 싸움은 끝났다.

2년후에 南中에 입학하여 2학년의 정선배를 보게된다. 그러나 지난 공회당 광장 결투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었다. 中학교 초급학년에서 1년선배에게 느끼는 거리가 얼마인데, 더구나 이미 中학교에서도 勇名을 날리던 정선배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guadalcanal섬 부터의 敗走를 고비로 日本은 敗退의 연속이었고, 우리들은 수업중에도 공습경보로 아카시아 밑의 대피호로 대피했다가 경보해제로 교실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많아진 1944년 여름, 그날도 대피했다가 교실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대피호에서 한발도 밖으로 못나간 우리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길에 변소에서 세차게 소변을 갈긴다. 그때 필자는 창님어로 무기고를 바라보는 강당 옆의 변소에서 用務中이었다. 옆에서는 마침 건장한 정선배도 일을 보고 있었다. 그때의 학교 변소는 一列로 서서 一齊사격하는 것이니 옆사람하고는 거의 붙어서 일을 보게된다. 이때 정선배의 말: “에이! 수업하다 공습대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폭탄이 쏟아져보라지, 죽을 바에야 제일 예쁜 가시내를 붙잡고 죽든 살든 할거야!”

6·25후, 서울에 환도해서 얼마되지 않았었던 어느 해에 당시 용산 신계동에 사시던 한순현선생택에 간 일이 있다. 그때 한선생은 부산의 동창생들의 초대로 부산에 다녀오신 직후였었다. 당시로는 항공편이란 펍으나 드문 때(KAL이 아니라 KNA였었다)였는데 아마 항공편으로 往復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한선생께서 부산에서 있었던 동창생 모임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 하시는 중에

“정기범군도 많이 바뀌었더군! 재학중엔 그렇게도 wild하더니, 정말 점잖은 신사가 되었

어!”

이글을 쓰면서 이 글을 계기로 정선배와 만나,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면 했는데, 月前 作故라는 悲報를 傳聞하게 되었다. 정선배여 고히 잠드소서.

### 邊焘선배

정기범 선배를 생각할때 함께 떠오르는 얼굴이 “헨주요”라는 옛 이름이 그리운 邊焘선배다. 헨주요는 그의 改名前 이름의 日本發音이다. 학교시절, 필자의 눈에는 정선배가 東陣의 YOKOZUNA(橫綱)라면 邊선배는 西陣의 그것으로 비쳤다. 신체조건도 그랬도 leadership에서도 그랬었다. 더구나 한 사람은 황금정소학교 출신이요, 또 한사람은 금정소학교 출신이다. 그렇다, 지금 가끔 얼굴을 내미는 TV의 畫面은 그를 서구형 老音樂人이라기 보다 짧은 팬티의 농구선수를 연상케 한다. 사실 邊선배는 농구부 간사를 한것으로 기억난다. 몸도 컸으나 민첩했었던 邊선배다. 만약 그가 대학을 지나치게 빨리 졸업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중학교 시절에 球技全廢라는 暴舉가 없었다면 축구의 洪德泳선배(26회) 못지 않은 농구의 Olympic선수가 되었었는지도 모르겠다. 洪선배! Korea 최초의 Olympic戰, London大會에서 最大數의 goal을 허용하면서도 名 keeper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임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함흥시절에는 keeper가 아니었고, 8·15후 함흥에서 최초의 소련군과의 대전에서 대표선수로 뛰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邊선배는 중학교 4년 수료후인 8·15전해(1944年) 3월에 연전에 입학한다. 그 전해까지는 高等학교(舊制)나 대학예과는 4년수료로도 진학이 가능했으나 전문학교는 5년 졸업후에만 허용되었었는데 이해부터는 4년 수료로도 전문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같은 27회이면서도 8·15다음해에 월남 입학한 중학교 동기생들과는 대학에서는 2년 차이가 생긴다.

서울역전 동자동에 경성전기(한전전신)의 중·고등학교가 있었다. (지금의 대입학원자리다) 邊선배는 대학재학시절 그곳에서 그의 전공(政外)학과와는 다른 음악과의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27회의 李塨(당시 고대생, 대한 페인트 社의 상임이사 재임 중 20년전 作故)선배, 김병준(당시 연대생, 6.25와중에 行방불명)선배와 어렵게 학업을 계속하고 있던 필자는 가끔 두선배와 함께 그가 arbeit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역전의 대포 집에 함께 들리곤 하였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때 마침 전국된 제1공화국의 외무부에 들어간다. 아마 미·소 共委에서도 통역일을 하였고 그 후에 UN으로 옮겨간 금정소학교 출신의 김윤열군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외무부주사가 아니었나 한다.

6·25후에 밥풀하나 붙인 필자는 당시의 軍都 대구거리에서 계다짜의 변형을 만난다. 통역장교 변중위로의 변신이였다. 얼마 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주의 육군병원에 그가 친척을 찾아 왔을 때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제주도 모슬포의 육군훈련소에 근무중이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는 아직 환도 이전이었으니, 이도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옛 이야기다.

그후 외무부에 복직하여 당시의 몇 안되는 외국 공관에 나가 있다는 소식과 그때의 유명한 주 총영사 밑에서의 難修業은 가끔 우리들의 화제가 되었다. 건국초기에는 우리 在外公館은 개수에서나 규모에서 매우 미미했으며 외국주재 외교관으로는 동경의 주일공사(柳), San Francisco의 주 총영사가 특히 유명했었다. 경무대와의 직결로 물의도 많았고 실력자로서의 명성도 있었는데 특히 주 총영사는 부하직원을 대하는데 엄한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는 評判이었다. 그후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을 번갈아 가면서 외교관으로서는 꽤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邊선배의 관운은 그리 신통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흔한 재외공관장 자리에도 본부 국·실장자리에도 任命되었다는 消息이 없어 안타까웠었다. 그 새 후배인 연하구(30회), 주동운(29회)은 국장, 대사를 거쳤으니 학교뿐만 아니라 外務部의 선배이기도 한 邊선배는 후배들에게 추월당한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邊선배는 외교관 옷을 벗더니 다시 음악인으로 변신, 아니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후의 近況은 독자가 TV에서 심심치 않게 接하고 있는바와 같다. 그가 다시 음악인으로 복귀한 후, 얼마 안되어 TV에서 성악가 오현명이 설명한바와 같이 지금은 작곡가로 알려졌으나 중·고교 강사시절을 전후해서 성악에도 정진하였었다. 만약, 외교관으로서의 外道(?)를 하지 않았더라면 바리톤 邊焄이 우리앞에 있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송의여자전문의 바리톤 邊成燁후배(30회)가 그의 동생이란 점을 생각할 때, 필자의 추측은 과녁에서 그리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의 대표작 “떠나가는 배”의 선율을 들을 때 마다, 사변때 제주도 육군훈련소의 석양의 해변에서 조각배를 바라보며, 전란의 본토를 생각하고 또 멀리 서호진의 작도리를 그리면서, 작곡의 상에 잠기고 있었을 게다작의 邊선배를 망막 위에 그리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TV 화면에서 연대동문인 작고시인 楊明文에게서 詩을 받아 작곡한 시기가 그 훗날이란 것을 듣고서는 공연히 섭섭하였다. 邊兄! 건강하소!

### 3. 육사와 우리 동창

8기생 수석졸업생은 누구인가?

제2공화국을 무도하게 무너뜨린 5·16의 實質的인 主體勢力이었던 육사 8기생, 육사 역사상 最大인원인 ○○○○명, 네자리 수나 되는 8기생중의 수석졸업생은 누군가? 8기생들이 한창 설칠때 월간잡지의 8기생 특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졸업식 전날까지도 수석졸업생, 그러니까 졸업식때 영예의 ○○○○명 총대표가 되는 主人公은 평양의전 중퇴인 李永根生徒(5·16후, 共和黨 사무차장등 要職歷任)인줄 알았었는데 졸업식 날 아침에 보니 다른 李아무개였다.”

27회 선배중에 邊焄兄과 함께 4년 수료후 경성의전에 진학한 이현영兄이 있다. 그는 재학



중에 반장도 한적이 있다. 8·15후에 문리대 영문과로 전학한다. 의전(醫專)에서 영문과로의 전학, 전과는 오늘날 학교로서도 同一系列이 아니면서 허용 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으로서도 Copernicus的인 大轉換이 있을 수 없겠으나, 8·15당시는 唯一한 學部인 서울文理大(舊 京城大學)에서 日人學生이 떠난 후의 자리를 메우자니 여타 전문학교 재학생을 학년을 조정하여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개인 立場에서 볼때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우선 日軍의 징병을 면하자면 재학기간 4년간의 징병연기(전쟁 말기에는 의학계 以外の 학과에는 징병연기제도가 철폐되었었다)에, 졸업후에도 비교적 생명의 안전도가 높은 군의로 임관된다는 관점에서 의사로서의 立身엔 뜻이 없었으면서도 方便으로 의학계에 진학한 학생도 있었으니 의전에서 영문과로의 전학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英文科로 옮긴 李선배는 하루 하루의 苦된 勉學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듯 하였다. 한때는 당시로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웠던 渡美를 꿈꾸고 여러방면에 알아보았고, 다음은 중국대륙에의 留學도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륙의 판도가 바뀌어 藏介石의 國府軍은 徐州大會戰以來, 敗走에 敗走, 그래서 李선배의 海外에의 꿈은 좌절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육사 입교의 소식이 있었고, 졸업, 임관, 육사교장 김홍일장군의 부관으로 보직되었다고 傳해졌다. 이때 수석졸업의 이야기와 함께 수석입학의 2冠王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때가 1949年이었고, 다음해엔 육사동기생 중에서 최초의 진급자에 끼어 중위로 진급했었는데 그의 숙소에는 대학시절의 환경(그때 우리들 失鄉학생의 평균적인 생활환경은 지금으론 상상키 어려운 劣惡 그대로 였다)과는 판이하게, (sofa를 들여놓고, 주말에는 여대생과의 dance party도 한다는 등...)개구리 올챙이때 시절을 모른다는 등 조금은 질시섞인 비난도 들렸었다.

#### 4. OB전과 두 명학선생

rival이면서도 착한 맞수가 영생고보(영생중학)다. 많은 중등학교 속에서 우리들의(日人학교 아닌) 人文중학으로는 공립의 우리와 사립의 영생의 두 학교 뿐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교사간의 교류도 많았고 같은 소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도내 운동대회 때는 양교의 대항이 늘 인기였다. 縮小版 연·고(고·연)전 格이었다.

현역의 대항전 만이 아니라 OB의 축구전도 人氣이며 可觀이었다. 이 OB축구전은 주로 여름에 개최되었다. 여름방학에 유학생(서울 및 日本 각지)이 돌아오면 유학생을 主軸으로 해서 한판 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OB전이라고도 하지만 최근의 졸업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 team 정도의 평균 연령에다가 얼마전 까지만 해도 현역으로 중학교 대항전에서 맞붙었던 일꾼들이었다. 그런데 두 team엔 각각 1명의 異端者가 固定 member로 끼어 있었다. 金明學, 崔明鶴 두 醫學博士다. 두 명학氏다. 金박사는 함흥고보(2회) → 경의전(현 서울의대), 최박사는 영생고보 → 세의전(현 연세의대)을 거친 모두 外科의 開業醫다. 開業場所도 김박사는 北村이라 할 수 있는 군영통 거리이고 최박사는 南村이라 할 수 있는 서민의 동네다. 체격도 김박사는 短軀의 秀才型인데 최박사는 長軀의 丈夫型이다. 어쨌던

두 박사는 같은 名 外科醫라는 共通点外에는 여러面에서 對照的이다. 20代의 현역출신 OB 선수 사이에 40代後半의 두 박사가 끼어 있으니 이 OB전은 勝負도 勝負거니와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시합이 잘 進行 되어가다가도 공이 두 박사 앞으로 가면 시합의 흐름이 끊어진다. 좀 심한 表現이지만 김 박사의 경우는 공이 앞으로 와도 받아 차지 않다가 공이 굴러가다 서면 쫓아가서 차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박사는 전국 축구협회(당시)에서 이름이 있는 분이다. 함흥축구단의 后見人 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함흥축구단은 몇년인가 전국 도시 대항전에서 연속 우승한 전국 최강의 team였으니 말이다. 京平戰 하지만 그 뒤에는 함흥이 우승했고, 청진 team도 京·平에 버금하는 team으로 頭角을 나타내고 있었다.

8·15后 두 박사의 처지, 또한 對照的이었다. 日帝下에서 社會的活動이 旺盛하여 비교적 日人들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김박사에게는 고된 試練期였었고, 日人과의 거리를 두었던 최박사는 세의전에서의 교편경력(해부학)도 있고 해서 관북 唯一의 전문교육기관인 함흥의전의 책임자로 영입되는 등, 활동범위가 넓어졌었다. 6·25后 김박사는 흥남철수 때 월남하여 서울에서 소규모 의원을 개업하는 한편 한때는 축구협회, 승마협회 등에 관계하다 作故하였고, 최박사는 서울이 북에 의해 점령 당했던 50년 여름에, 서울로 와서 아들(8·15후 월남, 서울서 면학)을 데리고 다시 돌아 갔다 한다.

이 OB 축구전이 꼭 한번 서울에서 있었다. 60년대 초의 우리 동창회는 영생중학교와 같은 곳에서 모였고 각각 동창회를 마친 후, 서울중학교의 교정(지금 시민공원)에서 고향의 학교시절을 상기하면서 한판 붙었다. 고향에서는 경쟁의 맞수였으나, 어려운 오랜 타향사리에서 이미 같은 학교의 동창 以上으로 生業·生活面에서 친숙해진 永中과 南中の 우리들이기에 戰意의 시합이 아니라 진정 친목의 시합이었다. 실제로 필자는 시합을 끝내고 永中출신 老신랑의 결혼 피로연에 참가하여 담소했었던 기억이 난다.

後續同窓生이 없는 우리들 同窓會, 이젠 이 OB전을 하려면 회갑넘긴 선수 아닌 선수의 시합이 되겠다. 김박, 최박의 珍技, 妙技는 저기 가라는 comedy戰이 되리라. 그러나 뛰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공차기가 될지언정 고향 하늘 아래에서 老人戰을 하고 싶다. 언제가 되려나!

## 미움과 사랑의 歲月

韓 炯 周 (28回)

생물학 수업이 끝나서 책과 공책을 접어 가방에 넣고 있는데 사까다(佐方)선생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꾸야마(일제시대의 나의 姓)군, 도청(道廳)의 고등계(高等係) 후루야마(古山)형사가 부르고 있으니 지금 곧 가 보게.”라는 말을 남기고 교실을 나갔다.

학우들과 나는 할 말을 잃고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시선만 교환할 뿐이었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체념으로, 말 못할 공포감에 하늘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책가방을 짝에게 부탁하고 혼자서 교문을 나와 도청길을 걸으면서 멀어져 가는 학교건물을 뒤돌아 보니 이제는 학업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절망이 엄습해 왔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눈앞에 닥친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몸서리치는 고문이 상상되고, 살아서 병신이 되지 않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제대로 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다.

당시의 내 나이는 열 여섯. 함남공립중학교(咸南公立中學校) 3학년 재학중의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라, 전세를 회복한 미국은 태평양의 잃었던 섬들을 하나씩 다시 탈환하고 일본의 본토에다 폭격을 가할 때였으니, 일본으로서는 패색(敗色)이 짙어 안간힘을 다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다.

우리들 중학생도 학교의 수업은 전폐하다시피 하고, 상급생은 근로봉사라 하여 일년에도 몇 번씩이나 한 달 동안을 연포(連浦)나 선덕(宣德)의 비행장에 끌려 가서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 연약한 어깨에 딱딱하게 군살이 박히도록 심한 목도질에 동원되었고, 하급생들은 송탄유(松炭油) 생산에 동원되어 소나무 뿌리 캐기작업에 끌려 다녔다.

학생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느 포로수용소의 비참한 포로를 연상케 하는 환경이었다.

선덕비행장에서 한참 목도질에 지쳐 있던 어느날,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남쪽 하늘에 B-29의 폭격기 편대가 나타났고, 그 편대는 유유히 상공을 날아서 흥남(興南)쪽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그 곳에 있던 일본 해군의 영식(零式)전투기는 뜨지도 못했으며 어디선가 쏘아 올리는 고사포탄은 폭격기 편대의 훨씬 아래에서 평평 소리내며 터지기만 하였다.

그날 밤 숙소인 격납고(格納庫)의 마루바닥에 누운 나는 나의 짝인 이와모도(岩本)군(한국 이름을 모른다)과 함께 담요를 쓰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우리의 옆자리에 누어 있던 아께모도(朱本)군이 우리들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가까이 하고는

“너희들 우리나라의 국가(國歌)를 아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에 두려우면서도 감격스럽고 흥분되어서 이성마저 잃고 말았다.

원래 우리들 몇몇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일본이 곧 망한다느니, 이승만, 김구라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힘차게 하고 있다느니, 또는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독립하여 떳떳이 살 수 있다느니, 아무런 말이라도 서슴없이 하며 지내는 사이인지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 하였다.

나와 이와모도군은 즉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며 그가 불러 주는 대로 애국가를 베끼고 작은 목소리로 「울드랭사인」곡에 맞춰서 감격에 넘쳐 합창을 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서 자던 친구들에게도 금방 반응이 가서 그들도 벌떡 일어나 눈을 부비고는 베끼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옆의 친구들도, 또 옆으로 해서 순식간에 소동 후의

격납고 속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용솟음치고 우리의 애국가는 우리들 어린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끝내는 서로 흥분을 가누지 못하여 나와 몇몇이 선창을 하고 일대 합창이 되고 말았다.

그때, “시끄럽다!”는 일본군인 반장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 모두가 자리에 뛰어 들고 잼싸게 소등을 하였지만 우리들은 그날 밤 잠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본군인 반장은 아마도 학생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슬퍼서 졸업식에 부르는 「호다루노 히카리」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라 여겼는지 “노래는 그만 부르고 잠이나 자라”고 비교적 부드러운 한 마디만을 남기고는 우리들에게 별다른 별은 주지 않았다. 그가 우리의 국가를 알리 없었다.

선덕비행장에서 돌아와 다시 학교 수업이 시작되지 며칠이 안 되던 어느날 나는 학급에서 세번째로 고등계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아께모도, 이와모도 다음으로.

도청 고등계에 들어서서 후루야마 형사를 찾으니 그가 담담한 표정으로 나를 안내한 곳이 바로 취조실이었다. 얼굴이 넓적하고 머리는 뽀뽀 깎여지고 양미간에 상스러운 주름이 잡힌 험상궂은 사람이 책상너머로 턱을 치켜들고 앉아있었는데 나는 그의 앞에 앉혀졌다.

공손히 인사를 하니 그는 밀도 끝도 없이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란다.

나는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짐작은 했으나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고 통하지도 않을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이 새끼, 혼이 나야 알겠어!”하더니 옆에 있던 목총(木銃)으로 나의 어깨를 내리쳤다. 나는 몇 대 맞고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람인 동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반감이 나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소리치고는 큰 소리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불렀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건방지게 어디에서 그런 노래를 목청 돋우어 함부로 불러 대느냐고 호통을 치더니,

“네놈 입을 못 벌리게 해 주마.”

하고는 시나이(검도훈련 때 사용하는 대나무로 만든 칼)로 나의 양 볼과 귀 언저리를 마구 때렸다.

순식간에 귀가 터지고 입속에는 피가 고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이 자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담당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한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 한국인 형사 안(安)이었다. 창씨개명으로 야스다(安田)라 하였으며, 후에 들려온 소문에는 해방후 원한을 산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홍원(洪原)의 시장바닥에 개 끌듯이 하며 끌려 다니다가 타살 당하였다 한다.

나는 고문에 못이겨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친구의 이름을 뱉으나 끝끝내 이승만이나 김구라는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사력을 다해 버렸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 믿었기에.

저녁에 반 죽음이 된 몸을 이끌고 변소에 기어가는데 밖의 큰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팔수를 앞세우고 도열하여 신사참배(神社參拜)에 가는 행렬이 나무판자 사이로 보였다. 귀

에 익은 그 행진 나팔소리에 다정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 하나 떠오르고, 나의 앞날이 상대적으로 비참하게만 느껴져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절망에서 오는 고통을 참기가 힘들었다.

유치장에서 밤 늦게 풀려 나왔다.

아버님께서 함흥공의(威興公醫)로 계실 때라 크게 덕을 보았다.

집에 돌아오니 평소에 엄하시던 아버님이 전에 없이 한 마디 꾸지람도 안 하시고 그저 따뜻한 눈길로 감싸주셨다.

아마도 옛날 경성의학전문에 다닐 때 3·1운동을 맞아 경의전(京醫專)대표로 파고다 공원에서 군중을 이끌고 앞장 섰다가 8개월간 옥고를 치르신 원한이 이 때에도 작용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어머니는 불이 붓고 입안이 터져서 입이 벌어지지 않아 밥수저질을 못하는 나의 뺨을 어루만지시며 안타까와서 눈물만 흘리셨다.

부모님의 사랑 앞에 나는 더욱 마음이 약해져서 한없이 서럽게 울어 보았다. 이 때도 어머니의 치마폭은 한없이 따스했다.

며칠 후 학교에 나가 담임인 쓰다(津田)선생을 만났다. 일본인 선생으로 영어교사였다. 그는 반전(反戰)사상이 농후하고 불순한 죄수학생인 나를 보더니 첫마디에 “많이 맞았구나. 지금도 아프지.”하며 멍든 나의 얼굴을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 보면서 “나쁜놈들!”하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나서는 “지금 너는 몸이 아파서 공부도 안될꺼다.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어라. 학교에서는 정학(停學)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라고 용기를 주고, “그만한 일에 기가 죽어서는 안돼.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라며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나를 격려해 주셨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 사람은 일본사람인데 왜 지금의 나를 이토록 이해해 주고 오히려 격려해 줄까, 하는 의문을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모든 일본인선생은 물론이고, 한국인선생 중에서도 친일(親日)에 젖은 선생님들까지 나의 행동을 나무라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눈초리를 보였는데, 유독 담임인 쓰다선생만은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 주고 나무라지도 않고 마냥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감싸주니, 너무나도 무섭고 외로운 나에게 선생의 존재는 유일한 희망이고 무한히 고마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살벌하기만 하고 증오와 멸시의 눈초리 만이 곤두서 있던 일제시의 공립중학교 시절의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따뜻한 사랑을 지닌 선생님의 존재는 언제나 모든 학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쓰다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매를 때린 적이 없었다. 「천황폐하」소리만 나도 누구나 겁에 질려 차렷자세를 취하던 판국에 선생님만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발을 모으는

시능만을 하셨다.

일본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을 하다가 현장을 들켜도 못 본 척 하셨다. 다른 선생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의 키는 육척 정도인데 후리후리하게 균형이 잡혔고, 얼굴은 웃이마가 벗겨졌으며, 다갈색인 옆머리는 제법 있었고, 코는 오뎅하고, 눈은 꺼지고 안경을 끼셨는데, 누가 보아도 한눈에 몽고리안이 아닌 서양사람의 피가 흐른 것을 알 수 있다.

영어를 할 때에도 잇도(it), 잣또(that)하는 일본식 발음이 아니라 정확한 영국식 발음이었다.

소문에는 일본사람과 캐나다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고 들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학력은 오오사카 외국어학교 출신이었는데 어찌하여 한국까지 나와서 함남공립중학교의 교사가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의 존재가 고맙게만 느껴졌다.

나의 중학 4학년 중 3년간 쯤다선생의 담임 덕분에 선생의 사랑을 많이 받고,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사하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회고해도 선생은 나라를 초월한 진정한 교육자였다고 존경하고 있다.

다행히도 3년 전, 서울로 70세가 넘으신 선생님 부부를 모셔올 수 있었고, 그 때의 동기 동창 약 20명이 마음으로부터 사은(謝恩)의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음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그때 나에 대한 선생님의 부탁 중의 하나가 “서울대학 캠퍼스를 보여달라”는 것이어서 나는 새삼 교육자이신 선생님의 얼굴을 살피고 또 한번 우러러 보았다.

허름한 구두를 신고 계시기에 명동의 구두점에서 두 켤레의 멋진 구두를 사 드렸으며 사모님에게는 한국 특산물인 자수정 반지를 끼워드렸다. 나의 살림집 안방에서 저녁식사를 정중히 대접하고, 서울에 체류하신 3일간 나의 차(車)로 관광안내를 해 드리고 노환(老患)으로 수척해진 선생님의 몸에 청진기를 대고 나의 성의를 다해 치료도 해 드렸다.

그때 진찰을 받으시고 나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 박사, 고맙소.”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하시던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한국을 떠나실 때에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김치”를 한 통 선물해 드렸다.

일본에 도착하셔서 나에게 주신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찬양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는 끝머리에, 이제 인생의 황혼인데 금번의 한국 방문으로 편만한 마음으로 저 세상에 갈 수 있게 됐노라며 흐뭇한 마음을 적어 주셨다.

그 다음해 봄, 마당에 목련 꽃잎이 한잎 두잎 떨어지던 날 선생님의 타계(他界)소식을 받았다.

미움과 사랑의 세월은 흘러만 간다.

## 해외에 사는 사람들

김 순 욱 (29 회)

십오년전 내가 미국으로 이사 한다니까 어느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민하면 국제거지가 된대」 「미국 시민이 되어도 결코 미국의 주인은 될 수 없을 걸」 이 두마디는 늘 내머리 한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지금 국제 거지의 위치에 있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 주위에 있는 한국분들은 평균의 미국인들보다 더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좋아하고, 철학이 깊고, 근면하고, 그리고 수입도 많다고해도 강변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들을 어려서 부터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심어 주려는 노력을 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삼백만 동포들이 다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앞날이 비관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을 제이의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자기만 알고 인색하다는 뜻도 있는 반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 이미 어떤 이민 일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앞으로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구석 구석에서 인종 편견과 분쟁이 계속 되지만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인류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四海之內階 同胞라는 개념이 커져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국제 거지라는 어휘는 다분히 심리적인 관점을 지칭하는 듯 싶은데 이 말을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모양새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과 수모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통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백인이 건설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통을 겪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하는 점에서는 그 말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동네 백인들이 모여 포커를 한다고 초대받아 갔는데 그들의 심한 농담에 함께 끼여들지 못할 때, 거창한 파티에 갔을 때 도무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안절 부절할 때 나는 바로 그 국제거지가 되는 순간이라고 느끼면서 그 친구의 말을 되 씩습니다. 또 한편 가령 나의 논문 때문에 직장의 상사가 백인들을 놔두고 언짢은 영어로 하는 나더러 어느 전문 그룹의 인사들에게 강연하기를 권할 때는 나는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톱에 올라선 바이올니스트 정경화는 한국 TV 면담에서 이 나라는 능력으로 정당히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지로 산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꼭 국제 거지가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거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러구 보면 각자의 능력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또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쓸개빠진 소리라고 할른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에서 몇 십년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애국자라고 자처하지도 않지만 이것은 나라 사랑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나같이 권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은 결코 서울에서도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던 게지요. 일본에서 발간되는 매우 이성적이고 민족적인 역사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후예의 지성인들이 우리 민족의 진로, 문제점 같은 것에 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어느 구절에서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구 절절이 다른 민족과의 평화스러운 공존 문명과 사회에의 기여를 말합니다. 내 눈에는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부류의 사람들은 대권을 쥐어 보겠다고 뛰는 정치인들의 일이 지 나 같은 평화적인 한소시민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상론적인 말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로만 들립니다. 우리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 오래 살아 와서인지 심하게 혼혈된 서구의 민족들과는 생각이 다를런지 모릅니다. 어느 유럽에서 온 이는 피가 많이 섞일수록 사람은 진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귀에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비교적 단일 민족이라는 아세아 국가 어느 나라치고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희귀한 성씨들은 옛적에 북방 혹은 중국 민족들의 피입니다. 그들은 다 한국 민족으로 동화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동양의 집주인은 호주로 되어 있고 서양에서는 부부가 공동 집주인입니다. 그 외의 가족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은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들입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 오면 가족들은 집주인으로서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 집 주인인 셈이고 그 외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외적이 침입하여 총을 들고 싸울 때 그들은 국민으로 싸우는 것이지 주인으로서 생명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갑자기 주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갔든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마땅히 국민에게 있어야 했지만 정치 현실은 민주주의가 실천된다는 국가들에서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그 친구의 나라의 주인은 이 주권이라는 말과도 뉴앙스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국가의 국민치고 이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하고 느끼고 사는 이가 몇이나 있을런지요.

며칠 전에 “지구의 날”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가, 환경 수호가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발 벗고 나서서 공해를 막으려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일본의 아쿠다가와 문학상을 받은 한국인 이회성이라는 한국인 이름의 문학가가 어느 일본의 대학 문학부에서 강연한 글을 읽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는 가라후도에서 자라면서 그 절망과 슬픔에서 어찌 자라나고 문학을 씩 티웠는가를 자랑스러움도 스스럼도 없이 담담히 이야기하고 청중들에게 감명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분이 문학가로 성공해서도 아니요, 그 심한 일본인들의 차별과 멸시속에서 거지 근성으로서도 아니요 그냥 담담하고 평온한 인간으로서의 이회성씨가 다른 민족인 일본인에게서 존경과 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거지도 아니요, 나라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저 인류의 한 일원일 뿐입니다.

## 학창시절의 추억 몇토막

### 金載範(29回)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한강 건너 노량진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셋방입니다. 나는 소설을 쓰는 작가도 아니며 시인도 평론가도 아닙니다. 나는 언론인입니다. 가담에 나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포출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글줄을 쓰는 신문 기사를 했으면 고관 대작(?)들에 못지 않게 고대 광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천적으로 현실 적용 능력이 워낙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60이 된 지금까지도 달동네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글픈 이야기 부터 시작하는 데는 그 나름의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이나 학우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 싶이 우리가 함남중학(함흥교보)을 다닐때 우리에게 代數와 幾何를 가르쳐 주신 한순현선생(본명: 한장의 선생님)과 6·25동란이 나서 1·4후퇴 당시 釜山 水晶洞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한선생님을 만나 한선생님과 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선생님은 용산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셨고 사모님과 단둘이서 단칸방 살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술상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선생님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글쎄, 너 이시무라(石村)가 아니냐. 너 고향은 함흥은 아니지...” 이시무라란 일제때 창시개명한 이름이 였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단천(端川)입니다” “응, 그래” “선생님 왜 우리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이녀석아,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께서서는 일본 가계야소오이지”의 代數와 幾何를 끝이 끝대로 배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方程式대로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교과서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교과서적으로 성격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융통성이나 유연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영생고보나 함농출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웨이브’가 있고 탄력이 있고 友愛가 넘쳐 흐릅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를 대이시고 곧게 바르게 길렀으되 성격적으로 왜소한 사람,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머리가 좋은 것만 믿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 녀석아! 그것이 교육하는 스승의 자세가 아니냐? 이 녀석이 함부로 선생께 대드는 거냐”고 정중하게 그러나 애교(?)있게 받아 주셨습니다. “너 재범이라고 그랬지, 이 녀석아! 이 한장의는 너희들을 옳게 바르게 길르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작(?)이 였나보다”라고 꺾꺾 웃으면서 “재범아! 제발 너희들은 나를 닮지 말고 사나이답게 씩씩하게, 자유롭게

자라다오”하시면서 “그런뜻에서 이번에는 큰 잔으로 한잔하게”하셨습니다. 사제 시간은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일화를 굳이 공개하느냐 하면 함남중학(함흥교보)출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만 낙제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추후도 후회를 하지 않고 다시 꿈꿨던 학창시대로 생각을 돌립니다. 제가 단천에서 소학교(보통학교)를 졸업한 때가 바로 太平洋전쟁이 시작됐던 1941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8명의 크라스메이트와 4명의 선배가 함께 함남중학을 지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합격하고 11명은 불합격, 그뒤 영생중학쪽으로 시험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수험번호는 565번입니다. 그 당시 소화정(昭和町)에 위치했던 함남중학교 교문에는 엽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문을 지나서 약간의 고갯길을 지나서 합격자 발표를 봤을 때 나는 합격의 기쁨에 열광했고,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1학년 丙組에 적을 두게 됐습니다. 학우들은 거의가 錦町小學校나 黃金町小學校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같이 변두리사군출신 학생들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저따네는 공부를 하느라고 우쭐했는데 1학년 1학기의 성적표를 받아보니 석차는 43등이었습니다. 그때 1학년은 甲, 乙, 丙 3조로 150명이 었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소학교때엔 으레 1,2등이었는데 어린 가슴에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함남중학(함흥교보)엔 ‘천하의 수재’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그나마도 상위권에 들었으면 다행이라고 自慰했습니다.

더욱이 기억이 새로운 것은 저희들 1학년생에게 함남체전때 응원가를 가르쳐 주시던 변훈(邊焄)선배는 그 목적인 ‘바리톤’으로 교모를 손에 잡고 흔들면서 우리의 기세를 돋구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머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변훈선배는 8·15해방 직후 自由당 시절, 그러니까 卞榮泰외무장관, 曹正煥외부차관때 외무부정보국 정보문화과(보도과)에 근무하셨습니다. 대인관계가 너그러우신 변훈선배는 검은나비타이를 늘 매고 다니는 신사였고 외무부 출입기자들과 늘 어울려서 형제지간의 사랑과 정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남중학의 선·후배란 血脈과 情誼가 통해 있었기 까닭입니다.

또 한가지 기억나는 일은 제가 4학년때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흥남질소비료 공장으로 근로동원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그때 本宮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경성제대(京城帝大) 예과생들도 동원되어 저희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팀에는 일본인 예과생이 한분이 있었습니다. 짙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밤 근무중 너무도 무료하기에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선배께서는 어느 중학교를 나왔소?” “나는 용산중학을 졸업했네”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했지만 속으로는 “이 바보녀석! 네가 일본 사람이니까 城大예과에 들어왔지, 한국사람(조선사람)이라면 턱도 없지”하

고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城大예과는 우리의 동경이었으되 합격이란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城大예과생 세분이 저희들 기숙사(寮)로 찾아 왔습니다. 한분은 鎭南浦고보를 나오신 분이고 다른 한분은 경북고를 나오신 분이었고 또 한분은 일본인학교인 釜山中學을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釜山中學을 나온 예과생은 오늘날 서울大 사회학교수로 그 이름을 떨친 黃性模교수입니다. 우리는 어느날 황성모선배와 화양정에 있는 저의 학우집으로(하루 우가)를 나갔습니다. 넓고 넓은 과수원의 한 모퉁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묵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술병을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술이 펍 귀했는데 밀주(그 당시 아라이라고 했음)를 몇병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螢雪時代’ ‘受驗旬報’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학, 인생, 문학작품, 음악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황성모선배(?)는 경상도 사투리로 “함흥고보학생들이 멋지고 똑똑하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오늘 제군들을 만나 이야기 해보니 과연 멋지다……”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술이 만취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의 사춘기에 불을 질렀던 ‘金色夜사’를 함께 합창 했습니다.

‘아따미노 가이간 산보스루, 간이찌 오미야노 후따리 쓰레, 도모니 가따루모 교오가기리……’

더욱이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1학년때든지 2학년때든지 잘 분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漢文을 가르쳐 준 日本立命館大學출신 세끼미즈(關水)란 젊은 ‘총각선생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어느날 벚꽃이 만발한 앞교정에서 한문을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에게 第一高等學校의 寮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아, 교꾸하이니 하나 우께데”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납니다.

‘아아 교꾸하이니 하나 우께데, 료꾸슈니 찌기는 가게 야도시 지안노 유메는 후께리다루, 에이가는 지마도 히꾸꾸미데 무꼬오가 오가는 소소리다쓰, 고료노 겐지 이끼 다카시’ 그 선생은 저희들 학구열에 불을 질러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전한 한더라도 일본신문의 한국특파원들과 교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일본경제신문 서울지국장인 ‘구니야수 도구마루’씨의 생일날에 초대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NHK의 무로야마 毎日신문의 요시오카 다다시 西日本の 곤도오히도시등 쟁쟁한 신문기자들이 었습니다.

나는 술이 거나하게 되자 “이봐, 제군들, ‘아아 교꾸하이니 하나 우께데’를 아느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깜작 놀라면서 “긴상, 어떻게 해서 제일고등학교의 요가까지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실례지만 일본서 어느학교를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목에다 힘을 주면서(?)”나 이래봐도 제6고등학교-岡山고등학교출신이야”

“그 다음엔” “아까몬(赤門 東京帝大)을 가려다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8·15해방을 맞은 때문에 못갔지” 그들은 내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는 ‘맥주 그라스’로 가득가득 정종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들은 호연지기(?)에 넘친 나의 무모한

태도에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6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유창(?)한 일본말 솜씨로 보아반신반의(?)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의 각본은 이러합니다. 저의 단친의 남중선배였던 김형락씨가 제6고등학교를 마친뒤 東京大學에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을 흉내낸 것입니다. 선배님들이나 학우들께서는 저의 이 선의의 거짓말을 애교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白線帽에 미쳤고 최대의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되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달동네 셋방살이는 대학예과생이나 고등학교학생들의 료오(寮)생활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어린시절, 그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철학을 논하고 문학과 인생을 논하면서 밤을 지새웠건만 저의들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그 낭만을 끝내 맛보지 못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가리늦게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단칸방에서 이글을 쓰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 한순현선생님한테는 원망스러운(?)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혹은 부산, 대구에 살면서 명문교인 경기, 경북, 경북, 경남, 평양, 광주고보출신등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함남중학교의 교가를 일본말로 부르면서 자랑합니다.

“히가시노가다 미하루가스, 우나바라 도우꾸 아게 소메네, 아시다노 히자시 하나야카니, 노조미노 히가리 미나기리누”

## 마라톤 경주(競走)

金在楨(29回)

“당신께서 명사(名士)로 선정되어 우리 회사의 제한된 출판물에 실리게 되었으니 질문 서류를 기재, 회신하여 줄 것과 출판물의 구매는 조건부가 아니지만 기한내에 선불하는 경우 할인이 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송금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종종 받게 된다.

유식층을 노리는 출판업자들의 상술(商術)이라 생각되어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상습(常習)이 되었지만 한 곳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충고나 조언을 실어준다 하기에 응답하고 말았다.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좀 더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독재사회에서의 체험들로 다음과 같이 쓰게 되었다.

Any dictatorship(proletariat or bourgeoisie) has to disappear in our civilized society. By means of communication(conversation), we must try to understand each other in order to have peaceful democratic society. In some aspects, I'd like to say that human life is a marathon race. You have to keep running at your own pace with much patience and endurance. Never give up and continue to run for your ultimate goal!

인간의 사고방식은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다 함을 생각할때 평탄하지 못한 환경(일본 제국주의 독재, 공산주의 독재, 자본주의 독재, 그리고 해외생활)속에서 살아온 나의 소리를 현 세대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게 생각된다. 어린시절 나는 달리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중학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늘 자기 학교를 대표하여 장거리(마라톤) 경주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주에 참가한 것은 6.25사변이 일어나던 전 전해,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6대학(六大學) 경기 대회에서 였다. 그 후에는 6.25사변 후 피난생활, 군복무생활, 투병생활등으로 오늘날까지 달릴 수 있는 기회라고는 없었다. 오래 전부터 길가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언젠가는 다시 달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지난해(1988년) 7월 4일 까지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내가 살고있는 동네에서는 해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이면 2마일(mile)의 거리를 경주하는 행사가 있다. 한해 한해 미루다가 지난 해에는 반드시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2마일 달리기란 어린 옛 시절에는 순식간에 달릴 수 있는 거리였지만 수십년 동안 중단하였던 일 이기에 자기의 현재능력을 알 수가 없어 여러가지 공상에 잠기게 되었다. 혹시 도중에서 기권(중단)하게 되거나 않을까 또는 어린시절 때와 같이 모든 미국인들을 물리치고 선두를 달리게 되거나 않을까—이런 저런 생각을 하여 보았다. 출발점에 출전자들이 모였을때 대부분 이 후반기 10대에서 20대 젊은 사람들이었고 간혹 30대 또는 40대의 사람들이 끼어 있었을 뿐 나처럼 60에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 넓은 hair band를 쓴 관개로 하반부의 검은 머리만 나타나 미국인들이 내게 관심을 돌리지 않는 듯하여 마음은 편하였지만 이런 어린 사람들 속에 끼어서 달리는 것이 내게는 정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었다.

출발하자 처음에는 선두 그룹에 끼어서 달렸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자 곧 그날의 달리는 목표를 빨리 달리는 것에서 끝까지 달리는 것으로 변경하고는 속도를 줄이다 보니 제일 후미(마지막)라고 생각되는 그룹에 끼어 어린 10대(15세 미만)의 아이들과 같이 달리게 되었다. 그 중의 한 아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통스러워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이에게 기권하지 말고 더 천천히 달리더라도 끝까지 뛰자고 일러줄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결국 그 아이는 도중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동양인이 한 사람 끼인 것이 이색(異色)이어서인지 교통 정리하던 순경이 미소와 고성으로 나를 응원하여 주는 것이 감사하였다. 나의 뒤를 따라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는 몇사람 되지 않았지만 그날 나는 우승이나 한듯이 무한한 만족감을 느꼈고 감사하였다.

6.25사변으로 청춘시절에 잊었던 경주를 근 40년 후인 그 날에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내게는 무한한 기쁨이었다. 그 후로는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주말이면 줄넘기(jumping rope)와 5마일 정도의 달리기를 취미로 삼고 있다.

1989년 8월

## 沙 工

李正昊(29回)

①

엄청나게 드높은 하늘아래  
限없이 펼쳐지는 푸른바다의 鳥瞰圖를  
뚫어지게 지켜보는 두 눈瞳子  
거기에서 찾으리 樂譜없는 序曲의  
아름다운 韻律을

細砂가 어지럽도록 반짝이는곳  
滄波에 배 띄어 멀리 멀리 저멀리  
靑山の 그림자 외롭게 그늘지니  
고운모래 저모래위에  
넘 남기신 발자욱 하나  
또 하나 디더보련다

멀리 波濤를 向하여  
祈禱하는 女人은  
끝없는 曠野를 헤메이는 盲人이리요  
苦惱의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나그네의 설움에  
悲哀의 愛嬌를 맛보려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도 전에  
또 다른 放浪者의 伴奏소리가  
그에게 가까이 들려주며는  
憤怒에찬 검은 波浪이여  
暫時동안 焦點일랑 돌리게 하소

②

沙工의 딸은  
옛부터  
꽃을 讚美하는 마음을 사랑했다오  
多情한 꽃들의 對話속에서

수줍음에 가득찬 붉은 얼굴을  
결눈으로 살짝 훑쳐 봤다오

모래위에 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體溫이 느껴질때에  
女人이 집어주던 하아얀 조개껍질  
世上에 하나뿐인 所重한 것이라오  
烏鵲橋도 꿈속에서 넘어보았고  
花中神仙 노래도 불러봤다오

여보소 이내 深思 누가알리오  
나어린 靑春이라 비웃지만 마소서  
아무것도 아까운것 하나도 없이  
무엇이나 주고싶고 바치고싶고  
思慕하는 마음들이 丹粧되며는  
깨끗이 간직했던 마음의 씨를  
沙工집 女人에게 드리려하오

③

強靱한 情熱의 意志  
오늘은 이浦口 來日은 저浦口  
水路千里 멀다말고 에헤라 檣저어라

無心한 갈매기떼  
사나운 우짚음을 벗삼아서  
蒼浪을 헤치고 颶風을 가르며  
하늘과 맞닿은 저 水平線을 두드리라

저어라 어서 또 저어라  
어서 힘차게 저어라  
잠자는 저기저 검은 섬까지

바다넘어 저가는 해를 따라  
내 浪慢의 꿈이 있나니

海風에 醉한 沙工의 窈 노래  
波丘가 삼켜버린 애처로운 餘韻이  
조용히 밤하늘에 울려  
별빛은 뱃전을 씻는다

④

젓빛 구름이 포근히 감싸준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손같이  
茫久한 푸르름을 憧憬하고  
바다를 戀慕하는 沙工의 꿈은  
神秘로운 寶庫를  
사랑의 所産이라 알고있겠지

悠遠한 이야기 潮流속에서  
春風秋雨 어느때 가리지 않고  
梅蘭菊竹 四君子의 멋을 안은채  
저멀리 떠나가는 돛을 그리며  
永遠히 불타는 太陽아래서  
그대의 꿇는 피는 식지 않으리  
沙工의 꿇는 피는 식지 않으리

## 살아가는 나날

### 임 순 균(29回)

나에게 즐거웠던 추억의 시절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중학교 시절일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별로 어렵지도 않거니와 사회적 진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50여년 전에는 중학교에, 그것도 관북제일의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요 가문 및 고을의 영광이었다. 지금 젊은 이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간 것 이상의 기쁨과 긍지를 주었던 것 같다.

방이 붙는 날에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키가 작아 보이지 않자 벚꽃나무에 매달려, 가슴의 수험번호와 재확인 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 온갖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지만 그때 당시의 어머니들은 아마 인생전부를 자식이 일류중학에 들어가는데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리라. 그런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남하하였으니 단장의 피로움에 잠 이루지 못한 날이 얼마였던가? 참 답답하고 피로울 따름이다. 세월이 갈수록 그 곪이 깊어만가니 어찌 하리오.

우리는 인생의 성장기에 혹독한 전쟁체험을 너무 많이 겪었다.

국민학교 때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에 멋도 모르고 촛불행진을 하였고, 대평양 전쟁 때에는 중학교에서 진주만 공격의 일본군인들의 이야기를, 마레이半島에서의 전투, 神風特攻隊 이야기를 들었고, 중학 4년 재학중에 2년을 근로봉사에 동원되어, 중3때는 선덕 비행장 확장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이때 매우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식량이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용케도 우리 숙소인 격납고까지 미숫가루를 가지고 오셨는데, 양은 적고 동료는 많아서 할 수 없이(혼자 먹으려는 욕심도 있어)남몰래 이불 대신 준 모포 속에서 누운 채로 소리도 내지않고 황급히 먹다가 목구멍이 메어 정신없이 이불을 차고 수도가에 뛰어가 물을 먹던 일,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봄에는 벚꽃, 초여름에는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교정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던 시절, 하루는 9번 10번 교실사이의 중간뜰의 소나무 밑에서 친구랑 일본말을 주고 받고 하였는데 어느 선배가 지나가면서 무엇 일본말을 그리 쓰느냐고 꾸짖는다.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용기가 필요한 꾸지람이어서 대단한 형이구나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민학교 선배이기도 한 鄭學兄이었다. 운동장에서 여름 가을철에 金關선생 지도 밑에 일·이·삼·사 하면서 초급글라이더를 타던 시절 그때 그렇게 운동장이 넓어보인 까닭은 나의 키가 작은 탓만이 아니리.

어느 해 이른 봄 눈을 밟으면서 치마대준령을 넘어(이때 마음은 한니발장군이 되어 있었으리) 주북쪽으로 하산 權學兄 집에서 전교생이 사과를 맛있게 먹고 함흥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학우들이 몹시 피곤하다고 투덜대니 옆에 계시던 佐護선생이 “정말로 피곤하다면 말도 안 나오는 법이다”라고 하던 이야기를 듣고 역시 고생한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이 선생이 三宅校長한테서 꾸지람을 듣는 장면을 보고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께 선생님도 꾸지람을 듣느냐고 반진담 반농담조로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이들어서는 훈계를 하여주는 분이 없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기에 그때는 우··· 하였지만 두고두고 되새겨지는 이야기였다. 또 선덕 비행장 노력 동원에서 해제되어 함흥으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빨랐던지, 소도 저녁에 집에 돌아 갈 때는 귀밀의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면서 빨리 간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무렵 교무실에서 어느 선생님이 “貯めて やつたら 効果が あつたよ”(아마 부인이 임신한 모양이었음)라는 이야기를 하던것을 전해 듣고 속으로 무척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인가.

어느해 서호진 해양훈련중에 한 친구가 잡은 조개를 버릴 수 없어 수영복 속에 넣고 있다가 조개가 고환을 물어 아우성치면서 해변으로 나와 선생과 여러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돌

로 깨던 기억,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 친구는 나와 절친한 金學兄이었다.

4학년때는 아예 공부는 철폐되고 본궁화학공장에서 경성제대 예과생들과 공동작업을 하게 되고 우리는 洋寮를 위시한 몇개의 숙소에 있으면서 3교대 근무로 주야로 일하였다. 이때도 식량부족으로 몹시 고생하던 따라, 하루는 본궁 어느 중국집에서 잡채밥을 시켰더니 밀가루가 없어 야채만 먹었던 일도 있었다. 이때쯤 우리들간에는 반일감정도 일어나게 되고 어느 친구는 만주를 거쳐 중국 연안으로 가던중 蘇州에서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 엎드려 뺨쳐 자세로 얻어맞아 옷이 찢기우고 마루바닥에는 피와 담이 고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친구는 초지일관 트럭助手로 변장하여 간신히 연안에 들어갔다. 본인의 의지도 대단하였지만 외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찌하였으리오. 또 일부학생은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여 학교를 결석하였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외사촌 金文泰學兄(이때 경성제대 재학중이었음)이 고향에 내려와 인적드문 성천강 모래사장에서 中國의 임시정부 이야기를 한탄으로, 이兄의 영향을 그후에도 많이 받았다. 8.15때는 집에 있었던 덕으로, 학교 교무실에서 난생 처음 보는 맑스, 엥겔스 전집과 경제학 사전을 얻게되어 서서히 적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兄덕으로 해방 직후 韓林선생에게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금 말로 특강을 받았다. 이 변증법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萬物을 正, 反, 合의 流動過程으로 보는 哲學觀은 나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에서 인간존엄성에 대한 무지, 인류에 대한 보편에 결여, 평화에 대한 위협등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신음하는 동포들의 참상을 보고 이 참혹한 현실을 자유세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자유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生存만이 正義였다.

우리 중학교 시절에서 수학 한장이 선생님을 빼 놓을수가 없다. 나 개인으로는 기하의 李 선생님보다 강의 내용이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한국사람을 한국사람답게 키워야 한다는 선생님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나는 존경하게 되었다. 하루는 신가파에서 온 金學兄을 1m 자로 때리시면서(아마 숙제를 잘 안했을 것으로 생각됨) 신가파의 돈을 함흥에 뿌리려 왔는냐고 꾸짖던 기억, 또 천원면 교련사열 현장으로 가는 이른 새벽 교정에서의 술취한(혹은 술 양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함) 행동과 말씀, 또 강당에서 훈화 중 “……かみ”라는 말에 부동자세를 취한 우리들에게 “一枚の差・・・”로 이어나갈 대의 폭소(神·紙)는 잊을수가 없다, 교장으로 계시다가 강제 퇴임당했을 때의 고별장의 울음바다, 우리는 무력했고 우는것 외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런 스승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사람은 모진 세파속에서 단련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가나 보다. 세월의 흐름을 혹자는 성숙으로, 혹자는 감정의 마모로 본다. 무엇이 역사의 순리이고 정의인가? 점차 이런 것에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함흥 학생사건 무렵부터 우리들간에는 많은 동요가 생기고 일부는 남하하고 일부는 공산정권에 협력하고 일부는 사상의 갈등속에 나날을 보냈다. 이때부터 우리들 상호간에는 불신

의 벽이 생겼고 고독을 느꼈고,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친한 친구끼리 모이기만 하면 불렀던 노래가 기억난다. 이 노래는 졸업때 까지 계속되었다.

1절) “봄이 오고 겨울 가니

세월 흐르는데 16,17

언제가고 도화 다시 피네

19초면 흥안동이 다시 오리가

견우직녀 한할 줄을 누가 알리까.

2절) 우리 영산 푸른하늘

성천강을 흘러 그 옛날이

오작교는 졸졸 흐르는 물

다시 원한 마주보니 은하수에서

견우직녀 한할 줄을 누가 알리까”

6·25사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대학실습에 따라 나갔다 며칠후 사변이 발생한 것을 찾아온 어머니를 통해 알았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겼다. 새벽녘에 전령이 와 내일 학교에 집합할 것을 전한다. 나는 五老역에서 단독 하차 역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때 겨드랑에 불세빅 당사를 끼고 있었으니 누가 의심하리오, 정보를 알 수 없어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張學兄을 찾아 정보를 교환하였다. UN군의 참전을 알게 되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정했다. 물론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나는 안가기로 결심하였다.

100일 가까운 은신 생활 끝에 무스탕機의 요란한 사격 엄호 아래 국군이 입성하여 마침내 제2의 감격을 맞았다. 그 기쁨도 잠시 10월에 접어들면서 중공군 참전으로 UN군이 후퇴한다는 소문이 돌고 11월에 함흥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속에 감싸이기 시작하였고 민간인의 후퇴는 원산 쪽이 차단됨으로써 육로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졌다. 우리 고향은 우리가 방위한다고 무기를 달라는 청년들의 시위가 연일 일어나니 美10군단은 흥남을 중심으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말을 유포시켰으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때 중학교 졸업후 각기 헤어져 있던 동창들이 모여서 불안한 심정을 서로 달래면서 차후 대책을 숙의하였다. 우리들은 이때 다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절규 또 절규하였다.

“밤바람 한숨짓고 파도에 포효

갈매기 사나운 우짖음이여

바다 건너 저가는 해를 따라

내 방랑의 길이 있나니

태양아 고국아 잠시 떠나자

아 잘 자거라 그리운 나의 고국 강산아”

이미 마음은 고향을 떠나고 있었다. 황색빛 초연으로 자욱한 흥남부두를 뒤로 하고 軍船에 오르는 나의 심정은 참담하였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다. 개인의 능력의 한계, 민족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리라. 역사의 장난치고는 너무 가혹했다. 야전병원에서 李學兄을 만나고 제3육군 병원으로 후송되고 제대할 수 있었음은 행운으로 돌리고 싶다.

환도 후 어느날 모학교에서 직원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이사장이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해보라기에 학원도 나가는데 하였더니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고3 어느 학급에서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니(이때 교실에 교장도 있었음) 이력서를 내 놓으라고 하기에 미처 준비 못하였다고 하였더니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실력은 인정 받았던 모양으로 다음날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이사장은 평북 출신으로 한마디로 play boy였으나 의지가 강하고 교육자라기보다 사업가였고, 야망과 경륜도 있어 의기투합되어 오랫동안 사귀게 되었다. 이분(李癸河氏) 덕으로 증권, 부동산 세계의 정세등을 알게 되었고, 그 산하에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어 초창기였지만 인화단결 열심히 일하고 또 보람도 느꼈다. 여기에는 내가 꿈꾸던 대학 진출이 웅고집으로 좌절된데 대한 반작용도 있었으리.

30대 중반 무렵부터 생활신조가 「성실, 정직」에서 「바르게, 강하게, 이겨내자」로 바뀌었다. 이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 남기위한 적극적 사고 탓이었으리. 사실 말이지 우리들의 20대 전후는 platonic love와 낭만을 찾는 형설시대였고, 30대 후반부터는 산업근대화에 밀려 공리적이고 능률만능주의 시대가 되면서 배금사상에 몰들기 시작하여 우리들은 가치관의 전환에 어려움을 느꼈다. 변신은 빠를수록 좋은 것을, 우리 세대는 합리적인 것보다 피부접촉을 더 중요시하여 슬좌석에서는 폭주, 실제 장타를 날리지 못하면서도 안타를 우습게 보는 2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런지, 그리고 비교적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성이 적은 편으로, 가정에서는 독재, 친구들과는 사교성이 적고, 복장은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못하고 색깔은 국방색 계통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린시절의 열악한 환경과 성장기의 전쟁문화영향이 아닐런지.

재단에서 不渡가 나 학교로 파급되어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 이때 직원들간에서 나는 잘 못을 적게 저지르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어 있었다. 비교적 미래를 보는 눈은 있었으나 다른 일에 손을 못댄 것은 실천력이라 할까 결단력이 부족한 탓으로 또 조언자도 없었던 탓으로 본다. 새로 옮긴 학교는 전통이 있는 학교로 분위기도 매우 중후하였으며 선생, 학생들의 자질도 좋아 나에게는 더없이 자기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학인, 예술인, 평론가등 다양한 계층의 직원과 인격자임과 동시에 gentle한 교장을 만나게 되어 나는 정신세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더욱 밋손학교여서 신앙에도 관심을 가져보았으나 지금 종교에 몸을 던질 생각은 없다. 이때 내 나이 40대, 인생의 황금기에 좋은 벗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 무렵 과외라는 特需가 생겨 셀러리맨으로는 드문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어 나는 교원

으로도 행운아였다. 이것이 내 인생 여정으로 보면 두번째 도약기였다. 시류에 편승하여 열심히 뛰었다. 50중반이 넘어서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있고 교장도 바뀌어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도 겪고 지나친 재단의 간섭도 있고하여 이 학교를 사임하고 공립학교로 옮겼다.

공립학교는 사립과 달리 求心点이 없고 모두가 해바라기 인생인 것처럼 보였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여선생도 많고, 정이드는 분도 적어 옛적의 따뜻한 분위기를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각자 살기에 바빴다. 이제 마음은 조용해 지려고 하나, 외풍이 나에게서 너무 세다. 그것은 주로 체력적인 면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이리라. 아마 자기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올 것이 온 것 뿐이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찌 다하리오.

사람이 출세(다소 모호한 개념임)하려면 3부의 능력에, 3부의 운, 4부의 피가 있어야 하고, 이 피에는 시류에 타는 약삭빠름, 장래를 꿰뚫어 보는 눈, 위협에 대처하는 자기 방어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데, 우리는 능력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서도 능력이 있다고 믿는 아집과,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호방한 것을 동경하는 모순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지, 쉽게 말해 산다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너무 피를 모르고 살았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 나이들면 그것도 달라져야 하리라. 이젠, 「여행에는 길손, 세상살이에는 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일상을 경시하고 고차원적인 것에 매달리는 생각을 줄이고, 일상 생활에서 보람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문학이다. 나는 지금도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武藏野」(國木田獨歩), 「東海の 濱邊」(石川啄木), 「朝」(島崎藤村), 「峠の 茶屋」등을 읊으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그때 그 시절의 자연주의 문학이 더없이 좋다. 또 어린시절 별거승이로 강가에서 소낙비에 도 아랑곳 없이 물장구 치면서 모래성을 쌓던 기억, 반룡산에서 본 가을바람에 물결치던 황금빛 천원 들녘의 정경들이 눈에 선하다. 이것들은 나의 삶의 소중한 파편의 일부인 것을 어찌하리오. 두고온 고향산천이 그림구나.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 나로서는 처음 느꼈던 외로움과, 진로 선택에 괴로웠던 시절, 성천강 제방에서 저물어가는 석양에 비치던 흘러가는 물줄기에 하염없이 눈을 돌리고 있을 무렵. 5,6세가 될까 말까하는 어린 아이들이 뚝 밑에서 재잘대면서 고양이풀을 뜯고 있던 천년만함에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던 기억들... 비록 열악한 환경과 불안한 정서였지만, 수학을 한 것을, 내 성격과 그 학문의 완벽성이 잘 어울렸던 것으로 보고, 큰 괴로움 없이 오늘에 있음을 참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아내와 함께 登山도 할 수 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살아가는데 순리속에 역리가 잉태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만물은 변화하고 끝내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원했고, 서로가 모래알로 존재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기력도 쇠진하고 스치는 바람에도 냉기를 느끼니 몸에 조심해야지.

이제는 언짢은 일이 생겨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흐름에 맡깁시다. 정치·경제·문화가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 패턴이 서로 다른데 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반만년 역사에서 主權의 下降運動이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는 별 수 없을성 싶소. 一刀兩斷식으로는 안됩니다. 결국 自己變革 없이는 어렵지요.

어찌되었건 生에서 死에 이르는 길은 一直線上으로 모두가 같은 process를 밟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가지 역사가 탄생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무엇이래해도 결국 각자는 이제까지의 생활패턴을 아끼면서,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을 보태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나날이고 생활의 본 모습이 아닐런지.

그리고 우리는 한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 . . 끝

1990. 4. 28

## 今世紀의 한 時期

鄭哲周(29回)

### (1)

同窓會誌 第一輯에 쓴 글에서 「英語時間에 日本語(當時 國語)發音練習을 시켰다」는 대목을 보고 7年先輩(22回)되시는 분이 도모지 믿기지 않는다는 奇異한 얼굴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그런것은 아니었지만)한치의 過長도 없는 嚴然한 事實이다. 不過7年이라는 年令의 差인데 그것을 說明하는데 大端한 言語量이 必要한 그런 時節이었다. 그 倒錯的인 時代狀況에서 보낸 4年間の 少年期를 되돌아 볼때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는 지나간 時代에 對한 諦念이 그것을 強要한 當事者에 對한 形言키 힘든 憐憫과 背反感 그리고 憤怒와 뒤엉켜 永遠히 未整理된 마음의 허물이 되고있다. 어찌면 그것은 어린날의 靈魂에 刻印된 검은 團塊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1931年の 滿洲事變의 記憶은 있을리 없지만 中日戰爭 開始后 「乘勝長驅 하는 皇軍」이 中國大陸의 主要都市를 占領할때마다 버리든 祝賀行進과 提燈(燈)行列에서 上級生의 뒷꽂무니를 따라다니든 小學校 二, 三學年쯤의 記憶은 있다. 그것이 우리들 時代의 시작이었다. 그때(1937年) 7年先輩들은 中學校 三學年쯤이 있을것이고 滿洲事變때는 小學校 三·四學年이었을 거다.

그것은 日本의 巨大한 戰爭메카니즘이 所謂 大正데모크라씨-의 「停滯期」를 뚫고 일어나 그 狂亂의 톱니바퀴를 온 大陸天地와 大平洋을 向하여 無差別가동을 시작하는 信號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明治期の 興隆 大正期の 沈降 昭和期の 明治復元-所謂 昭和維新的의 圖式은 그들 國內의 五·一五(1932年)二·二六(1936年)事件等과 關東軍 參謀들 손에 依한

張作霖爆殺事件등(1928年) 크고 작은 검은 소용돌이를 前奏로 하였다.

그래도 7年이나 10年先輩들의 學窓時節(大學時節을 包含하여)은 大正期の 平穩하고 어찌면 若干은 古典의인 浪漫的 余韻이 얼마간 남아 있을때 었을까 「合邦」直後の 義兵과 그 後의 武裝軍에 依한 熾烈한 抵抗을 壓倒的인 武力으로 壓殺하여 滿洲와 沿海洲쪽으로 밀어 부치고 三·一運動을 피의 彈壓과 懷柔로 잠재우면서 大量的 職業的親日分子와 變節者를 量産하여 그들의 植民支配가 若干의 安定期에 접어들었을때라고 解釋할 수 있는 時期였을까.

1942年 봄 咸南中學一學年이 된 우리는 太平洋戰爭이 일어난 後의 첫 入學生이었다. 마침 前해에는 所謂 「東光社」事件으로 많은 先輩들이 投獄되고 退學되는 일이 있는 直後여서 우리에게는 더욱 徹底한 皇民化教育이 敢行되었다. 徹底하다는 것은 三宅校長의 決意와 우리에게 配置된 教師들의(教師세명中 他校로 轉出한 한명을 除外한 두명은 4學年 敗戰때까지 따라다녔다)狂의인 行動舉止를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病的이라고 밖에 말할수 없는 일들이 恒時的으로 일어났다.

어릴때는 누구나가 「時代」와 「地域」이 만드려주는 울타리를 누에고치처럼 하고 자란다. 그時代—우리의 先輩들이, 血肉을 나눈 집안의 知覺있는 어른들이, 모두다 그들이 놓인 各各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겪었을 暗鬱한 現實은 그들이 살아온 年輪에 따라 겪어온 時間의 흐름에 따라 그 色調를 달리한다. 1910년에 少年期였던 사람과 1919년에 少年期였던 사람 1930년의 그것과 1940년에 少年期였던 사람들의 時代는 각기 다를수 밖에 없다. 그리고 激動하는 時代에는 10年이 아니라 어떤경우 5年の 格차가 共通의 言語를 喪失케 함을 안다.

總督府의 教育令은 「合邦」后 敗亡때까지 네번의 改正이 있었는데 三·一運動后의 1922年 4月부터 1938年 3月까지의 第二次 改正令의 最大 課題가 「一視同仁」「內鮮融和」等 差別撤廢政策을 標榜한것이라면 中日戰爭을 시작하고 國民總動員法을 制定한 1938年4月부터 1943年 3月까지의 三次改正令의 三大綱領은 편협한 國粹主義者였던 鹽原學務局長이 主軸이 되어 만들어낸 「國體明徴<sup>㉑</sup>」「內鮮一體」「忍苦鍛鍊」等 積極的 皇民化同化政策이었다. 이時期 朝鮮語는 教科目에서 사라지고 (教育令에서는 隨意科目으로 格下되었지만 令이 發表되자 몇 私立學校를 除外하고 모두 廢止쪽을 擇하였다) 創氏改名도 이 時期의 產物이며 每日되뇌이든 「皇國臣民의 誓詞」도 이時期를 前後하여 制定되었다(1937年10月)

註① 國體明徴은 鹽原時三郎 學務局長이나 八木信夫 學務課長이 創案한 것은 아니다. 1935年(昭和10年)2月18日 日本貴族院에서 菊池武夫議員은 前東京大法學部教授 美濃部達吉의 天皇機關說을 執拗하게 攻撃하였다. 院外의 右翼團體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3月4日 岡田啓介首相은 「天皇機關說을 反對한다」고 言明하고 3月23日 衆議院은 國體明徴을 可決하였다.

美濃部는 貴族院議員을 辭任하고 起訴되었다(後에 起訴猶豫)4月6日 眞崎陸軍教育總監은 國體明徴을 全陸軍에 訓示하였다. 4月9日 文部省도 國體明徴을 訓令으로 示達하고 美濃部の 「憲法概要」는 發禁되었다. 8月3日 政府도 國體明徴에 關한 聲明을 發表하였다.(日本歷史學會編 日本史年表 1973年 岩波書店)

明治憲法 發布后(1889年 明治22年)立憲口家を 法人으로 把握한 美濃部の 學說은 明治憲法이 제대로 機能하고 軍과 그 同調者들이 三權以外에 統帥權을 據頭시키기 前까지는 確固한 定說로서 官吏登用試驗等의 憲法學의 基準이었다. 勿論 大正期에 昭和天皇이 배운 帝王學도 이 基準에 따랐다.

地域족도(道·市뿐 아니라 家庭 學校 學年까지를 包含하여)그 놓인 경우 만큼이나 千差萬別이다. 같은 地方이라도 私立學校와 公立學校가 달랐다. 이 差異를 미련하고 어린 우리들은 優劣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成長함에 따라 맺은 交友關係를 통하여 같은 公立學校라도 이를테면 上級學校의 進學을 基準한 同級の 學校들— 平二中이나 海州中學의 同年輩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같은 時期를 보냈는데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누에고치속에서 자랐구나 하는것을 느낄때가 많아 나도 모르게 唐慌한다.

少年의 感受性은 銳敏하다. 社會나 政治에 對한 情報를 遮斷 當하고 實事 接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濾過하여 判斷할 能力이 없는 時期다. 말끝마다 天皇陛下를 위하여 爆雷를 안고 敵의 戰車에 뛰어들라든가 竹槍으로 鬼畜米英을 찌르고 죽으라고 하면 그것이 絶對價値가 되어 버리는 催眠作用도 있다. 이것은 비슷한 나이의 半島의 모든 靑少年들이 겪은 時代的 狀況이기도 하지만 「地域」이라는 觀點에서는 上記한 狀況과 그것을 맡은 教師當事者들의 性品이나 習癖때문에 우리에게는 남과 다른 特異體驗이 너무나 많다.

半世紀가 흘러서 이미 낡은 필름의 映像처럼 희미하고 再構成도 斷片的이고 幻覺의 一部分갈기도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體驗과 記憶은 너무나 뚜렷하여 鮮血이 흐르는 상처기와 같이 쓰리고 醜惡한 마음의 傷痕을 남겼다. 지금 생각하면 中學生이라기 보다 차라리 奴隸였다. 이때의 奴隸는 카이로 宣言에선가 言及한 「朝鮮人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의 奴隸도 아니고 植民教育의 一般的 集團의 隸民化概念과도 다르다. 그것은 우리들 어린 小集團에게 大東亞共榮圈의 指導者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밤낮없이 4年동안 시종일하게 加虐한 特殊狀況을 말한다. 그 時節의 우리가 面對해야 했던 狀況은 그것을 外面할 수도 없고 敢히 그로부터 脫出한다든가 하는 選擇의 有無가 주어지지 않는 盲目的이고 絶對的인 것이었으므로 그만큼 致命的이다. 그後 成長하면서 奴隸로서 支配된 人間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떤 섬뜩함마저 느낀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일단 奴隸로서 支配된 人間은 믿을것이 못된다. 모든 交友關係·이웃·競爭相對라고 看做되는 모든 人間關係에 이 害惡的인 心性의 片鱗이 번뜩이는 것을 보는 錯覺에 사로잡혀 無意識的으로 外面하고 虛脫해지며 自虐에 빠지는 것은 나혼자만 일까. 半世紀가 지나 많은 사람이 孫子 孫女를 둔 60을 넘어선 老年에 접어 들었는데도 말이다.

解放되어 教師와 天皇카리스마에서 解放되어 倉田百三나 阿部次郎을 읽고 西田나 三木清의 哲學을 耽讀하면서, 東京大學을 追放 當한(1939年 平賀總長肅學件) 河合榮次郎의 學生叢書 시리즈 등이나 戰爭當時 發禁되었던 그의 著作들, 그리고 우리말로 된 文學작품이 귀하고 낯설었을 때 그들의 文學作品 등을 통하여 日本과 日本의 知識人을 若干은 알 수 있는 妙한 機會를 가졌지만, 그것이 前記한 「時代」와 「地域」의 누에고치속에서 굳어진 사람의 心性을 「本來의 自由」로운 모습으로 돌이키는데 오랜 歲月의 葛藤으로서도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되었을까.

(2)



韓半島와 日本列島를 들끓게 하고 그 말썽 많은 大統領의 日本訪問이 얼마 前 이루어졌고 日帝 36年の 侵略과 收奪에 대한 謝過는 「今世紀의 한 時期」로 시작하는 「痛惜의 念」으로 落着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言論들은 玉篇을 놓고 「痛」字와 「惜」字의 풀이를 하고 우리가 使用하는 모든 辭典과 日本側의 여러 辭典을 놓고 뜻을 對比하고 또 前王의 謝過時에는 加害者와 被害者의 明示가 없다는 등 또 「國事に 關한 行爲만 하고 國政에 關한 機能을 갖지 않는」云云의 저들의 憲法四條를 들먹이면서 兩國間(正確하는 兩國民間)의 줄다리기를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實像은 저멀리 걸어가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虛像 비슷한 것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錯覺에 사로 잡힌다.

四百年前 文祿·慶長の 役(壬辰丁酉倭亂)以來 버릇처럼 되풀이 된 수많은 侵略行爲를 한 번도 侵略이 있었다고 是認한 바 없고 「進出」아니면 「前進」따위의 用語로 粉飾하여온 그들이 다. 英語의 「deeper regret」까지 登場하였지만 그나라 言語를 아는 사람이면 「痛惜의 念」같은 우리에게는 死語나 다름없는 漢字語 그대로를 옮기거나 우리쪽 長官의 「뼈저리게 뉘우친다」따위의 억지풀이를 하여 國民의 빈축을 살게 아니라 「痛惜の念」이라고 하면 筆者의 日語感覺으로도 水準級 같이 들린다. 그 대목의 日王의 錄音을 들어봐도 그렇다. 日王의 言語中에 우리가 써받기를 願하는 「おわび申し上げます」 또는 「申し譯ない」 등의 用語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죽은 前王時代에는 宮城의 廣場을 清掃하기 위해 全國에서 自願하는 希望者를 하루에 3000名 밖에 受容 못하는데 그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通常 六個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1895年 10月 8日 未明 三浦公使의 사주를 받은 一團의 浪人들이 우리의 王宮에 亂入하여 당황하는 高宗앞에서 아우성치는 宮女들의 머리채를 들어 確認作業끝에 一國의 王妃를 刺殺하여 그 屍體를 王宮의 뒷뜰에서 태워버린 事實을(乙未事變)오늘의 日本의 젊은이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先進國隊列에 進入하려면 貿易逆調是正 技術移轉 在日僑胞問題 등 어느 하나 重要하지 않은 懸案이 있겠는가. 혼신의 힘으로 跳躍해야 될 이 時期에 數 없이 많은 피맺힌 記憶을 되씹으면서 보낼 寧日이 있겠는가.

그러나 옛날 犯罪者의 똥한 모습을 말끔히 씻고 銃劍 대신 돈으로 粉丹裝하고 世界에 微笑짓고 아니 世界에 微笑 짓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나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本心 그들 말을 필면 「本音」은 알고 넘어가야 할게 아닌가, 「建前」가 아닌.

大統領 訪日後 文部省은 歷史教育歪曲에 關한 蹇박한 訓令도 아닌 指示 비슷한 것을 傘下各教育機關에 떠웠다고 들었다. 原文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歷史教科書를 뜯어 고치는게 아니라 各級 教師들의 授業을 통한 歷史的事實 強調로서 教育에 임하라는 趣旨란다. 歷史는 民族의 履歷書다. 이 歷史教科書의 問題는 우리가 正常的인 이웃 關係를 가질려면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저들의 植民地配가 原料調達 工產品市場確保 등의 古典的인 圖式이 아니라 支配의 初期부터 軍事侵略과 歷史捏造과 作業을 통한 民族抹殺 同化에

血眼이 되고 歪曲을 固着化시켰던 만큼 그것을 認定하고 是正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壬那經營」即 半島南部支配의 論據로 삼고 있는 廣開土王陵碑 問題만 하더라도 1882年 9月에서 12月 사이(從來通說은 1884年으로 되어 있지만 在日史學者 李進熙氏의 卓越한 研究에 依하여 그보다 2年이나 앞섰던 것이 判明되었다)日本 參謀本部의 軍事스파이 酒勾景信 中尉의 손에 依하여 雙鈎本이 作成되어 그 碑文을 參謀本部에서 秘密裡에 研究하여 1889年(明治22年)「會餘錄」第五集에 發表하였고 그 研究結果가 碑文解釋의 原型이 되어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다. 1882年은 甲申政變 二年前이며 開港後 不過 6年後다. 滿洲 輯安의 황량한 別관에 1500年의 風霜을 덮고선 이 巨碑의 拓本을 뜨고 石灰를 빠르고 한 酒勾中尉의 所行을 생각하면 實로 啞然하고 毛骨이 竦然해진다.

그후 淸日戰爭 後에는 那珂通世(1893年) 三宅米吉(1898年)等の 學者에 依하여 또 露一戰爭의 勝利後 韓國의 「併合」에 依해서 他們 支配權이 韓國으로부터 滿洲에 걸쳐서 確立되기 시작하는 時期에는 鳥居龍藏(1905年, 1912年)關野 貞·今西 龍(1913年)黑板勝美(1918年)等の 著名學者들에 依한 現地調査에 依하여 오늘과 같은 碑文解釋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古代 韓日史의 主要한 關鍵이고 日本에 依한 古代朝鮮南部支配의 論據로 삼는 이 碑文研究가 처음 에는 軍部에 依해서 다음은 많은 學者를 動員하여 이루어져 植民地配時代의 定說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新編日本史에도 寫眞과 함께 실려 있다는데 問題가 있다.

朝鮮總督府는 巨額의 研究費를 投入하여 植民地配를 爲한 朝鮮史研究를 進行시켰는데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部·朝鮮史編修會·京城帝國大學 그리고 滿籌調査部로 大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時期에 방대한 朝鮮史資料는 他們 나름대로 整理되었으며 이들 官學者들의 손에 依한 所謂 近代歷史學에 基礎한 歷史歪曲이 進行되고 定着되어 우리의 歷史骨格이 만드러 졌으며 이것이 오늘의 歷史教科書 歪曲 問題의 核心이다.

그들이 만드러낸 植民史觀의 骨格의 하나는 朝鮮史의 附隨性·周邊性을 強調한 地政學的 半島的 特性을 基調로 삼은 他律性原理의 導出이다. (三品彰英·稻葉岩吉·今西龍·小田省吾)自律性缺如論으로 黨派性·依賴性·雷同性·宿命論과 事大主義理論·民族性理論까지 發展시켰다.

또 하나는 停滯性理論이다. 福田德三와 그 뒤의 黑正 嚴 京城帝大의 西方博等の 經濟史學者들에 依하여 主唱되고 稻葉等の 一般史學者와 方法論上으로 맑스主義의 立場을 取하는 京城帝大의 森谷克己에게 繼承되고 또한 所謂 아시아의 生産樣式과도 결부된 理論이다. 韓國社會內部에는 封建制度의 결여 等 社會性格 때문에 內的 發展에 依한 近代社會로의 進行을 담당할 主體的인 力量이 없다는 理論이다.

그리고 支配時代의 위의 두 骨幹理論의 基底에는 朝鮮의 併合과 支配의 當爲性을 強調하는 征韓論式 검은 흐름이 언제나 있어왔다. 吉田松陰이 松下村塾에서 征韓論을 主張한 것이 1854年이다. 乙巳保護條約의 半世紀前이고 前期 參謀本部에 依한 碑文變造研究가 進行되기 30年前이다. 그것은 또 幕府가 美·英·佛 等과 不平等條約(安政條約)을 맺은 해이기도 하

다. 吉田는 幕府에 依해서 1859年 處刑되었지만 그의 弟子들인 木戶孝允이나 伊藤博文의 明治政府는 이 理論을 繼承하였다. 特히 木戶는 이의 強力한 信奉者여서 1868年 明治政府에 이를 發議하였다.

오늘날 民主國家日本에 征韓論 따위는 없다. 또 敗戰後 日本史學界는 所謂 皇國史觀의 克服에 集中的으로 매달려 많은 成果도 있었다. 황당한 古事記와 日本書記의 記述은 많은 部分이 歷史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神功皇后의 新羅征伐 같은 것도 教科書에서 살아졌다. 그런데 그 대신 이 「征伐」의 不確實한 傳說 대신에 廣開土王陵碑文이 古代日本의 朝鮮出兵・南部朝鮮의 支配의 確實한 材料로 歷史教科書에 導入되었다. 이 点에서 보면 이 碑文은 戰前보다 戰後에 日本 國民에게 一般化되고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個個의 日本史學者들의 韓日古代史 解釋에 對한 學問的 妥當性 如否를 問題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歷史教育을 問題삼고 있는 것이다. 廣開土王陵碑의 問題는 古代의 韓日關係史・日本史・韓國史研究에 있어서는 더들석했든 高松塚古墳보다 몇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리고 이 碑文研究의 最大의 特色이 그 碑文研究가 大陸侵略의 課程에서 恣行되고 大陸侵略의 發展段階에 對應하여 成長하여 왔다는데 있다.

敗戰前 그들은 이 碑文研究를 獨占적으로 支配하였다. 그러나 戰後 事情은 크게 달라졌다. 韓國의 많은 學者와 前記 在日史學者 李進熙氏 또 日本의 一部學者들에 依해서 碑文이 石灰塗付로 變造된 것이 確實해지고 解讀・解釋의 歪曲部分이 究明되어 從來의 主張이 頽色하여 歷史論理로서는 分解段階에 있는데도 또 良識있는 元老朝鮮史學者(旗田 巍 教授)에 依해서 學問的 再檢討를 勸告 받아오고 있는데도 그들 大勢는 침묵하고 있고 歷史教科書는 그대로 있다.

전번(1982年) 兩國의 教科書 紛爭當時 우리 政府는 歪曲部分 39項目 160余個所를 包括적으로 指摘하여 傳達하였다는 記事를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理由를 들어 (例를 들어 政府가 著作에 介入하지 않는다는 등) 是正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있지도 않은 또 兵馬・武器 水準으로 봐서 있을 법 하지도 않은 日本에 依한 古代南部朝鮮支配를 계속 固執하여 自國民에게 教育시키고 저네들은 清算했다는 皇國史觀의 視角을 이웃에는 그대로 適用하는 執拗性을 半世紀前의 그들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여겨질가. 征韓論의 亡靈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今世紀의 한 時期」가 아니라 前世紀부터 아니 오래 오래 前부터 수시로 때도 없이 갖은 害惡을 일삼아 오고 있는 이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對할까. (1990年 6月)

## 獨逸 兵丁

朱 東 雲 (29回)

우리는 우직하고 직선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독일병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독일인을 단순히 “독일병정”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데에는 거부감을 느낀다.

나는 60년대 후반 근 4년을 주독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고 그후 72년에는 외무부 歐洲課長을 지낸 연고로 독일과 동서독 관계 발전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 왔다.

나는 오늘날의 ‘서독과 동서독 관계를 있게 한데에는 여러 객관적인 원인외에도 독일 사람의 기질 중에 많은 긍정적인 덕목이 작용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最近 동·서독 관계가 “갑자기” 진전하여 금시라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 한다. 내노라는 교수·識者들이 저마다 그 이유를 논하며 서독이 동독에 대해 寬容을 베풀고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한 결과라고 하고 우리도 그같이 해야 한다고 主張들 한다.

獨逸人, 아니 西獨人들이 東西獨 關係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갑자기” 이룩한 일이 아니며 그 이유도 한두가지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더라도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독일은 약 천년전에 이미 “神聖 로마 帝國”을 이룩했고 그후 “바이마르共和國”을 거쳐 “히틀러”의 제3제국이 2차대전으로 망할 때 까지 單一國家를 경영한 歷史가 있다. 또 우리와는 달리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있는 일이 없고, 한편 6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한 莫強한 경제력을 이룩하고 이 힘을 통일외교에 심분 활용했다.

오늘날의 동서독 관계를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일은 1972년에 동·서독간에 “기본조약”이라는 중대한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서독의 경제원조를 받는 대가로 동독에 대해 엄청난 압력을 가하므로써 체결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당시 서독의 “브란트”수상은 서독 수상으로서는 패전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 “히틀러”의 죄를 사과하고 소련의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강변에 화물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주는 한편 시베리아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서구라파로 공급하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체코를 거쳐 남독에 이르는 대규모 파이프 공사를 떠맡기로 했던 것이다.

이 기본조약의 체결로 동·서독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가능하게 된 이후 이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독은 동독에 대해 경제원조, 교역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희생을 감수했다. 그리고 전승 연합국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까지 한번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통일”이라는 단어를 입밖에 낸 적이 없이 은인자중 했다. 우리의 통일원에 해당하는 정부 부서의 명칭도 內獨關係省이라고 불렀다.

이와같이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점이 많은데 끝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일은,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人的要因 즉, 독일 사람들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韓民族의 우수성에 대해 추호의 의구심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야 말로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천년을 살아 남았을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이룩하고 6·25의 참변을 이겨내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를 이룩한 놀라운 민족이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우리와는 또 다른 면에서 우수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독일 사람들의 좋은 점을 든다면 근면, 정직하고 준법정신과 단결력이 유달리 강한점 등을 열거 할 수 있겠다.

물론 규율을 잘 지키고 단결력이 강하다는 장점은 자칫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그런 특징이 “히틀러”의 제3제국과 유대인 학살을 가능케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주의 혁명 당시 독일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다. 어느 기차 정거장을 실력으로 점령하고 기차 운행을 중지시킬 것을 지시 받은 철도 노조원들이 역구내를 쳐들어 가는 대신 구내 입장권을 파는 창구 앞에 일렬로 줄을 서는 것을 본 공산주의자가 독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불가능 하다고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독일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수도 “본” 시내의 한적한 거리 그것도 새벽 두 세시에 다니는 차라곤 한대도 없는데 끄는 것을 잊어서 그대로 작동하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청신호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독일에서 살면서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감한 그들의 장점의 또하나는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독 대사관에서 혼자 경제과를 맡은 필자의 임무는 우리 상품 수출과 재정차관이라고 부르는 長期低利借款을 보다 많이 얻는 일과 독일경제 발전에 관련된 “노우하우”를 얻어 내는 일들이 있다. 그러자니 허구헌날 부탁할 일 뿐이고 4년동안 줄 것이라고는 물질적인 것 말고도 무슨 정보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그 나라 정부 관리들은 한번 우호적인 인간관계가 성립되면 해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 주고 약속을 지키는 한편 줄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줄 수 없다고 분명히 한다. 그것도 칸트·헤겔이 나온 국민답게 왜 요청에 응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서론, 총론, 각론으로 잘 정리하여 설명해 준다. 나는 들은 대로 본부에 電文報告하면 본부에서는 일은 비록 안돼더라도 보고서는 잘 썼다고 칭찬해 준다. 또 한달 전에 부탁해 놓고는 나도 잊어버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의 같은 것도 한달 후에 잊지않고 알려주어 이를 서울에 보고하면 또 내가 칭찬을 받게 된다.

해마다 4월이 되면 경제 담당관은 괴롭다. 다음해 對韓經濟援助의 규모를 알아내고 더 많은 원조를 받도록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가도록 온갖 방법으로 교섭해도 경제성의 담당 과장은 요지부동, 처음에 말한 액수에서 한푼도 늘릴 수 없다고 한다. 모시던 대사님이 국장, 차관을 만나 간곡히 교섭하면 과장을 불러 확인하고는 과장의 말을 되풀이 할 뿐이다. 어느 해에는 우리 부총리가 “빠리”에 왔던 길에 일부러 독일을 방문하고 장관을 만나 직접 교섭했으나 4개월 전에 필자가 과장과 교섭했던 액수에서 한푼도 늘어나지 않았다. 과연 “독일병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의 독일, 특히 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경제개발 이론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라면 책을 몇권 쓸 수도 있을 게다. 제한된 지면에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서독경제의 원동력은 人的資源 특히 우수한 기술인력이라는 사실이다.

독일에는 각 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기능공에게 그 기술 수준이 최고에 달했다는 것이 심사를 통해 입증되면 “마이스타(Meister)”라는 자격을 수여한다. “마이스타”는 영어의 “마스타”로서 名人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木工이던 자동차 수리공이던 그 분야에 道師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산업각계에 버티고 있어 국민경제의 튼튼한 허리구실을 하고 있다. 우수한 군대가 장군과 병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우수한 下士官이 있어야 비로서 가능한 것과 같다.

197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정부가 “프랑케”라는 이름의 내독관계성 장관을 방한 초청한 적이 있다. 체한 일정을 짜는데 우호의 표시로 모대학에 부탁하여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일정을 포함시켰다. 프랑케 장관이 아측에 보내온 이력서에 따르면 그의 학력은 중학교에서 끝이고 어릴때 큰 제빵공장에 빵구이 직공으로 들어가 노동조합 운동에 가담하여 후에 사민당 정부의 장관까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약관 18세에 빵구이 “마이스타” 자격을 얻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기재하고 있었다. 일행이 도착하던 날 공항 귀빈실에서 나는 제한 일정을 그에게 보여주고 희망사항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다. 장관은 잠정 일정을 다 읽고 나더니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박사학위는 비록 명예박사라 하더라도 저의 경력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댤에는 그때가 세번째 하는 과장으로 서 제법 외교를 안다고 자부하던 때인데 그말을 듣고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으며 두말 않고 그 일정을 삭제한 일이 기억에 새롭다.

내가 독일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맞았고 공무, 사무할 것 없이 시중을 돌고 식사 대접도 했다. 그분들을 안내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 독일 비로드 옷감 파는 가게를 모른다고 “외교관이 그것쯤 알아야지”하고 핀잔도 맞아보고, “로렐라이” 바위 구경을 가는데 일행중에 유난히도 세끼 한국식사 아니면 못산다는 분이 있어 보온병에 된장국을 넣어 가지고 가서 김밥하고 해서 차안에서 드시게 한 일도 있었다.

서울에서 요인들이 오면 내가 반듯이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독일 연방국회의 의원 명단이었다. 독일 의원 명단은 성명, 소속정당, 출신구등 인적사항 다음에 “직업”란이 있다. 모르는 사람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농부, 목공,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 다시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기동안 나라와 선거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후에는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 가겠다는 마음 가짐인 것이다.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 명단을 보여주면 우리 국회 의원들은 이를 감탄하는 듯한 표정들

을 짓기는 하나 썩 감사해 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작지만 중요한 일을 매번 빠짐 없이 했다.

32년 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그때 일을 회고하는 지금 그렇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던가 아니면 咸南中學을 4년 다닌 미련한 독일병정 아닌 “함경도 병정”의 짓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본다.

## 우리 母校에서의 學生運動

韓 依 天 (29回)

우리의 母校는 咸興高普에서 咸南中學으로 이어진 學校이다. 이 學校는 1897년에 當時의 觀察使 徐正淳이 咸興鄉校內에 外庠生學校<sup>①</sup>를 設置함으로서 始作되었는데, 日帝下에는 咸興高等普通學校에서 咸南公立中學校로 이어지고, 解放後에 共產政權에 依해 閉鎖되었다<sup>②</sup>. 이러한 悠久한 傳統을 가진 우리의 母校는 中等教育機關의 嚆矢로 道內의 中樞의 學校<sup>③</sup>였기에, 許多한 學生運動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歲月이 오래 되고 資料가 未備되어 3·1運動以前의 것은 알 수가 없고, 그 後의 것도 斷片的으로 傳해져 있다. 그럼으로 紙上에 알려진 一部를 于先 모아 우리 母校에서의 抗日反共運動의 一面을 傳함으로서, 同窓들의 回顧와 史料의 研究에 도움이 될까한다.

문헌 ① 續修咸山誌通記 卷之四 官案八.

②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同窓會誌(1) p5, 1986. 10.

③ 咸鏡南道誌 p427-428, 1968.

### 1 1920年代初의 獨立運動.

3·1運動은 1919年 3月 1日에 일어났다. 이 己未獨立運動은 瞬息間에 國內外에 퍼졌고, 서울을 비롯한 全國各地의 名私立學校는 3~4個月間 正常授業이 어려웠다. 教師와 學生이 함께 獨立運動에 참가하는 事例가 많았다<sup>①</sup>. 그리고 官立學校에서도 學校正常化가 당분간 어려워, 咸興高等普通學校에서도 3月 4日부터 5月 2日까지 授業이 中止되었다<sup>②</sup>. 이 때는 1918년에 改編된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의 第1회가 卒業하던 해였고, 다음해인 1920年 여름 放學前에, 授業을 拒否하고 萬歲를 高唱하며 盤龍山으로 나간 事件이 있었다<sup>③</sup>. 이 때에 많은 學生이 憲兵에게 붙들려 갔고 休學하는 學生이 생겼다. 그리고 1922년에 “自由存なき 辯論 信義なき 校長… 天皇滅亡!! 日本滅亡!! 朝鮮獨立萬歲!!”란 落書事件이 校內에서 일어나 咸興社會를 온통 들끓게 했다<sup>④</sup>.

문헌 ① 騷擾と 學校(秘 : 1921年 1月 朝鮮總督府 學務局), 「騷擾參加學校職員調」(金正南編·朝鮮獨立運動<sup>①</sup> p856)

② 「現·資」(26) 「朝鮮」<sup>②</sup> p487-488(1919年 4月 21日字「騷擾事件報告旬報」 第2報 (3) 「官立學校授業狀況」)

③, ④ 咸興高普(咸南中學校) 同窓會 : 同窓會誌(2) p12-13. 1987.10.

## ② 1927년의 抗日盟休

咸興地方에서 抗日學生盟休를 先導한 학교는 咸興高普이다. 咸興高普에서는 1927年 7月 2日에 2學年生 약 100명이 中心이 되어 ① 日本人教師인 小笠原, 岡本, 山根등을 배척하고, ② 학생의 待遇를 개선하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盟休에 들어갔다. ① 2학년이 盟休에 들어가자. 7月 4日에는 3·4學年 150명도 여기에 호응하였고, 學校當局은 이에 黑木教務主任이 “學生盟休는 流行病과 같이 일어나고, 學生의 요구는 不穩하여 절대로 들어 줄 수 없는 條件만 제시한다.”는 등의 비난을 하고, 盟休生 전체(2,3,4學年)를 無期停學에 處分하여, 暴壓的 制裁를 가했다. 그러나 7月 4日 盟休生들은 校庭에 격렬한 檄文을 살포하고, 盟休目的의 관철을 주장하였다. ②

특히 石田教師의 민족적 차별교육관에 대한 학생들의 분개는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盟休의 低邊에는 학생들의 이러한 反日感情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學校와 학생은 極限의 抗爭關係를 노출하였다. 그러나 7月 7日에 大庭校長이 教師辭退 以外の 문제를 順次的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全員登校가 있을 때에는 盟休生에 대한 無期停學을 해제하겠다고 約束을 하자 學生들은 다시 등교하게 되었다. ③ 이때의 在學生은 第10回에서 14回까지의 同窓生들이었다. 7月 4日에 校庭에 뿌린 檄文과 반드시 一致한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日警이 蒐集해 두었던 陳情書는 다음과 같다.

### 陳情書(要旨)

「1927年 7月 咸興高普 盟休生들이 學校當局에 提出한 것.」

教育者 云云하는 돈벌이 꾀을 우리 咸興高等普通學校의 校諭로 두고 있는 것은 教育의 目的에 어긋난 일이다. 總督府學務局이라는 것은 日本失業者의 失業防止 手段으로서 우리 朝鮮의 窮乏한 經濟에서 多大한 金額을 징수하여, 이것으로써 朝鮮人 子弟교육이란 名目下에 만든 것처럼 생각되며, 또한 가장 좋은 忠犬을 만들 目的으로 所謂 植民教育을 실시하는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別項에서 우리들이 排斥하는 四教諭는 勿論, 校諭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學問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教壇에 서서 日本의 優越을 말하고, 朝鮮人の 必然的 滅亡을 注入하려고 한다. . . . 中略 . . . 植民地에 대한 虐政을 이것으로 合理化하고 欺瞞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교육을 教育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은 政治的 壓迫과 경제적 搾取를 放恣하게 하는, 다른 一面에 있어서 精神的으로 壓迫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知識慾에 굶주린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父母에게 多大한 犧牲을 지불하게 하여 學海에로 出帆하였으나, 第一步인 우리 高普에서의 希望은 絶望으로 변하였다. 우리들이 要求하고 또한 그래서서는 아니 될 教育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非教育的이며 우리들의 頭腦를 鈍化시키는 것임을 알았다. 要컨대 學校는 要塞地이며 教師는 憲兵이고 密偵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들에게 恐怖心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으나, 學問을 닦고 싶은 마음인 우리들은 두려운 陷穽에 빠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每日 登校하지 않으면 안된다. 願컨대 人類의 教育자 폐



스타롯지가 되어 달라. 教育者는 국경과 民族을 초월하여 인류애에 立脚하여 人類의 장래를 바라보고, 世界平和를 위한 教育者가 되지 않을 것인가? 教育者는 俸給보다 責任을 重視하여야 하고, 資格이 없는자는 快然히 教育계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只今 同盟休學을 하여 學校長에게 要求한 구체적인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植民地政治의 一機關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解放하여 自由로운 學問善導의 장소로 만들 것.
  - (1) 校友會의 全權은 全會員一同에게 返還할 것.
  - (2) 教師는 학생의 요구를 本位로 하여 教授해 줄것.
  - (3) 脚絆은 全廢할 것.
  - (4) 구두는 검은 것이면 어떤 型의 것이라도 신게 할것.
  - (5) 級長은 學級의 互選으로 選出할 것.
2. 中等程度의 教育者로서 資格이 없는 者는 本校에서 早速히 追放할 것.
  - (1) 山根校諭는 학생의 納得如何를 막론하고 橫暴한 教授法을 쓴다.
  - (2) 宮崎教諭는 果樹園을 本業으로 하고 教授에 誠意가 없다.
  - (3) 岡本, 小笠原教諭는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을 侮辱하는 것을 享樂 하고 있다.
3. 우리들의 요구를 위하여 決行한 이번의 同盟休學에 대하여 1人의 犧牲者도 내지 말것.
4. 1,2,3의 요구조건을 快히 승낙할 것. 승낙하지 않을 때는 校長이 引責退職 할것.
5. 以上の 요구를 승낙한다면 學生各自에게 통지할 것.

이상에서 밝힌 우리들의 요구가 完全히 成功할 때까지 絶對로 登校하지 않을 것을 우리들은 宣言한다. 그러므로 校長은 이 점을 잘 省察하여 해결해 줄 것을 茲에 陳情함.<sup>④</sup>

以上の 陳情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盟休가 단순히 校內문제만에 起因한 것이 아니라, 日帝植民통치와 거기에서 전개되고 강요되는 植民地 教育에 대한 民族的 次元의 抵抗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盟休生의 요구는 비록 當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도없고, 오히려 強壓만이 기다리고 있는 時代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時代와 情勢 앞에서 自身들의 주장을 快然하고 的確하게 제시·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咸興高普 抗日盟休의 水準을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sup>⑤</sup>

문헌 ① 1927年 7月 5日 東亞日報

② 1927年 7月 7日 東亞日報

③ 1927年 7月 12日 東亞日報

④ 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の 考察,p52-54

⑤ 鄭世鉉著;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p238, 一志社 1975.9

### ③ 1928年の 抗日盟休

1928年 5月初부터 咸興高普는 지난해와 같은 요구조건을 학교당국에 제시하고 盟休에 들어갔다. 학교에서는 5月 14日까지 무조건 登校에 응하지 않는 학생은, 全員退學 시킨다는 通知書를 학생들에게 발송했으나, 盟休生들은 여기에 대해 요구조건 관철이 없는 한 登校하

지 않는다는 태도였고, 學父兄들의 이른바 善後策을 위한 교섭도 失敗하고 말았다. ① 처음에는 2,3,4,학년이 주동이 된 盟休였으나, 5月 23日부터 1,5학년생도 加勢함으로써 全校生의 盟休로 확대 되었는데, 학교 당국은 경찰과 協力하여 학생들의 強制登校를 企圖해 보았으나 이것 역시 失敗하였다. ② 事態가 이렇게 발전하자 學校에서는 수습책을 道學務局에 의뢰했고, 學務局은 경찰의 개입을 요청했으므로 경찰은 寄宿舍搜索은 물론 高普의 단추만 달고 있어도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連行하는 強壓策을 동원하였다. ③

그 동안 경찰은 歸鄉學生에게 刑事隊를 파견하여 全校生 약 500名中에서 50여명을 檢束하고, 이들 中 李敏鎬, 姜金鳳, 都鎭百, 徐商孫, 張鴻斗, 柳明赫등을 主謀者로 인정하고 公判에 廻附하였다. 6月 30日에는 이상의 6名 以外에, 金觀鉉, 朱寧河, 金相烈, 李徹璉, 李興基, 金鼎九, 金順德, 金溢, 崔奎集등을 추가로 送局하였다. 이상의 학생들은 一審에서 모두 징역 10個月~4個月의 언도를 받았고, 不服控訴 하였으나 결국 징역 4個月以下の 體刑이 떨어지고, 그 중 3명만 執行猶豫가 되었는데, 公判은 11月末에야 끝이났다. ④ 이 盟休에서는 朝鮮歷史와 朝鮮語 教授에 관한 요구가 제시되었고, 盟休中에 경찰은 暴行을 했다는 名目으로 약 100명의 학생을 구속 取調했으며, 그 中에서 15名の 有罪判決을 받는 희생이 생겨 9月 신학기에 나머지 盟休生이 다시 登校했다. ⑤ 그리고 이 盟休는 지난해보다 훨씬 強度 높은 抗日性을 보였고, 行動統一을 위해 強力한 統制를 가하는 한편, 宣傳戰을 전개하여 여론의 喚起에도 注力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檄文을 作成하여, 國內의 各級中等학교와 在日 한국인 諸團體에 발송했다. ⑥

#### 全朝鮮被壓迫同志諸君에 檄함(要旨)

數年來 쌓이고 쌓인 우리들의 不平이 昨年 7월에 드디어 爆發한 우리의 同盟休學! 학교 당국의 欺瞞的 手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요구조건은 今年 3月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今年 3月은 이미 수개월을 지났으나, 欺瞞만을 일삼는 학교 당국은 아무런 處決도 없었다. 敬愛하는 同志여! 오늘날 우리들이 받고있는 植民地 敎育이 搾取를 前提로 하는 麻醉劑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一部の 識者들은 漫評 혹은 批評文에서 同盟休學은 現代 학생의 流行病이라든가, 思想中毒이라 云云하여 嘲笑할 따름이었다. 이것은 却說하고 識者 自身들의 現社會情勢에 대한 認識의 不足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軍國主義의 馬蹄下에 蹂躪되어 所謂 宗主國과의 差別的敎育에 不滿과 義憤이 쌓여 우리들 五百餘名의 心膽은 드디어 破裂하여 盟休의 反旗를 다시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은 다같은 被壓迫의 同志諸君의 周知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한다. 專制에 熟達되어 있는 학교 당국은, 해결을 위한 誠意의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抑壓으로써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答辯이라는 것은 “이번의 事件에 대하여서는 全部 道當局에 一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何等の 關係가 없다”고 말했다.

韓恂鉉教諭는 “總督府政務總監이 來威하였을 때 말하기를 盟休가 頻發하는 朝鮮中等學校 2~3校는 廢校해 버려도 할 수 없다는 宣言을 했으므로 너희들은 생각나는 대로 해 보라,”

또한 校長代理인 澤木茂正教諭는 말하기를, “나는 眞正 教育을 위해서가 아니다. 金錢이라도 取得하여 밥(食)이라도 얻어 먹었으면 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當局의 指令대로 服從할 따름이다.” 어찌 그뿐이라, 저 暴惡千萬한 山根囑託은 말하기를 “짐승과 같은 너희들에게 教育 같은 것은 無用하다”라든가 . . . . . 이러한 것이 우리들만에 局限할 수 있을까! 이것은 植民地擄取教育, 軍國主義의 奴隸的 教育에만 熟鍊된 이 者들의 告白이 아닌가, 보라! 오늘날 받고 있는 教育의 正體를 이 者들 自身들이 暴露시켜 버린 것이다. 특히 政務總監의 蠻勇스러운 發言은 假借없는 直言인 것이다.

이 者들의 正體는 날로 이와같이 暴露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當국으로서 능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事件全體를 道當국에 全任해 버려, 道當국자들은 경찰서에 이것을 委任하여 해결코자 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聯系的이며, 教育者로서 無責任하고 沒常識한 태도의 表示가 아닌가? 市內의 골목마다 경찰의 魔手陣을 배치하며 校外에는 佩劍金靴의 辛辣한 소리만을 騷亂케 하고, 校內에는 刑務所着守와 같은 刑事隊와 正服警官隊를 배치하여, 마치 殺人強盜犯이라도 逮捕하는 것 같은 樣相이다. 밤중에 安眠하는 同志와 白晝大路에서라도 高普의 徽章만 보이기만 하면 보는 대로 同志들을 무조건 拘引하여 曖昧하게 4,5日間 拘留場에서 苦庸케 하고, 다시 檢事局까지 護送— 이것이 바로 植民地 特殊現象인 것이다.

오랫동안 蹂躪된 同志諸君! 우리를 商品視하는 奴隸的 教育, 식민지 差別教育을 首肯할 것인가? 아니다. 抑壓에는 반드시 反作用이 없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무서운 痲醉劑, 이것을 首肯하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다. 또한 보라. 학교, 道廳, 경찰, 所謂 市內 數人의 學父兄과 기타 官僚輩— 同一線上에서 軍國主義에 買收 되어 있는 人物들이 集合하여 조직한 학교 後援會— 이와같이 四角形으로 우리를 包圍하여 無理한 抑壓을 가한 것이다. 1個月여에 걸쳐 當局者들은 오로지 20名의 희생자를 내고 만 것이다. 똑같은 경우에 處한 同志諸君! 또 다시 보라! 이 者들은 明春부터의 朝日共學의 妄說을! 飼羊의 털을 깎아 버리고 最後에 返還하겠다는 準備인 것이다.

被壓迫同志諸君! 우리는 矛盾된 教育제도를 打破하지 않으면 안된다. 新社會의 役軍이 될 우리는 다함께 義憤의 心血을 등에 메고, 精神을 가다듬어 함께 反旗를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朝鮮人本位의 教育을 獲得하자.
2. 식민지 差別的 教育을 打倒하자.
3. 朝日共學에 절대 반대하자.
4. 軍事教育에 절대 반대하자.
5. 校內學友會의 自治制를 獲得하자.

1928年 6月

威興高等普通學校 盟休生一同

문헌 ① 1928年 5月 17日 東亞日報

- ② 1928年 5月 27日 東亞日報
- ③ 1928年 5月 29日 東亞日報
- ④ 1928年 6月 11日, 7月 4日, 7月 15日, 8月 19日 東亞日報
- ⑤ 1928年 8月 25日, 8月 26日, 11月 2日, 11月 21日, 11月 22日, 12月 1日 東亞日報
- ⑥ 「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の 考察」p100-昭和 3年 盟休學校調
- ⑦ 「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の 考察」p102
- ⑧ 「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の 考察」p103-109.

#### ④ 咸興高普 抗日盟休의 餘波

1928년에 있었던 咸興高普의 抗日盟休 檄文은, 비슷한 시기에 盟休抗爭을 전개한 咸興의 農業학교와 商業학교 등에만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라, 全國의 各中等학교에도 衝動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sup> 咸興高普에서 抗日盟休가 시작하게 되자, 在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在日本朝鮮青年同盟, 新興科學研究會등은 共同名義로서 다음과 같은 檄文을 國內의 中等學校와 各界에 발송했다.<sup>2)</sup>

#### 咸興高普盟休에 대하여 全朝鮮學生諸君에 檄함(要旨)

親愛하는 學生諸君! 日本帝國主義의 鐵蹄下에 蹂躪되고 있는 朝鮮民族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非人間的 搾取에 우리의 膏血이 마르고, 그들의 警察정치에 우리의 政治的自由는 剝奪되지 않았던가? 그들이 諸君에게 強要하는 奴隸교육은 그들의 植民政策을 如實히 表現한 것이다. 그들은 무엇때문에 朝鮮史의 教授, 朝鮮語의 使用을 禁止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朝鮮의 子弟인 諸君을 敎養함에 있어서 日本人 本位로써 敎師를 사용하고, 우리 朝鮮에 日本人 本位の 敎育을 실시하는가? 朝日共學制는 무엇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朝鮮민족을 위한 敎育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諸君의 頭腦로부터 〈朝鮮〉이라는 觀念을 根絶시키기 위하여 魂膽으로부터 나온 企圖인 것이다. 諸君은 깊이 記憶하라! 今日의 朝鮮敎育은 諸君에 대한 阿片이다. 그것은 諸君을 永久히 그들의 奴隸와 走狗로 만들기 위하여 朝鮮민족을 完全히 그들의 父上魚肉으로 만들기 위한 觀念的 武器인 것이다. 朝鮮의 學校는 諸君을 暗黑의 巢窟에 永久히 잠자게 하는 觀念的 阿片의 工場인 것이다. 그러나 諸君! 朝鮮의 學生은 이와같은 人爲的 睡眠을 永久히 甘受하지 않는다. 우리들의(學生의) 不平不滿은 全國적으로 膨大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2~3年來에 盟休의 巨濤는 全朝鮮을 震撼시키고 있다. 그러데 盟休가 發生할 때마다 學校와 경찰은 醜雜한 野合을 하여 學生에 대하여 모든 彈壓과 誘惑을 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 東京三團體는 學生의 鬪爭을 강력히 支持하는 同時에 學校와 경찰에 대하여 끊임없이 抗爭하여 왔다.

去月 8日 또 다시 咸興高普에서 盟休事件이 爆發하였다. . . . 中略 . . . 今般의 咸興高普 盟休學生의 요구조건은 植民地的 奴隸敎育의 典型的 履行者라고 말할 수 있는 同校校長의 排斥, 민족적 差別敎育의 撤廢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正當한 要求이며 이러한 要求를 貫徹하기 위한 鬪爭이 얼마나 正當한 鬪爭인가? 昨年 7月 몇몇 日本人 敎諭 및 其他 數個條件으로 因하여 同校에 紛糾가 發生 하였을 때 學校當局은 空手形을 濫發하여 學生을 懷柔

登校시켜 놓고 一年을 經過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約束을 實行하지 않았다. 이것이 今般事件의 有力한 動因이다. 보라! 그들이 純眞한 학생을 欺瞞하고 籠絡하는 이 罪惡을, 이것이 果然 教育자의 態度인가!

學生諸君! 또다시 今月 5日에는 咸興商校에 盟休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咸興農校에서도 盟休가 일어났다. 이와같이 北鮮의 小都市에서는 학생의 지방적 總罷校가 일어났다. 이것은 決코 一校一地方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全朝鮮學生, 全朝鮮民族의 問題인 것이다. 以上の 3개校는 全朝鮮학생의 切實한 要求와 利益을 代表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全朝鮮학생은 그들의 勇敢한 鬪爭을 強力히 支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奴隸교육은 諸君에게 내리려진 魔手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魔手를 排除하려고 하면, 以上 三校의 勇敢한 鬪爭을 支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로지 각 학교중심의 鬪爭이 最大의 支持가 될 것이다. 全朝鮮의 學生諸君이 奴隸教育의 牙城에 肉迫하기 위하여

1. 專制校長을 逐出하라.
2. 학교와 경찰의 野合을 絶대 반대하라.
3. 檢束학생을 석방하라.
4. 校內에 학생 自治制를 確立하라.
5. 植民地 奴隸교육을 撤廢하라.
6. 朝日共學制 실시를 絶대 반대하라.
7. 학생의 全國的 單一體를 樹立하라.

在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在日本朝鮮青年同盟, 新興科學研究會.

이상의 檄文을 본다면, 日帝當局으로서 이들을 학생盟休를 선동하는 不穩團體로 規定했지만, 民族的 입장에서는 正反對로 평가 되었다. 東京의 3단체는 학생들의 檄文보다 더 수준 높은 관점에서 日帝의 韓國인 교육과 그 體制를 비판하면서, 咸興高普를 비롯한 農業校, 商業校의 盟休를 학생抗日盟休로서 支持 讚揚했고, 抗日학생 맹휴의 意味와 志向點을 제시하고, 全朝鮮 학생의 강력한 투쟁과 蹶起를 督勵했다. 이때에 이미 朝鮮학생회, 朝鮮學生科學研究會가 조직되어 있었으나, 日帝의 强壓으로 全國學生界에 대한 中央 지도體的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抗日학생운동을 中央집권적 方向에서 지도하고 統制할 수 있는 학생對日抗爭의 중요한 戰略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日帝 高等경찰의 판단에 의하면 3단체 共同名義로 된 以上の 檄文이 全國의 各級학교에 發送됨으로서 抗日 盟休의 擴大에 적지않은 고무적인 督勵資料가 되었다.<sup>3</sup>

문헌 ①「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의 考察」p106

②「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의 考察」p107-110.

③「朝鮮に 於ける 同盟休校의 考察」p110.

##### 5] 1929年의 學生民族運動과 그의 餘波

咸興高普는 1920年代에 全國의 中等級學校中에서, 가장 치열한 盟休鬪爭을 展開한 학교로

서, 抗日의 傳統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1929年 5月 1日에 日本人先生 排斥을 理由로 盟休가 시작되어, 결국 數名이 退學을 당했다.<sup>①</sup> 그리고 光州학생抗爭이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咸興高普에서도 여기에 호응하여 蹶起준비에 着手하였다. 11月初에 光州학생事件에 관한 檄文이, 학생들 各者앞으로 郵便으로 配達되고, 학생들의 校長室亂入과 光州학생事件에 대한 煽動演說과 萬歲高唱과 학생과 刑事 및 憲兵 사이의 一大亂鬪劇이 버러져, 10여명의 학생이 逮捕되는 事件이 일어났다.<sup>②</sup> 또 학생들은 1929年 12月 16日에 光州학생운동, 甲山火田民事件, 咸興水利組合事件 등을 내용으로 하는 檄文을 만들어 校內外에 뿌리고, 市內 各 학교가 일시에 示威에 突入하려고 했으나 발각되어, 경찰과 학생간에 충돌이 일어나 30여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이런 사태에 對抗하여 학생은 盟休를 단행했다.

이와같은 形勢를 계기로 경찰은, 咸興의 社會단체, 青年단체 간부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고,<sup>③</sup> 이 사태로 咸興高普의 權松周, 金炳熏, 元會讚, 趙誠迪, 金裕錫, 金基善, 宋武赫, 鄭載鎮, 嚴造奭, 任世彬, 曹陽煥, 李壯淑, 劉熙奎, 金世鎬, 金教善, 咸明憲 등에 대한, 咸興署에서의 拘束取調가 계속 되었다.<sup>④</sup> 그리고 이들 학생중, 曹陽煥, 任世彬, 金世鎬, 元會讚, 權松周는 재판에 회부되어, 모두 6個月 징역에 4개年 執行猶豫宣告를 받았다.<sup>⑤</sup>

1929年度의 在學生은 第12回에서 第16回까지의 同窓들이었는데, 1929年末 부터 1930年의 全國的 學生운동이 지나간 뒤인 1931年 4月부터, 咸興高普에서는 植民地교육 反對를 내어걸고, 다시 全校生이 反日盟休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에 各 학교에서도 호응해 相當期間 抵抗을 계속했으므로, 總督府學務당국이 직접 咸興高普事態에 介入하여,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강요하고 겨우 收拾했다.<sup>⑥</sup> 즉 1930年에 咸興高普에서는 校內에 社會科學研究를 목적으로 하는 秘密結社의 讀書會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讀書會의 주동학생은 張仁壁, 李錫麟, 李有浩, 韓根, 朴斗英, 韓鎬林, 徐廷翊 등이었는데, 이들이 4학년이 되었을 때인 1931年 4月 10日경에, 학교에서 特別教室에 入室하라는 것을 4학년 全體가 거부하고 나섰다. 학교측은 4학년의 이와같은 抗命을 응징하여, 이상의 학생들을 退學 또는 無期停學에 처하였다. 이런 強壓에 학생들은 盟休를 단행하기로 하고, 위의 학생들이 主體가 되어, 〈爭議團〉을 조직한 다음 “奴隸의 식민지교육 撤廢”, “경찰의 야수적 強壓 絶대반대”등을 취지로 하는 檄文을 作成하여 咸興高普와 咸興農業등에 살포하고 盟休를 지도했다.<sup>⑦</sup> 그리고 1931年 5月 25日에 咸興高普와 咸興農業에서 다시 檄文事件이 일어났다.

한편 1931年에 滿洲事變이 일어나자, 反戰反帝運動이 國內外에서 일어나고, 民族의 獨立을 마지막 指標로 삼는 學生結社운동이 나타났다. 日警의 資料에 依하면, 이때에 咸興에서는 咸興高普, 咸興農業, 咸興商業, 永生高普, 永生女高의 학생으로 秘密結社란, 學生共同委員會가 있었는데, 1932年 6月 14日에 54名이 檢舉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 委員會의 活動은 알려진 것이 없어 알 수가 없으나, 그 後에도 咸興高普에서는 反帝와 共產主義운동 및 抗日盟休가 계속 되었는데, 1935년에는 宇垣總督이 學校에 直接와서 “反帝니 共產主義니 하면서 同盟休學을 되풀이 하는 이런 學校는 없애버려도 좋다”고 까지 했다.<sup>⑧</sup>

- 문헌 ①, ②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同窓會誌(2). p30-31, 1987. 10  
 ③ 1929年 12月 28日 朝鮮日報 및 東亞日報, 1930年 1月 1日 東亞日報  
 ④ 1930年 1月 5日 東亞日報  
 ⑤ 1930年 4月 28日 朝鮮日報  
 ⑥ 1931年 5月 5日 6月 25日, 28日 朝鮮日報  
 ⑦ 「威興高普 讀書會事件 및 盟休事件判決文」, (光州학생 독립운동사)p217-217  
 ⑧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同窓會誌(1). p18. 1986. 10

#### ⑥ 1940년경의 民族獨立 秘密結社

威興에서는 3·1운동을 거친 以後, 1927-1929年 사이에 가장 격렬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抗日盟休는 전국의 各학교를 고무振作 시키는 威勢를 떨쳤다. 이것은 抗日獨立運動이 벌어졌던 韓滿國境이 가깝고, 特有的 教育熱과 日帝에 대한 抵抗風土가 뿌리깊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抗日思想은 中日戰爭이 長期化되고, 그것이 다시 太平洋전쟁으로 擴大되어 갈수록, 反日운동을 深化시켜 갔다.<sup>1)</sup> 威南中學에서는 1940년에 高山仁이 敎諭로 부임하면서부터, 民族意識이 더욱 심어졌는데, 高山仁(第6回 卒業：本名 楊仁性)<sup>2)</sup>은 東京高等師範을 졸업한 후, 濠信中學, 信聖中學, 明德高女 교사를 歷任하다가, 다시 東京文理大에 진학했으나 中退하고, 永生中學, 永生高女를 거쳐 1940년부터 母校인 威南中學에 敎諭로 근무했다.

그는 日本留學時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差別, 光州학생운동 당시 信聖中學에 在職할 때 官憲으로 부터 받은 탄압에 분개하여, 自身の 민족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다. 信聖中學校務主任으로 근무할 때는, 링컨의 奴隸제도 철폐를 引用하여, 우리 民族解放을 위한 뜻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永生中學에 개직中에는 平北五山中學의 設立정신과 校風이 民族獨立思想으로 일관한다는 것을 소개 宣傳하면서, “個人的 安榮보다는 民族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등으로, 학생들에게 民族意識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1941年 2月경 威南中學의 完山秀雄, 完山殷在, 安村忠根 등 3名의 학생이 그를 찾아와, 內鮮一體, 朝鮮志願兵制度, 創氏문제, 朝鮮語廢止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자, 反日民族思想의 方向에서 학생들에게 교양을 주었다.

이러한 先生의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反日民族意識은 더욱 高潮되어 갔다. '1940年 10月경 威南中學 5학년의 完山秀雄<sup>3)</sup>은, 同級生인 完山殷在 安村忠雄, 新木文雄 등과 함께, 히틀러의 7人組를 모방하여 同志를 규합하고,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 하였다. 그리하여 同級生 東村武治와 4학년의 金川茂功, 魏村成炫등을 포섭하고, 完山秀雄의 下宿집에서 7人組結社를 논의 하였다. 그리고 1940年 11月 3日에 7名은 盤龍山 저수지 뒷편에서 密會하여, 우선 結社의 명칭을 定하기로 하고, 各自의 의견을 물었는데, 義勇團, 東光社, 獨立堂, 無窮會등의 案이 나왔으나, 東光社를 結社의 명칭으로 定했다. 部署는 社長에 完山秀雄, 立案部長에 安村忠雄, 同理事에 金川茂功으로 定했다. 또한 이들은 結社의 目的은 朝鮮의 獨立에 있음을 확인하고, 社則草案을 협의한 끝에 헤어졌다.

1940年度の 在學生은 第23回에서 第27回까지의 同窓들이었는데, 이들 東光社는 第2回の 모임에서 社則과 會員章을 결정하고, 宗教의 힘을 빌기 위하여 天道教에 入敎할 것을 결의하고, 1940年 11月 中旬경에 天道教 威興敎區에 入敎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천도교 함흥 교구에는 經理員으로 文泰和가 있었는데, 그는 1928년에 間島東興中學 在學中(4학년) 左翼운동을 하다가 2年 징역을 살았고, 京城赤衛隊 事件에 관련하여(1934年)징역 3年을 살았다. 그리고 그 後 轉向하여 天道教에 入敎하고 民族主義 路線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文泰和에게 東光社는 指導를 의뢰하게 되자 그는,

1. 東光社라는 명칭은 不穩단체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時光社로 고칠 것.
2. 營利事業을 僞裝해 놓고 독립운동을 할 것.
3. 宣傳部는 검거되었을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分立시킬 것.
4. 社則의 成文化는 위험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
5. 綱領의 字句를 부드럽게 粉飾할 것.

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實踐운동 등에 대하여 지도의견을 폈다.

完山秀雄등은 1941年 3월에 威南中學을 졸업했고, 그뒤 東光學園의 敎師로 근무하면서, 학생 80여명에게 〈東光魂〉을 고취하며, 朝鮮偉人傳을 가르치고 민족운동을 펴 나갔다.

문헌 ① 鄭世鉉著「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p519 一志社 1975.9

② 鄭世鉉著「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p520 一志社 1975.9 및 同窓會誌(交友會誌 卒業生名簿)

③ 鄭世鉉著「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p523-524, 一志社 1975.9

#### 7 日帝末의 反日運動

威興에서는 1940年末경부터 威南中學內에서 秘密結社된 東光社(時光社)의 活動이 있는 한편, 威農出身의 守田守成이 이끄는 鐵血團의 秘密結社가 있었다. 그런데 1941年 12月 28日에 威興農業의 卒業式이 있는 뒤에, 卒業生들의 市內示威行進이 있어서 경찰의 검거가 즉각 시작 되었는데, 다음날인 12月 29日에 歸鄉하던 威農 4年生의 所持品에서 “同志들이여 時期는 目前에 닥쳐와 苦待한다. 我等은 鬪爭하자. 自由를 求하자. 아름다운 꿈의 나라를 建設하자. 우리 同胞萬歲”등의 內客이 씌어진 文件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下宿집에서 多數의 不穩서적과 文書를 발견하고, 市內 中學生間에 秘密結社가 있음을 탐지하여, 이것을 계기로 威南中學, 永生中學, 永生高女, 威興農業, 威興師範 등에서, 9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sup>㉔</sup> 이때에 威南中學 關聯者로 起訴된 사람은,

威興府本町 南中卒 無職 完山秀雄 22세  
 威州郡宣德面 南中卒 無職 完山殷在 21세  
 威州郡川原面 南中卒 無職 新木文雄 21세  
 高原郡高原面 南中5年 金川茂功 20세  
 威興府城川町 思想前科者 文澤秀夫 36세  
 天道敎幹部 (文泰和)



豊山郡豊山面 東京豫備校學生 東村武治 20세  
 文川郡明龜面 南中卒 無職 安村忠雄 22세  
 新興郡西 面 南中5年 魏村成炫 21세  
 北靑郡厚昌面 南中5年 魏村成炫 21세  
 咸州郡三平面 南中教諭 高山 仁 43세 (楊仁性)

이고, 起訴猶豫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咸州郡 州西面 南中卒 大林久光 20 永興郡古寧面 南中5年 鄭村守斌 20

咸州郡州西面 南中5年 米原鉉斗 19

한편 학생들은 卒業直前に 咸興경찰서 高等係와 三宅校長室에 交代로 불려 다니며 徹夜로 訊問과 取調을 받고, 결국 咸興農業의 抗日운동(우리집 事件)에 깊이 관여된 不穩學生이라 하여, 近 20名이 무더기로 無期停學을 받고 父母의 誓約下에 풀려났는데, 이들이 第24回의 同窓들이었다.<sup>②</sup>

1941年末에 太平洋戰爭이 일어나고 日帝의 마지막 發惡은 加重해 갔지만, 이러한 戰時體制下에서도 학생들의 反日結社 운동은 계속 되었다. 1940년에 咸南中學 4학년의 朴承鼎과 金興烈등(第24回 同窓)은 地下組織에 加擔하여 反日鬪爭을 하다가 체포되어 服役하고, 朴承鼎은 服役中 1943년에 獄死하였고, 金興烈은 病保釋으로 석방되어 後遺症으로 解放前에 別世했다. 그리하여 이들의 反日愛國운동은 咸山誌와 咸鏡南道誌에 紹介되었다.<sup>③</sup>

한편 1944年 4月 29日의 天長節날에 第27回의 同窓들들은, 宣德의 日軍航空隊에서 있었던 老壯年報國慰安會에서, 「朝鮮의 노래」와 愛國歌와 萬歲를 불러, 咸興地方學生事件이 일어났고, 50여명이 검거되어, 少年刑務所에서의 獄살이나 或은 執行猶豫와 起訴猶豫를 받았다.<sup>④</sup> 그리고 1943년에는 第28回 同窓들 속에서 短波聽取事件으로 李在珪가 체포되어 獄살이를 한 일이 있었다.

문헌 ① 鄭世鉉著「抗日學生 民族運動史研究」p521-523, 一志社 1975.9

② 「高等外事月報」(1942年 4月分)p27-36, 및 鄭世鉉著「抗日學生 民族運動史研究」p525

③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同窓會誌(1) p28, 1986. 10.

④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同窓會誌(1) p33, 1986. 10.

⑤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同窓會誌(2) p65, 1987. 10.

## ㉘ 解放後의 反共義學

1945년에 日本은 마침내 無條件降服을 했고, 北韓에는 蘇聯軍 進駐下에 共產政權이 들어서기 始作했다. 이 해에 우리의 母校는 咸鏡南道 人民委員會에 校舍를 빼앗기고, 咸興高女 자리로 쫓겨났고, 校名도 咸南中學에서 咸興中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自由를 빼앗고 共產主義를 崇奉하라는 強要가 學園으로 스며들었고, 社會에서는 共產主義者와 蘇聯軍政의 蠻行이 날로 酷毒해져 갔다. 이러한 속에서 咸興에서는 1945年의 11月 7日과, 1946年 3月 13日에 學生들의 義學가 일어났고, 이 義學에 參與한 同窓들은 第29回를 爲始로 하여 30回 31回 32回의 同窓들이었다.

1945年 11月 7日은 以北에서 첫번째 맞이하는 蘇聯革命記念日이어서, 이를 祝賀하는 市街行進에 學生들을 動員했다. 그러나 우리의 全校生은 行進中에 赤旗를 찢어버리고 反蘇口號를 외쳤다. 이 일로 學校에는 休校令이 내려지고, 10여명의 學生幹部와 韓恂鉉校長 以下 全校員이 咸興刑務所에 收監 되었다.<sup>1</sup>

사실 咸興에서는 1945年 9月부터 各學校가 開校하여, 學校마다 學生自治會가 생겼고, 11月 7日의 赤旗毀損事件이 있는 뒤, 11月末경에 咸興地區學生 自治聯合會의 첫 會合이 咸興醫大에서 있었다. 그리고 冬季放學이 끝난 1946年 2月 初旬에 2次 會合에서 聯合會의 結成大會를 咸興公會堂에서 가질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일은 저들의 손에 꺾이고, 3月 1日 蜂起의 계획도 저들의 檢舉로 霧散됐다. 그래서 咸南中學을 主動으로 하여 咸興醫大등 各級學校 代表들이 은밀히 여러차례 會合하여 3月 13日을 舉事日로 定했다.

이에 앞서 3月 11日에는 100여명의 咸興醫大生이, “우리의 쌀은 어디로”라는 口號를 외치며 거리에 뛰쳐 나갔고, 500여명의 他校 學生들이 “우리에게 쌀과 자유를 달라”고 질규하면서 市街를 行進했다. 그리고 이 隊列은 黃金町에서 농들의 騎馬隊의 저지를 받았으나 咸南人民委員會를 向해 突進했다. 이에 농들은 즉시 學校長 會議를 열고, 學生蜂起에 준엄한 間責이 있을 것을 警告하고, 春季放學을 3月 14日부터 실시하라고 전달했다.

마침내 1946年 3月 13日의 咸興學生 反共義舉는 일어났다. 이날 咸南中學의 學生들은 10시에 校門을 나와, 咸興驛 앞을 거쳐 黃金町國民學校(當時 咸南女中이 共用) 正門 앞으로 向했다. 이때 他校의 學生들도 明寶극장·朝鮮은행·實科女校을 거쳐 黃金町으로 向했고, 愛國歌와 校歌를 부르며 “우리에게 쌀과 自由를 달라!” “학원의 自由를 侵犯치 말라!” “共産黨 물러가라”고 외쳐댔다. 그리고 隊列의 行進을 저지하는 농들을 맨손으로 때리고 하수구와 개울창에 사정없이 처박았다. 그때 市民들은 누구나 일손을 멈추고 일어섰고, 商人들은 門을 닫고 隊列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四方에서 뛰어오는 騎馬隊의 손엔 저마다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2發의 銃聲에 學生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黃金町國民학교 正門길을 꺾어들면서 投石戰이 벌어졌고, 저들의 銃器를 빼앗은 學生들도 있었다.

學生들의 隊列은 城川町을 거쳐 西咸興驛을 지나 大和町에 이르렀는데, 先峰에 섰던 咸南中學生을 비롯하여, 市內의 5000여명의 學生과 이에 加勢한 市民 1만여명이 怒濤와 같이 물결치며 郵便局에서 軍營通을 向해 나아갔다. 이때에 隊列을 沮止하던 농들은 銃을 쏘면서 물러가고, 그자리에 따발총으로 完全武裝한 蘇聯軍人들이 나타나, 示威隊에게 無差別射擊을 加해 왔다. 蘇軍들은 軍用트럭(美制 GMC)을 타고 질주해 오면서 亂射해서 市內는 순식간에 銃聲과 고함소리, 店舖의 유리窓 깨지는 소리로 阿鼻叫喚이 되고 死傷者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에 맨 먼저 숨진 학생은 17세의 學生이었다. 그는 鮮血을 내어뿜으며 어머니와 선생님을 哀切하게 부르다 非命에 갔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고, 더욱 거세게 抵抗해 보았다. 그러나 亂射하는 蘇軍의 沮止隊를 뚫고 나아갈 수는 없

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示威隊는 四方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놈들의 銃聲이 몇자 이번에는 집에서 골목에서 길가에서 젊은 학생과 反共愛國市民이 강제로 연행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 義學로 因해 10余名の 死傷者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取調를 받았다. 威南中學에도 그 後에 休學令이 내려지고, 搜索, 逮捕, 監禁등의 橫暴가 甚했고, 主謀者 8名の 退學處分이 내려졌다.<sup>2</sup>

이 事件이 있는 뒤에 많은 同窓들이 避身하여 南韓으로 넘어 오게 되었고, 特히 卒業學年の 第29回 同窓들과, 많은 愛國志士, 文人, 反共愛國市民들이 이 以後에 38線을 넘어왔다. 그리고 3·13 威興學生 反共義學 뒤에, 韓恂鉉校長은 他意로 威南中學을 떠나게 되었고, 1947年 7월에 30회와 31回 同窓들의 卒業을 끝으로, 이 悠久한 傳統의 學校도 赤徒들의 손에 依해 命脈을 잃었다.<sup>3</sup>

문헌 ①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同窓會誌(1) p35, 同窓會誌 p85

② 威南民報 1989年 3月 1日 (3·13威興學生 反共義學) p3

③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同窓會誌(2) p85

校組

## 요즘 患者들

### 韓 鎮 慶 (29回)

내가 오랜 綜合病院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新設洞 로타리 근처에서 皮膚科를 개업한지도 어언 二十三年이라는 歲月이 흘러갔다. 歲月이 화살 같다더니 江山이 두번씩이나 바뀐 셈이다. 그동안 우리 社會가 많은 變化를 보이면서 나타낸 여러 世態들이 내 이 조그마한 診察室에도 어김없이 비취 들어오기 마련이다. 男女老小 各계 各층의 多樣한 患者들을 매일 다루다 보니 이제는 診察하는 과정에서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잠깐 나타나는 行動學止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性格이나 心理狀態 또는 사람됨 같은 것 까지도 感知할 수 있게 됐다. 患者들을 診察하는 方法에서 視診 또는 望診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患者를 우선 걸으므로만 보고서도 대충 그 病의 輪廓을 잡고 들어간다는 것인데 名醫일수록 그 的中率이 높기 마련이다. 特히 內科 영역에서는 많은 經驗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大學시절 內科診斷學 시간에 某教授가 이 대목을 講義 하면서 「學生들이 이다음 醫師가 되어서 視診할 때 이 患者는 돈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호주머니 같은거나 熱心이 視診하면 안됩니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診察 과정에서 病 자체를 正確히 診斷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그 患者의 生活에 어떤 精神의인 콤플렉스가 없지 않은가를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特히 近者에 社會가 점점 복잡해 지면서 많은 疾患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原因이 되고 그로인한 마음의 葛藤, 緊張, 不安, 焦燥, 같은 것이 病의 治癒를 지연시키는 걸림돌

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기계적인 診療은 그 患者들의 단순한 肉身的 病治療에는 혹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心理的인 要因이 계속 內在하고 있는 限 完全한 治癒는 어려울 것이다. 皮膚病도 예전에는 細菌, 病虫, 昆蟲 등에서 오는 感染性 疾患이 많았으나 지금은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住居 환경이 좋아지고 衛生的인 生活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많이 減少되었다. 오히려 急速한 產業의 發達로 말미암아 生産되는 각종 化工物品과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化粧品 身體裝飾品 有機化工品인 衣類 등의 使用이 增加되고 休日에는 登山, 野外, 海邊에 자주 나감으로서 植物, 昆蟲, 日光 등에서 오는 所謂 말하는 알레르기性 疾患이 增加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性病患者가 每年 增加하고 있다는 現實이다. 더구나 患者의 年令이 점점 낮아져 二十代는 勿論 十代까지 내려가고 있어 큰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後進 國家를 벗어나 이제 겨우 밥술이나 먹게 되었다고 享樂產業이 발달하고 性道德이 문란해져 頹廢風潮가 만연되고 있는 이 社會 그렇다고 遊興業所 종업원들에 대한 檢診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니 性病은 增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에 대한 지나친 禁忌가 人間의 精神 建康에 해롭고 따라서 성에 대한 지나친 禁忌를 止揚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現代精神醫學의 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였지만 그가 주장한 것은 아무렇게나 즐길 수 있도록 性を 開放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또 예로부터 傳來되어 온 우리 國有의 建康法에도 一少 五多法이라는 것이 있다. 一少는 小食을 말함이고 五多는 多動, 多世, 多接, 多忘, 多睡를 일컫는다. 勿論 多接을 文字 그대로 性接觸을 무턱대고 많이 가지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性生活이란 合法的인 配偶者와의 肉體的 結合을 통하여 서로가 즐거움을 갖는 同時에 그러한 서로의 즐거움을 통해 相對方的 精神的 成熟과 昇華를 가져 올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子女를 키우는 가운데서 家庭의 幸福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던 성에 대한 觀念이 產業文化의 영향을 받으면서 性도 人間이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니 自由롭게 가져보자는 식으로 왜곡 인식되어 酒色과 浮華放蕩의 風潮가 우리 社會에 만연되고 있으니 實로 概歎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性病에 걸려서 병원에 와서도 요즘 患者들은 예전의 患者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던 羞恥心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병원에 들어오면서 保險카드를 堂堂히(?) 낸다. 이제는 큰 負擔없이 손쉽게 治療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다는 심사인가 治療後 「당신에 필요한 注射는 保險 價票에 登載돼 있지 않기 때문에 不得已 本人 부담을 좀 만히 해야 되겠다」고 말해주면 금시 不滿이 나온다 享樂의 所產物인 性病을 保險에서 혜택을 주는 當局의 政策에도 問題가 있거니와 享樂은 享樂대로 즐기고 病은 保險으로 값싸게 治療 하겠다는 이런 「암체」같은 患者를 보면 情念이 뚝 떨어져 버린다. 患者가 나간 다음 「遊興街에 갈때도 保險카드를 가지고 가라지」하고 나는 혼자서 중얼거리 본다. 어떤 患者는 診察室에 들어 오면서 손에 自動車키를 보라는 듯이 들고 있다가 내 冊床위에 탁 놓는다 車가 있다는 것을 誇示해 보겠

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정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患者도 가끔 있다. 「그 女子는 그런 女子가 아닌데요」 「그 女子는 實은 家庭主婦인데요」 곧 죽어도 「아다라시이」나 「無菌性」만 相對했다는 것인가? 어느 슷처녀나 정숙한 家庭主婦가 골빈 女子가 아닐진데 처한테만 몸을 허락 하겠는가 참 뻔뻔스럽고 厚顏無恥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患者들이 들어와서는 「玄關門을 들어올 때 길가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좀 주저 주저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保險카드를 使用치 않는 患者들도 종종 있었다. 뭐그리 자랑스러운 病도 아닐진대 남몰래 빨리 고치고 말겠다는 마음에서 일깨다. 「원장님 이런 病으로 찾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좋은 藥을 써서 빨리 낫도록 하여 주십시오」하거나 注射를 맞으면서 看護員이 「이 注射는 좀 아플겁니다. 注射맞은 데를 잘 문지르세요」하면 「나쁜짓을 했으니 氣슴받는 셈 치지요」라고 하던 옛적 患者들과는 꼭 對照的이다.

요즘 患者들은 또 大體로 버릇이 없다. 명색이 그래도 아버지같은 나이의 博士가 진지하게 보고 있는 診察室에 들어오면서 인사는 고사하고 바지 호주머니에 양손을 버젓이 넣고 있거나 팔장을 끼고 말하는 患者들이 많다. 심지어 담배를 권하면서 맞담배질 하겠다는 젊은이들 까지 있다. 나는 하도 그런꼴이 보기 민망해서 「당신은 직장 上司앞에서도 그래요? 우수한 社員이 되려면 自己職分에도 充實해야 되겠지만 端正한 몸가짐 또한 중요하니 고치도록 하시오」라고 타일러 주기도 한다. 中學校 시절 韓恂鉉先生 한테서 「벼이삭은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이는데 「고노야쯔」들은 커 갈수록 건방져 진다」고 야단맞던 일이 생각난다. 버릇이 없기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애들은 待合室에 들어 오면서부터 시끌시끌 떠들어 댄다. 손에는 먹을 것을 들고 여기저기 널어 놓는다. 마치 어린이가 놀이터를 방블케 한다. 診察室에서도 어려운 줄 모르고 잠깐이라도 눈을 팔고 있으면 治療器具나 檢査器具를 겁없이 만져댄다. 이는 家庭教育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애들을 여자여자 지나치게 귀엽다고만 해주고 구김새 없이 활달하게 키운다는 것이 버릇없는 方向으로 잘못 빗나간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는 어릴때 어머니하고 병원에 가면 醫師先生이 왜 그렇게도 謹嚴해 보이고 무서웠던지 오늘은 注射를 또 몇대나 놓는건가 아픈 注射는 아닌지 「칼」같은 걸로 어디를 찌지는 않을지 걱정하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醫師先生의 눈치만 살살 살피던 일이 생각난다.

요즘 患者들은 또 每事를 쉽게만 해결하려고 한다. 「누구는 여기와서 注射 한 대 맞고 나왔다는데 저도 그렇게 고쳐 주세요」 「요다음 다른 사람이 와서 藥만 타가도 될까요?」 大概 이런 患者일수록 증세가 심하거나 慢性患者가 더 많다. 「治療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하면서 藥品廣告 같은데서 얻은 端片的인 지식을 가지고 맞대든다. 病을 治療하려면 醫師의 정확한 診斷과 治療기술도 좋아야 되겠지만 患者 스스로의 鬪病精神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以前같은면 이에 所要되는 治療費 마련도 필요했거니와 國民皆保險이 시행되고 있는 現在엔 저렴한 治療費로도 되니 이는 患者로서는 꼭 多幸스러운 일이다. 近來電話가 집집마다 다 있다시피 普及 되었기 때문에인지 電話벨 소리가 유난히 잦다. 「이러이러한 증세인데

무슨 病이나? 어떤 藥을 쓰면 좋은가?」라는 앉아서 電話 하나로 萬事를 해결하려는 安逸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다. 醫師가 直接 봐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참 「암체」같은 發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왕 電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 病院에는 「거기 院長님이 혹시 女子先生님이 아십니까?」하는 電話가 종종 걸려온다. 내 이름을 女子이름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女子인 경우는 「男子先生들은 무섭고 자상한데가 없어서 女醫師이었으면 하고 電話를 걸었다」는 것이다. 男子의 경우는 皮膚科女醫師? 하던 妙한 好奇心이 좌절 되었음인지 아쉽다는 듯이 電話를 끊는다.

여러 많은 患者를 대하다보니 가짜 南中出身을 摘發(?)한 적도 있었다. 十五年前쯤 되었을까 林某라는 내나이 또래의 患者가 있었는데 威鏡道 사투리가 있어 「혹시 故鄉이 그쪽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네 威興입니다. 學校는 威南中學을 나왔소」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까지 하였다. 나는 同窓을 만난 기쁨에 「언제 卒業하였느냐」고 물었더니 「白昌烈씨와 同期입니다」라는 것이 아닌가 「白君하고? 나도 白君하고 同期인데 내얼굴을 모르겠느냐」고 물었더니 금시 얼굴이 빨개지면서 「잘 記憶이 안난다」는 것이다. 自畫自讚은 아니지만 그래도 學校다닐때 工夫개나 했고 模範生이었던 이 韓진경이를 몰라 보다니 內心 수상히 여기면서 「서로가 그렇게 모르고 지냈나요? 어디 同窓名簿를 한번 봅시다」하고 찾아 보았더니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以南에 나와 南中出身 형세를 한 것이다. 「외나무다리에서 누구를 만난다더니 -」 그는 내뺨다시피 나간 후 다시는 나타나질 않았다.

나는 앞에서 나의 診察室에 비친 여러 患者들의 이모저모를 雜多하게 써왔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患者가 한 사람 있다. 그러니까 六八年 초여름 어느날 한 中年男子가 生後 한달도 채 안된 갓난 女子 애기를 안고 들어왔다. 이름도 아직 짓지 못했고 애기 어머니는 産後조리 중이어서 자기가 직접 안고 왔다는 것이다. 診察해 보니 新生兒天疱瘡이라는 病이었다. 皮膚病에도 生命을 앗아가는 病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皮膚癌 같은 것 말고도 몇가지 致命的인 病이 있다, 이 애기가 걸려있는 天疱瘡이라는 病도 이런 病中の 하나인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病이라는 것을 保護者에게 대충 설명해 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S大學病院에 갔더니 可望이 없다는 醫師의 이야기를 듣고 힘없이 돌아오던 길에 내병원 간판을 보고 여기 이 醫師는 뭐라고 診斷하는가 하는 마음에서 들어 왔노라고 띄엄 띄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保護者는 「院長님 이제는 더이상 올데갈데도 없습니다. 結果가 잘못되어도 좋으니 治療하는데 까지 治療하여 주십시오. 父母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어린 生命을 차마 그대로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내키지 않았지만 그 保護者의 마음이 하도 진지한데 이끌려 治療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甚하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好轉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十餘日나만 治療한뒤 그 애기는 完全히 나아졌던 것이다. 그 保護者는 朴기철 씨라는 敎會牧師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後 朴목사는 너무나 고맙았던지 新設洞 韓아무개 博士가 살려 주었다는 것을 두고 두고 잊이않기 위하여 그 애기의 이름을 내이름을 그대로

따서朴진경이라고 지었던 것이다.歲月이 흘러 흘러朴진경이는 어언간 스물세살 벌써某女大卒業班이 되었다. 지금도朴목사가視務하고 있는敎會에서는 많은敎인들이 우리病院을 찾아오고 있다.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 아니겠는가.

요즘 내生活은 무척 바쁘다 患者들 診察하라 保險관계書類를 作成하라 늘 時間에 쫓긴다. 바쁜것까지는 좋으나 그만큼歲月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다.學校시절 취미로 즐겼던庭球나 書藝같은 것이 요즘 한창 붐을 이루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못하는 것이 또한 아쉽다.日曜日 年後 登山하거나 郊外를 드라이브 하는 것으로 一週日동안 診察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고작이다.老人은 過去에 산다고 했던가 아직 完全한 老人도 아닌데 一退勤 후 가끔 친구 그것도 中學시절 친구들과 만나 소숫잔을 기울이면서 아무 허물없이 옛 얘기를 나눌때가 제일 좋은 것을 보면 歸巢本能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가 보이다. 平凡한 「보통醫師」에겐 이제 野望같은 것도 없다. 다만 내 특유의 부지런함과 健康이 내내 유지되고 第二第三의 朴진경이 계속 나오기를 조용히 祈願해 볼 뿐이다.

## 8·15解放과 3·13學生義學와 30期

金秉喆(30回)

國籍과 戶籍은 바꿀 수 있어도 學籍만은 永遠히 바꿀수 없다.故郷을 떠나 半世紀동안 한 번도 故郷에 가본적이 없고, 母校의 교정은 밝아본적도 없고 서울에서 大學을 나오고 서울出身 아내와 結婚하고 標準말을 써도 아무개는 함경도사람이고, 威南中學出身 또는 威興高普出身이란 랫델이 붙어서 平生까지 아니 永遠히 딸아다닌다. 따라서 누구나가 自己出身校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게 마련이다. 나自身도 盤龍山과 馳馬臺기슭에 자리잡은 威南의 名門校 威南中學出身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끈끈한 情을 가지고 있다.

回甲을 지나 이젠 老年期에 들어선 나이에 45-6年前은 回顧하면서 좀 주책없기도 하나 여러同窓들과 같이 생각할수있는 機會라고 생각하여 몇字 적어보기로 하였다. 威南中學校 100年 歷史에서 30期생은 유달리도 激浪의 時期에 在學했던 기인것 같다. 중일전쟁과 제2차 대전중이었으며, 일제의 侵略이 그 어느때 보다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교장과 大部分의 敎師가 日本人이었으며, 몇분의 韓國人敎師들이 우리를 指導하고 있었다. 民族主義色彩가 濃厚했으며, 抗日思想이 透徹했던 先輩들이 여러차례 傳統的으로 스트라이크도 벌인 탓으로 우리 學生들에 대한 監視가 그 어느때보다 深刻했다. 日本人擔任은 자주 家庭訪問도 했으며, 독서하는 書籍은 勿論 日記帳과 家族 親友關係를 綿密하게 調查하곤했다. 따라서 世界文學全集도 마음놓고 읽기 어려웠다. 일본인三宅校長은 직임관이라 말을 타고 登下校했으며(당시에는 道知事와 막먹는 地位에 있었음), 白井敎官 등은 軍事訓練에 힘썼으며, 英語敎師 佐護先生은 영어보다 日本語敎育에 더욱 열을 올리곤 했다. 熱心히 軍事訓練을 했던만

駐屯軍이 主官하는 查閱 때 講評에서 “너희들 先輩中 短波放送을 청취한 事件이 있어 總評은 不良이다.”라고 찍혀 혼이 난 일도 記憶난다.

그러나 우리 30期生들은 咸南各地에서 모여든 俊才들로, 入學때 講堂앞 벽에 先輩들의 進學者名單을 보고, 가슴 설레었던 記憶이 지금도 새롭다. 一高, 三高, 八高, 京城帝大豫科, 세브란스醫專, 咸興醫專 등등 기라성같이 나붙은 榜을 쳐다보고, 나도 저기에 당당히 이름이 나붙을 때가 있겠지 하며 希望이 가득차기도 했다.

그럭저럭 一學年이 지나고 二學年이 되고나서 점점 戰況이 不利해지니까 드디어 勤勞動員에 差出되게 되었다. 한참 向學熱에 가득찬 一生中 가장 貴重한 工夫할 나이에, 戰爭遂行의 道具로 活用되어, 咸南肥料工場에 産業戰士로 動員되었다. 무엇을 生産하는지는 몰라도 工場施設을 改造하는 듯, 機械를 設置하는 作業에 從事하였다. 寄宿舍는 勿論 九龍里에 位置한 獨身者寄宿舍였으며, 工場에서 도보로 20-30分距離였다. 배고프고 疲勞에 지쳤으나 日本人教師들의 嚴格한 監督때문에 自由가 전혀 없었다. 나의 경우 寄宿舍近方에 兄님이 살고 있었기에 몇명親舊들과 몰래 深夜에 빠져나가 밤참을 먹고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 약삭빠른 친구들은 피병을 빙자하여 2,3日 病假를 받기도 했다. 그當時 先輩들은 連浦의 飛行場擴張工事に 動員되어, 重勞動을 強要당했으며, 어느 誤樂會行事 때 愛國歌를 合唱하는 事件이 發生하여 온통 日本高等係刑事들을 놀라게 했으며, 우리들에 대한 監視는 더욱 嚴해졌다. 그런저런 理由로 三宅校長은 辭任한 후 歸國하고 말았다.

그러던中 1945年8月15日 갑자기 工場內廣場에 急히 集合하라는 構內放送을 듣고 달려갔더니, 잠시后 戰爭의 終結을 알리는 所謂 “玉音放送(日本天皇이 肉聲으로 敗戰을 宣言하는 放送)”이 擴聲器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工場의 幹部社員, 그리고 우리 처럼 動員되었던 京城帝國大學豫科生들과 함께 어울려서 듣고 있었다. 우리들은 영문도 모르고, 놀랜 表情이었으나, 그들은 심히 초조하고 失望한듯 고개를 숙이고 울기도 하고, 땅을 치며 원통해 하기도 하면서, 不安에 떨고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 모습이 바로 敗者의 모습이며, 敗戰者의 슬픔인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해 7월에 포츠담宣言, 거기에 대한 日本鈴木내각의 “默殺”(拒否가 아니었다고 함), 그리고 日本廣島·長崎에 新型爆彈 即 原子爆彈의 落下, 日本本土 上陸決戰의 突入直前이라는 숨막히는 事件이 連이어 發生했었다고 한다.

感激의 祖國解放! 그리고 그리운 自家歸鄉, 고된 勤勞奉仕에서의 解放 등 급변하는 狀況에 어리둥절하면서 다음날부터 學校校庭에 모여 事後對策을 論議했으며, 韓國人教師들을 중심으로 새출발을 서둘렀다. 그때부터 朴世雄同門의 母親등 學父母들이 太極旗를 가지고 나왔으며, 愛國歌練習도 신나게 하게 되었다.

聯合軍의 勝利로 우리나라가 日本의 植民地로부터 解放 되었으나, 不幸하게도 38線이 그 어졌고 以南에는 美軍이, 以北에는 蘇聯軍이 진주하게 되었다. 그때 부터 共產主義를 信奉하는 인사들이 蘇聯軍의 支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共產政權을 수립하려는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게다가 食糧難도 심했고, 특히 우리 母校인 威南中學校舍를 道人民委員會로 사용하게 되어 강제로 舊威興女高(日本人學校)로 移轉하게 되어 우리들의 不滿은 高潮하게 되었다. 1945年 11月에는 新義州學生反共義學가 일어났고, 이에 同調하는 學生들의 움직임이 散發的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人民委員會의 事前摘發로 많은 學生들이 拘禁되었다. 그동안 威興醫專學生會長團을 中心으로 各級學校의 學生會長들이 陰密히 會合을 거듭하여 學事를 謀議하다 드디어 1946年 3月 14日 一齊히 蜂起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3·13威興學生義學인 것이다.

威南中學은 當日 9時頃 校庭에 全學生이 雲集하여 反共口號를 외치며 自由를 絶叫하며 示威에 나서게 되었다. 校門을 나선 示威隊는 威興驛前을 거쳐 黃金町(當時 威南女高가 黃金町國民學校에 臨時敎舍를 併設하고 있었음)을 經由 威南女高學生들을 同伴하면서 軍營通에 到達했을 무렵, 完全武裝한 蘇聯軍과 마주치게 되었다. 우리들의 最終 目的地는 우리 母校 자리에 位置하고 있는 함남인민위원회이며, 거기서 各級學校示威隊가 總集結하여 最終聲討를 버릴려고 했었다. 그러나 示威隊와 마주친 蘇聯軍이 無差別 銃擊를 터붓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發生하게 되고 示威隊는 解散하게 되었다. 示威는 어디까지 평화적 시위였다. 그러나 그후 威興市內에는 學生 일제검거가 實施되고, 一部學生은 山中으로, 一部學生은 越南을 企圖하고, 一部學生은 拘禁되는 등 事態가 展開되었다. 威南中學에서는 人民委員會의 사주에 의하여 學生會 幹部인 示威主動學生 8名은 退學處分하게 되었다. 그들은 거의 全員 越南하여 學業을 繼續, 南韓에 永住하여 지금껏 故鄉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30期生은 그 어느期 보다 不幸한 歷程을 거친 期라 할 수 있다.

우리 威南中學의 學生들은 다른 學生들과 마찬가지로 先生들의 別名짓는 데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數學의 한잔(한자어 : 出勤前에 곡 藥酒 한잔 마시고 나온다고 해서), 幾何의 스네이크, 道德의 망구스(mongoose: 毒蛇를 잡아먹는 動物, 數學韓人敎師가 3學年擔任으로 內定되었었는데 日人이라는 特權으로 擔任을 빼앗은 탓으로 이 別名이 붙게 됨), 日本語의 오입장이, 習字의 몽키, 地理의 金剛山 萬二千峰, 敎練의 벤조(便所)노 조(所)등 지금도 先生님들의 이름은 잊어도 別名으로 通하고 있다.

사람의 一生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連續이라는데 만남에도 여러 때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感受性이 銳敏한 思春期 때인 中學校 때의 만남이란 늙어서 까지 아무 壁이 없는 友情을 간직하게 하는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威南中學에서의 이 所重한 만남은 즐겁고, 벽찬 일이며, 돌이켜 보면 모두가 그리운 時間으로 떠오른다. 나는 半世紀동안 南中 卒業生이란 自負心으로 살아왔고, 南中이라는 글자는 나에게 密着된 한 部分인 것 같은 것은 當然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 귀주사와 나

신 유 향(30 회)

얼마전에 제자와 함께 만원 퇴근 지하철을 탄 적이 있다. 그 때 제자 하는 말이 선생님은 70이 넘어도 젊은 이에게서 자리 양보 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머리가 아직도 새까마니 그렇다고 대답하더군. 나에게서 중학교 시절과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머리 색깔뿐이리라.

동창회지 편집위원들이 미거한 저에게 투고하여 말하고 하명하시니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여 몇자 적고자 생각하여 보면 아득한 옛날 일만 같으면서도 엇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속속들이 기억에 남아 있으니, 그것을 다 글로 쓰라면 팔심도 좋아야 하려니와 워낙 격동기에 지낸 일이라, 장편 다큐멘타리로도 손색이 없으리라. 하지만 그런 수많은 일들은 모든 동창들의 머리속에 영원한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토록 하고, 여기에선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계기가 된 동기가 중학교 시절에 시작되었으니,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나는 늘 기다려 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金子선생님의 미술시간이었다. 솔 뿌리 케러 다니고 마초를 베고 아침마다 조희시간에는 그놈의 “1, 軍人は禮儀を正しくすべし”하고 외어대는 것을 지목 당할까봐 가슴 조이면서 학교의 하루생활을 시작하던 때인지라, 재미있는 일은 없고 딱딱한 학교생활속에서 미술시간이 끝나면 다 그런 그림을 걷어가, 다음 시간에 비교적 잘 그려진 그림을 흑판 아래에 여러장 나란히 놓고 그림에 대한 강평을 하는데, 늘 그 속에 내 그림이 끼어 있으니 신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니, 나는 그림에 큰 소질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미술부에 들어갔다. 어느날 金子선생님 인솔하에 경치 좋고 숲이 우거진 함흥 신사부근에 미술부 전원이 사생을 나갔다. 선생님의 몇마디 말씀이 있는 후 곧 뿔뿔이 헤어져 자리잡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에 제마다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본 순간 선배들의 놀라운 그림 솜씨에 눈이 휘둥그래지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책을 보고 미술시간에 그리던 나의 그림 솜씨는 솜씨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선배들 솜씨이니 나도 시간이 흐르면 선배들처럼 되리라. 기대해 보기도 하였다. 일과후에 늘 미술실에 들러 석고상도 그리고, 그림 감상도 하였다. 하루는 선생님이 사자머리 석고상을 벽에 걸어 놓고 그리라는 것이다. 나는 고인이 된 박수연군과 나란히 앉아 그리기 시작하였다. 2시간 남짓 지났다. 힐끗보니 박수연군이 그린 그림은 정말로 훌륭해 보였으나, 내 그림은 사자머리인지 말머리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었다. 나의 실망은 컸다. 이 실력차이는 선후배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소질의 문제라 곰곰히 생각하였다. 며칠 밤을 그 일로 고민하였다. 마침내 그림 솜씨는 묘사형이지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미술부를 나오고 말았다. 체념하고 나니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

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두번째로 찾아간 곳이 생물반이다. 그곳에도 선배들이 있었고 신참자인 나에게 친절하게 이것 저것 가르쳐 주었다. 국민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남달리 생물을 좋아하신 분이라 그 영향도 있어 생물에 관심이 조금은 있었다. 선배중에 나비 좋아하는 분이 자기집에 데리고 가서 채집한 나비 표본을 보여 주었고, 표본 만드는 법, 조사하는법, 나비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보여 주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일이라 또 한번 놀랐다. 그리하여 나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번 선배들을 따라 나비 잡으러 다니다 마침내 혼자 다니니 시작하였다. 나비 잡는 일이 그렇게 재미 있을수가 없었다. 잡아와서 밤새는 줄 모르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비 종류가 많은 곳으로 가게되었다. 반룡산으로, 치마대로, 그리고 귀주사로 행동반경을 넓혀 나갔다. 유서 깊은 귀주사는 숲도 울창하려니와 나비종류도 많았다. 먼 거리인데도 자주 갔다. 피곤도 잊고 때로는 학교수업도 빠졌다. 본래 국민학교때부터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는지라 학교를 가지 않고 귀주사로 나비를 잡으러 가도 주위에서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사실은 이 글에서 처음 고백하는 사실이다. 그러니 머리속은 나비 생각뿐으로 학교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나비에 관한 책을 사보고 싶어도, 전시라 구입할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

귀주사는 나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 나비에 대해 눈을 뜨게 한곳이다.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곳이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나비채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있다. 나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려 하는 후배들을 지도하고, 석사도 키우고 박사도 키우면서, 즐거운 외길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도 나비 만지는 것이 재미있다. 팔자인가 보다. 미술부에서 생물부로 옮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지 모른다. 그 때는 똑똑했나보다.

중학교 시절 나비채를 잡으러 다니면 좀 아는 사람은 앞으로 큰 과학자가 되겠다는 소리를 간혹 들었다. 현대 요즈음은 나비채를 들고 다니면 시골 아이들에게서 할아버지가 주책 없이 매미채를 들고 다닌다고 놀림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손자 여름방학 숙제 도와주러 나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취급 받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 나의 조류 연구 행적

원 병 오 (30回)

육십줄에 들어선 내 나이에 지난 일들을 뒤돌아 보자면 떠오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과 육이오, 사일구, 오일육을 거쳐 팔십년의 광주와 유월항쟁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를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도 그러려니와 새를 따라 전국 방방곡곡 안가 본 곳이 없는 내 삶의 여정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허나 조류연구라 불리우는 내 외곶 생애의 시작

은 칠십년 시월에 작고하신 부친, 원홍구박사로 부터 시작한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모두 부친께서 평생을 걸어오신 학문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전자전이라고나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조류학, 그것도 분류학에 기초한 생태학과 보호관리학 그대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학문세계에서의 세대적 차이 정도일 것이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표본이나 엄청난 양의 책들을 포함하여 부친에 관련된 모든 일이 어린 내게는 무척이나 좋아 보였던 것 같고, 그와 같은 어린 시절의 동경이 아마도 조류연구라는 내 삶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학문적인 열정이나 성과는 접어두고라도, 조류연구로 삶을 살아온 지난날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 일은, 같은 학문을 하는 덕분에 접하게 된 북에 계신 부친의 소식이었다. 내 자신이 직접 가락지를 달아 날려보낸 북방 쇠찌르레기를 북에 계신 부친께서 잡아, 새를 날려보낸 학자를 수소문하면서 시작된 부친과의 학문적 교류는 부자가 같은 길을, 그것도 남북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새에 대한 연구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동구권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북에서 편찬된 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을 통해서 가끔씩이나마 같은 하늘아래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부친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안타까움으로 북녘 하늘을 바라보곤 했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이거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생 학문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하듯 나 역시 죽기전에 백두산에 올라보는 것이 큰 꿈이었다. 더우기 북녘땅이 고향인, 그리고 거기서 살다 돌아가신 부모를 가진 나로서는 꿈에도 잊지못 할 바람이 바로 백두산 탐사였던 터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아니면 때가 좋아서 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회는 왔다.

팔십구년, 바로 지난해 여름이었다. 칠월 하순 홍콩에서 상해와 북경을 거쳐 팔월 하순까지 약 한달간의 여정이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서울에서 택시로 만원이면 갈 거리에 있다는 백두산을 먼 남의 나라 땅을 거쳐 가야했던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 천지를 사이에 두고 북쪽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감개무량 했었다. 한발만 내디디면 젊었을 때 떠난 내 고향, 부모가 묻혀 계신 북녘땅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북한과의 경계선 근처로 다가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안내원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

지금까지 중국 조류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백두산의 조류는 모두 이백 구십오종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이미원시림이 우거진 번식 조류의 낙원은 아니었다. 전 삼림지대에서 조류는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물론 생태계의 파괴에 기인하는 것이다. 백두산 입구의 마을인 이도백하(二道白河)의 주민은 1962년에 일백여명이었던 것이 팔십년엔 오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엽총 소지자도 상당수라고 하니, 밀렵이 성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덕분으로 하루 천여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천운봉과 천지

에 오른다고 하니 백두산인들 어찌 견디어 내겠는가. 천지 주변에 버려진 빈병, 깡통, 오물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백두산의 황폐가 가슴 아팠지만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백두산 생태계 조사였기에 큰 의의가 있었다. 단지 백두산의 남사면, 금강산, 묘향산, 부전고원까지 내손으로 체계적인 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할 뿐이다.

지난 몇해 동안 나의 관심을 끌었던 일 가운데에서 백두산 탐사 다음가는 것은 팔십육년에 마무리된 한강종합개발이었다. 사년이나 계속되었던 대규모 공사인데다 ‘한강’이라는 노래가 나올만큼 대대적으로 홍보된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나로서는 염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종합개발공사가 완료된 뒤 한강 서울수역의 물은 전보다 훨씬 깨끗해 졌으며 다목적 개발을 하였으므로 서울 시민의 위락 및 휴식공간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어두어져 가는 강변에 다정스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정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맑아진 물로 인해 보다 건강한 철새의 도래지가 되었으며, 보다 정상적인 생태계가 보존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공적인 개발은 예상했던 대로 생태계의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새들은 하천의 오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식별하지 못한다. 물이 맑다고 해도 먹이가 없는 물에서는 살 수가 없으며 강바닥을 긁어 올려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먹이가 줄어든 준설공사 직후의 하천 보다는 먹이가 풍부한 저수지나 하천지류 등에 새들이 덤 많이 찾아든다. 한강개발공사를 전후해서 세차레에 걸쳐 한강 서울수역의 월동 수금류를 조사한 나는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들을 목격했다.

물론 한강도 앞으로 안정된 생태계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소양강이나 금강등과 비슷한 수준의 철새 1만~2만마리 정도는 찾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지와 갯벌 등 지난 날의 천연적인 환경에서 찾아들었던 도요새나 물떼새, 그리고 작은 참새목들새등 섭금류와 명금류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갯벌과 수초가 있는 습지는 조류들에게 있어서 성역이다. 만약 밤섬마저 없애버렸다면 수면성 육압형(陸鴨型)오리들이 발붙일 장소는 서울에서 영영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물론 개발은 해야한다. 그러나 난지도의 사라진 갯벌에서 이미 도요새와 물떼새는 자취를 감추었고, 부지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많은 종의 명금류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한강 서울수역은 최근 종과 생태계에 있어서 다양성을 잃고 단조로운 조류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오리류가 만마리 이상 도래 정착하여 월동하여 있는 이곳은 아직도 국제 습지조약에서 채택된 조류보호상의 국제적 주요 습지선정기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 그대로의 한강지류와 분류의 일부 지역만이라도

성역화하거나, 자연보호 지역으로 남겨 한강 서울수역에서 사라져 버린 조류들이 다시 찾아  
들 수 있도록 차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백두산의 생태계 파괴나 한강개발의 예는 사실상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 많  
은 자연 파괴현상에서 보면 극히 미미한 일에 불과하다. 현재 지구상에 알려진 조류는 약  
구천여종에 이르며 그중 10%를 잃도는 약 일천여종이 이미 멸종의 위기에서 사형선고를 받  
고 있다. 인구 급증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연의 파괴로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으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조류나 야생동식물, 생태계의 보호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다. 다시말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개발되어 사라져 버린 도래지를 복원하거나 환경을 새로 조성하는 생태계의 참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 북녘땅 끝에 자리하는 백두산에서 한강, 낙동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생태계의 파괴를 지켜보아온 나에게, 그리고 생태계보호의 절박한 필요  
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에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학문의 길은 모두 생태계의 파  
괴로 부터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일, 즉 합리적인 자연의 보호와 과거의 길로 이  
어질 것이다.

## 狂

### 李鎬植(30回)

몇 초 아니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른다. 서로 微動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을 注視하면서  
相對方은 上段의 姿勢로 나는 中段의 姿勢로……. 피많은 時間이 흘렀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이마에선 송울송울 땀이 배어나왔고 아니 몸 全體가 땀이 범벅이 되었으리라. 微動도 하  
지 않는 相對方의 눈을 注視하노라니 漸次 마치 큰 바위에 눌린 것 같은 重壓感을 느꼈다.  
靜中動이란 이런 것일까. 高段者들만이 지닐 수 있는 “氣”로서 相對方을 制壓하는 武道의  
境地가 이런 것이 아닐까? 땀 몇 방울이 눈 언저리를 맴돌 때 나는 몹시 짜증스러운 氣分  
이 들었다. 瞬間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劍道六段이라면 敢히 對決할 마음을  
먹을수 없는 存在였다. 그런데 나는 어리석게도 勝負慾에 불타 있었다. 나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다싶이 마음을 비웠다.

그러드니 서서히 짜증스러움도 重壓感도 사라지고……. 그런데 웬일일까. 빈틈이 없이 보  
이근 相對方의 허리에 크다란 구멍이 뚫린것 같은 虛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瞬間 나의 눈  
빛이 달라졌으리라. 防具 속에서의 相對方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의 눈을 파고 들었고 치켜  
든 竹刀가 머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跳躍했고 나의 竹

나는 타円을 그리면서 무겁게 가라앉은 空氣를 가르면서 相對方의 허리를 베어버렸다.

“챙”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벽찬 感動, 위엄, 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니 相對方의 竹刀가 나의 머리를 덮쳐왔다.

나는 必死的으로 막았고 서로의 몸이 부딪혔을 때 나는 相對方의 반다리 후리기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相對方은 서서 功擊했고 나는 누운채 뒹굴면서 防禦했다. 수업 끝나는 鐘 소리가 울릴때까지 長長 四十六分間의 血鬪가 계속되었다. 이렇다 보니 강당의 入口에 있을 을 알았다. 서로 竹刀를 허리에 거두면서 인사 할때 어쩐지 미안스러웠다.

相對方이란 우리의 劍道師範이신 園田先生任이시다. 劍道六段 이對決은 2學年때의 4, 5月頃이라 記憶된다. 8學級 全員이 강당에 모인 劍道 時間이었다. 正座를 하고 앉아 있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나보고 防具를 쓰고 나오란다. 瞬間 緊張되었고 興奮도 했다. 그리고 어쩐지 우쭐한 氣分이 되었다. 왜냐하면 2學年 150余名 중에서 내가 選拔되어 先生任과 世紀의 對決(?)를 하게 되니까至今도 그 때의 일을 想起한다. 한 판 勝負가 났으면 다시 對決하지 않고 先生은 왜 나를 넘어뜨리고 功擊했을까하고-. 弟子에게 한 판 當한것이 수치스러웠다. “화”가 나서 理性을 잃고 그랬는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내가 검도와 因緣을 맺은 것은 入學한지 1個月이 지난 어느 날 午後였다.

나는 元來 美術部에 들어 있어서 그 날도 파렛트를 들고 本館 二層의 美術室로 가던 길이었다. 강당 앞을 지나는데 五學年의 岩村 先輩가 나를 좀 보자고 했다. 따라갔더니 검도부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나는 美術部에 들었다고 했더니 그先輩가 美術先生에게 涼解를 구할테니 無條件 검도부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相對方은 大先輩였고 나는 新入生이니 싫다 할 수도 없었다. 劍道部에 들어간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午後 우리에게 修身(윤리)를 가르치던 小野先生이 나오라고 했다. 마주서자마자 上段으로 치켜든 竹刀는 나의 머리를 强打해 왔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머리 뒷部分에 엄청난 통증 때문에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아팠다. 어떻게 演習이 끝난지도 모른다. 초죽음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6尺 가까운 큰키에 壯手의 힘으로 내리쳤으니 대단 했으리라. 劍道고 나발이고 그만 둘 생각이 懇切했다. 正確히 3日後였다. 그 날도 運나쁘게 小野先生에게 걸렸다. 아찔한 氣分이었다. 나는 타을을 겹으로 해서 뒷머리 部分에 올려놓고 防具를 썼다.

마주서자 上段으로 竹刀를 치켜세우고 나의 머리를 强打 해왔다. 나는 分明히 막았는데도 머리 뒷 部分이 아팠다. 그 날도 초죽음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나는 傲氣가 났다. 집에 와서 小野先生의 劍道 style을 分析해봤다. 이왕 劍道部에 들어왔으니 남에게 지기는 싫었다. 于先 小野先生을 擊破할 것을 決心했다.

上段자세에서 相對方을 功擊하려면 첫째 目標은 머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를 功擊해올 때 相對方이 쳐오는 劍을 后退하면서 흘려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먼저 功擊하든지 特히 먼저 허리를 베는 것이 上策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每日 집 앞마당에서 2時間余에 걸쳐 演習을 했다. 演習의 德宅인지 結果인지 小野先生이나 先輩들에게도 쉽게 當하지 않았다. 모든 막대기는 나의 손에 들어오면 竹刀를 代身했고 걷다가도 생각나면 手刀로서 劍의 흐름새를 익혔다. 여름 放學.

나의 故郷은 아름다운 港口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元山の 明砂十里가 有名하다지만 나의 故郷 三湖 明砂二十余里의 白砂場이 洪原邑까지 連結되는데 特히 海棠花가 필때는 붉은 색이 白砂場을 덮을 때는 一大壯觀이 아닐수 없다. 바다는 大陸棚처럼 서서히 깊어지면서 全淑島을 向해 半円을 이루면서 빼쳤고 市內 右側으로 가면 작은 두섬 큰 두섬 앞바다에는 巨大한 円推통을 세워 놓은 것 같은 泰童島(秦始皇이 不老草를 얻고져 해서 徐氏라는 분이 童子童女를 데리고 이 곳 까지 왔으나 섬이 너무 높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傳說의 섬)等 東海의 外金剛의 一部分을 聯想케 하는 奇岩絶壁이 退潮面과 接境을 이루는 白砂가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는 茂桂里까지 이어진다.

全國의 有名한 海水浴場에 비하면 別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 장담 할 수 있다.

이 모래밭에서 나의 劍道修練은 狂氣어린 것이었다. 前進 后退 순발력 跳躍 等 여름 放學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익혔다.

이 때 익힌 것 中에 나는 橫面(側面)때리기를 特히 좋아했다. 2學期에 들어와서는 나의 솜씨는 달라졌고 園田先生은 나를 特別히 指導해 주었다. 나는 劍道에 매료되었고 서서히 미치게 되었다. 나는 SPORTS에 關한 限 万能에 가까운 先天的인 素質에 特히 劍道에 對한 狂의인 執念은 대단했다. 上級生들도 내 敵手가 되지 못했고 小野先生과의 가끔 있는 對決에서 上段으로 자세를 바꾸는 瞬間 나는 옆으로 도약하면서 허리를 배곤했다. 몇번 上段 功擊을 했다가 먹혀들어가지 않으니 나중에는 아예 기권하는 것 같았고 나는 즐겨 橫面때리기를 小野先生이나 우리의 漢文을 가르치든 關口先生에 써먹었다. 잘먹혀드러갔기에 언젠가 竹山이라는 4學年先輩의 옆머리를 쳤는데 고막을 다치게 해서 先生으로부터 禁止승이 내렸다.

解放되고 그 先輩任을 서울 거리(乙支路)에서 만난적이 있는데 고막에 對해서 물어봤더니 시원치 않다고 하기에 몹시 罪悚스러운 생각이 들었다.至今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2學年 2學期에 咸興 神宮大會가 있었다. 咸南道에 散在에 있는 모든 中學校에서 選拔된 劍道, 柔道, 씨름, 銃劍術 等 試合이 있었다. 우리 劍道部에서는 5명이 選拔되어 參加했다. 團體戰에 對해선 있었는지 없었는지 記憶나지 않는데 個人戰은 無順으로 빙 돌려 앉아 패할 때 까지 계속 겨루어 패하기 전까지의 승수로 우승자를 決定하는 것이었다. 9승하고 올라온 咸興中學校의 日本人 學生이 나의 허리가르기로 패하고 나는 8승을 하고 9번째 상대는 一年先輩인 韓祥喆兄이었다. 마주서자마자 나는 머리치기 一本으로 승리했다. 허나 웬일인가. 日本人심판의 손은 韓兄쪽을 들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結局 2位를 했지만



그 當時도 그랬지만 至今도 日本人에 對한 感情은 좋은 편은 아니다.

劍術, 柔術 等 武術을 道의 境地까지 昇華시킨 그들이 自己나라나 自國民의 體面이나 位相을 높이기 爲해 온당치 못한 評定을 내린다면 審判의 資格은 勿論 劍道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公立中學校이기에 많은 日本人 教師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 中에는 우리에게 참 教育을 시킨 恩師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教師들도 있었으니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을 程度로 우리에게 植民地 教育을 強要했다. 歷史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뻔뻔스러운 倭人들 잘못을 솔직하게 사죄할 줄 모르는 惡의 무리들 우리 祖上들이 日本人들에게 當한 수모를 생각하면 日本 列島와 日本人들이란 이 地球上에서 멸망해야, 마땅하거늘 오늘 날에는 經濟的 繁榮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地球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現實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도 아침이면 木劍을 들고 山에 오른다. 8.15解放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다. 各種 球技 “필드”그리고 柔道等 그러나 劍道에 對한 未鍊을 버릴 수가 없어 좋은 운동이기에 木劍을 들고 몇 십번의 “素振”을 하고나면 땀이 온 몸을 적신다. 그리고 상쾌해진다. 萬若에 劍道를 繼續했다라면 지금의 나는 어찌 되었을까.

“違人の 境地” “狂”이란 題目을 붙일만큼 劍道에 미친 지난 날을 想起하면서.

미아3동의 偶居에서

1990. 6. 30.

## 飛行機의 回想

韓 萬 雙(30回)

내가 故國訪問을 할 때면 언제나 보잉 747 점보 제트를 타게 된다. 이 점보만 타면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날개를 유달리 쳐다보다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점보의 무게는 360톤이나 될 터인데 저 150평이나 되는 날개가 그런 큰 무게를 떠받치는 揚力을 내고 있구나. 하기가 지금 이 비행기가 音速에 가까운 속도로 날고 있으니 날개에 붙어 닳치는 센 바람이 그런 큰 揚力을 낼 수 밖에...' 또 한참 날개를 쳐다보다가는 날개 위로 썩썩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流線型을 머리 속에 그려 보며 '저 날개는 20년 전에 設計된 것이라 이제 좀 舊式이 됐구나. 요즈음 나온 새 컴퓨터로 다시 設計하면 抵抗도 적고 燃料도 덜 드는 날개를 만들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비행기를 타면 이런 技術的 思考만을 하게 되는 것은 내 專門이 飛行機 바람 力學이기 때문이라고도 하겠고 또 내가 直接 점보제트의 날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飛行 도중 탑승원 아가씨가 서비스해 주는 식사를 받아 놓고는 “지금 나는 1만 2천m 上

空에서 음식을 즐기게 됐으니 人間の 재주가 참 희한하구나, 그런데 나도 그런 재간을 부리는 사람중의 하나로구나.” 하는 혼자생각을 하다가는 어느덧 威南中學時節에 비행기와 관련된 事件들을 回想하게 된다.

1943년 내가 南中에 들어 갔을 때는 太平洋戰爭은 中盤戰에 들어섰고 日本의 國粹主義도 最絶頂에 올라서 洋式스포츠인 蹴球, 농구, 野球등의 運動部는 全廢되었고 그 대신 模型航空機班이나 滑空機訓練班등 日本의 勝戰에 도움이 되는 活動만이 許容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手工”을 좋아해서 여러가지 模型飛行機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日人の 獎勵로 敵軍(美國軍)의 飛行機 B17, B29등을 만들었다. 南中에 들어가서는 模型飛行班에 들어가 날으는 模型飛行機를 만들었다. 고무줄로 프로펠러를 돌려 날으는 飛行機, 긴줄을 맵겨 하늘높이 올렸다 띄우는 滑空機등 가지각색의 飛行機를 만들 수 있었다. 나의 上級生 部員중에는 상당한 高等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우리 部員들은 威興模型 飛行機 飛行大會에 나가서 큰 상을 받기도 했다. 나의 同級生部員으로는 오오미네(大峰)가 있었는데 나는 그가 친근히 여겨져서 늘 “에미네”라 부르곤 했다. 그 에미네가 바로 지금의 崔哲根 同窓이다. 滑空機訓練班은 실제 飛行訓練을 하는 班이었는데 齊藤體操先生이 指導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初級滑空機를 使用해서 飛行訓練을 했다. 이 滑空機는 원래 히틀러 時節에 독일서 開發된 것이었는데 國民에게 航空機에 關한 知識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었고, 日本人도 마찬가지로 目的으로 우리 南中 학생들에게 普及시키려고 했다. 이 滑空機는 고무줄을 ‘유리치게’ 模樣 V자 형으로 당겼다 놓으므로 날게 되는데 高度는 2~3m, 飛行距離는 30~40m였다. 처음에는 飛行訓練을 南中운동장에서 했는데, 나는 나의 兄(韓鼎燮, 26回)이 滑空機를 너무 높이 操縱하다가 조그만 ‘추락’事故를 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우리 同級生중에서는 體格이 좋은 학생들만이 徵發되어 이 滑空機반에 들어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班을 忌避했다. 그 理由인즉 飛行訓練을 받으면 日本軍 少年飛行隊에 끌려갈 念慮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初級滑空機는 20餘回나 고무줄을 당겨야 한번 飛行해 볼 수 있는 形便이어서 고된 운동이기도 했다. 우리 學級이 2學年이 되었을 때 滑空機飛行訓練은 威興郊外 모래沙場에서 實施되었는데 그때 苦役을 當한 同級生도 많았지만, 나의 親舊 邊成樺동창은 齊藤先生으로 부터 호된 “氣合”을 받았기에 지금도 그 時의 逸話を 두고 두고 이야기한다.

어떤날 全校生이 動員되어 城川江沙場으로 나갔다. 西쪽 하늘을 쳐다 보려니까 飛行機 한 대가 날아왔는데 그 풍무니에 高等滑空機 한 대를 끌고 왔다. 우리 학생들 上空에 오더니 그 滑空機는 홀로 飛行을 시작하며 妙技를 보여 주었고, 印象깊게도 그 滑空機는 空中에서 ‘宙返’ 飛行을 한 번 멋지게 하고는 드디어 모래사장에 着陸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그 滑空機를 가까이서 見學할 수 있었다.

1944년 後半부터는 日本의 軍力이 弱化되어 美軍爆擊機 B29가 威興上空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낮에 1만m이상의 高度에서 B29는 흰 飛行구름을 뺨으며 유유히 날아갔으나 日本軍

은 束手無策이었다. 우리 中學生들은 空襲警報만 나면 隣近國民學校에 派遣되어 防火對備를 했어야했다.

1944년 末로 생각되는데 어떤 날 日本軍新銳飛行機 한대가 咸興上空을 低空飛行하며 지나갔다. 이 新銳機는 우리 學校校長 三宅先生의 아들(日本軍大佐?)이 아버지를 訪問次 손수 操縱하고 온 것이었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三宅校長은 校長職을 사임하고 日本으로 돌아갔다. 三宅先生은 日本의 敗亡을 豫想한 아들의 권유로 日本으로 避身했을 터인데 그는 그의 故鄉인 廣島로 갔다는 이야기였다.

1945년 4월 3학년엔 進學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本宮에 있던 人造飛行機燃料工場으로 動員되어 갔다. 우리는 00寮舍에 收容되었으며 三交代로 出勤하였다. 밤에 잘 때 자주 空襲警報가 났는데 그럴때마다 자다 깨어 소캐모자를 뒤집어 쓰고 산밑에 있는 防空壕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때 B29는 밤이면 興南, 元山灣등에 水雷를 떨어뜨렸는데 興南 工場地帶에 대한 爆撃은 없었다. 다만 나는 B29때문에 精神的被害를 많이 받은 것이었다. 드디어 8.15날 工場事務室에서 히로히도의 降伏放送을 들은 後부터 나는 B29가 주던 '被害'로 부터 解放되었다.

現在 나는 B29를 設計製作한 보잉 會社에서 勤務하고 있다. 첫 B29가 生産된 工場 앞으로 지나 갈 때마다 나는 옛적 南中時節에 B29德으로 授業도 못하고 잠도 못자던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보잉社에서 勤務한 지 21년이 넘는다. 空氣力學이 나의 專門이어서 보잉 747, 767機등의 날개, 胴體등을 設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南中時節에 45年後 美國 보잉社에 가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想像조차 못했을 터인데, 지금 내가 人間을 즐겁게 해주는 보잉 旅客機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꼭 多幸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즈음 昌原, 金海등지의 大字, 三星, 大韓航空에서는 보잉 747部品을 만들어 納品하고 있다. 最近같이 南北關係가 高速度로 進展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나는 將次 蓮浦飛行場 近處에서 보잉 飛行機를 만드는 일을 맡아 보겠다는 꿈을 잊지 않게 된다.

(1989년 2월, SEATTLE, U.S.A.)

## 經 綸(경륜)

金 濬 浩(31回)

“人生은 八十부터”라고 10年前에 농담을 하였는데 나는 오늘날 正色을 하고 “人生은 八十부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R.데카르트는 말하기를 “經綸이란 것은 사람의 知識이 進歩하면 할수록 그 必要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無知한 무리들이나 腕力에 依存하는 者들에게는 經綸이 必要치 않다는 말이 된다.

오늘날 韓國社會가 이렇게 混亂하고 무질서하게 進行되어 가는 것도 사실인 즉 經綸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거나 社會를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작금의 뉴스에 애기를 앓은 女人이 전화하는 청년에게 독촉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건같은 것은 이 社會의 無經綸이 만들어 내 놓은 氷山의 一角을 말해준다. 구약성서에 “늙은 耆에 지혜가 자라고 老年이 될수록 깨달음이 깊어간다”라고 하며, 經綸이 있을수록 事理判斷을 잘 할수 있음을 옛날에서 부터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西獨의 아데나워首相은 92세에 死亡하였다. 히틀러와 같은 독재者 밑에서도 굴하지 않다가 마침내 74세되는 때에야 비로서 西獨의 首相이 되고 패전의 잿더미에서 西獨을 구하여 라인江의 기적을 만들게끔 지도해 나간 사람이다.

英國의 偉大한 宰相 윈스턴 처칠도 역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무덤은 웨스트 민스터 寺院과 같은 莊大한 곳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시골 조그만 교회마당 한평자리 묘지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 묘는 옆에 있는데 十字架가 우뚝 서 있으나 그는 그것이 없다. 죽은 처칠이 英國을 위해 아직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많은 나라의 觀光客이 그곳을 찾으니까 말이다.

처칠 首相은 67세 되는 해에(1940年) 비로서 英國首相이 되었다. 그의 名演說은 히틀러에 고전 당하고 있는 英國國民의 마음을 사로잡고 勝戰으로 第二次世界大戰을 이끈다. 그러나 그에게는 榮光의 女神이 오지않고 선거에서 패배하고 만다. 어깨가 축 늘어진 처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經綸을 경험하게 된다. 82세 되는 해에(1955年) 다시 首相이 되었다. “人生은 八十부터”라는 말을 할 必要도 없이 그는 英國歷史에 남는 훌륭한 宰相이 되고 만다.

佛蘭西의 샬 드골大統領은 內閣制 밑에서 내각의 수명이 平均 6個月이라는 政治的 混亂에서부터 佛蘭西를 구출하기 위해 지금 쓰고있는 有名한 드골憲法을 만들고 69세에 되서야 大統領이 되었으며, 두번째 任期머리에 國民의 소리를 듣고 우리 나이로 81세때 스스로 下野하여 물러설 줄도 알았다.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人生을 하직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이승만대통령도 91세에 돌아 가셨는데 86세때 國民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자리를 걸어 내려갔다.

有名한 世界的 言論人, 재판관, 교육자, 科學者, 哲學者들도 위에 말한 政治指導者들 못지 않게 人生八十이 되었을 때 깨달음을 가지고 人類에 공헌하였고 또 하고있다. 80代가 되서야 비로서 經綸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닌가 싶다. 經綸이 없는 곳에 腕力과 無知가 난무 할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케네디가 美國大統領으로 44세대에 당선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 韓國에 왜그리 많은 케네디가 나오는지 나는 苦笑을 禁치 못했다. 철이 들지 못해서 그랬는가 反問하고 싶다. 알렉산더大王(33세)이나 케네디大統領은 예수님(33세)이 한 사람만 나듯이 人類歷史 100萬년에 또는 記錄된 5000년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란 것을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無經綸이 無知하다 보니 케네디가 된줄 알고 行勢하니 萬事가 벽에 부딪힘을 알 수 있다.

人生은 八十부터니 그때부터 철이 든다. 80前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反問하나 그것이 야 철 안들고 죽는 것이지. 너무 서드르지 말아야 한다. 간절하게 빈다. 너무 서두르게 일찍 늙어 빠졌다고도 하지 말고 社會를 위해 무슨 經綸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政治는 綜合藝術이다.

## 이북땅의 어머니

金致敬(31回)

오늘이 내가 고향땅을 버리고 서울에 온 지 42년이 되는 날이다.

南中을 졸업한 후 이른바 威興高級中學校를 졸업한 직후인 1948년 7월 16일 새벽차로 元山, 連川, 抱川收容所를 거쳐 여드레만인 24일에 서울에 다달았다. 스므살때 일이었는데 어느새 42년이란 歲月이 흘러가 버렸다.

네 남매의 막내였던 나의 少年時節은 어려운 중에서도 비교적 유족했다.

倭政때라, 아버지는 中國으로 건너가 光復運動을 하시느라 집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解放되던 그때까지 홀로 家事를 맡고 살으셨다. 설흔넘어 나를 낳았고 그때 이미 오십을 넘으셨으니 겪으신 고초가 얼마나 했을까? 지금와서 짐작해 보니 마음이 메인다. 내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살아오는 까닭은 남편덕은 물론, 자식덕도 보시지 못한 채 모진 고생끝에 하직하셨을 어머니에 대한 罪責感에서라 믿고 있다.

우리집은 할아버지때 지으셨다는 四間兩通의 큰 기와집에 200평 남짓한 뜰이 있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시고 무척 부지런 하셨다. 그 넓은 마당에 해마다 옥수수, 고추, 가지, 토마토, 참외, 호박할 것 없이 번갈아 지으시며 외롭고 긴 세월을 힘겨웁게 견디신 것 같다. 겨울이면 곡간에 호박이 그득하여 겨우내 참기름과 단맛나는 노란빛 호박죽을 맛있게 먹곤 했다. 지금은 그때 그 맛을 맛볼 수가 없지만.

해마다 토마토의 철이 되면 떠오르는 사연이 있다. 나는 토마토 먹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익혔다. 잘익은 놈을 뜰에서 따 오시고는 몸에 좋으니 먹어보라 하신다. 나는 고약한 냄새에 질색을 하며 한사코 도망다녔다. 그렇게 먹게 된 토마토를 지금은 잘 먹는데 요즘처럼 토마토가 익어가는 철이 오면 그때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월남하던 그날 새벽, 밥상에는 평소 내가 즐겨먹던 반찬이 그득했고 길가다 허기지면 먹으라며 밤새 다려주신 수수엿, 나는 헤아릴 길 없는 그때의 精誠을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새벽 여섯시 威興驛까지 배웅 나오신 어머니의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을 아둔한 내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자식이란 이토록 아둔한 철부지란 自責과 後悔가 저러온다.

北進때 내가 오기를 무척이나 기다렸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복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미

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남들은 별 手段을 다 써가며 부모와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데 막 내 어리광으로 자란 탓인지, 분명히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바보였나 보다.

자식 기를 때는 몰랐던 애뜻함을 손자재롱에서 알았고, 손자재미가 이토록 행복한 것인줄도 뒤늦게 깨닫고 보니 祖父母님의 모습을 걸어둔 액자에서 밖에 모르며 재롱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자라온 아이들이 측은하고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 다섯이나 되는 손자가 있건만 단 한번도 안겨 드리지 못했고, 이 나이 되도록 냉면 한그릇을 끝내 대접해 드리지 못한 채, 보답이라곤 전혀 한게 없이 살아왔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사람들은 어머니와 고향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러운 생각도 해보곤 한다.

望鄉의 설움마저 잊은 채 정신없이 살아온 긴 歲月이 지나고 육십이 넘어 밥술이나 먹게 되고 손자들의 재롱도 보게된 지금, 젓먹이 손자녀석이 에미품을 파고 들듯, 뒤늦게 이북땅의 어머니품을 더듬고 있으니 이 기막힌 痛恨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란 말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世界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요즘인데 갈 수도 없는 고향을 그리고 집착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失鄉의 아픔을 되씹고 살 작정이나? 라며 위로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갈 수 없는 고향당이기에, 속죄해야 할 죄인이기에 끝까지 몸부림치며 살아 가련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들도 있고 產業社會가 自招한 價値混亂으로 실향의 아픔이 희석돼 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고향과 어머니의 意味만은 絶對的 價値로 믿고 살고 싶다.

“세월이 해결 주겠거니 하며 무척이나 고향갈 날을 고대해 왔건만 그때마다 “혹시나와 역시나”가 곧두박질 치더니 작금의 周邊情勢는 역시 “歷史는 변하게 마련이고 時間은 問題의 解決士였구나”하는 한가닥 설레임도 없진 않건만 또 혹시나 하는 조바심을 떨칠 수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오늘의 狀況論理야 어찌 변하든, 世上人心이야 어떻게 달라지든, 나는 余生을 不孝에 대한 贖罪의 一念으로 끝내 살고 싶다. 때늦은 속죄요. 不孝한 罪人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저 나와 같은 處地에 있는 고향친구들과 잘 지내고 가련한 이웃과 벗하며 奉仕하는 밑알이나 될 수 있었으면 다행이겠다.

북녘땅 어딘가에 잠들고 계실 어머니께서 때늦은 이놈의 속죄나마 받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치없는 祈願도 해 본다.

7월 24일! 오늘따라 억수같이 퍼붓는 장마비는 울적한 내 심사를 더없이 心亂하게 하는 구나.

## 歸鄉記

朴炳元(31回)

0

金兄, 長距離電話 感謝했소. 病弱한 妻의 간절한 所願이라 큰 期待없이 始作했던 家族問題가 結實하여 故鄉땅을 다시 밟게 해줄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數없는 異變을 겪고 이제 이 異國까지와 定着한 處地라 여간한 일 아니면 動搖치 않는 배짱도 생겼건만. 이번 일은 과연 衝擊이어서 지금도 환상이 아니었나, 잠에서 깨는 때가 있네. 父母는 벌써 돌아가셨고 多幸히 다섯이나 되는 弟의 동생들은 잘있다는 消息에 만이로서 뒷바라지 못했고, 病勢가 惡化되어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꼭 봐야겠다는 執念을 꺾지 못해 無理하기 比할데 없는 나들이었네. 東京을 거쳐 北京空港에 寄着한 것이 이미 깊은 밤이었고 速成으로 몇마디 배운 中國 말은 空港門을 나서기 전에 이미 바닥이 났으나 國際共通語를 써가며 美中合辦의 근사한 長城飯店에 旅裝을 푸니 子正이 넘었었네. 잠 덜 깬 職員 案内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北韓代使館에 가 旅行증을 받아 들었지. 한나절은 市內 天安門, 故宮, 王府井街. 友誼商店을 돌아보았네. 다음날 空港의 混難속에서 한바탕 紅疫을 치르고 몸을 실은 朝鮮民航機는 蘇聯製였네. 거의 陸地위만을 날다가 드디어 北域 하늘에 當到했으니, 興奮과 期待 또 一沫의 不安等 錯雜한 心境에 平素 말씨 적은 마누라는 紅潮가 더 눈에 띄고 나도 心悸가 쉽게 옷위에서 느껴졌네. 나는 마누라와는 달리 뒤에 두고온 어머니나 동생은 일찌기 斷念했던 터라 찾을 暇두도 안냈고, 出發 한달 前 마지막 서신에 이왕에 가는 거니 省墓라도 하게 可能하면 墓地나 찾을 수 없겠느냐는 부탁과 高향주소, 그리고 찾는 사람들의 이름과, 當時職業등을 적어보냈지만 回信은 못받고 오는 處地라 特別한 期待도 하지않고 冷徹하게 觀察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네. 平壤 順安飛行場에서 버스로 空港廳舍 앞뜰에 이르러 줄지어 걸어 들어가니 환영客中 壯年이 된 妻男이 마누라를 알아보고 달려오더니 ‘누님’하고 외치며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게 아닌가. 뒷전에서 마누라를 지켜보고 서있는 내 뒷편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이 나더니 어떤이가 좀 나즈막하지만,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하는게 아닌가. 의아해하며 돌아서는 내 視野에는 약간 거무스레한 얼굴에 키 큰 五十客이 들어오는데 얼굴 모습이며 눈웃음이 分明히 돌아가신 아버님과 꼭 닮았으니, 오직 하나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이 天地에 내 아우밖에 없는데, 다시 찬찬히 보니 어김 없는 내동생, 자네도 記憶할 그 동생이었네. 十七歲에 헤어졌던 동생이 55歲가 되었으니 흘러간 세월도 잊은채 그리던 血肉이 포옹하고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다네. 진작 斷念하여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우. “아니 네가 살아 있다니”같은 말만 되풀이 했었다네. 헌데 “형님”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生存해 계십니다.”하는게 아닌가. 비록 腦出血로 半身을 못쓰시나 아직 살아계시다니 무엇을 더 묻고 바라겠는가 내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衝擊을 받으실까봐 사흘前에야 비로서 사실을 알렸더니 매일 꼬박 뜬눈으로 기다리신다는게 아닌가. 家族相逢의 期待를 全혀 하지 못하다가 모르게 이루어졌으니 무엇이 더

必要하겠는가. 몇번씩 열렸다가는 닫치고 希望과 絶望이 明滅하던 南北會談이나 離散家族相逢이 相互間의 政治理念相衝에 짓밟혀 너무도 오랫동안 지체되어오지 않았는가. 오랜 失望때문에 家族再會란 일찌기 斷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애써 고향땅을 찾아가보니 그 기나긴 歲月을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가 몇달을 못참고 돌아가셔서相逢의 꿈이 무산됐다는 記事들을 볼때마다 나의 어머니는 벌써 安樂하신 곳, 心慮가 더없는 곳에 가셨으니'하고 自慰했던 터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都是 믿어지지 않는 것도 無理가 아니었네. 平壤에서는 運河같이 改修한 普通江邊의 '려관'에 머물며 며칠동안 萬景臺를 위시하여 民族博物館, 人民學習堂, 兒童文化殿堂, 개선문, 大同江邊에 우뚝 선 主體塔등을 參觀하고 平壤産院도 돌아보았으며 兒童公演은 때마침 合席한 東獨觀光團員들과 함께 보았다네. 이어 南浦와 큰 자랑인 西海關門을 돌아보고, 또 깊이 내려가는 大理石으로 된 地下鐵, 광복거리와 새 競技場의 建設相도 구경하였네. 비오는 날 오후는 '려관'內的 小劇場에서 戰爭記錄映畫도 보았네. 첫날부터 끝까지 돌봐준 이는 고향분인 안내지도원이었으며 식당직원, 사무원들은 모두 매우 親切하였고 人間味 흐르는 場面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이 마음속의 同質性이 더 없어지기 前에 하루속히 이 民族이 모여 살아야겠다고 세삼 느꼈네. 드디어 苦待하던 威興行. 밤11時에 寢臺車에 오르니 역시 連日行軍에 緊張했었는지 그만 깊은 잠이 들고 말았네. 눈을 떠보니 5時쯤 되었는데 이미 祖父母님이 계셨던 永興(金野)은 지났고 旺場, 新上近處였네. 日帝末期 勤勞動員이 지겨워 延着하기 일쭉던 汽車通學을 했기 때문에 各驛이며 건널목 구비마다 눈에 익었다고 自處했던지라, 熱心히 내다보았으나 내 회미한 記憶과는 判異한 風景의 마을이며 집들이 보였고, 새벽 일찍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에 쓴 스카프가 매우 낯설은 것이었네. 새삼 近40年の 放浪歲月을 想起안할수 없었네. 威興鐵橋를 건널때부터는 窓門에 密着하다시피 하였지. 舊黃金町小學校 周邊은 꽤 높은 아파트村으로 變했고 鐵路 南쪽이 擴張되고 繁華해진듯했네. 威興驛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기前인 6時가 좀 지나 到着. 20명이 넘는 妻弟들, 내 동생가족등 환영객들과 다시相逢의 場이 벌어졌는데 모두들 꽃다발을 들었었고 劃一的인 검정색 服裝이 매우 신기했네. 待機中인 볼보車에 分乘, 얼마 멀지않은곳에 있는 아파트에 當到, 컴컴한 層階를 올라가니 끝 房 아랫목에 38年만에 뵈는 八旬 다되신 어머니가 앉아 계시지 않는가. 잠시도 쉬지 않던, 그렇게도 活動的이시던 40代의 어머니가 내 마지막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제 中風에다 運動不足에 따른 骨軟化症까지 겹쳐 꼭 한줌만큼밖에 안되시는 내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다네. 四旬의 漢수가 지나 처음드리는 우리 夫妻의 큰결에 집안이 온통 울음이었고, 다시 농칠세라 꼭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길이 어찌 그리 여위고 軟弱하단 말인가. 아버님 서거를 알리자 "너의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는데"하시니 四十에 生離別하시고는 다시 못뵈게 되었음을 깨달으신 그 心境을 내가 어찌 쉽게 헤아릴수 있겠는가. '너는 원리 弱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꼭 죽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를 되풀이 하시고는 지지리도 고생을 하였다든 말을 들으니 진작 찾아와 도와드리지 못한 이 不孝를 뭇로 謝罪하고 어디에 呼訴해야 한단 말인가. 방 두칸과



부엌, 便所, 浴室의 단출한 살림에 많은 食口가 매우 儉素하게 살고 있는게 歷歷했네. 헤어진 後 곧 壤으셨다는 막내 親누이동생도 처음 보았으니 이것 역시 奇緣의 하나였네. 큰 오빠가 있는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하더군. 特別히 마련된 음식에 온 식구며 인사차 들린 都, 市 區域의 지도원들, 外四寸, 친척등이 종일 드나들고 마시고는 울고 만져보고 회포를 푸는게 이렇게 아닌가 했네. 最近 移舍왔다는 妻男집도 같은 아파트의 다른 쪽 끝에 있어 집 사람도 쉽게 往來할 수 있었으니 亦是 特別히 配慮해준게 아닌가 여겨졌네. 함흥역은 예전에 있던곳에서 더 東南쪽으로 옮겨져 舊道廳舍와 마주보는 位置에 있었고 길가에는 3層내지 5-6層의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어 옛 咸興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림에서나 보아온 東歐의 어느 中都市같은 印象을 풍기고 있었네. 咸興大劇場의 큰 건물이 옛적 明寶극장을 回想케했네. 舊道廳舍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增改築했고 市廳建物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가장 적은 被害를 받았다고 하더군. 公會堂建物도 前보다 작으나 같은 위치에 있었으며, 옛적에 한참 工事中이던 公會堂萬歲橋間의 큰 길이 東興山거리로 굉장히 넓고 가로수가 양쪽에 늘어서 人, 車道가 넓게 떨어져 있었네. 길가 北쪽邊에 新興려관, 그리고 큰 식당인 한식건물의 新興館등이 있었다. 東興山(盤龍山)南쪽 끝 옛적 樂民樓 자리에는 역시 한식의 큰 樓閣이 金主席의 높은 銅像과 마주 서있었고, 주변은 公園으로 꾸며져 있었네. 銅像을 지나 九天閣까지 徒步로 올라가니 옛 記憶에 萬感이 交錯하여 四方을 둘러보았네. 九天閣은 改修되었으나 옛터에 그대로 있었고 近處에 保存되어 있던 城壁조각도 그대로 있었네. 山手町貯水池 근처의 글도 그대로 있어 옛적에 있던 밤나무들이 생각났네. 城川江州北으로 올라가는 길, 江 건너의 平野등은 옛모습 그대로였고 舊萬歲橋는 자세히 쳐다보니 橋脚一部만 남아있고 새다리는 바로 下流쪽에 接하여 더 넓고 높게 만들어져 있었네. 萬歲長壽를 祈願하는 ‘다리밟이’風習은 傳承되지 못했다고 하더군. 西上町 거리는 낮은 집들로 옛적 印象을 간직하고 있었고, 東興山公園에서 正南으로 옛 城川里 근처까지 큰 新作路가 곧게 뻗어 있었으며 저멀리 鐵道 근처에는 높은 건물들이 꽤 들어서 있었네. 옛 軍營通이나 大和町 길들은 없어진 것같고, 길에는 車나 사람의 그림자가 그리 많지를 못했네. 總括的인 印象은 平壤에 比하면 規模나 活力面에서 顯隔한 差異가 있었네. 公園에서는 나의 服裝이 特別한 차림이 아닌데도 한눈에 外國에서 온 사람으로 判別되어 많은 어린이, 學生들이 구경거리가 되기 마련이었고, 들고간 폴라로이드(1分機라고함)카메라가 큰 人氣였네. 사흘째 되던날에 옛 新興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共同墓地에 가서 丈人, 丈母님에게 省墓를 했네. 눈속에 있던 公設運動場 자리에는 스타디움이 들어섰고 刑務所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舊聯隊자리로 짐작되는 곳에는 함흥의과대학과 병원이 담장속에 있었고 咸興化學工業大學이 맞은편 길가에 서 있더군. 果樹園 사이를 지나 墓地에 가니 數年前에 合葬한 墓의 알팍한 碑名에는 兩位의 이름만 있었으며, 病苦고 시달리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두분의 心情을 헤아려 보았네. 얼마높지 않은 곳에 安葬되어 있었으나 마누라는 그것도 못 올라가 38年만에 와서 직접 절도 못 올리고 산밑에서 기도를 올릴 수 밖에 없었네. 처음으로 다섯 사위가 함께 절

을 올렸으니 너무 늦기는 했으나 兩位께서는 호뭇해 하셨으리라 自慰해 볼 뿐이네. 社會主義體制下에서 儒敎의色彩가 짙은 제사치례가 保存되어 있을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것이 신기했고, 한식, 추석이 큰 名日이라고 하던데 길가 공장굴뚝에 써있던 ‘무조건’ ‘복종성’ 등의 口號와 一脈相通하는게 아닌지, 老人들 외의 一家親戚들은 거의 生存해 있었고 멀리 滿洲國境에서 元山까지 흩어져 사는 친척을 모두 휴가로 불러주어 만날 수 있었네. 祖父母님이 묻히시고 三寸宅, 從祖母들이 살고 계신 永興 故郷에는 時間관계로 못갔고 다음 機會로 미루자는 말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었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母校자리에는 三層 시멘트 建物이 세워져 現在 東興山(盤龍山)高等中學校로 使用되고 있었고 뒤쪽 運動場은 그대로였으며 학교앞의 消防署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네.

兄,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 고장이라 때로는 情이 넘쳐 흐르는 일들을 經驗, 目擊했고, 外國손님이라고 公衆湯 代身에 沐浴하려 호텔로 데려 가던 일, 도위원회 주최의 환영회 때 오랫동안 기막힌 본고장 함흥냉면 두 그릇 반을 비웠던 길, 안내 지도원과의 아쉽고 서운했던 작별, 血肉의 깊은 情, 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다음 機會로 밀겠네. 推測하겠지만 제일 괴로웠던 일이 老母와의 作別이었는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約束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네. 四泊五日의 짧은 회우에 많은 餘韻과 아쉬움을 남기고 왔으나 우선 마누라의 願은 풀어준 셈이고, 아울러 내 食口를 찾았으니 역시 마누라께 잘해준 報答이라 하겠지. 離散家族의 恨이 하루속히 풀리고 相逢과 和會를 비는 마음 간절하네. 移民 20년에 別 樂도 없이 지내다 이번엔 보람을 본것 같네만 여러 面에서 매우 共通點이 많은 우리 사이에 나만 먼저 다녀온게 罪스럽기도 하이.

余談이지만 마누라는 旅行다녀온 한달 반만에 半應急으로 開心手術을 하여 鬪病中인데 경과를 두고봐야 하겠네만 旅程을 무사히 치르게 奇蹟같기만 하네. 끝으로 존경하는 失權源 博士님께 내 人事 좀 傳해주게나.

## 감상적 통일론

朴 祚 烈 (31回)

어제 새벽에 남중 동기인 유영구(길음동 소재 유신경외과 원장)군의 자당계서 별세하셨다. 향년 여든 여덟해시란다. 십여년 전에 꼭 한번 뵈 적이었다. 놀랍도록 ‘아들을 꼭 빼 닮은 어머니’(?)셨다.

그날 유군네 안방에서 몇 시간을 대작하면서 참으로 부러운 광경을 체험했다. 자당계서 가끔 조용히 들어 오셔서 저만치 앉으시고는 한참동안 안온한 표정으로 당신 아들을 바라보시기만 하다가 조용히 나가시곤 하는 것이다. 그러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은 별로 개의치 않은걸로 보아 그것은 모자간의 일상의 모습임에 틀림 없었다.

그날 나는 유군 앞에서 왈각 눈물을 쏟고 말았다. 북에 있는 나의 어머니,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늙으셨을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면 저 유군의 자당처럼 무시로 괜히 당신 아들을 보려 들락하실 나의 어머니….

문상 온 동기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김태(서울대 미술대 교수)군이 말했다.

“유군 자당의 영전에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내가 운 것은 유군 자당의 별세를 슬퍼해서가 아니라 북에 계시는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였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유군 자당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게 어떨런지 몰라도 난 유군이 부러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그만 하시게. 여기 자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네.” 김군의 말 허리를 꿇으면서 좌중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을 했을 환갑 나이의 아들’들의 표정이 한결 같이 살짝 일그러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재작년에 급성 간암으로 죽은 동기 한병극군이 ‘또’ 생각났다. 내게 있어서 한군의 죽음은 다른 어느 동기생의 죽음 보다 큰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남중 시절에 만세교를 건너며 함께 통학한 몇 안되는 ‘서상리패’였고 월남 후에도 각별한 친교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군은 1·4후퇴 때 훌훌 단신 월남했다. 시시 각각으로 다가오는 사기(死期)를 마주 보면서 북에 있는 혈육을 그리워 했을 마지막 두세달 동안의 한군의 그 한 맺힌 삶의 시간의 모습을 헤아려서 슬펐던 것이다. 지금도 그 한군을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하지만 한군의 죽음에 대한 나의 슬픔의 상당 부분은 자기 연민이기도 하다. 나 역시 한군처럼 훌훌 단신 월남한 신세라는 것을 밝힌다면 그것이 어째서 자기 연민이기도 한가에 대해서 구태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중 동창회지에 아무 글이나 써달라는 청을 받은지가 몇달이 되었는데도 차일 피일하다가 오늘 까지도 써 보내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수년전에 쓴 수필의 전재(轉載)를 부탁하는 것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유군 자당의 별세, 한군에 대한 새삼스러운 그리움, 그리고 김태군의 솔직한 고백 등이 염치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세월이 약이라는데 북녘 땅에 혈육(血肉)을 두고 온 아픔은 오히려 더해 가기만 한다.

얼마 전에는 김치국에 만 국수를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목이 메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바가지에다가 김치국과 국수를 비벼서 맛있게 잡수시던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십대였고 나는 아마 대여섯 살이었던 것 같다. 그날, 어머니께서 내가 먹다 남긴 국수까지 게눈 감추듯 순식간에 잡수시곤 생긋 웃으시던 모습이 불현듯 생생하게 기억난 것이다. 이제 오십대 중반의 나이인 나는 청승맞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콧물을 흘적이면서 국수 그릇을 말끔히 비워 먹었다.

북녘 땅의 혈육과 헤어진 후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혈육들과 함께 사는 동안 단 한번

도 어머니를 위하여는 생각조차 가져본적이 없었다는 회한(· · ·)이다. 밑으로 넷이 있는 누이동생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천하의 불효자식이었고 천하의 매정한 오빠였다.

단 한번만이라도 착한 아들답게, 다정한 오빠답게 언동(言動)한 적이 있었다더라도 내 회한이 이다지도 가슴을 난도질하지는 않을 텐데…….

북녘에 혈육을 두고 온 월남동포들이면 누구나 그러하듯, 나도 일년에 몇 번씩 처자식 몰래 혼자 혈육을 그리워하며 울곤 한다. 그러나 내가 흘리는 눈물은 혈육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이 외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보고 싶어할 혈육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어머니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지난 삼십 오년간 단 하룻들 아들을 생각하시잖은 날이 있었겠는가. 삼십 오년간을 하루같이 아들의 생사(生死)를 궁금해 하시면서 아들을 그리워 하시면서 보내셨을 불면의 밤을, 아들을 위한 기도의 밤을, 그 한(恨)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1951년 초부터 수개월간을 중동부 전선(中東部戰線)에서 소총병(小銃兵)으로 복무했었는데, 접적상황(接敵狀況)이 매우 유동적(流動的)이어선지 거의 매일같이 진퇴이동(進退移動)을 되풀이했다. 험준(險峻)한 산악지대를 매일같이 행군하고 참호(塹壕)를 파는 일이 얼마나 고된가는 그야말로 경험자만이 안다. 원래 허약한 나는 기진맥진해서 자살을 결심했다. 어느날 용변(用便)을 보는 체하며 행군대열에서 벗어난 나는 숲 속에 들어가 앉아서 M1 소총의 총구를 턱 밑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머리를 드니 어머니께서 바로 눈 앞에서 계시잖는가. 어머니께서는 아무말 없이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보고 계셨다.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내 솟구치는 눈물에 가려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울고 났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후로도 몇 번을 더 자살하려는 충동에 질 뻔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숲 속에서 나를 말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견디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전사(戰死)한 게 아니고 고생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는 날의 그 어머니의 충격과 한을 생각하며 견디었다.

결국 나는 그 전장(戰場)에서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으나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채 삼십 오년이 흘렀다.

일사후퇴 때 월남한 실향민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으레히 나오는 말이 있다.

“두세 달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면 잠시나마 침묵이 흐르기 마련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북녘 땅에 두고 온 혈육을 생각하며 목이 메이는 것이다. 그것은 숙연(肅然)한 의식(儀式)의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고향집 대문 밖에서 나를 전송하던 삼십 오년전 그날의 내 혈육들의 모습……. 그날의 어머니는 사십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나는 갓 스물이었고, 맏누이동생은 열 다섯, 막내 누이동생은 걸음마를 익히는 나이였다. 어머니는 이제 팔십을 바라보시는 고령이고, 나는 오십대 중반, 막내 누이동생은 설혼 여섯이다.

## 時 間

### 金 載 坤 (32 回)

며칠前 어느 新聞의 컬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人間에게 준 것 中에 가장 公平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時間이다'라고 말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24時間이라는 時間이 주어졌으나 이것이 有用하게 쓰여지면 어땠고 虛無하게 쓰여지면 近世의 누구와 같이 된다'는 글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時間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角度에서 이 時間이라는 名詞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時間이라는 存在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습니다. 서울이 있는가 하면 釜山도 있고 咸興도 있습니다. 龍山高等學校가 있는가 하면 咸南中學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에 龍山高等學校는 있어도 咸興에는 咸南中學校가 없습니다. 後輩없는 咸南中學을 想像이나 해 보셨습니까? 나는 32회라고는 하나 이것이 卒業年度인지 入學年度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1945年 4月 1日 日帝下에서 入學式을 마치고 그 해 8月 15日 解放이 되었습니다. 33회는 다음 해 빨갱이들이 미처 整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入學한 期數입니다. 얼마 안있다가 1,2,3,4, 高級中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33회를 마지막으로 有名했던 이 學校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흐르는 時間 속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잡을게 없습니다. 老軀의 몸을 부축 받아가며 同窓會에 참석하시는 先輩님들을 볼 때마다 代가 끊기는 罪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 慄懼스럽기만 합니다. 32회가 平均 5 8歲이니 이 學校의 運命도 永遠한 主人에게 맡겨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時間은 우리에게 生命을 주었습니다. 또 기쁨도 주었습니다. 또 華麗함, 所有의 아름다움, 平和, 追憶等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던 時間도 이젠 우리에게 健康을 病으로 攻擊이 破壞로 所有가 喪失로 사랑이 미움으로 變하는 무서운 阻礙도 보여 주었고 그리고 이 時間은 우리에게 이렇게 變化無常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出生에서 死亡까지 위에 말한 모든 것이 走馬燈같이 지나 갑니다. 結局에 가선 우리 일한 者의 手苦는 무엇을 가져 왔는가? 本人에게나 家族에게나 決勝點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絶望에 빠져 죽음만을 기다리는 바보가 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貴重한 時間管理의 敎訓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時間의 主人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敎訓입니다. 우리는 老衰, 敗北, 疲困함, 눈물, 喪失, 落望, 괴로움 같은 것들을 期待한 일이 없습니다. 바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時間의 主人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健康할 때는 모르나 이 時間의 主人이 뺏아가고 나면 아! 그 時間의 主人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모든 時間은 連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곁을 떠나고 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임금의 宰相에게 "가장 悲痛하고 哀痛할 때가 언제이고"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 宰相이 가만히 있다가 "황공하오나"하고 말을 始作합니다. "어서 對答을 하시오"하니 "父母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멀리 南山이 눈앞에 아롱거리 잘 보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子息이 죽었을 때는 南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다"라고 對答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1) 모든 것은 떠난다. 2) 떠난다는 것은 悲痛한 것이요 哀痛한 것이다. 3) 떠나고 나면 후회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좀더 잘 헤드럴 것을..... 이것이 敎訓입니다.

셋째, 時間의 敎訓속에는 公平한 分配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時間의 主人은 우리 人生들에게 먹고 살게 하기 爲한 勞苦를 주셨습니다. 이 時間의 主人은 時間 속에서 人間을 經驗케 하여 어떤 것이 眞實이며 人生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手苦한 者의 勞苦가 勝利나 敗北나를 말해 줍니다. 勝利는 富貴榮華입니까? 敗北는 가난입니까?

네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時間의 주인에게 無限한 感謝를 할 줄 아는 人生이 되어야 합니다. 出生을 보고 成長을 보고 合格을 보고 婚禮를 보고 子息, 孫子女를 보고 青春을 보고 年齡을 의식하고 이런 모든 時間 속의 事件을 보고 이때까지 우리는 이 時間을 어떻게 管理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時間管理를 어떻게 시켰는가를 돌아볼 必要를 느낍니다.

優先 우리에게 이 貴重한 時間을 주신 이에게 謙虛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지나간 잘 못을 宥우치며 容恕를 받고 將次 닥쳐올 끝날, 그 時間管理에 對한 審判을 생각하며 한번 밖에 없는 瞬間을 勝利의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瞬間의 勝利를 無限한 資源으로 삼으며 한번 밖에 없는 瞬間을, 時間을, 이 寶庫를 有用하게 이끌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先輩님들의 時間이 우리에게 까지는 왔으나 우리의 뒤에는 이런 時間을 傳해줄 後輩가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은 先輩님들의 時間管理가 無限한 敎訓이 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時間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졌습니다. 그러나 先輩님 여러분 念慮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先輩님들과 같이 지냈던 時間 時間들이 우리들과 또 우리들의 子息들과 後孫들에게 染色反應을 일으키게 될 것을 自負합니다. 모자의 흰 석줄과 가운데의 中字는 永遠한 時間 속에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 咸興詩集

鄭源石(32回)

옛말

널찍한 흙정지에 수수돏자리  
눈코가 맵습니다.  
소나무 연기.

갓 없는 전등불빛 밤이 깊은데  
바람에 울어대는 문풍지 노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마을에  
엄마 없는 아이가 살았거드렁..

아이가 고생하다  
엄마 그럴 때  
정지 구석 귀뚜라미 가날피 울고

불도깨비 집에서 도망질칠 때  
아궁이서 탕탕 튀는 소나무 옹이.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외할머니가  
긴긴 밤 옛말을 들려 주시면

술잎가지 불지피던 시뚜리 누난  
치마가 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잠들었던 호미쇠도 어느새 깨어  
가만히 숨 죽여 엇듣고 있고

명태

명태들은 노래를 좋아하나봐

그러길래, 아가미에  
반음표 하나씩 가지고 있다.

얼어붙듯 추운 겨울  
북쪽 바다  
명태는 저희끼리 한테 모여  
술술도 도시라술  
정말 소리 합쳐 노래하나봐.

그러길래  
바다는 넘실거리고  
달빛에 은빛 물결 일고 있다.

북어누깁  
아이들 호주머니 속에는  
주머니칼이 한 자루씩,  
길쭉하고 뾰족한 반에 접는 칼.

학교에선 연필을 쥐고,  
방과 후엔 북어 누깁 서리.

추녀가 나란한 어물전 거리.  
가게마다 싸라가지에 두름 꿰어 차곡 차곡,  
천장까지 가쌓인 북어 더미.

몰래 다가가면  
잡조름한 바다 냄새,  
명태 냄새.

뾰족한 칼 끝으로 누깁을 도려내어  
얇은 눈 껍질을 싹 벗기고  
질경질경 씹으면,

아,



명태 맛보다도 더 고소한  
파아란 동해 바다 맛.

황새나무  
황새가 열려서  
황새나무  
하얀꽃 송이 송이 가득 연다.

은 종일 그림처럼  
서 있다가  
사뿐히 날아서 춤을 춘다.

황새가 물려와  
황새나무  
한 나무에 울쭙불쭙 앉아 있다.

논두렁에 내려서  
먹이를 쪼고  
심심해서 허수아비 흉내를 낸다.

황새  
가을 바람  
십리길.  
소풍 날씨.  
산으로 귀주사 찾아가는 길.

논 밭 너머  
정화릉  
키다리 홍송.  
양지 바른 능문이 닫혀 있었다.

소리 없이  
하늘에  
날리는 꽃잎.

하얀 깃 황새가 날고 있었다.

아, 하얀 깃

황새는

고이 날아서

고향 하늘 그득이 고이 날아서.

## 국어사랑

徐潤煥(33回)

어쭙지 않은 日本語 實力을 뭐 大端한 것으로 自慢하면서 日本冊의 翻譯을 試圖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첫장부터 語彙(한국말)의 不足으로 꽉 막혀버렸다. 뜻은 막연하게나마 알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 적당한 우리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當時의 日韓辭典은 日本語 辭典을 翻譯해놓은 程度의 막치여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어썩든 이력저력 고생하면서 겨우 번역은 끝났으나 원고를 되읽어보니 내용도 그렇거니와 文章도 엉망이었다. 國語에 對한 傲慢無禮한 생각을 고쳐먹고 한글공부(?)부터 始作하기로 했다. 우리 世代는 한글을 가장 제대로 배우지 못한 世代에 속한다. 國語文法을 한번도 제대로 배워본일이 없고 가가 거겨만 배우고도 [국어=내가 하는 한국어]라는 이만저만 아닌 큰 誤錯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선 국어사전을 사는 일이다. 책방에 가서 사전을 고르는데 하루종일 걸렸으며 결국은 이희승 국어사전과 신기철 국어사전을 샀다. 집식구는 당신이 뭐 대단한 국어학자라고 국어사전을 두권이나 사는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신기철 국어사전은 中辭典이고 活字도 커서 4천사오백 페이지의 이 사전을 첫장부터 끝장까지 讀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읽는데 꼬박 3個月이 걸렸으며 所感은 우선 成就했다는 滿足感이 앞섰고 읽고나서 깨우친 바가 매우 컸다.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內容을 담고 있다니 나는 警異와 感歎과 그리고 조상들의 슬기에 敬畏의 念까지 갖게 되었다.

勿論 그 수한 單語들이 全部 記憶될리 만무하고 나 自身이 사전을 공부하는데 必要한 요령을 몰랐기 때문에 國語辭典을 다시 읽기로 했다. 이번에는 순 한글 단어만을 체크하기로 했다. 첫번째 열람에서 대강대강 밑줄을 쳐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적바람하기는 쉬웠다. 約 1개월에 걸쳐 나의 순 우리말 낱말 모음이 完成되었다. 國語大辭典을 사들여 놓기前에 하지 못하는 英語를 한다고 英語大辭典으로 책장을 장식했던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지금도(88) 中高等學生들에게는 券數에 있어서 英韓辭典이 國語 辭典의 10값결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마음이 무거워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入學했을때 入學膳物로 대개 英韓辭典을 빠짐없이 꼭 사주나 國語辭典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學生이 있는 家庭에는 국어사전이 없어도 英韓辭典이 두서너썩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할까, 고질적인 事大主義라 할까, 영어단어의 綴字 한 字가 틀려도 야단법석인데 국어의 誤字에 대해서는 無關心을 지나서 “뭐 다 그런거지”라며 無神經하게 지나치는 것같다. 오늘 아침 (89. 5. 17) TV프로그램에 ○○ 比較表에 소고기란 글이 비쳤다( 比較表名이나 채널을 확인하지 못했음). 소고기에 대해서는 농심에서의 “소고기 라면” 파동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이런 無神經함에 분노조차 느끼며 언문천시 사상의 잔재가 상금도 있단 말인가 하고 개탄한다.

한편 요즈음의 한글 소설에서 참신한 어휘들을 많이 구사하는 作家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여하튼 반가운 현상이며 밝은 未來를 점칠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 “어미”, “완장”, “백치의 달”같은 것을 읽어보면 한권에 약150-200개 정도의 낱어 어휘들이 登場한다.

나는 이제 눈이 어두워 그전처럼 속독할 수 없게되어 자연히 정독하게 된다. 특히 한글소설에는 漢字가 없어서 漢字로 익힌 독서기 때문에 많은 지장을 느낀다. 그래서 한글소설을 별로 많이 읽지 않은 편이고 읽게되면 낱말을 한자한자 좇으니 절로 克明하게 읽게되며 어휘를 文脈으로 把握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낱말들이 체크된다. 적바림한 단어를 국어 대사전으로 찾아본다. 용케도 그런 단어를 적소에 적절하게 썼구나 하는 感歎이 절로 나는 일이 가끔 있다. 이런 作家들은 앞으로의 活動에 期待되는 바 크다. 왜냐하면 학교 국어교육에서 낱말을 익히는데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설에서 문맥으로 낱말 뜻을 파악하면서 익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서 體得한 要領이며 實際로 그리 되리라고 본다. 내 경우 일본소설을 多讀--그것도 速讀으로--하면서 反復하는 讀書過程에서 日本語辭典이나 日韓辭典없이 낱말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당신은 유별나게 外國語에 素質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實際로 그렇지 못하다. 以北에서 露語를 배워 英語에 대해서는 거의 白紙상태에서 越南, 除隊한 後 英語를 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한 것을 보니 도리어 나는 外國語 素質이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편이다.

日本語를 제정時代に 배운 사람들은 흔히 日本語의 表現이 豊富하고 多樣하여 우리 말은 그렇지 못하다고 嗟嘆하고 있다. 例로서 “玄關拂”를 들어본다. 日韓辭典에는 “門前遂客”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갑살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혼치 않다. “わらん人形”=“제웅”, “シバ”=“날땀”, “割かん” =“도리기”, “猪首”=“상사목”등 등 얼마든지 대응되는 우리말의 어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文學家中에서 어휘를 가장 豊富하게 驅使했다고 하는 金東仁氏의 代表作에 “젊은그들”이 있다. 그중에 “대문을 잠그고 그밖에 나무조각을 가로 걸쳐 박아서 出入을 못하

게 하고 모두들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첩박다”로 表現할 수 있으니 “첩박고 모두들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묘사했음이 옳았을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 고장 함흥지방에는 [가릿국]이라는 국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음식이다. 그러나 알고보니 갈비탕의 一種이라고 國語大辭典에서 說明 하고 있다. 가리=소의 “갈비”를 食用으로 할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類推가 可能하지 않을까. 兩班들은 食用으로 소의 갈비만 먹었고 다른 집승의 갈비는 먹지 않았었다. 갈비를 먹는다는 表現은 어떤지 점잖지 못하고 殘忍性마저 느끼기 때문에 兩班들이 먹는 갈비를 유독 “가리”라고 表現하게 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함흥지방에만 남아 있다는 것은 함경도 사투리의 형성과정과 같은 脈絡일 것 같다. 즉 “동삼”=“겨울”, “신다리”=“넓적다리”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과 같이.

함경도 사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잠깐 함경도 사투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함경도 사투리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우선 “아바이”가 있고 “댕거지”, “지렁”, “내 구리”, “쟁개비”, “소래”등을 들 수 있다. “쟁개비”는 순수한 표준말이고 “소래”는 모양에서 訛傳된 말이다. 그리고 “지렁”은 순수한 함경도 사투리 같은데도 우리나라 속담에 “사또 밥상의 지렁 종지 같다”라는 말이 있으니 “지렁”의 由來가 궁금하다. 그리고 함경도 사투리중에는 멋진 表現力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文學者의 손을 빌어 標準語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굴패미”, “배뜨래기”, “아심첼다”, “바수개”, “새소리하다”, “찢어먹다”, “탕치다”, “하갑다”, “허양”, “헤로갑”, “반지버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뜻에 對應하는 표준어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國語(어휘)는 流轉한다. 忍者生存의 原則이 여기에도 忍用되는 것 같다. 가장 비근한 例로서 “사바사바”란 말이 있었다. 50年代 中, 後半을 풍미한 이 말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이 말이 끼이지 않은 對話가 거의 없을 程度였으나 社會가 正常으로 돌아서려는 復原力이 생기면서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나 어휘에는 惡貨가 良貨를 驅逐한다는 그레섬의 法則도 作用하는 것 같다. “누리”, “가리”등을 例로 들 수 있다. 日常生活에서 하루에 使用하는 어휘의 數量은 그 民族의 文化水準을 재는 尺度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슴프레한 記憶으로는 한국 사람은 900單語인데 英國사람들은 3000單語라고 한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 單語를 使用하는지 모르겠으나 英國과 거의 반같은 量의 單語를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莫然한 推測을 해본다. 왜냐하면 그 當時 使用되는 말 중에는 “인신매매”, “가정과괴범”, “민중열사”, “화염병”, “인권”, “오공비리”, “백담사”, “보통사람”등의 말이 없었으니. 어느 調査機關에서 우리들이 하루에 쓰고있는 어휘의 數와 빈도 높은 순서를 조사한다면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정확한 사용법을 익힌다. 둘째, 忍所에 가장 忍當한 어휘를 使用할 줄 알아야한다. 셋째, 어휘를 풍부하게 알아둔다. 넷째, 어휘의 순화에 努力하는 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음 世代, 다음 다음 世代들에게 국어를 익히도록 하게하는 것도 국어사랑의 한가지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國語辭典에 어휘의 出典과 用例가 적는데 이 때문에 어휘가 死藏되는 수가 있다. 單語는 理解되는데 文章化가 안된다. 出典과 用例가 풍부하게 收錄된 國語辭典의 出刊을 바라마지 않는다.

## 智異山 縱走記

朱 宣 淳(33回)

1988年 8月 7日 午後3時5分 順天行 統一號 列車는 定時에 서울驛을 出發하였다. 우리 家族 一行4名은 모처럼의 여름休暇를 맞아 오랫동안 念願해왔던 智異山 縱走旅行을 떠나게 된 것이다. 人口 1000萬余名이 북적대는 서울거리를 벗어나니 時間에 쫓기면서 살아오던 薄俸 月給쟁에게는 야릇한 解放感을 느끼게 한다. 넓은 들판에는 벌써 푸르게 자란 벼들이 넘실거리고 있다. 統一號列車는 달리고 또 달렸지만 求禮驛에 到着한 것은 午後8時넘어서 였다. 길고 긴 여름해도 西山에 지고 暴炎속에 허덕이던 대지도 徐徐히 어둠속에 묻히기 始作한다. 民泊을 할 것인가 夜間山行을 할 것인가 망서림의 瞬間이 지나 갔다. 나는 求禮驛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技士中에서 模範個人택시技士로서 나이 듬직하고 經驗이 많아보이는 技士한사람을 擇하고 성큼 다가가서 흥정을 始作한다. “老姑壇까지 觀光道路가 생겼다는데 只今 갈수 있겠소?” “泉隱寺方向으로 해서 老姑壇 중턱 「성삼재」까지만 갈수 있는데 1萬5千은 주어야겠소 그곳에서 老姑壇 頂上까지는 1時間 걸으면 갈수 있을게요” 나는 夜間山行하기로 이미 決心을 굳힌터라 흥정을 끝내고 네 食口 모두 택시에 搭다. 疾走하는 택시는 잠시후에 泉隱寺쪽 智異山 入口에 접어 들었으나 周圍는 벌써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까마득한 오르막길을 S字型으로 觀光道路가 새로 貫通되어 있었는데 꼬부랑 길이 險難하여 急커브를 通過할때면 아찔해질 程度이다. 模範運轉技士는 實力을 誇示하면서 마음을 폭 놓으라고 한다. 군데 군데 落石防止用 鐵그물이 設置되어 있는것에 미루어볼때 難工事 끝에 貫通된 道路임에 틀림없었다. 模範技士는 契約대로 “성삼재”에서 우리 家族을 내려 놓았다. 아득히 海拔 1.507m의 老姑壇 頂上에는 KBS 送信中繼塔 안테나가 캄캄한 밤하늘에 불빛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숨들림 겨를도 없이 우리 家族은 頂上의 불빛을 目標로 잡고 夜間山行을 始作한다. 손電燈 불빛이 너무나 히미하여 자칫하면 돌뿌리에 걸리기 십상이다. 캄캄한 숲속에서 무엇인가 튀어 나올것 같기도 하고 공연히 으시시한 氣分이 들기도 한다. 짐 떠날때에 高山氣溫에 견딜 옷 몇벌에다 쌀, 라면 감자 양파 장조림 따위의 基本食糧만을 準備했는데도 캠핑용 天幕까지 습치고 보니 내食口가 1人當 20kg以上の 짐을 메고 걸어야할 形便이다. 차거운 高山地帶의 밤바람이 구슬땀을 식혀준다. 約 1時間을 부지런히 걷고나니 겨우 老姑壇 캠프場까지 到着하였다.

백백히 들어선 텐트 사이에 겨우 空터 하나를 자리잡고 野營텐트를 치고 나니 時間은 벌써

午後 11時가 되어 있었다. 疲勞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列車속에서 도시락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食事は 하지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周圍의 텐트속에서 밤을 새는 젊은 男女들이 高聲放歌와 雜談으로 떠들어 대는통에 나는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새어야 했다.

8月 8日 아침이 밝았다. 텐트밖에 나와 보니 아득한 山 밑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雲海가 마치 仙界를 방불케 한다. 山莊施設도 3年前 이곳을 찾았을때와 比해 많이 增設되었으나 너무나 많은 登山人口들이 公衆道德을 지키지 않고 利己의 行樂에만 치우치고 있는 탓인지 汚物과 쓰레기가 여기 저기 放置되어 있고 캠프場 秩序가 엉망이었다. 우리家族은 簡便하게 라이스카레로 푸짐하게 아침食事を 마치고 午前9時頃 老姑壇 캠프場을 出發하여 待望의 智異山 縱走를 始作하게 되었다. 海拔1915m의 天王峰을 主峰으로하여 1.751m의 般若峰 1.507m의 老姑壇等 3大高峰과 1500m以上の 10余個 高峰 以外에도 85個에 이르는 大小峰까지 합쳐 南嶺 最大의 山岳群을 이루고 있는 智異山은 山勢기 너무 雄壯하여 그神秘하고 太古然한 自然을 바라 보고 있노라면 俗世를 떠난 氣分이라고나할까. 이제 우리는 主山峰인 天王峰까지 45km의 稜線길을 縱走해야만 하는것이다. 老姑壇에서 임걸嶺을 지나 뱀사골 山莊에 이르는 8km의 登山路는 아주 險難한 코스는 아니나 時間 經過함에 따라 배낭의 重量이 어깨를 무겁게 壓迫해온다. 路邊에는 원추리꽃 산도라지꽃 빨강고 하얀 各種 이름모를 野生花가 여기 저기 곱게 피어 行樂들의 疲勞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智異山 稜線縱走路에는 8個處의 샘이 있는데 特히 盛需期登山時에는 常時 充分한 食水を 確保하고 걷지 않으면 안된다. 8月の 強烈한 太陽빛밑을 걷노라면 물을 마시고 5分도 안되어 또 무서운 渴症이 掩襲해온다. 차라리 主食이 물이라고 表現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배낭外에도 무거운 물통을 걸머쥐고 걸어야만 한다. 마누라는 고사리 같이 가냘픈 自己體力 限界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 안스러워 仁荷工大 1年生인 아들 秀賢이 물통을 뺏어들기도 하고 聖心女大 3年生인 딸 秀美의 보따리를 뺏어 들기도 하면서 다 큰 子息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苦行하고 있다. 철부지 아이놈들은 에미 에비 걱정을 하는지 않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高血壓때문에 傾斜地를 오를때면 남보다 곱절 숨이 차고 脈搏이 빨라진다. 그러나 名色이 家長이요 리더인 體面에 가냘픈 마누라가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지고 들고 헐떡이면서 쫓아 오는것이 보기에다 민망하여 나는 억지로 마누라 짐을 뺏어들고 걸어야만했다. 그러자니 脈搏은 쿵쿵 더욱 빨라지고 가끔 眩氣症마저 일어난다. 슬그머니 子息놈들이 알뜰게 생각된다. 이제 大學生이면 에미 에비 마음을 헤아릴 때도 되었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가는 父母생각은 念頭에도 없단 말인가. 이런 저런 마음속 葛藤을 겪으면서 正午가 지나서야 뱀사골 山莊에 到着하였다. 가뭇타오르 食水是 조록 조록 호소에서 흐르고 登山客들은 줄지어 차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食口는 라면으로 대충 點心을 때우고 또 걸기를 繼續한다. 時間에 比例하여 疲勞와 苦痛도 加重된다. 트란제스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 서울은 35度를 오르내리는 暴炎으로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한다. 뱀사골山莊에서 토기峰에 이르는 5km, 明善峰을 지나 “연하권”에 이르는 7km 또 그곳에서

碧宵嶺(벽소령)에 이르는 6km의 登山路는 지루하고도 險難한 코스이다. 智異山 稜線 登山路가 다 그러하듯 들뿌리 나무뿌리, 길을 막고 쏘여져 있는 枯死木等 障礙物이 끝도없이 늘어져 있는 비탈길과 내리막길을 가쁜숨을 몰아쉬며 구슬땀을 흘려가며 걷고 또 걷는다. 그런데 갑자기 異變이 일어났다. 철부지라고 은근히 나무라든 아들 秀賢이 怪力을 發揮하기 始作한다. 처음에는 20kg의 自己배낭위에 누나인 秀美의 배낭을 뺏어 올려놓고 줄다름치더니 마침내 누나짐을 돌려주고 에미배낭을 뺏아 함께 걸어메고, 산토끼 처럼 山길을 뛰기 始作한다. 아! 이제야 潛在하던 兄弟愛와 孝心이 發揮한 것일까. “아빨사! 내가 아들놈의 本體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形容할수 없는 기쁨과 感激이 지친 나의 心情을 뿌듯한 자랑으로 채워준다. “그러면 그렇지, 그놈애가 누구 子息인데”

그런데도 마누라는 또한個의 짐보파리를 아예 머리위에 이고 힘겹게 뒤따라온다. 夫婦之間에 모른척 할수도 없어 비탈길과 急傾斜, 내리막 길을 걸을때는 젖먹은 힘을 다해서 마누라짐을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걷다보니 碧宵嶺 캠프장에 到着한것을 午後7時나 되어서였다. 아들 秀賢이는 어느새 景觀이 좋은 자리에 텐트까지 쳐놓고 엄마, 아빠 누나의 到着을 기다리고 있었다. 碧宵嶺에서는 저녁食事を 푸짐하게 끓여놓고 탁트인 稜線과 골짜기의 아름다운 景致를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먹고 마시면서 休息을 取하였으나 밤에는 氣溫이 떨어져 어찌나 추운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山속에서 2泊을 하고난 우리 家族은 天王峰을 向해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多幸히 날씨는 和暢하였다. 碧宵嶺의 샘은 너무 불결하여 3km 前方에 있는 “선비샘”까지 渴症을 참으면서 걸어야 했다. 간신히 “선비샘”까지 到着했으나 그곳 역시 가뭄으로 食水事情이 如意치 않고 샘물도 깨끗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山莊이 있는 細石平田까지는 7km나 되는 가파른 오르막 傾斜길이다. 여름放學中이라서 젊은 男女 大學生을 비롯한 靑少年 登山客의 行列이 끈이질 않고 이어진다. 마주치는 젊은이마다 “手苦하십니다” “힘 내세요”하면서 人事하고 지나간다. 山行에서는 이같이 서로 人事를 나누는 것이 “에티켓”이다. 그런데 그많은 登山客中에는 나보다 더 年長者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길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더욱 우리 처럼 家族一同이 함께 山行하는 사람도 別로 눈에 띄우지 않는다. 젊은 男女愛人끼리 또는 數名의 男女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간다. 얼마쯤 가다 나는 奇異한 行人한사람을 만났다. 20歲쯤 되어 보이는 靑年으로 한쪽 다리는 小兒麻痺를 앓았는지 不具인데 나무 집팡이에 몸을 依持하면서 人間能力의 限界를 試驗하듯 그 각과른 山길을 힘겹게 孤獨하게 걷고 있는 것이다. 四肢가 멀쩡한 사람들도 敢히 走破하기를 꺼리는 이 險難한 山길을 혼자서 挑戰하다니……. 나는 이름모를 靑年의 奮斗를 빌면서 걸음을 재촉한다. 얼마쯤 가던 나는 지친 몸을 어느 나무밑에 기대고 잠시 休息을 取하고 있는데 눈앞 나무가지에 빨간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무엇인가 글귀가 적혀있어 無心히 읽어 보았더니 리본을 單純한 登山路 案内標示가 아니고 運動圈學生들의 檄文이 었다. 나는 注意를 換起하여 나무가지에 메달린 리본 檄文을 確認하면서 걸어갔다. “순결한 땅 韓半島에 核武器가 웬말이나” “美國놈을 몰

아내자”

“人格유린 자행하는 軍部獨裁 끝장내자”

“가자! 板問店으로!” 등의 內容이다. 只今 各大學 運動圈學生들은 8·15南北 學生會談 強行을 試圖하여 또 한차례의 示威事態를 誘發하고 있는데 國立公園인 이곳 智異山 高地帶 登山路에 까지 宣傳攻勢를 取하고 있으니 그 執念이 如事일은 아닌듯 싶다. 細石平田에 이르는 갈딱고개는 그야말로 試鍊의 傾斜길이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다. 얼굴에서 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니 눈을 뜰수없다. 어개를 壓迫하는 배당무계를 건디며 발밑을 조심하면서 걷다보니 그 秀麗한 景致도 바라볼수없다. 이렇게 하여 細石平田에 到着하니 午後1時나 되었다. 細石平田은 둘레가 30리나 되며 5~6月에는 철쭉꽃으로 有名할뿐 아니라 高原한가운데 細石泉에서 시원한 맑은물이 솟고 있어 智異山을 찾는 登山客들에게는 paradisa와 같은 곳이다. 우리家族은 짐을 풀고 點心을 먹고 오래간만에 洗手도 하고 발도 씻었다. 3年前에 比해 山莊施設도 훌륭하게 改善되었고 管理狀態도 余他山莊에 比해 第1秩序가 잡혀 있었다. 이곳에서 6km 떨어진 장터목 山莊에서 野營하기로 豫定한 우리는 1682m의 춧대峰과 1667m의 연하峰을 지나 走行을 繼續한다. 數百年을 지나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原始林이 樹海를 이루고 군데 군데 서있는 自然枯死木은 悲壯感을 갖게 한다. 午後6時 장터목 山莊에 到着한 우리 家族은 來日 아침일찍 天王峰 日出을 보기 爲해 이곳에서 路宿하기로 하고 山莊 뒤 바위틈새에 텐트를 쳤다. 登山人口가 너무 많아 캠핑場所에서 天幕을 칠 場所를 確保하기...도 그다지 쉬운일이 아니다. 山中에서 3日째 밤을 맞게되었는데 運數 사납게도 바로 옆 텐트에 젊은 男女들이 몰려와서 밤새 떠들석하게 놀아나는통에 食口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텐트속이 너무 추워서 판초까지 끄집어 내어 덮고 잠을 請했으나 끝내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夜深한 時間에 텐트 밖에 나와 땅과 하늘을 굽어본다. 온누리는 칠혹같이 캄캄한데 하늘에는 數많은 별들이 찬란히 반짝이고 있다. 北極星, 北斗七星, 銀河水 모든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빛나고 있다. 멀고먼 옛날 咸鏡南道 興南市 湖北里 마을 故鄉집에서 少年時節을 보내면서 밤마다 바라보던 하늘의 맑은 별빛! 故鄉떠나 38년이란 긴 歲月이 흘러간 只今 57歲의 初老人生이 되어, 南韓의 高山靈峰에서 다시 바라 보게되니 흘러간 宿命의 歲月들이 無常하기만 하다.

8月10日 새벽 5時, 우리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찬밥을 가스 바나에 데워 송늬를 만들어 한대접씩 마시고난后 텐트를 整理하고 잽싸게 짐을 꾸리기 始作하였다. 이곳에서 智異山 主峰인 天王峰 頂上까지는 3km이므로 부지런히 걸어가면 日出을 보게될수도 있을것같다. 1806m의 帝釋峰에 이르니 새벽이 흰히 밝기 始作한다. 荒涼한 山마루에 數百구루의 枯死木이 단 한잎의 잎사귀도 걸치지 않은채 서있기도 하고 쓸어져 있기도 하다. 하늘로 通한다는 通天門을 지나니 傾斜는 漸次 險惡해 지면서 徐徐히 天王峰 頂上이 目前에 닥아온다. 이곳까지 오면서 그렇게도 힘겨워하던 마누라는 달려가듯 마지막 絶壁을 기어오르면서 1等走者로 頂上에 到達하드니 그뒤를 딸놈 秀美가 뒤질세라 쫓아 2等으로 頂上에 이르렀고 나는 숨



이 턱까지 차서 험덕거리면서 겨우 겨우 3등으로 頂上에 오르는데 孝子인 아들 秀賢이는 애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우리 家族을 保護라도 하듯 맨뒤에서 올라온다. 아! 드디어 天王峰頂上에 到着하였다. 1988年 8月 10日, 午前7時 30分이다. 어느새 아침해는 地平線에서 한참이나 올라와 있었다. 頂上에는 골짜기에서 휘몰아오는 차거운 돌개바람과 검은구름이 흙모래를 할퀴면서 세차게 불어 닥쳐와 記念寫眞攝影도 제대로 할수없는 形便이다.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頂上의 氣象은 神秘함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頂上에는 어른 키 만큼 높은 돌碑石이 서있는데 앞면에는 “智異山 天王峰 1915M”라고 表記되어 있고 뒷면에는 “韓國人의 氣像 여기서 發源되다”라고 表記되어 있었다. 智異山은 咸鏡道の 白頭山, 平安道の 妙香山, 江原道の 金剛山, 黃海道の 九月山과 함께 우리나라 5大名山の 하나로 손꼽히는 雄壯한 山인데 특이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山이라하여 智異山 이라고 불리운다고 한다. 1967年 12月 29日 우리나라 國立公園 第1號로 指定되었다.

千辛萬苦 끝에 到達한 頂上이 였지만 찬바람과 灰色구름이 사납고도 세차게 휘몰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수도 없이 우리家族은 오를때와는 反對便인 法界寺 方向으로 下山하였다. 頂上에서 法界寺에 이르는 3km의 下山길은 가파른 傾斜길을 이루고 있었으나 군데 군데 鐵사다리와 “와이야”로 安全裝置를 設置하고 있어 오르 내리기에 큰 危險은 없었다. 法界寺밑 로타리 山莊에서 中山里에 이르는 10km의 下山길은 우거진 숲속과 계곡에서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로 지루함을 잊고 걸을수가 있었다.

午後5時나 되어 우리家族은 無事히 下山을 마치게 되었는데 中山里智異山入口계곡물이 보기에다 시원스러워 食口 모두 옷을 입은채로 풍덩 물에 잠겨 목욕을 하였다. 3泊4日 山行에서 찌들대로 찌든 땀과 먼지를 말끔히 씻고 豫備옷을 갈아입고나니 날아갈것같이 氣分이 상쾌하다. 頂上에서는 高山의 冷氣流탓으로 그렇게도 춥더니 平地는 35度를 웃도는 가마속 같은 더위이다. 나는 이번 智異山縱走 家族旅行을 통해 子女들의 孝心과 兄弟愛, 그리고 夫婦愛를 再確認할수있었고 忍耐力과 奉仕精神을 스스로 發揮할줄아는 아들과 딸의 成熟한 모습을 發見할수 있었음을 感謝드리며 가슴뿌듯한 滿足을 느낀다. 生活의 주어진 軌道를 暫時 離脫하여 大自然속에서 3泊4日간의 自由를 滿喫한 나는 高貴한 體驗을 活力素로 다시 生活의 軌道에 復歸하기 爲해 사랑하는 家族과 함께 서울行 高速빠스에 몸을 싣는다.



# 同窓會負名簿

이 名簿는 威興高(威南中) 卒業後 全部를 卒業年度別로 總網羅한 通例的인 同門名簿가 아니라 越南한 同門중 在南 또는 海外居住者로써 連絡이 닿거나 連絡이 두절된 同門들을 各期幹事들이 期別로 整理作成한 것이다. 또한 이 名簿中에는 日帝時 思想問題, 休學 또는 其他 理由등으로 卒業을 못했거나 留級된 분들도 期別모임 참석 또는 連絡可能與否等 實情을 참작하여 入學同期 또는 卒業同期에 包含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任 員 及 期 幹 事 名 簿

任員區分	回 數	姓 名	住 所	電話番號
名譽會長	1	李 東 準	松坡區 蠶室5洞 住公APT. 518-806	423-1630
會 長	23	朴 東 昂	江南區 開浦洞 449-3 現代APT. 202-803	576-3636
副 會 長	21	朱 仁 鎬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副 會 長	26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副 會 長	27	元 章 煥	東大門區 清涼里洞 美洲APT. 7-403	964-0455
監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APT. 6-105	483-0019
總 務	30	朴 溶 夏	城東區 玉水2洞 現代APT. 101棟 202號	297-9821
副 總 務	32	金 仁 和	道峰區 번동 148-377	983-7105
幹 事	1—9	朱 洛 璋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1 감천장	(032)45-1018
幹 事	10	李 東 沂	瑞草區 方背洞 19-3	532-4790
幹 事	13	蔡 永 福	陽川區 木洞 王子APT. 10-201	646-4144
幹 事	14	廉 禮 寬	松坡區 石村洞 57-14	423-8202
幹 事	15	蔡 奎 燦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幹 事	16	金 斗 漸	西大門區 弘恩洞 338-165 코롱빌라 1棟 308號	302-5364
幹 事	17	金 漢 范	鐘路區 紅把洞 19-1	737-2080
幹 事	18	韓 翊 洙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APT 9棟 701號	904-3215
幹 事	19	朱 槿 源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幹 事	20	金 世 龍	富川市 南區 역곡 2洞 47-2 무림빌라 B-101	(032)652-9937
幹 事	21	元 勳 基	恩平區 龜山洞 210-31	355-8792
幹 事	22	申 泰 燦	蘆原區 下溪洞 現代APT. 105-308	979-1423
幹 事	23	朱 圭 演	江南區 開浦洞 住公APT. 224棟 306號	576-4977
幹 事	24	高 明 元	果川市 부림洞 41 住公APT. 803-607	502-3889
幹 事	25	韓 承 五	道峰區 水踰5洞 412-140	902-2309
幹 事	26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1-42	362-5824
幹 事	27	尹 元 基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幹 事	28	吳 哲 求	城北區 城北洞 166-2	777-2207
幹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APT. 6棟 105號	483-0019
幹 事	30	白 昞 烈	中區 獎忠洞 2가 55	277-0564
幹 事	31	金 明 哲	城東區 長位洞 225-8	916-8712
幹 事	32	金 仁 和	城北區 長位洞 225-54	983-7105
幹 事	33	金 基 元	鍾露區 東崇洞 市民APT. 13-103	762-9698

第 1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 東 準	138-220	松坡區 蠶室5洞 住公APT. 518-806	423-1630		

第 2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韓 泰 然	157-010	江西區 禾谷洞 350	603-8600	天道教 宣道師	

第 4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尹 範 模					

第 5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吳 正 根	121-010	麻浦區 阿峴洞 1-287	723-1547		
李 廷 浩					

第 6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楨 龜	110-542	鐘路區 昌信2洞 640-249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李 鐘 奎	在美	

第 6 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聲 遠	440-100	水原市 西屯洞 151	6-4667		

第 7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趙 啓 聖	301-060	大田市 中區 銀杏洞 72	254-5400		
蔡 洙 崗		公州			

第 7 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 錫 福	110-042	鍾路區 樓下洞 236	737-4342		752-9739
金 世 偉	135-091	江南區 三成 2洞 147-12	556-3386		

第 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鍾 偉	120-130	西大門區 北加佐洞 93-7	372-1733		
朴 在 極	470-920	楊平郡 江下面 成德里		養蜂業	
李 經 濟					
趙 永 星					
朱 洛 璋	449-050	水原市 長安區  영화동 441 감천장	(032)45-1018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 仁 燮	在美	
金 龍 涉	在美	
池 鏞 夏	在美	
馬 鐘 國	190-60 King James way road lodonderry towers. #520 Gaithersburg. MD 20899 U.S.A.	

第 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 丙 六	151-050	冠岳區 奉天洞			
金 述 奎	133-093	城東區 金湖洞 3街 487			
咸 泰 元	130-020	西大門區 西小門洞 53-2	752-1932	북창병원	
朱 翼 淳					

第 10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聲 近	137-061	瑞草區 方背1洞 917-4	585-0268		
金 淳 葉	137-071	瑞草區 瑞草1洞 瑞草빌라 나-202	585-2255		
金 正 中	110-510	鍾路區 東崇洞 1-113	762-0837		
南 相 協	400-102	仁川市 中區 新興洞 2街 7			
朴 俊 基	136-100	城北區 貞陵洞 685-8			
劉 正 學					
俞 鎮 河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 APT. 20-310			
尹 鍾 杰	120-090	西大門區 弘濟洞 525			
李 東 沂	137-060	瑞草區 方背洞 19-3	532-4790	이동기소아과원장	
咸 錫 玖					
蔡 熙 甲	157-012	江西區 禾谷2洞 396-9	602-0722		

第 1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 澤 璜					
金 基 燮					
金 弘 鎮					
金 炯 澤					
朴 源 誠	156-031	銅雀區 上道1洞 390	829-2588	명전사(전기상회)	
李 壹 教	609-410	釜山市 금정구 금사동 426-2	89-3896	이일교안과의원원장	
李 在 玉	301-111	大田市 中區 龍頭1洞 20-20	256-6938	충남합동법률사무소	26-9736
金 永 商	110-010	鍾路區 新營洞 214-29	352-2289		
黃 起 然					
金 塾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都 遠 涉	在美	



### 第 1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 升 圭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三扶APT. 9-1303	782-5167	서울대명예교수	
金 廷 鶴					
文 希 樂					
崔 弼 憲					

### 第 1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竣 宋	433-800	始興郡 의왕읍 포일리清和APT.2-101	(0432)54-6233		
金 鼎 鉉	122-050	陽川區 新亭洞 木洞 APT. 907棟 403號	645-3759		
李 大 林	140-190	龍山區 厚岩洞 352-7	754-8525		
蔡 永 福	158-050	陽川區 木洞 501 왕자APT. 10-201	646-4144		
李 英 植					
黃 東 駿					

### 第 14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廉 禮 寬	138-190	松坡區 石村洞 57-14	243-8202		
安 鎔 彪	122-020	恩平區 녹번동 82-2	385-6039		
俞 孝 植					
李 秉 植					
黃 德 駿					

### 第 1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熙 春	135-110	江南區 鴨鵝亭洞 現代APT. 81-705	544-9681	서울대명예교수	714-7939
金 佶 熙	140-140	龍山區 西界洞 53-20	714-3913		
盧 瑞 玉	121-200	麻浦區 東橋洞 142-6	322-6128		
朴 俊 燮	136-054	城北區 東仙洞 4街 359-2	94-9875		

蔡奎燦	122-120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咸潤根	423-013	光明市 光明3洞 住公APT. 1319-1209	684-4654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基惠	144-14 38 AVE. #4C Flushing, New York 11354 U.S.A.		718-939-1713		
金永燮	在日				
金子勳	163-64 20 AVE. Whitestone, N.Y 11359 U.S.A.		718-352-9439		
金滢次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9024 U.S.A.		201-585-0813		

第 16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穩求	157-040	江西區 鹽倉洞 242-11	694-5611		
金斗漸	120-100	西大門區 弘恩3洞 322-1 코롱빌라 1棟 308號 267-0431	302-5364	세운공예사	267-0431
金弘集	430-081	安養市 호계1洞 999-25 일신APT. 3-501	(0343)57-0225		
金麟河	152-082	九老區 高尺2洞 24-144	682-2389		
方成勳					
崔昌植	110-054	鍾露區 社稷洞 311-21	735-1695	友昌貿易(株)	275-1691
韓建淑					
韓弘林	401-040	仁川市 東區 송현동 東新APT. 2-1103	(032)764-8022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星奎	6547 E.MARENGO DR. ANAHEIM CA. 9280 U.S.A.				
劉漢鳳	610 S.CARLYN SPRINGS RD.WOODLAND HILL #228 ARLINGTON, VA 22204		703-578-3173		

第 17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漢范	110-092	鍾路區 紅把洞 19-1(舊名金鋪八)	737-2080		
朱永在	621-170	慶南 金海 양산	(0523)83-5375	仁濟大學金海캠퍼스	

韓昌淑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韓信二次APT.108-402	533-1595		
韓萬燻	600-091	釜山市 中區 大廳洞 1街 38		문화음셀사	
高允明	235-900	江原道 三陟郡 道溪邑		中央病院	
文昌沼		釜山市			

### 第 1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完龍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86	797-6995		
金寅彪	130-080	東大門區 里門洞 346-51	962-6588		
朴謙會	140-111	龍山區 元曉洞 1街 17-8	713-1150		
徐永昱	157-240	江西區 空航洞 71 6統 4班	664-6326		
李中性	132-030	道峰區 雙門洞 現代APT. 101-604	906-9036		
趙漢龍	110-340	鍾路區 益善洞 91	765-3577	鍾路二街朱東雲X레이醫院	
朱東雲	110-012	鍾路區 平昌洞 345-76	352-4295		
崔英植	137-040	瑞草區 盤浦洞 1-8 慶南APT.11-1002	537-1919	浦項硅砂鑛山事務所	73-5146
韓蒙淑	122-070	恩平區 驛村洞 75-25	359-0480		
韓翊洙	132-023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APT. 9棟 701號	904-3215		
韓宗鎬	464-8900	廣州郡 五浦面 능평리수리고을515-1	(0342)44-2916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義鉉	124W. FRANKLIN ST, #413 BALTIMORE, MD 21201 U.S.A.	301-752-1944

### 第 1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永濟	427-010	果川市 中央洞 67 住公APT. 1017-302	502-7920	카톨릭의대명예교수	
金河駿	137-040	瑞草區 盤浦洞 新盤浦APT.22-1009	536-9600		
朴旻會	135-120	江南區 新寺洞 534-24	542-3293		
朴炳원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APT. 33-305	542-4505		
李湧墳	430-050	安養市비산洞417미릉APT.7-1105	(0434)41-3190		
李在亨	137-170	瑞草區 廉谷洞 265	573-4089		

朱 權 源	136-020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한국자동차보험(주)	7601-2426
韓 景 鎮	131-040	瑞草區 盤浦洞 新盤浦APT. 101-408	302-1579	연세약국	
韓 榮	121-240	麻浦區 延南洞 561-8	322-2718	부천보건소	6-0018
韓 弼 夏	140-210	龍山區 漢南洞 740-3	793-6970	고려대명예교수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都 相 禧	#9 Everbloom Drive Cranston, R.I. 02920 U.S.A.	401-943-2598
文 錫 垠	日本 高知縣 幡多郡 大目町 大角 國民診療所	

第 20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權 泰 弘	137-060	瑞草區 方背洞 771-1 삼호APT. 3-610	591-2447	한일합동법률사무소	755-4538
金 明 植	139-202	盧原區 上溪2洞 住公APT. 610-1301	931-8010	삼귀해운	532-9155
金 宗 海	122-041	恩平區 佛光1洞 228-49	387-2258		
金 亨 穆	134-060	江東區 杼村洞 住公APT. 408-403	482-2463		
金 興 洙	137-060	瑞草區 方背洞 883-10 황실APT. 305	585-3003		
金 世 龍	121-042	富川市 南區 역곡2洞 무림빌라 B-101	652-9937		
朴 管 鎮	134-060	江東區 杼村洞 住公APT. 106-404	483-0247		
朴 演 埏	140-212	龍山區 漢南2洞 726-297	798-8013		
白 萬 吉	403-130	仁川市北區十井一洞여원APT.나-103	435-9391		
徐 光 洙	121-190	麻浦區 倉前洞 402-18	332-1307	서광수소아과	
李 基 炯	120-080	西大門區 峴底洞 209	392-3670		
林 炳 書	601-062	釜山市 東區 凡一洞 870-15	89-4066	현대치과의원	68-7382
曹 圭 福	150-050	永登浦區 新吉洞 4915-3	833-8974		
崔 玉 德	100-454	中區 新堂4洞 346-159	252-3860		
成 哲	405-231	仁川市南東區간석1洞이화APT. 2-205	866-6619		
洪 滢 杓	110-290	鍾路區 仁寺洞 98 第一빌딩	732-3148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李 壽 永	261 EAST MAINSTBERGEN FIELD N. J. 09621 U.S.A.	

崔潤煥	日本 神戸市 東灘區 住吉山水 8-22-15	078-1257
韓大淑	Station. A Ogdensburg, N.Y. 13669 U.S.A.	315-393-3000
金泳鐘	200, SO, Olive St. #202-D L.A. Ca. 90012 U.S.A.	

### 第 21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豆 鉉	400-037	仁川市中區港洞7街 비치APT. 7-1106	(032)886-5569		
元 勳 基	122-060	恩平區 龜山洞 210-31	355-8792		
李 相 胤	440-380	水原市 遠川洞 81-6	6-1508	이상윤법률사무소	33-6115
李 英 環	150-080	永登浦 道林洞 186-9	833-9593	이범의원원장	
金 明 洙	401-073	仁川市 東區 松林3洞 92-35	762-5736	미주슈퍼	
朱 仁 鎬	133-071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보건병원	
朱 軫 淳	133-190	城東區 紫陽洞 691-8 한양 자양빌라 203	447-7752	한림대 교수	
韓 喬 石	138-226	江東區 蠶室6洞 장미APT. 28-201	423-4241		
韓 近 淑	133-200	城東區 九宜洞 211-46	447-8429		
韓 東 允	402-022	仁川市 南區 龍峴2洞 삼의APT. 100-1	882-2667		
劉 喆	151-012	冠岳區 新林2洞 103-252	877-2972		
崔 昌 圭	425-040	安山市 聾浦洞 藝術仁APT. 1棟 503號	877-2972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時 彥	166-44-A Kalakana AVE. Honolulu, Hawaii, 96826 U.S.A.	808-941-6567
徐 昌 仁	日本 仙臺市 中江町 町目 20-3 001-81-222 中江病院 院長	727-8589 0222-63-3031
安 省 信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218-983-1987
李 林 學	4149 Yuculta Crescent, Vancouver, BC. VbN, 3R5 CANADA	604-263-0366
李 虎	大阪市 八尾市 東山本新町 8町目 221	001-81-6-752-2126
朱 翰 裕	#2 Park Avenue Eastchester, N.Y. 10709 U.S.A.	914-793-2021
申 允 稷	Prof Dr. MED. Paulo Hirayama Kegel Strasse 2D-7520 Bruchsal West Germany	

第 2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旻奎	139-200	盧原區 上溪7洞 住公APT. 406-905	931-9803		
金聲翰	156-010	銅雀區 新大方洞 우성APT. 113-1702	848-8061		
金禧庚	135-230	江南區 逸院洞 674	573-8031		
金祐燮	138-130	松坡區 梧琴洞 9-3	402-0198		
金東輝	138-200	松坡區 文井洞 150 올림픽 패밀리APT.227-1505	400-7758		
孔守範	132-030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APT. 29-1209	904-3585		966-4003
廉元德	139-230	盧原區下溪洞133블럭靑丘APT.9-1301	978-8678		
申泰燦	139-230	盧原區下溪洞132블럭現代APT.105-808	979-1423		
安 霖	136-086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95-3903		
柳炯容	137-060	瑞草區 方背洞 430-7	583-9901		
趙在衡	150-103	銅雀區 上道1洞 7-22	814-2059	코리아통상회장	279-1635
崔龍煥	137-040	瑞草區 方背洞 신동아APT. 1-1402	585-0274		
崔昌奎	425-040	安山市聲浦洞藝術人APT.1-503	(0345)80-3531		765-1096
韓斗洙	138-170	松坡區松坡2洞166三益APT.212-1007	421-0491		
洪昌杓	427-010	果川市 中央洞 住公APT. 1023-301	503-8743		
洪德熙	157-040	江西區 鹽倉洞 266-3 수한주택 103	699-7048		
李炳一	697-090	濟州道 西歸浦市 호군동 921			
金京植	302-181	大田市 西區 內洞 38-3	(042)522-4305		
金龍聲	152-110	九老區 宮洞 924 水宮母子院	612-6736		
金周炯					
姜鎔根					
徐甲承					
韓 湧					
韓鎮洙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東成	在美	
文相駿	148 Bretton Woods DR, Cranston R.I, 02920 U.S.A.	401-944-3319
李基億	516 W Apple Tree Rd. Glendale, W1 53217 U.S.A.	

金 虎 吉	日本國 名古屋市 千種區 田代町 4貫音通 116-10 メゾン月宮殿 2928	052-722-0777
黃 石 峰	917 S. Bronson AVE Los Angeles CA 90019	401-944-3319
徐 昌 仁	日本國 仙台市 江1丁目 20-3 (泉山昌仁)	25-03566
朱 乾	日本國 東京都 港區 麻布 21橋居留民團本部	323-8086 454-4910

第 23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演 浩	718-800	慶北 七谷郡 倭館邑 석정洞 421	545-0660	대성여관	
金 斗 墳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43-3 홍우빌딩 605호	(0551)83-2986	(주)우림기계대표	783-3611
金 瑛 河	151-013	冠岳區 新林3洞 628-1 남강빌라 103호	855-6336	김병헌변호사사무실	733-3959
朴 東 昴		江南區 開浦1洞 現代2次 APT. 202-803	576-3636	東洋經濟研究所	773-4736
朴 晶 浩					
朴 昌 均	139-202	蘆原區 上溪6洞 住公 APT. 205-206	931-4809	광산업	
徐 日 揆	422-090	富川市 南區 괴안동 동신 APT. 5-101	(032)663-9779		
徐 正 溶	762-860	안동군 남선면 이천동 641-1 송승일방	(0571)53-8512	정우엔지니어링고문	(0571)55-7073
宋 基 澈	135-10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 APT. 64-201	542-0022		
沈 澤 高					
楊 仁 謨					
李 光 薰	133-222	城東區 中谷2洞 54-29	446-6410		
李 燮 杓	600-081	釜山市 中區 보수洞 1街 116	(051)256-8125		
李 世 得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 APT. 87-703	544-4226	미술연구소	544-2059
李 漢 淳	138-225	松坡區 蠶室洞 27住公 APT. 518-1007	415-6946		
林 陽 均	602-051	釜山市 西區 土星洞 1街 2	(051)257-3267	삼광의원	
任 昱 彬	427-040	果川市 별양동 7 住公 APT. 406棟 706號	502-6692		
鄭 良 殷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 APT. 21-86	782-2426	서울대학교	
趙 誠 福	139-240	蘆原區 孔陵洞 신일빌라 가棟 105號	972-7173		
朱 圭 演	135-240	江南區 開浦洞 住公 APT. 224-306	576-4977		
池 昌 龍	134-090	江東區 上一洞 172 住公 APT. 718-104	427-7976		
崔 敏 煥	100-256	中區 藝場洞 2-86	274-1756	평화의원	
崔 宗 相	135-010	江南區 論峴洞 慶福 APT. 8-606	545-8952		
崔 宗 仁	137-062	瑞草區 方背洞 우림카든빌라 303號	587-5320		

韓 東 湖	140-240	龍山區 西水庫洞 新東亞APT. 8棟 809號	798-1160	성균관대학교	
韓 信	430-060	安養市 관양洞 現代APT. 7-1005	(0343)44-1614		
韓 鎬 權	134-240	江東區 新川7洞 장미APT. 17-207	415-4651	방원상사	778-2761
黃 忠 炫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曾 鎬	314 WINDSAR RUAD GREERILLE N.C. 29834 U.S.A.		
金 鎮 洪	在美		
玄 鳳 學	95 Acorn Rd Watchung, N.J. 09060 U.S.A.		201-755-5421

第 24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 基 喆	427-050	果川市 부림洞 住公APT. 802-1005	503-1398		
高 明 元	427-050	果川市 부림洞 住公APT. 803-607	502-3889	단국대학명예교수	797-0581
金 東 勳	427-040	果川市 별양동 住公APT. 507-506	502-5930	서울대工大名譽教授	877-2808
金 性 均	157-230	江西區 開花洞 454-71	699-0302		
金 聲 燾	120-110	西大門區 延禧洞 437-47	323-2956	김성훈소아과	
金 廷 圭	138-701	江東區 可樂洞 現代APT. 36-1004	403-5601		
南 哲 祐	300-230	大田市 東區 비내洞 경남빌라 가-302	624-1126		
朴 聖 熙	137-070	瑞草區 瑞草洞 極東APT. 14-401	534-5633	(주)마영기업이사	585-1041
朴 泳 馥	139-201	蘆原區 上溪洞 住公APT. 1110-1104	934-6814	현당서예학원	742-1331
廉 仁 必	136-102	城北區 貞陵2洞 439	914-0788		
魏 在 珪	152-030	九老區 始興洞 漢陽APT. 1-411	802-5231		
柳 炯 極	110-543	鍾路區 昌信洞 447-12 유미빌라 4층	762-6663		
李 漢 國	137-072	瑞草區 瑞草洞 569 진흥APT. 5-1201	562-5134	덕흥공업사대표	793-0390
周 喜 銓	120-180	西大門區 滄川洞 500-8	334-1797		
崔 雄	130-050	東大門區 回基洞 60-63	967-4939	서울대工大名譽教授	
崔 皓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廣場APT. 8-109	782-7422		
崔 昌 彬	134-240	松坡區 新川洞 장미APT. 12-707	413-3096		
韓 錫 範	121-210	麻浦區 西橋洞 478-6	336-6667		



韓承銀	134-240	松坡區 新川洞 미성APT. 6-702	423-1325		
韓時坤	121-090	麻浦區 鹽里洞 23-78	716-5587		
韓學綸	132-105	道峰區 彌阿洞 1264-138	988-1872		
黃圭錫	445-940	京畿道 華城郡 장안면 서포리 334-1	58-1055	화성목장	
黃炳峻	135-240	江南區 開浦洞 646-1 경남APT. 8-308	573-0011	중앙대학교수	752-4591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應浩	1600 Center AVE, #11G FORT LEE.N.J. 07024 U.S.A.	201-947-0016
金雲澤	在美	

第 25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權宅淵	135-100	江南區 淸潭洞 1-1 三益APT. 13-1002	543-2801		
金珉河	151-010	冠岳區 新林洞 475-33	855-3257		
金建述					
金相熙	158-052	陽川區 木2洞 534-29	694-6104		
金聲進	137-060	瑞草區 方背洞830-10황실APT.A-302	582-1277	김성진내과의원원장	713-2032
金世翊	122-080	恩平區 新寺洞 349-17	373-9646	日本國亞細亞大學客員教授	
金銀式	156-070	銅雀區 黑石洞 50-35	814-0303	의료보험聯合會	718-4135
金仁鶴	156-070	銅雀區 黑石洞 198-41	814-6576	대전엔지니어링	462-6102
金昊麗	134-010	江東區 吉洞 390-4	483-5121		
金熙宰	110-523	鍾路區 明倫3街 1-973	762-4970		
盧庚昞	135-010	江南區 論峴洞 44-9	542-3345	제일병원장	274-1231
朴鼎憲	461-050	城南區 書峴洞 221-3	(032)46-3847	건국대학교수	445-0061
劉炳敏	678-800	慶南 合川郡 合川邑 合川里 592-3	(0599)32-0514	영남의원장	(0599)31-2579
劉長得	138-150	松坡區 芳夷洞 덕원파크맨션 204	419-6248		
李圭元	136-050	城北區 東仙洞 4-87	923-8834	현대문예사대표	926-0348
李亨白	131-203	中浪區 面牧3洞 456-6	432-3078		
李楨敏	609-322	釜山市 今井區 釜谷2洞 214-162		대영목재소대표	
趙成國	133-120	城東區 聖水洞 2街 49-78	464-1907	조약국경영	

趙程崙	151-050	冠岳區 奉天洞 178-264	878-8678		
趙載高	100-170	中區 武橋洞 33-1	778-3450	뉴코리아 사장	
崔浩益	120-100	西大門 區弘恩洞 277-135	302-8058	대한이화학사사장	265-4385
韓相豹	135-242	江南區開浦2洞公務員입대APT.808-815	573-0896		
韓承五	132-072	道峰區 水躑5洞 412-140	902-2309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永郁	R.M.6, B-10 Bedge 10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20014, U.S.A.	
徐甲成	1534 Alexander St. Honolulu, Hawaii U.S.A. 호주항공사 호놀룰루 지점	
吳正喜	2034 Avilachine Quebec H8T TV. Canada 매길대학 HLA 연구실장	
劉秉千	#2650 Pine View West Bloomfield Michigan, 48033 U.S.A.	

第 26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珞 煥	121-020	麻浦區 孔德洞 105-138	713-3472	丸紅(株)서울지점	779-0501
金元鐸	140-011	龍山區 漢江洞1街 65	793-2159		
金鐘麟	152-080	九老區 高尺洞 52-88	612-0086		
朴一均	152-100	九老區 梧柳洞 山5			
石東壽	614-100	釜山市東萊洞巨濟3洞京南APT.2-201	861-2585	인제의대병리과교수	
安景烈	110-523	鍾路區 淸雲洞 3-67	736-9751		
梁泰전	135-190	江南區 細谷洞 170-40	400-2429		
柳榮海	122-020	恩平區 녹변동 131-75	355-8933		
李三悅	138-220	陽川區 木洞 13團地 1331-1102	649-3625	연세대의대교수	393-0673
李禎敏	604-020	釜山市 沙下區 下端洞 489-2	28-5341	동홍목재	92-2811
林祥榮	301-150	大田市 中區 太平洞 1街 64	889-8424	복지의원장	525-4578
陳一憲	601-050	釜山市 東區 左川洞 997-21	43-5173	초량중학교	92-0646
崔華聖	139-200	盧原區 上溪洞 住公APT. 1027-405	934-3062		
韓炳喆	133-120	城東區 聖水洞 2街 聖水APT. 6-506	934-3062		
韓炳瑚	135-280	江南區 대치동 935-29	567-2111	홍익대교수	322-0151
韓荃淑	150-040	永登浦區 堂山洞 강남맨션 24-404	676-4112	서울대철학과교수	889-5281

韓鼎燮	120-190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단국대건축과교수	797-0581
玄斗鎰	133-220	城東區 中谷洞 24-14	446-7636	건국대교수	446-9120
洪德永	403-012	城東區 玉水洞 現代APT.104-702	295-8706		
洪鉉壽	157-030	江西區 登村洞 636-11	694-9212		
姜甲東					
金炳善					
盧永吉					
黃圭石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秉萬	58-30E. Hampon buld Bayside NYC. 11364		718-423-8678
金澤濟	2518 Smithfield Rd. Charlottm Va, 22901 U.S.A.		804-971-8060
朴在彬	CHAI B.Park MD.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U.S.A.		
孫陽鳳	在美		
吳炳憲	115 Vermont Court metawan N.Y. 17747 U.S.A.		201-290-0517
禹 壹	1150 OHIO HUE #1 LONG BEACH CA 90804 U.S.A.		
李根虎	在美		
李柱衡	#247 CAMELOT DR. MORGANTON, N.C. U.S.A.		704-437-0493
李浩敏	#14561 SWEETAN ST. IRVIN 4E CA, 92714. U.S.A.		

**第 27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明壽	137-070	瑞草區 瑞草洞 三豐APT. 18-1007	591-9201	승전대교수	814-9611
金珞柱	500-042	光州市 北區 中興2洞 345-12	523-8742		
南燦佑	100-450	中區 新堂洞 366-77	235-5199		
朴噉善	743-955	慶北 尙州郡 落東面 落東里 792-1	(0582)32-7733		
邊 焄	140-030	龍山區 東部二村洞 작곡가빌라랜션 1503	794-6941		796-9567
沈鳳燮	140-201	龍山區 利泰院1洞 청화APT. 2-1106	793-6883	카톨릭대교수	533-3200
安 滉	159-050	陽川區 木洞 2團地 233-507	647-0748	성화섬유(주)전무이사	865-1700
廉聖龜	138-225	松破區 驪室 5團地 504-1504	418-9278	보해양조고문	583-7391

元章煥	130-020	東大門 淸涼里1洞 미주APT. 7-403	964-0455	삼원상개발당대표	966-7829
劉 鋼	138-180	松破區 三田洞 94-8	413-3276	인천전문대교수	
尹元基	133-221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상호산업상무	556-1288
李炳國	121-250	麻浦區 선산동 255-7	323-9376	배재고교사	485-8174
李洙灝	137-040	瑞草區 盤浦本洞 盤浦APT. 84-104	599-3323	서울사대교수	886-0101
李鴻範	614-101	釜山市 釜山鎭區 堂甘洞 13同 262-59	805-2949	유성의원원장	(051)805-2949
張元龍	607-123	釜山市 東萊區 溫泉2洞 력키APT. 18-605	553-8152	현대의원원장	
趙誠國	122-020	恩平區 녹번동 152-75	355-3232	울산실업고문	783-6108
朱炳七	602-055	釜山市 西區 土城洞 4街 16	27-9715		252-0251
朱舜五	301-010	大田市 中區 대흥 22-56	525-2977	大田大學校附屬病院長	
河亨權	110-054	鍾路區 社稷洞 181	736-2303	화이마산업사장	777-7741
韓明洙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70 복지맨션 5-505	794-2380	신원기획	719-8901
韓淳輔	133-070	城東區 杏堂洞 128-496	292-0521	楊州橋泉邑德亭國校長	(053)866-1071
韓 模	135-280	江南區 大峙洞 東亞APT. 다-803	562-8772	미성의원원장	265-7866
洪昌疇	137-070	瑞草區 瑞草洞 新東亞APT. 3-409	556-5194		292-2117
金光一	134-020	江東區 天戶洞 214-47 경랑연립 B-303	478-8691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盧興德	MR.H.D. NO 6700N 57th 5tr eet. Bethany Oklahoma 73008, U.S.A.	
朴熙會	RED #2 PUJANAM CONNETICUT U.S.A.鍾路區 平昌洞 175-7	357-4315

**第 2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景榮	430-050	安養市 비산동 삼호APT. 16-1002	(0343)45-6693		
高明東	137-130	瑞草區 良才洞 良才現代빌라 301號	573-2802	고명동치과의원	753-3362
金東鳳	464-800	京畿道 廣州邑 京安4里 36-68	(0347)2-2810		
金鳳湜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水晶 A-903	782-3559	大韓요트협회	777-1510
金漸煥	200-092	春川市 孝子2洞 655-7	(0361)4-0931	춘성고교	(0361)3-4276
金翊南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漢成APT. B-603	780-7414	한서해운(주)	780-5892
金允善	110-062	鍾路區 新門路2街 105	736-8357	범한서적(주)代理理事	737-1421

金在乾	480-070	議政府市 新谷洞 269	(0341)3-1007	대일모피공업사	(0351)8-5200
金鐘殷	133-100	城東區 玉水洞 466 漢南하이츠빌라1-205	236-0815	여의도성모병원	789-1114
金鐸	612-012	釜山市 海雲臺區 中2洞 住公APT. 34-505	(051)72-6703		
金鉉鎬	130-650	清涼里 郵遞局 私書函 133號	733-6332	한국교육행정연구원장	733-1400
南相昊	140-220	龍山區 普光洞 260-6 주미APT. 707號	795-2485		
盧惠圭	136-131	城北區 下月谷洞 88-367	912-6288		
魯一協	110-012	鍾路區 平倉洞 296-25	352-6798	숙명여대大學教授	713-9390
毛麒喆		大邱市	92-7578	경북대농대교수	
朴承棒	138-224	松坡區 蠶室4洞 市營APT. 32-401	418-6323	대한전선	387-3551
朴英傑	402-020	仁川市 南區 龍峴洞 359	883-2702	인하대교수	82-1321
朴在勳	134-070	江東區 明逸洞 住公APT. 911棟 1007號	478-0108	의례국민학교	477-6122
朴載陽	217-050	江原道 束草市 靑鶴洞 486-48 8/2	(0392)33-2248	속초고등학교	
宋永冕	110-510	鍾路區 東崇洞 129 光明住宅 C-1	742-2847	송외과의원	275-8433
申道均	427-040	果川市 별양동 住公APT. 613-101	503-6393		
嚴仁植					
吳哲求	136-020	城北區 城北洞 166-2	762-1725	흑자경영연구소	777-3897
吳聖昱	560-020	全州市 慶園洞 1街 126-45	(0652)84-4062	元光大學講師	(0652)84-7174
劉衡均	137-049	瑞草區 盤浦洞 住公APT. 19-310	533-7295		
尹治玉	151-051	冠岳區 奉天1洞 670-24	889-4170	裕晟機械	683-4453
李樂斌		全南	676-2076	의사	
李命英	136-103	城北區 貞陵3洞 716-183	914-9338	성균관대교수	762-3335
李密森	476-800	京畿道 楊平郡 楊平邑 양촌리 218			
李三龍	550-130	全南 麗水市 西橋洞 857			
李漢祚	134-090	江東區 上一洞 173 三星빌라 9-204	474-5920	서강대哲學科교수	715-0141
林珍洙	132-010	蘆原區 道峰洞 615-50	992-0665		
林鎬燮	614-053	釜山市 釜山鎭區 양정3洞 394-33		양정성심병원	
張成旬	425-070	安山市 월곡동 現代2次APT. 204-301	(0345)411-6117	화실경영	
鄭元浩	121-012	麻浦區 阿峴2洞 388-25 (101호)	362-9125	식당경영	279-6006
趙東喆	134-060	江東區 杼村洞 住公APT. 313-802	471-6210		
朱赫淳	430-042	安養市 石水2洞 럭키APT. 3-903	46-8062		
曹翼奎	137-270	瑞草區 道谷洞 東新APT. 타동 1101호	562-2449		
韓炯周	133-100	城東區 玉水洞 漢南하이츠APT. 2-1002	252-4548	한형주의원	95-8847

全鳳翊		釜山市			
蔡憲哲		釜山市			
崔宇教		春川市			
崔仁鎬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51 三益APT. A-706	780-7480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상무관	732-7330
太範植	138-220	松破區 蠶室洞 86 아시아선수촌APT.11-603	413-7510	건설진흥공단	332-5334
韓鳳鐘	121-240	麻浦區 延南洞 509-13	324-2501		
韓忠錫	120-020	西大門區 미근洞 117-2	362-5359		
洪亨淳				牧師	
洪鉉杰	121-040	麻浦區 桃花洞 麻浦APT. 10-303	712-1780	作曲家	
黃慶鐘	120-050	陽川區 木洞 新市街地APT.110-303	647-6291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庚彥	在美	
金雙楨	11024 14th Neseatle, WA 98125 U.S.A.	206-363-3063
邊永根	在西獨	
尹允燮	6438 Hazeltine, #5 Vannuys, CA, 91401 U.S.A.	818-988-9038
李英得	5 Ketcham Court East Nouthport N.Y. 11731 U.S.A.	516-261-5117
李撤男	在美	
李夏國	在 브라질	

### 第 2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 憲 榮	100-400	中區 쌍림동 155-1	265-5159	강서병원산부인과과장	613-7781
金 光 浩	608-010	釜山市남구남천동비취맨션APT.215-605	(051)622-4245	(주)범아공사부사장	44-0473
金 北 之	120-090	西大門區 홍재동 130-7	737-9742		
金 載 範	156-050	銅雀區 노랑진동 214-61	816-0587	오도신문사	358-3102
金 正 宰	138-200	松坡區 문정동 445-16	402-2935		
金 熙 國	461-180	성남시 수진동 4773-4	(0342)46-1446	(주)삼보사장	751-0396
南 萬 松	137-040	瑞草區 盤浦洞 한양APT. 3동 803호	537-4315		

都重浩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229-97	(0351)873-1276		
孟厚彬	135-012	江南區 논현동 2-9		동서문화사	546-0333
文昌基	139-012	노원구 도봉 2동 625-21	992-2343	만세약국	992-3226
朴升鐸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APT. B동 407호	780-0779	USIS	732-2601
朴在容	560-250	전주시 주화산동 2가 213	(0652)223-8868		
朴在炯	151-050	冠岳區 奉天11洞 1650-22	884-0695	문성인쇄사	701-5121
白萬鐘	433-800	의왕시 내손동 624 포일주공APT. 115동 407호	(0343)56-4997	현대해상화재보험	744-5966
白昌烈	134-023	강동구 천호3동 54-9 36/7	478-6528		
徐昌政	158-072	양천구 신정2동 목동APT. 1402-1101	648-3692	(사)조우회이사장	533-9461
鮮于碩河	138-180	松坡區 삼전동 91-3	423-0759		
宋徽林	135-240	江南區 開浦洞 現代APT. 101동 1103호	575-1083	새익통상(주)사장	547-7629
柳吉鏞	130-010	東大門區 淸涼里洞 APT. 8동 503호	966-8131	농장	(0345)182-9431
柳憲一	612-050	釜山市 해운대구 채송동 310-113	(051)809-1082		
劉澤鐘	133-092	城東區 금호동 2街 501-93	234-0015	문성사	924-0615
李甲杓	122-050	恩平區 갈현동 진양빌라 303호	355-6227		
李求輪	609-402	釜山市 금정구 서2동 산 27-14	(051)523-1687		
李炳杰	139-202	노원구 상계6동 주공APT. 305-602	931-4591	삼영학원	741-1521
李盛茂	110-230	鍾路區 삼청동 157-44	733-9761	(주)매일함운회장	355-1900
李垣植	132-044	道峰區 창4동 상계동아APT. 5-1003	992-0006	청원중학교감	935-6815
李殷鳳	132-075	道峰區 수유5동 408-18	902-3692		
李正昊	137-040	瑞草區盤浦洞한신4차APT.212-1101	533-7404	영풍부속병원장	(0573)72-6401
李枝遠					
李仁錫					
李鎬允	151-050	冠岳區 奉天洞 673-72	886-6757		332-9329
林舜均	135-280	江南區 대치동 미도APT. 105동 302호	567-4479	개포중학	573-9818
林鐘一	139-200	盧原區 上溪洞 住公APT. 120棟 203號	939-6661		
張之煥	137-069	瑞草區 方背本洞 중앙APT. 가동 901호	591-0951	우성중고등학교교장	613-2731
全龍珠	100-095	中區 南大門路 5가 690	776-2444		
鄭景鍾					
鄭炳殷	139-201	蘆原區 上溪洞상계住公APT.1309-1406	937-0440	이우실업사장	234-2565
鄭哲周	134-010	江東區 吉洞 160 新東亞APT. 6棟 105號	483-0019	정철주세무사사무소	274-0928

鄭 治 島	137-070	瑞草區 瑞草洞 세원주택 나동 201호	582-2146		
趙 英 潛					
趙 鎰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APT. 11동 91호	785-0782	조일치과의원	762-8785
朱 格	110-440	中區 황학동 2539	233-0021	코암인터내셔널	274-0961
朱 東 雲	158-050	양천구 목동APT. 534동 1405호	649-9050		
朱 相 彥	427-040	과천시 별양6동 주공APT. 507동 804호	504-0411	정일학원	775-7755
千 歲 林	156-060	銅雀區 본동 126-15	814-3401		
崔 萬 楨	137-040	瑞草區 반포동 반포APT. 114동 308호			
崔 錫 勳	136-037	城北區 東小門洞 7街 115-3	95-8385	안양중앙병원	857-1771
崔 學 洲	152-054	九老區 九老4洞 313-128	855-1445		
韓 極	134-080	江東區 고덕동 고덕住公APT. 262-503	476-4159		
韓 錫 元	134-090	江東區 상일동 삼성빌라 9동 202호	427-5380	한원실업사장	511-5173
韓 昇 燁	121-230	마포구 망원 2동 465-19	336-3883		
韓 依 天	137-062	瑞草區 方背2洞 948-20	584-0386		
韓 鎭 慶	110-550	鍾路區 승인동 1051	234-9037	한진경피부과의원	923-5043
韓 鴻 吉	606-081	釜山市 영도구 동삼1동 276-15	(051)49-7961	해동주학	412-2456
洪 逸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APT. 24동 1105호	542-7309		
咸 性 求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鳳 舜	1556 Dahill Rd., #4-D Brooklyn, N.Y. 11204	718-998-8480
金 淳 郁	1275 15th St., #5L Fort Lee, N.J. 07024	
金 雄 植	5288 Rock port St. Columbus. Ohio. 43220	614-457-2079
金 在 楨	4521 N.Wildwood Ave. Milwaukee. Wisconsin 54211	414-692-3610
金 楨 殷	在 브라질	
金 弘 杓	41-42 Elbertson St.APT. 495 Elmhurst N.Y. 11373	212-426-9831
金 和 極	35-11 149th pl Flushing N.Y. 11354	718-461-8372
朴 浩 高	15 Oakridge Court Timonium. Mo. 21093	301-244-1111
安 震	2067 Park LN #D Orange, LA 92665	714-974-4540
李 權 燮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718-352-7060
李 芳 秀	708 S.Lorraine Blvd.L.A. Ca. 90005	213-939-7057



李培石	407 Bohl Dr.Marietta. Ohio. 45750	614-373-6294
李通燾	466 Lands End. Fayetteville. N.C. 28314	919-864-4310
張聖洛	319 Dover Center Road Bay Village. Ohio 44140	216-892-6940
韓世鎬	2960 Grand Concourse 4B.Bronx.N.Y. 10458	212-933-5190
韓在壽	在美	
陳炳珍	2034 N.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714-547-2437

第 30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明三	138-150	松坡區방이동올림픽선수촌APT.310-503	403-5279	서울대공대교수	883-1100
權甲周	133-220	城東區 中谷洞 258-3	466-6431	광한기업회장	548-1820
金光彬	121-100	麻浦區 노고산동 40-13	715-4374		
金斗燦	110-054	鍾路區 社稷洞 164-26	736-2243		736-6087
金冕燮	133-110	城東區 성수동 1街 668-10	464-6951	한양대화공과교수	292-2323
金炳建	120-110	西大門區 연희동 133-26	324-5010	동양화재보험(주)	723-8317
金秉喆	137-060	瑞草區 方背洞 725삼호APT. 다동601호	534-1300	수도전기공고교장	575-2136
金炳浩	110-521	鍾路區 명륜동1가 5-61	775-1313	성광개발(주)	784-3351
金始源	110-460	鍾路區 연건동 44-12	764-5208		
金信根	150-010	永登浦區汝矣島洞廣場APT.3-306	780-3494	서울대약대제약학과교수	880-7865
金榮注	411-800	고양군원당읍주교1리장미APT.가동406	(031) 965-2681		
金容海	137-061	瑞草區 方背1洞 한성주택 B동 101호	593-6030		
金龍喆	110-523	鍾路區 明倫洞 3街 53	362-6171	성균관대영문과교수	762-5021
羅雲龍	132-030	道峰區 雙門洞 75-23	992-4175	서울대약학대학학장	877-0910
鄱相豹	423-033	광명시 철산3동 주공APT. 1324-1102	614-9807		
朴世雄	136-110	城北區 吉音洞 510-113	986-2254		717-3664
朴溶夏	133-100	城東區 玉水洞 2現代APT. 101棟 202號	297-9821	신래회계사무소	980-3100
朴垣相	600-061	釜山市 中區 新倉洞 1街 6	26-9164	대성학원	
朴定仁	135-010	江南區 三成洞 홍실APT. 6棟 1005號	545-2521	안국화재해상보험(주)	756-0384
邊成燁	139-010	道峰區 道峰洞 서울가든APT.2-407	907-8523	승의여전교수	754-7606
白炳烈	100-392	中區 장충동 2가 55	277-0564		

申裕恒	138-220	松坡區 鷗室本洞 우성APT.16-1105	424-0592	경희대생물학과교수	961-0247
延河龜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APT. 120棟 901號	548-2179		
吳承泰	157-010	江西區 화곡본동 46-152	692-3974	등대교회목사	762-7584
俞 焄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APT. 79棟 402號	553-2411	서울대행정대학원	880-5624
柳承敦	140-240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PT. 8동 907호	795-1532	동림엔지니어링대표	573-6821
尹東榮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4-201	332-7864	대한전선공업(주)	855-4546
元炳旣	138-130	松坡區 오금동 대림APT. 3棟 1404號	409-2789	경희대문리대교수	965-8000
李元鏞	132-100	道峰區 미아동 695-7	989-0519		
李圭赫					
李圭汶					
李圭煥	139-203	노원구 상계3동 83-49	972-5076	관광버스조합상무	422-0019
李南杓	132-210	城東區 九宣洞 78-50	452-7208	한양대영문과교수	292-2111
李善植	110-012	鍾路區 평창동 563-5	352-0882	(주)삼송대표이사	784-3251
李承奎	139-050	노원구 월계동 534-43	918-7860		
李時默					
李演熙	136-102	城北區 貞陵洞 202-47	914-4766	대한전선공업대표	855-4546
李寅華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APT. 23棟 402號	534-1943	합진빌딩대표	273-6611
李 河	135-010	江南區 논현동 120-3	547-1692	이하내과원장	
李鎬植	132-103	道峰區 미아3동 태양빌라지층 2호	983-8582	창동화실	
李鎬汪	110-510	鍾路區 東崇洞 129 光明住宅 E棟 1號	762-1192	고려대의대교수	762-5346
林滢彬	136-140	城北區 장위동 219-313	915-9012	충효사상선양회	261-9154
鄭林植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사일리 144	6-4473		
趙雄善	413-870	京畿道 과주군 천현면 대능리 94	(0348)6-0319	삼성상회대표	
朱泰河	157-010	江西區 화곡동 400-31	603-7433	동력자원연구소	856-0041
崔嘉鳳	156-072	銅雀區 흑석2동 한강現代APT.105-303	816-8924	이순홍소아과병원	966-6520
崔聖珉	120-160	西大門區 大峴洞 梨花女大 文理大	332-5709	이화여대문리대교수	363-6151
崔哲根	122-050	恩平區 갈현동 300-47	355-0085		
崔華國					
韓均弼	136-100	城北區 貞陵洞 226-46	914-4255	대동상고교장	764-1631
韓相淇	135-120	江南區 鴨鷗亭洞 漢陽APT. 51棟 306號	543-2427		
韓 震	150-056	永登浦區 新吉6洞 4320	833-3205		
韓台龍	110-031	鍾路區 궁정도 9-8	735-1808	미5공군카미서리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姜禮根	23 LA Cardia Ave Slaten Islend N.Y. 10314 U.S.A.	718-370-1503
金 昱	810 West Grace Apt Chicago. Illinois 60631	
金汶一		
金恭根	677 Woodbury Dr Solon Ohio. 44139	216-248-0581
金元謙	23 Michigas Ave Winnipeg. Mantioba. Canada R3 T3V1	
金庚台	3651 Heaton Rd Huntington Valley P.A 19006	
高勝榮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718-352-9087
朴永鎬	7. Quill Pen WayY Warren N.J. 07060	201-647-5777
申森熙	702 3Rd Ave Troy N.Y. 12182	518-235-8969
李仁根	327 Reeves Ave Trention N.J. 08610	609-888-2488
梁昶模	6614 Norit Sacramento Chicago Ill 60645	312-465-2115
李性白	3103 Furman Lane Apt 403 Alexadria V.A. 22306	703-765-7379
曹乘均	60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131	216-524-9635
趙 哲	6010 North Lawndale Ave Chicago. Ill 60659	312-588-1177
韓萬燮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206-641-5739
李星究	在美	

第 31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郭東守					
高庚式	152-050	九老區구로동현대연예인APT.202-304	863-4563		
高明鎬					
金教誠	411-830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성석리 762	(0344)976-2141		
金明哲	136-141	城北區 장위1동 225-8	916-8712	한국경제신문편집위원	392-2170
金聖斗	135-090	江南區 삼성동 142의 5	554-4062	농장경영	
金聖周	134-080	江東區 고덕동 656-7	485-8786		
金聖鎬	150-054	永登浦區 新吉4洞 214-5	833-5489	김성호외과의원장	833-5957
金東勳	135-280	江南區 大峙洞 선경APT. 6-505	555-4720		

金 洙 卿	440-022	水原市 권성구 팔달로 2가 129-5	(0331)6-0160	김수경소아의원장	
金 宇 泳					
金 英 鎮	402-012	仁川市南區崇宜2洞장미APT.나동106호	(032)882-9509		
金 永 俊					
金 永 煥		경기도 동두천읍			
金 雄 基	422-100	부천시 남구 역곡동 석영APT.7-103	(032)63-5169	서혜당약국	968-0634
金 載 昆	402-202	仁川市 南區 주안2洞 617-2(30/4)	(032)862-5382	마아당서예학원원장	(032)421-0937
金 周 鉉	139-050	道峰區 月溪洞 543-161	917-5953		
金 濬 浩	121-230	麻浦區 망원동 412-1 삼화APT. 102호	335-3030	코리아나투어(주)대표	773-8015
金 哲					
金 致 敬	405-232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142-16 26-3	(032)433-5890	경희호텔전문대교수	962-0400
金 泰	132-074	道峰區 수유4동 576(8/4)	993-8758	서울대미대교수	880-7481
盧 敬 鎮	110-510	鍾路區 東崇洞 50-48	742-5514		
都 相 默	427-050	果川市 부림동 住公APT.809-107	502-8613	청량리고등학교교사	963-7558
都 址 石	158-070	東大門區 장안1洞 394-1	245-1363	부천철망(주)대표	(032)675-5121
朴 慶 來					
朴 道 一	602-022	釜山市 西區 南富民2동 434(27/5)	(051)243-6870	성진화학	(051)332-2421
朴 炳 哲	135-090	江南區 三成洞 해청APT. 12棟 503號	545-9390	U.N.D.P	237-9562
朴 永 洙	151-010	冠岳區 新林洞 1458-34	889-7223	풍진금속(주)회장	552-6071
朴 鎰 忠	134-010	江東區 吉洞 404-5	484-4939	건국대영문과교수	445-0061
朴 祚 烈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APT. 8棟 56號	780-3534	극작가	
朴 虎 晁	461-360	城南市 사송동 501		농장경영)	(0342)44-0311
裴 聖 喆	612-082	釜山市 해운대구 반송2동 풍전맨손 406	(051)532-1724		
白 庚 鐘	131-120	중랑구 중화동 308-48 24동 6반	432-3693	운수사업	905-0321
安 壽 敏					
辛 應 夏	614-021	釜山市 釜山진구 범천1洞 858-19	(051)646-9930	태원섬유공업대표	(051)646-8649
梁 柱 龍	137-040	瑞草區 盤浦洞 711-11	547-0884		
柳 榮 龜	136-110	城北區 吉音洞 1078-1	988-5625	유영구외과의원장	982-3993
柳 俊 馨	133-080	城東區 응봉동 응봉2次대림APT.102-1105	296-6115	한국방위산업협회부회장	716-7600
李 達 全	700-431	大邱市中區대봉1洞청구맨손A-602			(053)425-1928
李 東 準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성APT. B-908	782-1735	티제이무역	783-7031
李 鳳 植	136-032	城北區 동소문동 2가 37	765-1189		

李政基					
李柱成	233-820	江原道 정선군 신동읍 조동 13리 291-4	4-2322	함백정미소사장	
李熙高	156-030	銅雀區 상도1洞 134-109 33통 6반	815-4826	신평공업(주)회장	802-0151
林浩	601-1062	釜山市東區범일2洞한양APT.1-1314	(051)66-7997	World Marine Shipping Ltd. Hong Kong	782-6963
李璣燾	132-070	道峰區 수유3洞 189-4	992-7734	加平현리농장경영	(0356)85-0762
李東元					
李柱七	121-231	麻浦區 망원1洞 486-2	337-5589		
全龜淵	430-060	안양시 광양동 現代APT. 12-1204	(0343)47-5088	안양중앙병원장	857-1771
全承鎬	122-030	은평구 대조동 204-20	384-9845		
全夏鏞	121-240	麻浦區 연남동 487-410(20/6)	334-0719	국민병원의사	332-5625
全弘烈					
鄭漢祐	122-080	恩平區 신사洞 29-53	303-0106		
曹源根	138-200	松坡區 문정동 패밀리APT.221-702	400-7980	신아기연전문	556-5453
朱秉德	100-400	中區 쌍림동 182-3	279-4426	KOREA SILICON	764-2863
朱源道	122-110	恩平區 구과밭동 120-3	352-8112		
朱一	137-070	瑞草區 瑞草洞 한양APT. 2-1006	537-4322		
朱繪淳	120-100	西大門區 弘恩洞 206-1	385-8675	商業	274-2459
崔景默					
千景煥	604-060	釜山市 사하구 구평동 삼성주택 15호	(051)262-0741		
韓東柱	635-830	慶南 창녕군 이방면 장창리 7-2		지성병원원장	
韓日熙					
韓熙邦		釜山市 동구 수정1洞 덕림APT. 151(16/1)	(051)42-0676	제일다방	(051)463-8245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權鎮均	Timber Trail Dekalb Ill. 60115 U.S.A. Prof. Dept of Economics Northern Ill. Univ.	(815)-756-9745
	在美	
金德勳	Michigan U.S.A.	
金東榮	29 Barrington #A bakerfield. Ca 93309, U.S.A.	(805)-398-0485
金亨述	13202 Berwick Ave, Baton Rouge LA. 70815(C.P.A)공인회계사	(504)-275-2086
朴炳元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ss. 01106 U.S.A.	(413)-567-9317
徐甲敬	R. 76. Wallupe Cir. Honolulu. Hi. 96822 U.S.A. Prof. Univ. of Hawaii College of B.A.	(808)-373-4081

	在美	
徐泳煥	8134. Ivan Relb Drive. Houston. Texas 77040, U.S.A.	(713)-466-1385
楊炯春	日本 京都市 右京區 西院北 矢街町 20番地 在日 大韓基督教 京都 教會 牧師	(075)-311-5051
李英鎬	83. N. Mountain Rd. Wilbraham. Mass. 01095. U.S.A. Prof. Spring Field College	(413)-596-4691
李元鎬	29. Sheldon St. Ardsley.N.Y. 10502. U.S.A. Prof. of Physies. Colombia Univ.	(914)-693-0004
李培善	430 South Fuller Ave. APT 4J L.A.Ca 90036, U.S.A.	(213)-938-5031
李致和	4326 W142 St. #8 Hawthone Ca 90250. U.S.A.	(213)-370-6771
李哲敏	1806 Pomelo St. Dasmarias Makati M.M. Philippines	
李哲範	1769 S. Holt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35 U.S.A. 서울 연락처(이법 의원)	(213)-836-8373
崔千德	3448. W. 171st Street. Torrance, Ca. 90504 U.S.A.	213-515-6112
韓相涵	Los Angeles. Calif. U.S.A.(서울연락처)	543-2427
黃載鎭	15Penn. Blvd. Scarsdale. N.Y. 10583 U.S.A. 서울연락처(미림무역)	914-472-2753
李炳泰	브라질	

### 第 3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顯珏	612-011	釜山市 해운대구 중1동 1376-13	72-2347		72-2347
姜 俊	137-049	瑞草區 盤浦洞 구반포APT. 50-501	599-0424		778-6119
高昌岩	138-220	松坡區 蠶室洞 우성APT. 20棟 1203號	413-6884		554-4494
金桂碩	138-221	松坡區 蠶室1團地 107棟 508號	413-2388		
金東一	136-102	城北區 정릉 2동 200-6	919-1087		
金炳三					
金炳鉉	133-080	城東區 응봉동 대림APT. 6棟 403號	294-5242		
김관형	130-011	東大門區清良里1洞美州APT 4-313	966-1087		
金錫定	427-050	과천시 부림동 주공APT. 916棟 504號	503-5249		
金晟楨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공장APT A棟 303	782-3129	외항선장	
金壽喆		강원도 속초시			
金仁涉	131-200	중랑구 면목동 542-8			
金寅哲		강원도 춘천			
金仁和	132-062	도봉구 번동 148-377 B02	983-7105		

金萬奎					
金晚均					
金成昌					
金在鉉					
金致浩	140-220	용산구 보광동 260-6 주미APT. 1005호	794-8051		
金泰鳳					
金兌洪	110-080	鍾路區 무악동 연립주택 68棟 201號	737-4430		
金熙康	134-160	松坡區 삼정동 57-10	413-2794		
朴東塾	607-110	釜山市 동래구 거제동 한양APT.3-403 3-403	865-7302	풍산금속	865-6930
朴承宰	110-170	鍾路區 견지동 85-54	732-1100	샘표식품	992-7111
朴亨坤		釜山市			
朴亨載		釜山市			
徐康洛					
徐星進	133-191	城東區 자양동 220-74	445-9333		
徐廷守	607-061	釜山市 동래구 온천1동 425-16용호 단독주택 105號	554-9677	영진사	
宋政雄	156-011	銅雀區신대방동565우성APT.13-1202	845-6068	남대문유성상가대표	752-2054
吳成基	461-340	京畿道 城南市 오양동 247	717-0817	도시정미Co	
吳成吉					
元俊熙	121-220	麻浦區 합정동 389-26	324-8553		
禹宗均	132-108	道峰區 미아 8동 316-8 41F	984-0668		
俞東濟	421-200	京畿道 부천시 중구 원종동 132-1 수정APT. 512	(032)673-0285		
柳榮潏		瑞草區 方背洞 908-9 유림 B/D 4F	586-7070	통신공사전문위원	752-0039
柳玉培					
李康厚	156-032	銅雀區 상도동 321-2	842-0585	아식스대리점	685-4841
李均					
李相龍	133-110	城東區 성수 1가 685-201	465-6409	성수종합상가대표	
李昇陽	122-010	恩平區 응암동 455-1	387-9419		
李承杓	134-240	松坡區 신천동 크로바APT.1-1001	414-3362	주한미대사관	
李令載	132-072	道峰區 수유 2동 237-17	993-9963		
李龍澤		성북구 정릉동			
李長得	607-080	釜山市 동래구 연산동	82-3439	만세의원	
李徹和	135-120	江南區 신사동 현대맨손APT.2-102	544-0827		

李熙烈	156-032	銅雀區 上道2洞 22-52	817-3615		
尹明鎭	152-080	九老區 고척동 203-6	612-0718		
尹榮洙					
田春三	135-270	江南區도곡동개포2차우성APT.11-902	562-3495		
鄭允廷	152-050	九老區 구로동 공영주택 307號			
鄭在銓	100-454	中區 신당 4洞 333-312	252-7780		252-4894
趙耀燮	135-280	江南區 대치동 은마APT. 20棟 101號	556-0843		
趙鐘南	157-221	江西區 방화1동 453-9 칠성APT. 302호	664-3567		591-4591
鄭源石	137-060	瑞草區 方背洞 1015 일광APT. 5棟 706號	584-5187	구세병원	213-3344
鄭浩鏞	121-090	麻浦區 염리동 8-48	715-0020		
朱洙烈	608-010	釜山市남구남천동협진태양맨손 2-902	622-4012	제과점	863-8640
池一權	217-030	江原道 속초시 중앙동 4통 4반	33-5100	속초문화원장	32-1231
秦正洙	137-040	瑞草區新盤浦洞신반포17차333-804	537-0467		
崔慶明	110-350	鍾路區 운이동 98-78 가든 B/D	765-2233	최치과	
崔心煥	411-800	광주시 동구 학2동 629-3			
崔夏禎	132-062	道峰區 번 2洞 435-52	981-7964	구상산업	
崔熙仁	151-011	冠岳區 신림 1洞 1600-3	856-3392	서울대	
崔炯英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주교2리			
崔洪昶	134-070	江東區明一洞고덕現代APT.15-702	478-0326	성동여실고	
韓明均	404-230	仁川市西區가정동대동그린빌라 15-102			
韓錫彰	135-240	강남구 개포동 주공APT. 113-402	574-1618	주택은행	
韓龍彬	156-010	銅雀區 신대방동 632-27			
韓양淑	403-030	仁川市北區청천동미도APT.7차 1-616	523-8972		
韓泰欽	158-050	양천구 목3동 318-30	643-9396		
黃忠漸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武昌	KIM, MARTINM, 3600 Stocker St La Ca 90008	213-735-6297
金映昭	KIM, CHUL WOO 34 Kristin Pl Old Tappan NJ 07675	201-768-1468
金哲雨	KWAK, CHUN KU, 1231 Burham Thorpe Road West Oakuille Ont L6J42 Canada	416-842-3910



金泰進	在美	
곽준구	在 캐나다	
朴永鐸	在美	
朴漢雄	在 제네바	
裴英德	BAE, MARKY 8535 W Knoll Pr #101, Sa, Ca 90069	213-657-0745
孫政達	SONG, CHUN DAL 232 Vogel AV NY N14 10309	718-356-2622
李東輝	LEE, DONG HEE 28431 Gration AV Roseville MI 48066	
李龍墳	在美	
尹庚德	YUN, KYONG DUK 128 Carbernett Circle Rexdale Ont M945AL Canada	416-743-3634
尹鎬晟	YUN, HO SONG, 5516 Eeu Claire Dr Rancho Palos Verdes Ca 90274	213-541-0549
李黃勳	LEE, HWANG HUN. 1136 Victoria AV La Ca. 90019	213-933-6809
趙世英	在美	
韓東明	在美	
韓碩愚	60 Hunter Ave. St.Ives Sydney 2075N.S.W.Austalia	
黃普鉉	在 우루과이	
朴齊極	在 LA	

第 3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東求	138-229	송과구 잠실본동 아세아 선수촌APT. 10-503	414-9789	동성투자자문사장	774-3834
康海園	122-020	恩平區 녹번동 29-16	387-5504		
金亨培	110-010	鍾路區 신영동 214-64	355-9776	춘천간호전문대학장	(0361)52-7723
金相龜	157-019	강서구 화곡본동 1114-5 기원 B/D 201	792-0406	(주)서창기공·사장	692-3705
金基元	110-510	鍾路區 東崇洞 산2 시영APT. 13棟 103號	762-9698		
姜在錫	133-190	城東區 자양동 216-21	446-1588	강의원원장	
金賢修	131-201	중랑구 면목 1동 96-19 29/2	433-6638	(주)上新(상신)	418-2422
金相球	135-281	江南區 大峙洞 선경APT. 12棟 1102號	556-7192	사회국제교육국장문교부	
金鳳澤	140-200	용산구 이태원동 20-19	793-8620		
金福燮	612-021	釜山市해운대구중2동住公APT.34-306	(051)72-3786		
高守鎭	131-200	중랑구 면목동 66-1	434-6132	고려합동법률사무소	755-7692

吉明源	120-170	西大門區 대현동 121-21	363-8740		
宋榮達	136-102	城北區 정릉 2동 203-1	919-5891	천안국제방직감사	(0418)43-0174
徐潤煥	411-820	고양군일사읍대현리미주APT.나동 410	(0343)976-0104		
申光熙	137-070	瑞草區瑞草洞삼호가든APT.503-902	534-044	신치과원장	765-3803
申漢均	121-170	麻浦區 하수동 6-26	322-6312	세관사사장	(032)72-2324
申鳳淵	136-031	城北區 동소문동 7가 1-7	923-7401	휘경중학교교사	234-1359
申東虎	100-450	중구 신당2동 395-3	233-4142		
孟秀哲	421-190	부천시중구고강동새보미APT.가동515호	(032)674-6420		
朱宜淳	151-059	관악구 봉천 9동 635-285	877-7915	치안본부외사과	313-0845
全集鐘	609-393	釜山市금정구장전3동온천화목타운701호	(051)202-0893		
劉國培	134-070	강동구 명일동 309·삼의APT. 203-53	484-6006	청심한의의원장	275-8786
李七煥	121-220	麻浦區 합정동 392-5	336-2394	美G.E.社상임고문	738-8195
李大鐘	132-072	道峰區 수유 2동 535-8	993-8219	(주)해양섬유부사장	252-3101
李元鐘	120-110	西大門區 연희동 170-127	336-2537		
李遠鐘	110-021	鍾路區 代省洞 208-11	735-4394	경동교역대표	238-7191
李城南	100-340	중구 산림동 116	275-8725	성원정밀사장	
李長弘	421-050	부천시 남구소사동 삼익세라믹APT. 101-501	(032)654-0416		
林錫賢	607-040	釜山市동래우난민동동래한양맨손5-903	(051)555-2684	부산대학상대교수	
任縞彬	135-100	강남區 청담동 효성빌라 26-204	542-7346	공학박사	966-1931
廉昌錄	427-060	과천시 과천동 373-1	502-3724	한국가스협회이사	739-7721
尹炳陽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200-71	334-1769	(주)에양종합건축사무소대표	552-4079
朴丙楨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APT. 3地區 한신 34-502	532-0797	신영화성(주)사장	(0345)492-3665
朴弘植	122-071	恩平區 驛村1洞 24-6	384-8444		
朴溶郁	132-105	道峰區 미아 5동 476-11	988-2786	동국대부속중교사	245-4112
朴寅赫	100-180	中區 茶區 10한국관광공사 B/D 12층	752-7968	일반관광진흥회	
朴長根					
朴茂連					
崔琳活	100-453	中區 신당 4洞 346-1	234-7331		
최희방	130-050	東大門區 회기동 7-3	966-0801	한국실리콘제조사장	(0346)63-3823
韓永喆	608-020	釜山市 남구 대연동 1734-20	(051)66-2966	한국호진공업대표	(051)323-4531
韓洙觀	130-050	東大門區 회기동 16-19	965-7813	대광고교교감	926-5296
韓澈柱	138-224	松坡區 蠶室 4동 시영APT. 129-502	422-7685	한국종합영상대표	274-0749

韓承學	150-093	永登浦區문래동3가1국화APT.2-1103		제동의원원장	855-0978
韓元松	133-210	城東區 廣場洞 極東APT. 4棟 901號	452-1854		
韓賢根	681-230	울산시 중구 북정도 67	(0522)43-1527		(0522)43-4619
柳東洙				서울대치대교수	
尹在敬	138-160	松坡區 가락동 미성APT. 5棟 901號	412-5008	KBS위원	7803-514
魏成國	705-030	大邱市 南區 대영동 1642-39	(053)68-2779	산업은행편리동지점장	(053)274-6551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權炳池	在美	
金澤洙	在美	
宋錫根	在美	
朴淳三	在美	
李炳錄	在美	
崔昌松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203-677-8363

### 在美洲(咸南中學)同窓會名單

No	氏名	英文名	卒回	卒年	生年月日	故鄉	職業	電話	住 所
1	馬鐘國	MAH CHONG GUK	8	1926	1/2/7	吉州		301-869-4147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2	金基惠	KIM KI DUK	15	1933	7/21/13	咸興		718-739-1713	144-14 38 AVE, #4C FLUSHING, N.Y.11354
3	金子勳	KIM JA HOON	15	1933	1/12/14	咸興	醫博	718-886-5722	143-11 29 RD FLUSHING, N.Y.11354
4	金滢次	KIM HYUNG CHA	15	1933	5/7/15	咸興		201-585-0813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07024
5	劉漢鳳	YOO HAN BONG	16	1934	7/8/14	雄基		703-578-3173	610 S. CARLYN SPRINGS RD WOODLND HILL, #228 ARLINGTON, VA 22204
6	金義鉉	KIM EUI HYOEN	18	1936	8/12/17	咸興		301-752-1944	124 W. FRANKLIN ST. #413 BALTIMORE, MD 21201
7	都相禧	TOH SANG HEE	19	1937	11/13/19	興南	醫博	401-943-2598	9 EVERBLOOM DR CRANSTON, R.I. 02920
8	李壽永	LEE SOO YOUNG	20	1938	4/9/19	西湖		201-385-9123	261 EAST MAIN ST BERGENFIELD, N.J. 07621
9	韓大淑	HAHN DAE SOOK	20	1938	2/18/21	俗厚	醫師	315-393-3000	STATION A OGDENSBURG, N.Y. 13669
10	孫俊得		20	1938			醫師	615-670-5942	7679 PRIMM SPRING RD PRIMM SPRING, TEN. 38476
11	金泳		20						
12	金時彥	KIM SI UN	21	1939	12/27/19	咸興		808-841-6567	1644-A KALAKAVA AVE HONOLULU, HAWAI 96826
13	安省信	AHN SUNG SHIN	21	1939	12/7/18	咸州		218-983-1987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14	朱翰裕	JOO HAN YU	21	1939	12/3/20	咸州	事業	302-995-2904	2701 TANAGER DR WILMINGTON, DE 19808
15	黃石峯	HWANG SUK BONG	22	1939	9/30/21	慶源		213-936-9026	917 S. BRONSON AVE LOS ANGELES, CA 90019
16	文相駿	MOON SANG JOON	22	1940	9/17/19	咸興		401-944-3319	148 BRETTONWOODS DR CRANSTON, R.I. 02920
17	李基億		22	1940					DEPT. OF PHYSICS MARQUETTE UNIVERSITY MILWAUKEE, WISCONSIN 53233
18	玄鳳學	HYUN BONG HAK	23	1941	6/23/22	咸興	醫博	201-755-5412	95 ACORN RD WATCHUNG, N.J. 07060
19	金曾鎬	KIM JOONG HO	23	1941	6/20/23	咸興	理博 教授	919-756-7716	314 WINDSOR RD GREENVILLE, N.C. 27834
20	金鎮洪		23	1941					
21	金應浩	KIM EUNG HO	24	1942	2/13/25		醫博	201-947-0116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07024
22	劉秉千	YU BEONG CHEON	25	1943	12/29/25	定北	教授 文博	313-681-0005	2650 PINEVIEW W.BLOOMFIELD, MICH. 48033
23	金秉萬	KIM BYUNG MAN	26	1944	9/1/25	咸興	事業	718-423-8678	58-30 E. HAMPTON BLUD BAYSIDE, N.Y. 11364

No	氏名	英文名	卒回	卒年	生年月日	故郷	職業	電話	住 所
24	李柱衡	LEE CHOO HYUNG	26	1944	3/24/25	咸興	醫師	704-437-0493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25	權鎮城	KWON JIN SUNG	26	1944				309-685-3219	3008 N. UNIVERSITY AVE PEORIA, ILL. 61604
26	金澤濟	KIM TAIK CHAE	26	1944	2/18/24	高原	醫博	804-971-8060	2518 SMITHFIELD RD CHARLOTTESVILLE, VA 22901
27	吳炳憲	OH BYUNG HUN	26	1944	8/18/26	鍾城	貿易	201-290-0517	115 VERMONT CT. EAST MATAWAN, N.J. 07747
28	李浩敏	LEE HO MIN	26	1944				714-559-0774	33 CHOATE IRVINE, CA 92720
29	孫陽鳳		26	1944					
30	李根虎	LEE KEUN HO	26	1944	6/10/23	北青	事業	818-344-5798	19524 VALDEZ DR TARZANA, CA 91356
31	李英得	LEE YOUNG DUK	28	1945				516-261-5117	5 KETCHAM CT E. NORTHPORT, N.Y. 11731
32	尹允燮	YOON YON SUP	28	1945	5/15/27	咸興		818-988-9038	6438 HAZELTINE, #5 VAN NUYS, CA 91401
33	朴浩高	PAK HO SUL	29	1946	5/24/30	咸興	事業	301-244-1111	15 OAKRIDGE CT TIMONIUM, MD 21093
34	韓世鎬	HAN SE HO	29	1946	1/25/28	咸興	藥博	212-933-5190	2960 GRAND CONCORSE, #4B BRONX, N.Y. 10458
35	金和極	KIM ABRAHAM	26	1946		咸興		718-461-8372	35-11 149 PLACE FLUSHING, N.Y. 11354
36	金淳郁	KIM SUN WUK	29	1946	1/11/29	咸興	醫博	201-224-0346	1275 15 ST. #5L FORT LEE, N.J. 07024
37	金弘杓	KIM HONG PYO	29	1946	9/25/29			718-428-5931	243-49 72 AVE DOUG LASTON, N.Y. 11362
38	金鳳舜	KIM BONG SOON	29	1946				718-376-6234	428 AVE. P BROOKLYN, N.Y. 11223
39	李權燮	LEE KWON SUP	29	1946				718-352-7060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40	金雄植	KIM UNG SIK	29	1946	1/5/29	咸興	醫博	614-457-2079	5288 ROCKPORT ST COLOMBUS, OHIO 43220
41	金在楨	KIM ZAE ZEUNG	29	1946	2/21/29	咸興	醫博	414-962-3610	4521 N. WILDWOOD AVE MILWAUKEE, WIS 53211
42	李培石	LEE BAE SUK	29	1946	11/20/29	咸興	醫博	614-373-6294	407 BOHL DR MARIETTA, OHIO 45750
43	李通燾	LEE TONG HOON	29	1946	4/30/28		醫博	919-864-4310	224 N. MAIN ST SPRING LAKE, N.C. 28390
44	李芳秀	LEE BANG SOO	29	1946	2/19/28			213-939-7057	708 S. LORRAINE BLUD LOS ANGELES, CA 90005
45	陳炳珍	CHIN BYUNG JIN	29	1946				714-534-5627	9900 ACACIA AVE, #71 GARDEN GROVE, CA 92641
46	韓在壽	HAN CHAE SOO	29	1946				213-386-6091	1209 SO. LAKE ST. #401 LOSANGELES, CA 90006
47	安 震	AHN JIN	29	1946	1/5/30	咸興		714-974-4540	2067 PARK LANE, #D ORANGE, CA 92665
48	朴永號	PARK YOUNG HO	30	1947			醫博	201-647-5777	7 QUILL PENWAY WARREN, N.J. 07060

No	氏名	英文名	卒回	卒年	生年月日	故郷	職業	電話	住 所
49	高勝榮	KOH SEUNG YOUNG	30	1947	12/12/30	咸興		718-352-9087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50	申森熙	SHINN SAMUEL HI	30	1947	3/15/30	咸興	牧師	213-483-6140	2220 BERKELEY AVE LOS ANGELES, CA 90026
51	金庚台	KIM KYONG TAI	30	1947	9/20/30	咸興	醫博	215-947-4652	3651 HEATON RD HUNTINGDON VALLEY, PA 19006
52	曹秉均	CHOH BYOUNG GYON	30	1947	7/15/29	洪原	醫博	216-524-9635	69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131
53	李仁根	LEE IN KUN	30	1947	9/10/30	定平		609-888-2488	327 REEVES AVE TRENTON, N.J. 08610
54	李性白		30	1947					
55	韓萬燮	HAHN MAN SOP	30	1947	3/20/30	咸興	工博	206/641/5739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56	趙 哲	CHO CHUL	30	1947	10/30/29	咸興	ENG- INN- EER		6010 N. LAWNSDALE AVE CHICAGO, ILL 60659
57	金恭根	KIM KONG KEUN	30	1947	12/2/30	咸興	醫博	216-838-4188	5536 FOREST LANE BRECKSVILLE, OHIO 44141
58	姜禮根	KANG RAE KEUN	30	1947				218-370-1503	23 LAGUALDIA AVE STATEN ISLAND, N.Y. 10314
59	黃載鎮	HWANG JAY G.	31	1947		忠南		914-472-2753	15 PENN BLUD SCARSDALE, N.Y. 10583
60	徐甲敬	SEO KAP KYONG	31				教師	808-373-9385	76 WAILUPE CIRCLE HONOLULU, HAWAII 96821
61	朴炳元	PARK BENJAMIN B.	31		10/20/29	咸興	醫博	413-567-9317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 01106
62	崔千德	CHOE DAVID C.	31		6/10/31	咸興		213-515-6112	3448 W. 171 ST TORRENCE CA 90504
63	李致和	LEE CHIE HWA	31					213-679-1783	4326 W. 142 ST. #8 HAWTHORN, CA 90250
64	李哲範	LEE CHUL BUM	31					213-836-8373	1769 S. HOLT AVE LOS ANGELES, CA 90035
65	李培善		31			咸興		614-373-6294	407 BOHL DR MARIETTA, OHIO 45750
66	徐泳煥	SEO YONG HWAN	31					713-466-1385	8134 IVAN RELB DR HOUSTON, TEXAS 77040
67	李元鏞	LEE WON YONG	31		12/29/30	咸興	教授	914-693-0004	29 SHELDON ARDSLEY, N.Y. 10502
68	韓東相	HAN DONALD	32					213-461-8806	5188 SPENCER ST. LAS VEGAS, NV 89119
69	金武燦	KIM MARTIN M.	32		11/25/32	咸興		213-735-6297	1740 CRENSHAW BLUD LOS ANGELES, CA 90019
70	李黃墳	LEE HWANG HON	32					213-933-6809	1136 VICTORIA AVE LOS ANGELS, CA 90019
71	尹鎬膳	YUN HO SONG	32					213-541-0549	5516 EAUCLAIRE DR RANCHO PALOS VENDES. CA. 90274

No	氏名	英文名	卒回	卒年	生年月日	故郷	職業	電話	住 所
72	裴英德	PAE YOUNG TOK	31		12/11/31			213-657-0745	8535 W. KNOLL DR, #101 LOS ANGELES, CA 90069
73	郭竣求	KWAK CHUN KU	31		1/1/31			416-842-3910	1231 BURNHAM THORPE RD W. OAKVILLE, ONT, L6J 4ZE, CANADA
74	尹慶德	YUN KYONG TUK	31					416-743-3634	128 CABERNET CIRCLE REXDAL- E, ONT, M9V 5A1, CANADA
75	崔昌松	CHOI CHANG SONG	33			咸興	醫博	20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 在美洲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任 員 名 簿

任員區分	回 數	姓 名	電 話 番 號	備 考
顧 問	8	馬 鐘 國	(301) 809-4157	
顧 問	15	金 子 勳	(718) 939-2591	
顧 問	15	金 基 惠	(718) 939-1713	
會 長	15	金 瑩 次	(201) 585-0813	
副 會 長	20	李 壽 求	(201) 385-9123	동부지역
	29	金 淳 郁		서부지역
	30	韓 萬 燮	(206) 641-5739	서부지역
總 務	30	高 勝 榮	(718) 352-9087	

姓 名	回數	現 住 所	電話番號	職 業
馬 鐘 國	8	17060 KING JAMES WAY LONDONDERRY TOWER.#520 CAITHERSBURG.ME 20877	(301)869-4157	
金 基 惠	15	144-14 38 AVE, #4C FLUSHING, N.Y. 11357	(718)939-1713	
金 子 勳	15	163-64 20 AVE.WHITESTONE, N.Y. 11357	(718)352-9439	醫博
金 瑩 次	15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7024	(201)585-0813	
劉 漢 鳳	16	2-16 CAPSTAN CT, COLLEGE POINT, J.Y. 11356	(718)767-1048	
金 義 鉉	18	124W.FRANKLIN ST, #413 BATIMORE, MD 21201	(301)752-1944	
都 相 禧	19	9 EVERBLOOM DR CRANSTON, R.I. 02920	(401)943-2598	醫博
李 壽 永	20	621 EAST MAIN ST, EERGENFIELD, N.Y. 07621	(201)385-9123	
韓 大 淑	20	STATION AOGDENSBURG, N.Y. 13669-2291	(315)393-3000	醫博
孫 俊 得				

姓 名	回數	現 住 所	電話番號	職 業
金 泳 鐘	20			
金時彥	21	1644-A KALAKANA AVE, HONOLULU, HAWAII 9682	(808)941-6557	
文相駿	22	148 BRETTONWOODS DR CRANSTON, R.I. 02920	(401)944-3319	
玄鳳學	23	95 ACORN RD WATCHUNG, N.J. 07024	(201)755-5412	醫博
金應浩	24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201)947-116	醫博
劉秉千	25	2650 PINEVIEW W.BLOOMFIELD, MI. 48033		教授
金秉萬	26	58-30 E.HAMPTON BLVD BATSIDE, N.Y.	(718)423-8678	事業
李柱衝	26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704)437-0493	醫師
權鎮城	26	3008 N.UNIVERSITY AVE. PEORIA, ILL.	(309)695-3219	
金澤濟	26	2518 SMITHFIELD RD CHARLOTTSVILLE, VA 22901	(804)971-8060	醫博
吳炳憲	26	115 VERMONT CT.EAST MATAWAN, N.J. 07747	(201)290-0517	
孫陽鳳	26			
李英得	28	5KETCHAM CT. NORTHPORT, N.Y. 11731	(516)261-5117	會社員
尹允燮	28	6438 HAZELTINE, #5 VAN NUYS, CA 91401	(818)988-9038	
朴浩高	29	150 KARIDGE CT.TIMONIUM, MD 21093	(301)244-1111	事業
韓世鎬	29	2960 GRAND CONCOURSE, #4B BRONX, N.Y. 10458	(212)933-5190	藥博
金和極	29	29 DURK DR NEW HIED PARK, N.Y. 11040	(516)365-7487	事業
金弘杓	29	41-42 ELBERTSON ST. #411 ELMHUST.	(718)426-6643	事業
金鳳舜	29	55-25 98 PLACE, #3L CORONA, N.Y. 11368	(718)592-5216	事業
李權燮	29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718)352-7060	事業
金雄植	29	5299 ROCKPORT ST. COLUMBUS, OHIO 43220	(614)457-2079	醫博
金在禎	29	4521 N.WILDWOOD AVE. MILWAUKEE, WIS 53211	(414)962-3610	藥博教授
李培石	29	407 BOHL DR, MALIATTA, OHIO 45750	(614)373-6294	醫師
李通燾	29	3325 QUARRY DR, FAYETTEVILLE, NC 28303	(919)864-4310	醫博
金淳郁	29	1275 15TH ST. #5L FORT LEE, N.J. 07024		醫博
李芳秀	29	708 S.LORRAINE BLVD, LOSANGELES, CA 90005	(213)939-7057	事業
朴永鎬	30	7 QUILL PENWAY, WARREN, N.J. 07060	(201)647-5777	醫博
高勝榮	30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718)352-9087	事業
申森熙	30	BETHANY UNITED PRESBYTERIAN CHURCH 1629GRIFFITH PARK BLVD, L.A. CA 90026	(213)664-2176	牧師
金庚台	30	3651 HEATON RD, HUNTINGDON VALLEY, PA 19006	(215)947-4652	醫師



曹秉均	30	69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131	(216)524-9635	
李仁根	30	327 REEVES AVE, TRENTON, N.J. 08610	(609)888-2488	事業
李性伯	30	2913 DOVER LANE, #203 FULLS CHURCH VA 22042	(730)560-4132	
韓萬燮	30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206)641-5739	工博
趙哲	30	6010 N.LAWDALE AVE, CHICAGO, ILL 43139	(312)588-1177	
金恭根	30	146377 WOODVERY DR, SOLON, OHIO 44139	(216)248-0581	醫博
黃載鎮	31	15 PENN BLVD, SCASALLE, N.Y. 10583	(914)472-2753	
徐甲敬	31	76 WAILPE CIRCLE, HONOLULU, HAWAII	(808)373-9485	教授
博炳元	31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 01106	(413)567-9317	醫博
崔昌松	3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203)677-8363	醫師

## 作 者 名 簿

### 第 2 回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簿  
朴海龍

### 第 3 回(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李種英

### 第 4 回(舊制)

朱幹欽 金載鼎

### 第 5 回(舊制)

韓昌源 朴重剛 金桂淑

### 第 6 回(舊制)

韓參淵

### 第 6 回(新制)

崔榮根 姜洙玟 李鳳寅 朱源

### 第 7 回(舊制)

韓桔容 咸興基 李載 崔馨 朴興陽

### 第 7 回(新制)

韓道淑 韓鎮億 林壁榮 蔡洙崗

### 第 8 回(以下 新制)

金昌洙 金濬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舊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鐘九 朱德淳 劉載昊 金龍背 池鏞夏

### 第 9 回

金基漸 金信遠 李鎬亨 朱洛瓚 朴台三 高承晉 金相涉 金載元

### 第 10 回

金應錫 金義昌 金昌善 宋相益 朴義鉉 吳昌淑

### 第 11 回

金永鎮 金明鎮 金致源 南鳳淳 盧忠吉 朴文燦 朴用善 方亨練  
宋義鏞 李炳逸 李東洙 李應麟 尹明海 鄭致鎔 張鉉稜 趙容昊  
韓明功 韓湖石 朴忠鎮

第 12 回

金鏞千 朱之鎬 朱元鎬

第 13 回

姜龍彬 金教寅 文天洙 安壽吉 李潤生 張仁奉 朱 葉 韓吉鎬  
韓鐘詔

第 15 回

金道俊 李永昊 李求翰 李弘均 李祖甲 李成洙 李容成 李永秘  
金信德 趙來春 韓麟植 李寬英 李日赫 高聖均

第 16 回

泰承國 申明燮 韓秉子 太學基 朱洙元 朱鍾式 金連珪 金聖河  
李東秀

第 17 回

林重治(舊重玉) 李祥生 盧鍾閑 金智赫 金禹涉

第 18 回

玉文鉉 朴範集 柳炯達 韓祥鳳 沈澤星 李寬燁 李泰榮

第 19 回

金炳七 金生賓 金松瑩 金秀行 金益浩 金鐘浩 金楨軫 金漢奎  
金亨泰 金豪南 朴鵬榮 申泰實 李明煥 李秉泌 李致德 張衝武  
全榮林 韓秀曾 朴燦國 朱基鍾

第 20 回

文哲 邊普燁 申東俊 李昌協 全世經 鄭宗殷 朱忠垣 崔淳祚  
太廈 基韓榆 黃載駿

第 21 回

韓台集 李東機 林根赫 李基鍾 朴東振 金昇奎 柳培殷 金鏡煥

第 22 回

金亨信 金載璉 金鏡煥 李謹洙 朴聖煥 申衝均 申鉉和 全銘鶴  
朱榴鎭 朱鐘喆 韓秉濠 韓讚植 張榮國 崔準楨

第 23 回

金教吉 金基壁 金南鶴 金東炫 金榮根 金泳杰 金佑謙 徐載卿  
尹士榮 李仁勳 李延輯 崔相國 崔儀憲 崔熙澤 李萬鎬

第 24 回

金鐘鳳 盧永達 朴文卿 李基赫 金鉉五 趙在龍 崔溶憲 韓錫武  
韓永根 洪鉉基 玄斗映 金泰錫

第 25 回

文虎 朴承咸 秦炳洛 朱桓斗 洪相弁 趙擘

第 26 回

金熙燦 申南均 李學守 李錫衡

第 27 回

韓鐸聲 玄鳳燕 韓栽永 曹圭榮 丁基範

第 28 回

金教一 金泳八 金鎔九 朴吉淵 邊道燁 宋守根 劉大植

第 29 回

金秉熙 金潤鎬 金鎮鎬 文杓周 辛基壽 安永吉 楊仁道 李東哲  
韓相喆 李楨得 張炳九 韓祥珏 辛윤철 玄斗正 徐尙郁 陳伯林

第 30 回

高吳式 金泳夏 金英根 金寬式 朴壽淵 朴哲李始鐘 張時珍  
鄭峻 趙弘河 陳國永 韓增鎬 盧甲炳 崔昌杰 金聖治 金基南  
崔斗吉 金永善 張亨龍 李昌植 孔麟洙

第 31 回

高義哲 李弘根 林鳳來 弼珠光 韓泳運 金玉金 韓秉極 李城洙  
金弘潤 盧善善 徐三澤 安培植 梁泰龜 劉潛成 嚴鎔洙 李相稷  
李星九 李容均 朱鐘和 崔德俊 崔燦在 魚演昌 權由胄

第 32 回

金聖南 金在坤

第 33 回

吉明河

## 編輯後記

지난해 發刊豫定이던 同窓會誌가 해를 넘겨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을 동창 여러분 특히 物心兩面으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美洲支部會員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33期 同窓들이 이미 回甲을 넘긴 서글픈 同窓會이다보니 발벗고 나서 뛰어줄 젊은이가 없는 실정에서 會誌刊行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第1號 및 第2號 出刊때에는 朴溶夏總務가 거의 혼자 뛰다싶이 애써 주었고, 第3號出刊을 위해서도 各期幹事를 통해 여러번 원고청탁을 하였지만 여의치 못해, 幹事會議에서 몇 분의 編集委員을 指名해서 會議끝에 敎職에 있는 분, 문필가. 경력이 화려한 분등 글을 써주실 수 있을만한 동창들을 골라 개인 앞으로 원고청탁 서신을 보내는 동시에 각 위원이 연고를 따라 몇분씩 분담하여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서 원고를 청탁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이에 응해 주셨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귀중한 옥고를 보내 주신 동창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부족을 염려하여 두편이상의 옥고를 보내주신분들도 여러분 계셨는데 예상외로 많이 모인 원고 때문에 모두 게재하지 못하고 한분에 대해 한편(시는 두편)씩만 실기로 합의 결정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호에 실지 못한 옥고에 대해서는 투고해 주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호에 실기로 합의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回甲을 넘긴 初老들이 바쁜시간에 서둘러 교정 편집을 하다보니 誤植 誤字, 脫字등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곳을 발견하시더라도 동창, 특히 투고해 주신 동창 여러분들이 너그러히 보아 주시면 고맙겠다. 校正을 나 외에 趙東喆(28回), 鄭哲周(29回), 朴溶夏(30回), 金明哲(31回) 同窓들이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同窓會誌刊行에 것처럼 열성을 보이시던 前 會長님이 生前에 第3號誌 出刊을 보지 못하신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故人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1990.9.21 韓鼎燮

# 同窓會誌 3號

1990年 9月 30日 印刷

1990年 10月 9日 發行

發行人 朴東昴

電 話 576-3636 773-4736

發行處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連絡處 서울道峰區 彌阿4洞 137-24

電 話 980-3100 981-3900

總 務 朴 溶 夏

(會員用) (非賣品)

\* 表紙說明 \* 咸興高普(咸南中學)의 象徴인 螢雪을 表象함.

■ 題 字 : 玄堂 朴泳馥(第24回)

■ 表紙그림 : 李 鎬 植(第30回)

■ 製 작 : 집 문 사 586-4494



# 第 3 號 同窓會誌 出刊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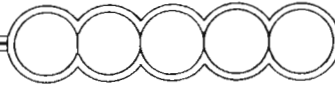
第 26 回 同期生一同

會長 金鍾殷

幹事 吳哲求

(28回 모임 아카시아회)

幹事 太範植



第 3 號 同窓會誌 出刊을  
祝賀합니다.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前副會長 趙東喆 (第 28回)

